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4 호(408)

차 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온 나라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네돐을 최대의 민족적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력사에 영원히 빛나는 위대한 년대기로 아로새겨진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싸워나가는 끝없는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민족의 피타는 갈망을 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오랜 세월 오직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조선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인류해방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으며 한없이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족재생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장에서 당당히 전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의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충성의 붉은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고 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　　*

한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자존심과 자신심은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민족은 망할수 있지마는 민족적긍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진 민족은 불패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48폐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는 높은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며 자생자결하려는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다.

참다운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는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조국,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과 숭고한 혁명위업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의 정당한 위업과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다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민족자주정신이 있을수 없다.

드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혁명하는 인민들의 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그것을 가지고있

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 간직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며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여나가는데서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드높은 자부심을 가진 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용감히 뚫고나가는 불패의 억센 힘을 지니며 그렇지 못한 인민은 무기력하게 된다.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히 가지고 자기 조국과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하여야 온갖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나라의 륭성발전을 끊임없이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오늘 혁명과 건설이 나라별로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절실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금처럼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는 결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그들이 지닌 민족적의무이며 동시에 국제적의무이다. 결코 나라와 민족을 떠난 그 어떤 추상화된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오늘 매개 나라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첨예한 투쟁속에서 진행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 수 없다.

인민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그 인민이 가지는 고유한 우수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현되지만 거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참다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한 민족의 지위와 영예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수령의 위대성과 그의 령도적권위는 그 민족의 위대성과 권위이며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 인민대중의 절박한 념원과 리익을 반영하여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수령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영원히 계승하여야 할 고귀한 혁명전통을 창조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나간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참다운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은 민족수난의 시기에도 오직 수령을 우러러 힘을 얻고 거창한 건설의 시기에도 수령의 두리에 뭉쳐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 더 큰 행복은 없다.

중중첩첩한 시련의 고비를 넘고 고난의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승리의 한길을 개척하여온 우리 인민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자주적인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울수 있으며 조국의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국의 광복과 민족재생의 새날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가장 높은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상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을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중앙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질것이며 로동당원이 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것이며 또 우리 당이 지도한 모든 일이 다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끌고있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98페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밝은 앞길을 찾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고 세기에 길이 빛날 기적과 변혁의 자랑찬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땅우에 창조된 천대만대를 두고 노래할 위대한 변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나가는 행복과 영예가 얼마나 큰것인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를 심장으로 체험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지난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함으로 하여 피눈물나는 민족수난의 력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야수들의 강점으로 온 강토에는 암흑의 장막이 무겁게 드리우고 조선은 살기띤 죽음의 생지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애국적인민들의 붉은 피가 흐르고있었다.

일제의 총칼이 살판치고 인민들의 설음이 온 강산에 사무친 땅, 인간의 존엄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민족의 모든 아름다운것이 빛을 잃은 암흑의 땅, 이것이 식민지노예의 철쇄에 얽매였던 어제날의 조선이였다.

비분에 찬 인민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항거의 거리에 떨쳐나섰으나 그때마다 가슴아픈 희생만을 남기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민족이 당하는 재난과 시련은 날을 따라 더욱 심해만 갔다.

이 엄혹한 시기에 이른바 《애국자》로 자처하는 형형색색의 《운동자》들과 《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파벌싸움에만 몰두하면서 인민들의 투쟁에 막대한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리하여 조선혁명은 시련의 소용돌이속에서 모대기였으며 인민대중은 갈길을 찾지 못하고 암흑속에서 더욱 헤매이게 되였다.

인민들은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도탄에 빠진 민족, 위기에 처한 혁명을 전져줄 민족의 태양,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애타게 기다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 인민대중의 피타는 갈망에 대답하시여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준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조국을 구원할 큰 뜻을 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첫시기에 시대와 혁명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열어주시였으며 백두의 령봉에 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고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의 언덕을 수없이 넘으시며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환경에서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혈전의 수십만리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굽임없는 앙양의 한길로 이끄시여 마침내

조국을 광복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억년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인 불멸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며 더없는 민족적긍지이다.

이 땅에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대강, 새 조국 건설의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력사상 첫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인민정권과 근로단체, 혁명무력을 세우시였으며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삼키려고 달려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꺼꾸러뜨림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마사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가루만이 흩날리는 빈터우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일떠세워 나라를 더 훌륭하고 더 웅장하게 건설하는 세기적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과 3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빛나게 완수하시고 자본주의나라들이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쳐 수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0여년동안에 수행하는 찬란한 성과를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패의 위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시고 인류를 파쑈의 노예화와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에서 구원하며 세계혁명과 인류의 진보를 촉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의 군사적천재이시며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펼치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계혁명과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그처럼 높이시고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변혁의 시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가장 숭고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충성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신 해방의 은인이시고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 현명한 령도로 영원히 빛날 인류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신 사상의 천재, 령도의 천재이실뿐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삶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정치적생명은 사람에게 영생하는 참다운 삶의 영예를 안겨주는 가장 귀중한 생명이다. 정치적생명이 있는곳에 참다운 삶이 있고 인간의 존엄이 있고 가치가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한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삶을 누리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며 더없는 민족적

긍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닌 존엄있는 인민으로 세상에 다시 태여날수 있었으며 진실로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발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길가의 조약돌마냥 여지없이 짓밟히고 정치밖에서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우리의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걸어온 영광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이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신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 그들의 피여나는 웃음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로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풀어나가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이 나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 대한 만대에 길이 전하여질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꽃피여가고있으며 온 나라가 행복의 노래, 충성의 노래로 차넘치는 지상락원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로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다함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령도밑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크나큰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온갖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백전백승의 불패의 혁명적당의 세련된 령도를 받는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혁명적인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강철의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강철의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에서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조선의 오늘의 장엄한 현실을 창조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는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전면적으로 발휘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만이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가장 유족하고 행

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이 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9~350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고있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드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인민들의 참다운 영예와 행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것을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을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제도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그 우월성의 중요한 원천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고있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자기의 존엄과 인격을 최대한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생활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골고루 잘살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가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고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는것은 우리 사회의 특징이며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련결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이어진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무모한 침략도 쳐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자부심과 긍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절대적인 세계적권위와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와 잇닿아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시며 그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고 진심으로 흠모하는것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시대의 앞길과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혁명의 영재》,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의 혁명적기치이며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혁명의 참다운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현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천명하시여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힘있는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하기에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사상의 불씨를 안겨주시는 홰불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라고 한결같이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한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오늘의 륭성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주체의 조국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

활과 더욱 찬란한 래일이 있고 세계에 소리높이 자랑하는 드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궁지가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크나큰 행복과 영예, 다함없는 혁명적 자부심과 궁지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며 우리 인민의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이다.

참다운 민족적 자부심과 궁지는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길에서만 깊이 간직되고 빛내여나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어버이수령님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하며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서 충성다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권위를 충성으로 옹호보위하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혁명적신념으로 만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가장 숭고한 충성심을 지녀야 한다. 우리들은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기의 혁명초소를 꿋꿋이 지키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어버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우리모두의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인민의 참다운 행복이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의 다함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며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끊임없이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주체의 조국》의 위력을 세계에 더욱 높이 떨칠수 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일하는 민족적궁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

인민들속에서 혁명적 자부심과 궁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먹는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빼야 한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사람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충성을 다하여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싸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궁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다

최　　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망국의 비운속에서 우리 조국을 전져주시고 우리 인민을 구원하여주신 만고에 길이 빛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처음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뿌리박힌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슬하에서 40여년간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을 하여온 우리 항일혁명전사들의 심정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신념과 심정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어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불멸의 송가로 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하여 부르는 심장의 노래, 불멸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소리높이 칭송하고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노래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퍼지고있으며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처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와 영광, 더 큰 자랑과 행복은 없다.

해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을 때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이의 탄생 예순네돐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여주신 세기에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1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망국의 검은 구름이 드리웠던 이 강산에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였다.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1920년대는 우리 민족이 최대의 수난을 겪고있던 캄캄한 암흑시대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온 나라를 총칼로 뒤덮고 우리 나라의 모든 재부, 모든것을 닥치는대로 모조리 략탈해갔으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지어는 우리 말과 이름마저 빼앗아냈다.

피비린내나는 일제의 구두발에 온 3천리강토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인민들은 도탄속에 빠져 신음하고있었다.

인간이하의 무권리와 멸시, 천대와 박해, 굶주림과 헐벗음, 이것이 바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의 생활이였고 운명이였다.

살래야 살길 없고 죽을래야 묻힐 땅마저 없는 모진 가난과 천대 속에서 헤매이던 수많은 겨레들은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현해탄과 두만강, 압

록강 물결에 피눈물을 뿌리며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류랑의 길을 떠나갔다.

예로부터 애국열에 불타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맹을 떨쳐온 우리 인민은 일제침략자들에게 그저 순종하고 억눌리고 뜯기우지만 않았다.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은 항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결연히 일어나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도 하였고 애국문화정치운동도 전개하였으며 1919년에는 전인민적3.1봉기도 일으켰고 1926년에는 6.10만세시위투쟁도 벌리였다.

투쟁과 운동은 그칠새없이 계속되였으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정확한 로선도 가지지 못하고 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옳바른 령도도 받지 못한채 원쑤들의 탄압앞에 그때마다 무참히 짓밟히고말았다.

온 강토는 일제야수들이 휘두르는 총칼에 의하여 피바다속에 잠겨 몸부림쳤으며 혁명은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부둥켜안고 모대기였다.

인민들은 재생의 길, 광복의 길을 찾아 모대기였고 옳은 령도를 그려 헤매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고아대는 《독립운동자》들과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돌아치는 정객들은 확고한 주의주장도 없이 제가끔 딴소리를 하며 대중을 우롱하고 혁명을 혼란에로 이끌어갔다.

망국비운을 통탄만 하는 우국지사가 있는가 하면 《외세의존론》을 떠벌이며 큰 나라에 《독립청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독립구걸을 하는 민족주의자도 있었으며 지어는 독립의 기발을 내던지고 《민족자치론》을 부르짖는 민족개량주의자도 있었다.

또한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의 몇마디만 외워가지고 목에 피대를 세워 《무산혁명》만 웨치는 행세식맑스주의자도 있는가 하면 목청을 돋구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만을 고집하는 우경기회주의자도 있었다.

인민들은 투쟁의 정확한 로선을 모색하고 운동의 옳바른 령도를 그려 모대기는데 이 온갖 어중이떠중이들과 형형색색의 행세군들과 정치적협잡군들은 인민들과 동떨어져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쓸데없는 말공부를 하면서 목침싸움만 하였으며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파벌싸움만 일삼고있었다.

열사람이 열가지 소리를 하고 백사람이 백가지 지휘봉을 내젓는 혼란과 란동속에서 우리 민족은 더욱 부대끼고 혁명의 앞길은 더 막막해졌으며 조국땅에 드리운 먹장구름은 점점 짙어만 갔다.

수난이 겹쌓이는 그 암담한 나날에 《지도자》로, 《운동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싫도록 보아온 우리 인민은 남달리 위대한 수령을 그리였으며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도탄에 빠진 민족을 건지고 재생의 광명한 빛을 비쳐줄 민족의 태양, 기울어진 혁명을 구원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줄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피타게 갈망하였고 안타까이 기다렸다.

투쟁의 정확한 길을 찾아 헤매이고 운동의 옳바른 령도를 그려 모대기는것은 조선만이 아니였다.

20세기 20년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공통적인 암흑의 시대였으며 수난의 시대였다.

억눌리고 뜯기우는 식민지세계는 모멸과 굴욕 속에서 광명과 출로를 찾아 몸부림치고있었다.

식민지인민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민족해방의 길을 개척할수 없다는 기성의 철학과 리론에 찌혀있는것과는 다른 길을 찾아 모대기고 있었으며 그러한 세계관과 리론을 밝혀줄 사상의 천재, 혁명의 영재, 위대한 태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력사의 절박한 요구, 우리 인민과 피압박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시대와 인류의 피타는 부름속에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전과 길림, 카륜과 오가자의 거리와 마을들에서, 간악한 원쑤들을 반대하는 격렬한 싸움속에서, 완고한 민족주의자들과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길림감옥의 철창속에서 온 겨레의 사무친 념원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통감하시고 태동하는 인민의 힘을 가늠하시며 인류사상사가 도달한 모든 진보적사상리론들과 피로 얼룩진 약소민족들의 수난사를 깊이 파고드시며 새로운 혁명의 길을 탐구하시였다.

백두의 맑은 정기를 타고나시고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젊으신 나이에 벌써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에 높이 오르시여 만리혜안으로 시대의 요구와 세기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 휘황한 빛발로 우리 인민과 피압박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히시였다.

언제나 모든것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시고 혁신적안목으로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가지고있던 본질적약점과 제한성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시고 새로운 세계관과 독창적인 리론으로 압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해방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적인 투쟁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새로운 길을 밝혀준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밝은 빛을 비쳐주고 피압박인민들에게 재생의 광활한 길을 밝혀준 해방의 등대였으며 착취와 압박이 없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최고리상사회건설의 휘황한 길을 열어준 희망의 홰불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참으로 인류사상과 리론, 시대와 혁명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리론은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였으며 인류는 새로운 세계관과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가지게 되였다.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피압박인민이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가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 카륜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캄캄한 이 강산에 태양으로 높이 솟아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심으로써 오랜 기간 수많은 파란곡절과 쓰라린 진통을 겪어오던 우리 혁명은 자기의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가지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올바른 길, 주체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승승장구하는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세상만물이 태양의 빛이 있어 언제나 푸르싱싱 자라나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쳐주신 주체의 찬연한 해살을 받은 우리 민족은 생기에 넘쳐 머리를 쳐

높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갔으며 수령님을 우러러 조선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며 승리의 신심과 무한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반일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앞길을 밝혀주기에 그 암담한 일제식민지파쑈통치의 폭압속에서도 조선은 굴하지도 죽지도 않고 싸웠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의 기상과 용맹, 슬기와 재능을 계속 떨쳐나갔다.

우리 인민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웠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그러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처음 맞이한 그때로부터 벌써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열망하여 김일성동지라는 존귀하신 성함으로 높이 우러러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의 성전에 뛰쳐나선 조선의 열혈청년들, 우리 항일혁명전사들의 가장 큰 소망도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혁명한 령도따라 싸우다 백두산에 묻히는것이였다. 하기에 우리들은 기나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를 따라 살며 싸워승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 그것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표시이며 수령님을 하늘땅의 끝까지 영원히 따르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어둠이 짙어있고 세기적인 잠에서 깨지 못한 대륙들과 구석진 나라들에까지 찬연한 빛을 뿌리며 압박받고 착취당하던 인민들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일떠세웠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인민의 태양이실뿐만아니라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태양》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력사의 가장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혁명의 붉은 기치, 주체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시다.

인류의 해방투쟁력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한 걸출한 위인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지만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는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싸우신 그런 위대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를 알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해방하는 길이라면 험난한 가시덤불길도, 광풍이 휘몰아치는 폭풍속에도, 사생결단의 마당에도 한몸바쳐 나서시였으며 형언할수 없는 무수한 곤난과 엄혹한 시련이 련속되는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여주신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수천년의 자랑찬 력사의 흐름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위대한 애국자, 탁월한 수령을 알지 못하고있으며 일찌기 맞이한 일도 없었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진 민족수난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애국자》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수많이 보았으나 그들모두는 일제의 탄압앞에 주저앉거나 혁명이 간고하여짐에 따라 적

들에게 투항변절하고말았다.

한때 망국의 통분으로 반일의 총검을 들고 일어섰던 의병과 독립군의 이른바 《영웅호걸》들과 독립의 구호를 요란스럽게 웨치며 열변을 토하던 《유지신사》들은 일제놈들이 휘두르는 총칼에 위압되여 하루아침사이에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자취를 감추었다.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에 휩쓸려 로동운동에 발을 들여놓았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혁명가》로,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투쟁에 나섰던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자 시정배로 전락되거나 지어는 적의 품으로 기여들어갔다.

오직 인민의 념원을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온갖 시련들을 한몸으로 막아헤치시고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여주시였다.

만경대의 위대한 혁명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애국의 높은 뜻을 키워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남달리 나라를 빼앗긴 인민들의 설음과 고통을 통감하시고 젊으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과 나라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겨레의 참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으며 인민들을 도탄속에서 구원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페지)

망국노가 된 온 겨레의 사무친 원한과 념원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젊으신 나이에 애국의 고결한 뜻과 조국광복의 숭고한 맹세를 다지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의 혁명적기치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였다.

그 길은 험난하고 생소한 길이였다. 거기에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도 있었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실로 그 길은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준엄한 사선의 고비를 헤치고 또 헤쳐나가야 하는 험로였으며 인류가 아직 한번도 걸어본 일도, 상상해본 일도 없는 혁명의 초행길이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려 간고하고 생소한 투쟁의 길을 선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회주의사상조류가 범람하는 길림과 화전, 겨레들의 원한이 사무친 카륜과 오가자와 고유수, 백색테로가 살판치는 해룡과 교하, 할빈과 돈화 등지에서 종파의 오물에 물들지 않은 순결하고 참신한 공산주의핵심들을 키우시고 소박하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묶어세우시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실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 그것은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쳐나가야 하는 준엄한 반일민족해방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은 하루이틀도 아닌 기나긴 15성상을 비바람과 눈서리가 내리는 광야와 천고의 밀림에서 풍찬로숙하며 한톨의 쌀, 한쪼박의 천, 한자루의 총도 보장받을곳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강적 일제와 생사를 가름하는 혈전을 끊임없이 하여야 하는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은 자욱자욱 피로 아로새겨진 혈전의 련속이였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험한 길을 헤쳐온 천신만고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그렇게도 열렬히 사랑하시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시는 분

이시기에 항일무장투쟁앞에 가로놓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내시고 그처럼 위험한 혈로를 진두에서 열어나가시였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새로운 위기들을 끊임없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안도로부터 로흑산에 이르는 고난에 찬 투쟁,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한 위사령과 오의성과의 담판, 무지몽매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벌린 반《민생단》투쟁의 광란적인 소동, 좌경모험주의자들이 강요한 《열하원정》의 심각한 시련, 총검의 숲을 헤치고 조국에로 진군한 《고난의 행군》, 쏘일평화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동요와 일제의 발악적인 정치군사적총공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나운 풍파들을 한몸으로 막아헤치시고 간고한 조선혁명을 계속 끊임없는 앙양에로, 백전백승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1940년대 전반기의 숨막히는 세계동란속에서도 혁명의 붉은 기치,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도 일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여주심으로써 오랜 세월 망국의 치욕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빼앗겼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광복된 조국땅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압박없고 착취없는 새사회를 건설하고 마음껏 살아보려던 력사적숙망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수많은 사선의 고비를 넘고넘으시여 조국을 광복하시고 우리 인민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 여기에서 엮매맺은 불멸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정한 애국자는 공산주의자라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위대한 분이시며 만고에 류례없는 험로를 헤치시고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시다.

3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군사 사상과 리론,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로써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다.

강철의 령장, 전설적영웅—이 높은 칭송속에는 걸출한 군사사상가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수많은 군사적기적과 령군술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이 흘러넘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신 끝없는 자랑과 긍지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놓이고 망국의 비운이 온 겨레의 어깨를 짓누르고있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장기간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이 대상한 일제침략군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군대였으며 침략전쟁에 이골이 나고 략탈행위로 강대해진 날강도였으며 국제반동의 아세아《돌격대》로 등장한 파쑈무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이러한 침략군, 그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100만관동군과 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야마도다마시》와 《무적황군》을 자랑하면서 오만무례하게도 온 아세아를 단숨에 삼키려고 《대동아공영권》을 내걸고 침략전쟁에 미쳐날뛰였다.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닿는곳에서는 도시와 마을이 모조리 불타고 인민들이 무참히 쓰러졌으며 모든 재물을 여지없이 략탈당하였다.

바로 일제가 침략과 략탈, 살인과 방화로 세계를 전률시키고있을 때 20대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께서 두주먹밖에 없는 식민지약소국가인민의 참담한 처지에서 강적 일제와 맞서싸울 항일대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으니 이 사실 자체가 전설같은 사실이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인민들이 자체의 무장력량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의 위업을 수행할수 있다는 전략사상과 리론이 없었으며 또 식민지인민들의 힘을 한데 묶어세워 자기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본격적인 새형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을 벌릴 용단을 내린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탁월한 사상과 리론,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 시대의 흐름을 거머쥐시고 이끄실 큰 도량과 용맹,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아무리 강대하고 흉악한 제국주의침략무력이라도 온 민족이 떨쳐나 자주의 기치밑에 무장을 들고 끝까지 싸우면 이길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시고 자주적인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길을 밝히실수 있었으며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쳐날뛰는 강도 일제와 정면으로 무장대결을 선포하실수 있었다.

그때 세계는 압박받고 천대받던 조선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에서 시대의 새아침을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필승불패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에 기초하시여 유격전에 관한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주체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무장투쟁의 매 단계마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군사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해나가심으로써 최초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인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무장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그 어느 병서에서나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활무쌍한 전법과 천변만화하는 유격전술들을 능란하게 활용하시여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무적》을 자랑하는 일제대군을 마음대로 족치시고 쓸어눕히시였으며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 타승하시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유격전을 벌려나가는데서 유격대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많은 적을 소멸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 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보다 많은 적을 소멸하는 유격전술의 기본원칙으로부터 집중, 분산, 이동하는 령활한 전술로써 일제놈들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때려부시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전면적인 《위공작전》을 배후교란작전으로,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의 적들의 《참빗전술》을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의 배합작전으로,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의 놈들의 대규모적인 《봉쇄작전》과 《포위작전》을 대부대선회작전으로 적들의 《토벌》작전을 그때마다 산산이 짓부셔버리고 주동적으로 놈들을 족쳐나가시였다.

일제의 대군을 한줌에 걷어쥐시고 쥐락펴락하시며 쳐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전법과 탁월한 전술은 참말로 전설에서 나오는것과 같이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령활무쌍하고 천변만화하는 독창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능란한 집중과 분산, 이동으로 원쑤들이 도사리고있는 곳마다에 인의의 시각에 나타나시여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며 한곳의 적을 고립시켜 소멸하기도 하고 적은 력량으로 적을 유인하여 대적을 불의에 타격하며 적들의 한가운데에 끼여들었다가 재빨리 빠지여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며 멀리 이동하는척 하다가 적의 코밑에 돌아앉기도 하고 단숨에 천리를 내달려 적을 혼란시키기도 하는 천변만화의 전술을 능숙하게 적용하시여 적들을 언제나 수세와 피동에 빠지게 하시였다.

산을 주름잡고 강을 날아 건느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있다가도 없어지

고 없어졌다가도 번개처럼 나타나 적을 족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출귀몰한 전술앞에서는 침략전쟁에서 이골이난 악명높은 일제의 파쑈두목들과 살인장군들도 패전장군의 몰골을 면할수 없었으며 《정예》를 뽐내던 일제침략군도 쓰디쓴 참패를 련속 맛보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 앞에서는 적들의 그 어떤 기묘한 책략이나 전술도 맥을 출수 없었으며 《강대성》을 자랑하던 관동군도 삼대넘어지듯 쓰러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도처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족치시여 놈들에게 넉살탕을 먹이셨다는 수많은 통쾌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인민들은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고 어두운 장막이 끝나갈 날을 손꼽아기다렸다.

사람들의 그림자는 동쪽에서 얼씬했는데 총소리는 저편 서쪽에서 나더니 왜놈군사가 순식간에 몰살되였다는 이야기며, 난데없는 바람소리가 일자 일제침략군놈들이 늘어서있는 땅거죽이 불시에 오그라졌다가 쭉펴지면서 놈들을 몽땅 허궁 들어 태질을 치더라는 이야기며, 유격대를 《토벌》한다고 호통을 치면서 이리떼처럼 수림속으로 들어가던 일제놈들이 눈깜박할 사이에 몽땅 송장이 되여 나오더라는 이야기 등 위대한 수령님의 신출귀몰하는 전술과 전법에 놈들이 맥을 못추고 녹아났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는 인민들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났으며 그것은 온 3천리강산에 급속히 퍼져갔다.

이것은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와 절망을 주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민족적긍지를 안겨주었다.

그 많은 전설들은 결코 단순한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일제놈들과 실지 싸우는 과정에서 발휘된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무쌍한 령군술, 독창적인 유격 전술과 전법들에 그 사실적인 바탕을 두고있는 전설이 아닌 전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대담한 작전과 상상할수 없는 기발한 묘안, 언제나 주동적이며 단호한 군사행동으로 적을 처부심으로써 수많은 전설들을 낳게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식민지파쑈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도 해빛처럼 퍼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주체전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거기에서 새힘과 용기를 얻었고 조국광복의 앞날을 그려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모든것을 빼앗긴 우리 인민의 희망의 등대, 해방의 구성으로 되시였으며 전설적영웅, 강철의 령장으로 온 누리에 그 명성을 떨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정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캄캄한 어둠속에서도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삼천리 온 강토에 차고넘치였고 이것은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이렇듯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령활한 전략전술과 신묘한 령군술로 수천수백배되는 강적을 녹여내는 수많은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여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사를 휘황찬란한 영웅서사시로 수놓으시였다.

4

만고의 전설적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은 적들에게는 백두산호랑이로 무서운 분이시지만 우리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어버이이시다.

장군님께서는 로인을 존경하시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참으로 지극하신 분이시다.》라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은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죽음과 공포를 안겨주시였지만 우리 인민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며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20성상을 하루와 같이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시였다. 그러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언제나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시여 인민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피바다, 불바다의 수십만리를 걸어오시였다.

전투와 행군으로 련속되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풍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한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져있다.

한겨울 자신께서는 홑옷을 입으시고 지내시면서도 인민들이 정성담아 선물로 지어드린 솜옷과 신발마저 로인에게 돌려주시였고 잠자는 집주인을 깨우지 않으시려고 찬서리내리는 한밤을 밖에서 지새우시며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손수 나무도 패시고 물도 길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조선의 사과맛을 보지 못한 근거지 어린이들을 위하여 생사를 가름하는 전투에서 로획한 사과를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였으며 세상과는 등지고 로야령산중에서 숨어사는 로인에게 《살길을 찾아온 이국땅에서까지도 이처럼 해빛도 보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하시니 젊은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큽니다.》라고 사과까지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 실로 인민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인자하신 풍모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망원보초에 나갔던 한 신입대원이 집무지속에서 따온 강냉이를 놓고 그 주인에게 사과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영상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그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신입대원을 엄하게 지적하시고 친히 두 대원을 적통치구역에 파견하시여 강냉이임자를 데려오게 하시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로인님 모르게 밭에 세워둔 강냉이무지에서 이렇게 여삭을 따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십시오.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우리들이 로인님 모르게 낟알에 손을 대였으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대오를 책임진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부디 노여워마시고 널리 용서해주십시오.

수난당한 조국과 도탄에 빠진 인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신만고하시며 싸우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 대원이 따온 강냉이 몇이삭을 놓고 이처럼 이름없는 한 농민에게 사과하시는 그 위대하고 숭엄하신 심중을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대원들은 그처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싸울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으며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잃고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생활에 대하여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으시였으며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항상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자애로운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전투를 조직하시여도 언제나 인민의 생명재산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시였고 인민의 리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날에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설을 쇠면 그들에게 페를 끼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시여 대원들과 함께 조밥을 드시며 설을 쇠시였고 마을의 성벽에 의지하여 싸우면 유리하였지만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없게 하시려고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을 맞받아나가 싸우도록 전투를 조직하시였다.

오직 인민을 위하시는 뜨거운 마음을 지니시고 모든 사색과 정력, 심려와 로고를 고스란히 인민을 위해 바치시며 행복도 기쁨도 인민을 위한 투쟁속에서 찾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실로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한줄기의 빛마저 그렵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고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었다.

오로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한길에 고스란히 바치시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참으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참다운 력사적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였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 나아가는 슬기롭고 용감한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이 그처럼 온 세상에 떳떳이 자랑떨치는 영광을 지닐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남녘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삼천리강토우에 5천만겨레가 다같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락원을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의 시대, 주체시대에 태여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우리들,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우리는 이 영광의 길을 따라 기어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이룩하고야말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대중적운동

진 철 종

지금 온 나라는 우리 당중앙이 지펴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사회주의대건설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새로운 일대 앙양기에 처하여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에 펼쳐지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우리 인민을 언제나 위대한 투쟁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64돐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우리 당이 지펴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전면적승리를 더 빨리 앞당겨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1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나온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찌기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기본목적은 무엇보다도 전당,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주체적력량을 철저히 준비하는데 있다.

우리 혁명의 당면한 지상의 과업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적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해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이룩할수 없다.

미제를 비롯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놓여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침략과 분렬의 범죄적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새 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지금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여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 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발악적인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준비있게 대처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인민적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더욱 큰 승리가 이룩될 때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보다 튼튼히 다져질것이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전진이 이룩될것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한 중요한 목적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3대혁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고있습니다.》(《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4페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조국을 통일하는것과 함께 우리 혁명의 당면한 2대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나라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6개년계획이 앞당겨완수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기에 처하여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 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대중적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벌려야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

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당에 의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발기됨으로써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휘황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인민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우리 당과 인민이 틀어쥐고온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적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다그치는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제기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대중적 사상개조운동인 동시에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나 중심과업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도 사상개조와 집단적혁신을 결합시켜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잘 건설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며 그 중심과업 역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커다란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경제, 문화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진 기초우에서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기간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행정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에서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더한층 공고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가 빛나게 실현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실로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우리 나라에는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전진시킬수 있는 정치적 및 물질적 력량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공업과 농업, 교육과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수많은 단위들이 이미 천리마작업반 또는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쟁취한 조건에서 이제는 모든 단위들을 다 천리마작업반의 수준에 올려세우고 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해결하는것이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심화발전되는 행정에서 이룩된 정치적 및 물질적 력량에 기초하고있으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지난날의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을 그 투쟁구호로 제기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갈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이 일정에 오른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벌어지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 문화개조운동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제기된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의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는 여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력사적지위가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일어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투쟁 로선과 방침을 내놓고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발기하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이끄시는 행정에서 무르익혀오신 구상에 따라 우리 당이 발기한 새로운 대중적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매우 정당합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우리 혁명의 객관적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벌써 해방직후부터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시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부터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 이후시기의 혁명의 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로정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변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당,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으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 파견하신 획기적인 조치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이 극복되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3대혁명수행에서 지휘성

원으로서의 일군들의 역할이 더욱 제고되였다.

지도일군들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 앞장서고 혁명적실천속에서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됨으로써 3대혁명로선은 이미 광범한 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게 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된 고귀한 성과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2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검덕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청산리의 협동농민들이 선참으로 추켜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는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로 급속히 확대되여 이 운동의 불길은 지금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치렬한 불길속에서 전당과 온 사회가 드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6년 1월 1일, 11~12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보다 높은 목표와 과업을 제기하고 이 운동을 밀고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다그쳐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며 그러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게 함으로써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받들며 수령님의 높은 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조화, 신념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동요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귀한 품성이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모두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

로 교양개조할데 대한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고있다. 여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인간개조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한결같이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싸워나가는 충성의 대오, 불패의 혁명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상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원쑤들과 치렬한 계급투쟁을 하고있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의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하게 들이대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언제나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시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검은 칼을 갈고있는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평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대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며 그들속에서 안일하고 해이된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용감성, 대담성을 억세게 키워나감으로써 그들을 적들이 무모하게 덤벼든다면 언제든지 맞받아나가 싸울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구이며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사상혁명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로동은 사회의 부를 창조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이며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단결시키는 수단이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열매이며 인민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살게 하자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공동로동과 나라살림살이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상전을 힘있게 벌릴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사상전은 사상혁명의 위력한 방법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과정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상전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긍정으로 부정을 극복하며 모범적인 사실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것은 군중교양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대중속에서 수많이 창조되고있는 긍정적인 모범을 제때에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제기한 높은 목표에 상응하게 교양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사상혁명수행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현실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기술혁명을 하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준비에 물질적력량을 안받침하여야 우리의 혁명력량이 더욱 강대해질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현시기 기술혁명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기본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을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에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지난날 기술이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할수 있으며 10대경제전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모든 공업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술공정을 적극 개선하여 생산을 고도로 현대화하며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식료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더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3대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10대경제전설전망과업을 앞당겨수행하는 방향에서 생산장성목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타파하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이 일정에 오른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당면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가진 지식있고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드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면서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단계별로 밀고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화혁명의 중심목표인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 잘 관철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을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더욱 개화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앞장서게 하고 로동계급이 창조한 혁명적문화가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도시와 농촌마을을 더욱 문명하게 꾸리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단계를 옳게 설정하며 매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투쟁을 벌리는것이다.

모든 부문과 단위, 매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배합하여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옳게 진행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에 대한 당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페지)

당이 대중운동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에 적극 의거하고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행정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바로 당이 발기하고 당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되는 혁명적운동이다.

그러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키고 이 운동에 대한 당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이 제기한 과업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도 이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조직전개하는데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며 이 운동을 지도하는데서 특히 3대혁명소조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직되였으며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이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 운동이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의 역할을 높여 군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부서들이 보조를 맞추어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이 운동의 목적을 훌륭히 실현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현시기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여 다른 사회적운동을 줴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피바다》근위대운동, 《꽃파는 처녀》근위대운동을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운동들도 널리 벌려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 따라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아래에,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　　*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다하는 참된 길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세폭의 붉은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안고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자

홍 시 학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충천한 기세로 온 사회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전국의 도처에서 더욱 거세차게 타오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승불패의것으로 반석같이 다져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매일, 매시각 전례없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전환의 새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는 이 장엄한 력사적시각에 우리 당은 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일해나갈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은 우리 혁명과 당자체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모든 일군들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며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지금 일군들속에서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전면적으로 마사지고 모든 일을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해제끼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오늘 당사업은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패기있게, 생기발랄하고 통이 크게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당은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보다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4페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 그것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결국 일군들을 통하여 집행되는것만큼 그들이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일하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만약 일군들이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에 매달리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고 전진에 제동기를 걸게 된다. 그러므

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먼저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이 중요하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우선 당일군들부터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세워야 모든 부문의 일군들속에서 옳바른 사업 방법과 작풍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옳게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볼 때에도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방대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 련이어 제기되고 속도전의 불바람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이 계속 높은 단계에로 뛰여오르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각오와 자각적열성을 비상히 높이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더 철통같이 다져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중대한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바로잡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이 옳바른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이 군중이 있는 현실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불타는 충성심과 무한한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충성의 열정은 그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 때 더욱 높이 발휘된다.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것도, 올해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사업도, 올해 또다시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도 결국 일군들이 대중의 혁명적연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또한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도록 하여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어떠한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침략과 분렬의 범죄적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모하고도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긴장해지고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은 의연히 간고하고 험난하다.

간고한 우리 혁명의 앞길과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당대렬을 강화하고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시켜야 그들이 그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으며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기꺼이 바쳐 끝끝이 싸워나갈수 있다.

그래야만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혁명의 당면한 지상의 과업인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현시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당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푸는것이 곧 당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당사업을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문제를 혁명승리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오늘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바로잡아나가시기 위하여 심려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하여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고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영광스러운 당이 의도하는대로 당사업을 벌려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최상의 의무로 여기는 우리 일군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반드시 덜어드려야 한다.

* *

오늘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그대로 일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행정에서 혁명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반세기의 오랜 기간 수령님께서 지하혁명활동과 무장투쟁, 당 및 국가 사업과 군사사업,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지도하시면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

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에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다 밝혀져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의 참된 사업방법의 집대성이며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실천속에서 창조되고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불패의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본받아 일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에서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오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92페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아래의 실정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옳바른 지도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이끌어나가야 할 일군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시나 하고 문건이나 내려보내는것으로 사업을 대치한다면 아래실정을 깊이 료해파악할수 없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군중의 힘과 현실을 정확히 모르고서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대중에 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다.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사업방법대로 군중이 있는 아래에 깊이 들어가 살며 일할 때 대중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이름없는 공장과 농촌에 몸소 나가시여 아래의 실정을 깊이 료해하시고 일군들을 가르쳐주시면서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워주시는 혁명적인 대중지도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을 끝없이 우러러흠모하며 따라배우는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답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을 그대로 본받아 언제나 대중이 살며 일하는 아래에 내려가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지도사업을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기 위하여서는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철저히 제도화하여야 한다.

우선 책임일군들자신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야 밑의 단위의 사업실태와 아래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으며 보다 높은 정책적안목으로 문제를 보고 편향도 바로잡아줄수 있으며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다.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회의주석단에나 앉았다 올라오거나 늘 만나는 일군들의 말만 몇마디 듣고 올라오며 당일치기로 밑에 내려갔다오거나 유람식으로 돌아다녀서는 아래의 실정을 잘알수 없고 참다운 지도를 할수 없다.

그러므로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신대로 한개 단위에 여러날씩 나가있으면서 그곳의 실태도 료해하고 모든 사업을 지도하며 약한 고리들을 추켜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기 위하여서는 번잡한 회의와 쓸데없는 문서놀음을 없애고 일군들로 하여금 아래에 내려가 사업할수 있는 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언제나 생산과 건설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는 공장, 기업소의 기대앞과 농촌의 포전, 광산, 탄광의 지하막장과 림산사업소의 깊은 산판에 그리고 파도사나운 물고기잡이전투장에 나가 로동자, 농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같이 살며 일해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은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 그에 앞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침투시키고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가르쳐주어 모든 사람들이 드높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일하게 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결코 몇몇 지도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굳게 단합되게 하고 우리의 혁명대오가 언제나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하여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

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9페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뿌리빼지 않고서는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을 지도해나갈수 없다.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으로서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과는 결코 량립할수 없다.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오랜 기간에 걸쳐 부식된것으로 하여 쉽게 없어질수 없으며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다.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은 혁명하는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사업 방법과 작풍과는 인연이 없으며 또 허용할수 없다. 만약 지도일군들이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면 대중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지 않게 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의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다 같은 혁명동지로서 그들사이에는 그 어떤 간격도 있을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중요한 위치에서 무거운 책임을 맡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인민들속에서 나왔고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틀이란 있을수 없으며 관료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서는 안된다.

모든 일군들은 대중앞에서 끝없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너그럽게 행동해야 하며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대중을 대하는 대중의 친근한 벗이 되고 혁명동지로 되여야 한다.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아래 일군들에게 호령하고 욕설하는것과 같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과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식방법으로써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관철할수 없으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의 조그마한 요소와도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철저히 당적방법, 해설하고 설복하는 정치사업방법으로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관료주의적 방법과 작풍을 없앤다는것은 요구성을 낮추거나 계급적으로 예리하지 못하고 무맥한 《호인》격으로 되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군들은 대중앞에서 소탈하고 인간성이 풍부해야 하지만 사업에서 규률을 약화시키거나 원칙을 놓고 흥정해서는 결코 안된다. 일군들은 사업에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당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하며 모든 일을 당과 혁명,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판단하고 처리해나가야 한다.

실속없이 겉치레만 하고 눈가림식으로 발라맞추거나 그저 아래에 되받아넘기는식으로 일하는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도 다 낡은 사업방법이며 유해로운 사업작풍이다.

우리 일군들은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며 언제 어디서나 불타는 충성심과 깨끗한 당적량심을 가지고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남보다 먼저 새벽이슬을 맞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어 몸을 적시면서 이신작칙할 때 대중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 참다운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올해에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을 중심문제의 하나로 내세운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

고 온갖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론쟁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사상투쟁의 중요한 방도이다. 대론쟁은 대중적인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옳고 그른것을 명백히 가려내며 사상적병집을 고쳐주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법론을 찾는 사상전의 하나의 형식이다.

당조직들은 대론쟁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혁명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우며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인 일군들이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소유하여야만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에서 벗어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으며 대중을 옳게 교양하고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일군들은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 어떤 초소를 맡겨도 훌륭히 감당해나갈수 있도록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요구이며 일군들의 가장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일군들은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영광스러운 당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할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두터운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불멸의 사상

김 화 종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4돐을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탁월한 공헌에 대하여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와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이 담고있는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그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과 불패의 생활력은 이 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원리,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근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시였다.

1

혁명의 지도사상은 반드시 일정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이 기초로 삼고있는 철학적원리는 그 사상의 과학적심오성과 혁명적성격 및 생활력을 규정하는 사상리론적토대이며 원천이다.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밝혀주는 새롭고 심원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주체사상의 기초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고전적정식화는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에서 우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

지하는 지위를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해 주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것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최고의 존재이며 모든것이 다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로서 세계의 모든것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그의 물질적인 유기체의 조직에 있어서나 그 기능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물질적존재에도 비할바없이 높은 자리에 서있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의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며 로동활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변혁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이러한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며 그에 대하여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 어떠한 고급한 동물도 주위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며 영원히 주위세계에 종속되여있는 자연적존재로 남아있다.

오직 사회적존재인 사람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된다.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는 또한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에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을 가장 심오하게 해명하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이 세상에 사람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으며 사람의 활동이 미치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기에게 고유한 자주성과 창조성으로 하여 주위세계의 본질과 그 객관적합법칙성을 인식하며 그에 의거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외부세계를 개조한다.

사람은 로동활동과 혁명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여 세계를 자기를 위한것으로 끊임없이 창조해나간다.

외부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서 사람과 함께 물질기술적요인도 참가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물질기술적요인들은 다만 사람의 결정적역할을 보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자체도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개조와 변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되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위한 투쟁의 운명은 전적으로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모든것을 결정하는 그의 역할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는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담보되며 또한 그 역할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같이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그것을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기초로 삼아야 할 철학적원리로 규정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는 근로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할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밝혀진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모든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는것은 우리 시대발전의 필연적요구이며 이 요구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선결문제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적

극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참말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지위와 력사발전에서 노는 자기의 역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며 세계를 지배하고 력사를 발전시키는데서 그들의 활동은 더욱더 목적의식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게 된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높여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전진하고 심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새로운 철학적원리는 바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제기하고있는 이러한 필연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대중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는 또한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 자체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는 철학상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옳게 해결되여야 철학적세계관의 근본문제가 정확히 해명될수 있다.

철학적사유의 발전의 력사는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를 철학적세계관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그를 둘러싼 철학류파들사이의 치열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물질의 1차성과 의식의 2차성을 주장한 유물론적류파가 승리하고 세계의 시원을 의식으로 본 관념론적류파가 패배해온 력사였다.

지난 세기중엽에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철학인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이 창시되여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에 가장 철저한 유물론적해답을 준것은 철학사상발전에서 하나의 혁명적전환이였다.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은 물질의 1차성과 의식의 2차성에 관한 유물론적견해를 사회현상에까지 확장하고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을 론증함으로써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리하여 의식을 기본으로 세계를 해석하던 관념론에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유물론적립장을 사회령역에까지 확장하지 못하였던 구유물론의 제한성이 극복되였으며 철저한 철학적유물론과 과학적변증법이 확립됨으로써 객관세계의 보편적합법칙성이 옳게 밝혀지게 되였다. 이것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무기로서의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이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기본문제의 해결로 된다.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이 세계를 변혁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자체가 더욱 발전완성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이 세계를 변혁하는 무기로 자체를 더욱 완성하려면 현실세계가 물질로 통일되여있다는 관점에서 물질세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은 사람이며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의 운명은 인민대중의 활동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만큼 로동계급의 철학이 현실을 변혁하는 혁명적학설로서 자체를 더욱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체계의 중심에 사람을 내세워야 하며 인민대중의 활동에 고유한 보편적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해석하고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세계가 물질로 통일되여있다는 유물론적관점을 토대로 하여 현실세계를 이루고있는 모든 사물현상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밝혀야 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정확히 해명되여야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을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옳게 취

급할수 있고 모든것이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를 정확히 밝힐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는 세계변혁의 무기인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완성된 철학적세계관이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혀주심으로써 사람을 기본으로 세계를 보는 전혀 새로운 철학적관점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물질가운데서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을 기본으로 모든것을 보는 새로운 철학적원리가 해명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의 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실로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문제를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출발적기초로 내세우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해명한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린 위대한 세계사적사변으로 된다.

2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불멸의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먼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밝혀야 할 원칙적문제에 과학적해명을 준다.

세계관이 참말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자면 우선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어야 한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주위세계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가져야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세계를 자기자신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주는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기본사명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일적인 면모와 그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주며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을 위주로 하고 모든것들이 사람의 지배밑에 놓여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의 전일적인 면모이다.

또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까닭에 세계의 모든것은 마땅히 사람에게 복무해야 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한에 있어서만 참다운 존재가치를 가진다고 보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를 대하는 관점이며 태도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떠나서 세계는 무의미하며 사람에게 복무하지 않는 사물현상은 값없는것으로 본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을 위주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척도로 하여 모든것

을 보고 평가하는 관점이며 태도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의 전일적인 면모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사람이 단순히 세계의 한부분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객관세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모든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역할을 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가장 과학적인 세계에 대한 견해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함으로써 또한 자연과 사회의 변화발전에 대한 새롭고 심화된 리해를 준다.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이 발양될수록 현실세계의 변화발전은 더욱더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주위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유일한 존재이며 자연과 사회는 사람에 의하여 인식되고 개조되는 대상이다.

사람은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것으로 만들어나간다.

인류력사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하여 개조되고 변혁되는 세계의 령역이 더욱더 확대되고 보다 많은 대상들과 과정들이 사람들의 통제밑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인류의 매개 력사적세대들이 자기에게 복무시키는 세계의 령역은 제한되여있으나 사람들은 그 활동의 전력사적과정에 있어서는 온 세계를 자기를 위한것으로 만들며 현실세계의 모든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전일적면모와 세계를 보는 관점과 태도가 새롭게 밝혀지고 사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주어짐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완성된 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혁명적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밝혀줌으로 하여 그자체가 사람들에게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게 하며 그것을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실천활동의 옳바른 지침과 방도를 가르쳐준다.

사람은 오직 자연과 사회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인식과 실천활동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위주로 하여 보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함으로써 사물현상의 본질을 가장 깊이 파고들어갈수 있게 하며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방도를 옳게 찾을수 있게 한다. 또한 모든것을 사람을 위주로 보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 때 인식과 개조 활동에서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특히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인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밝혀준다.

자주적립장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사람의 역할을 높일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근본방법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사람에게 고유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힘있는 립장이며 방법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현실을 대하고 변혁해나가게 하는 가장 힘있는 립장과 방법임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는 물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벌어지게 되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에 가서도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세계관적 립장과 방법으로 되며 인식과 개조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밝혀짐으로써 객관세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립장과 방법뿐아니라 사람의 활동자체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반영한 립장과 방법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이 갖추어야 할 립장과 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의 원칙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주되는 사명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것은 세계에 대한 옳바른 지식과 견해를 가지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낡은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혁명적세계관은 직접적으로는 사람들의 사회생활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은 마땅히 그 내용에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옳바른 해명을 포괄해야 완성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발전에서 사람,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 주관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대한 새로운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과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객관적과정이다. 력사의 창조자이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인 인민대중의 활동을 떠나서는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없고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적진보도 이룩할수 없으며 도대체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물론 사회발전에서 객관적요인은 의심할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의 조건으로 될뿐이며 또한 객관적요인 그자체도 사람, 인민대중의 활동에 의하여 마련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기초원리는 사회발전에서 주관적요인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는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전하며 사회발전에서 주관적요인이 결정적역할을 논다는 새로운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발전의 근본동인과 그 발전의 근본방향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며 력사상의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

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가르친다.

인류해방투쟁의 전력사는 피착취, 피압박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임으로 하여 남에게 예속되고 얽매여 사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착취사회에서 감행되는 반동적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 자주성에 대한 유린행위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나서도록 추동한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 반항이 있고 자주성이 짓밟히는곳에서 혁명투쟁이 일어난다는것을 밝힌 주체사상의 원리에 의하여 계급투쟁, 사회혁명의 본질과 그 발생의 요인이 보다 심오하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류사회의 력사는 생산방식의 교체의 력사, 계급투쟁의 력사인 동시에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사회발전의 근본동인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계급사회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시기도 포함하여 인류력사발전의 전과정에 대한 일관한 과학적리해가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오늘날 생산력발전수준상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혁명투쟁이 앙양되고 사회주의에로 나가고있는 력사적현실도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근본동인과 함께 그 근본방향도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

사회발전의 근본동인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사회발전과정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이 더욱더 커지고 확대되여가는 과정으로 되며 인류력사는 사람들의 자주성을 더욱더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현하여가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간다. 따라서 인류사회발전의 척도는 생산력의 발전, 사회경제발전의 정도에 의하여 규정될뿐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에게 얼마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심오하게 밝혀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혁명적세계관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줄뿐아니라 낡은 착취사회를 혁명적으로 때려부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야 세계변혁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다름아닌 자기자신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기자신의 사업이라는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질 때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운명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려고 하지 않으며 남이 해줄것을 바라지도 않게 되며 오직 자기자신의 힘으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이 반드시 풀어야 할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담아야 할 사상리론적내용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는 로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적세계관으로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것이 담고있는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내용과 그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 그들을 민족해방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세계적변혁과 자랑찬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이 밝힌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서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추세를 반영하여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주체사상에 끝없이 고무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감으로써 인류의 해방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류해방의 력사적위업에 공헌하신 영생불멸의 업적은 시대와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전 영 탁

민족의 태양이 솟은 영광의 날, 최대의 민족적경사의 날인 4월 15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들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을 설레이고있으며 일편단심 어버이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내놓으시고 이 운동을 몸소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3대혁명의 세찬 불길속에서 온 사회를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을 세차게 벌림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3대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어떻게 틀어쥐고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문제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절박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는 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3대혁명소조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

하는 당의 참된 근위대, 결사대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철칙으로 삼고있다.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확고히 지배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의도대로 살며 일해나가는것이며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불같은 결의이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옳게 관철하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모든 일을 참신하게, 통이 크게 혁명적으로 벌려나간다. 그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기대옆에서, 막장에서, 포전에서 실속있고 참신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패기있게 벌려나가며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광범한 대중을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추동한다. 따라서 3대혁명소조가 활동하는 모든곳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의도가 제때에 정확신속히 쭉쭉 내려가게 되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된다.

3대혁명소조는 생산자대중속에서 사업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건설적이며 혁명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에 제기하며 전국의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게 된다. 이리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매 시기 당의 정확한 방침이 작성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통일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를 옳게 실현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3대혁명소조운동의 기본과업이며 바로 여기에 이 운동을 통하여 3대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옳게 실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이 소조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을 혁명실천, 생산투쟁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3대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한다.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자면 혁명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을 수많이 키워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이며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대중속에 침투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된다. 당의 핵심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기술실무적으로 우수한 혁명적인 새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이 소조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당의 후비간부를 믿음직하게 키워낸다.

3대혁명소조원들 특히 청년인테리들은 생산실천을 통하여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며 대학에서 배운 현대과학지식을 공고히 할뿐아니라 현대적생산을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는 우수한 새로운 민족간부로 자라남으로써 3대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특성에 맞게 당의 혁명적령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이란 구호를 웨치거나 결정서를 받고 그 수행방도를 책에 써놓는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혁명은 반드시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전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전진할수 없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도 하나의 혁명이다.

특히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모든 분

야에서 낡고 뒤떨어진것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다.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철저히 극복하는 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는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낡은것을 극복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는것은 3대혁명소조활동의 주되는 임무의 하나이다.

3대혁명소조는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과 강한 투쟁을 벌릴수 있도록 그 력량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여있으며 사상전의 방법과 요구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집단이다.

3대혁명소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당일군들과 혁명적새세대들로 편성된 혁명의 정수부대로서 모든것을 참신하게 보고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패기있게 벌려나간다. 그들은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리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숨쉬고 살며 싸워나가도록 한다. 그들은 또한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을 철저히 짓부시고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 이와 함께 사람들속에서 낡은 생활습성과 비문화적인 생활태도를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온갖 안일하고 해이된 현상을 철저히 버리고 언제나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사업과 생활을 조직해나가도록 하며 있는 밑천, 있는 자재를 가지고 생산도 생활도 더욱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나가게 한다.

이리하여 3대혁명소조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 사회의 혁명적변혁과정을 비상히 촉진시켜나간다.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철저히 짓부시고 혁명적변혁과정을 급속히 촉진하는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의 커다란 위력이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과의 강한 투쟁을 벌릴뿐아니라 아래단위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3대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옳게 실현하는 운동이다.

혁명적군중로선과 대중령도방법에 따라 아래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며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3대혁명소조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아래당조직들의 역할과 전투적기능이 강화되여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매개 당위원회들이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3대혁명수행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는 당위원회와 합심하여 3대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방향과 수행방도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늘 당위원회가 3대혁명수행정형을 지도통제하며 편향을 바로잡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3대혁명소조는 당위원회가 언제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자신이 높은 책임성과 의식성을 가지고 3대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일군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준다.

3대혁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업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3대혁명소조는 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기술실무적으로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당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일을 잘하도록 하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3대혁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게 한다.

특히 3대혁명소조는 오랜 간부들의 사업을 도와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오랜 간부들은 지난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조국과 혁명 앞에 귀중한 업적을 쌓아놓았다. 그러나 오늘 간부들의 수준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있다. 현대적기술로 무장하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인테리들이 망라된 3대혁명소조는 그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을 실속있게 배워주며 생산에서 대담한 혁신을 일으켜 생산실천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확증해줌으로써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버리고 발전하는 현실이 요구하는대로 당의 품속에서 일을 잘해나가도록 한다. 이리하여 3대혁명소조는 일군들이 혁명적인 패기와 정열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며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실천적모범으로 광범한 근로자들을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한다.

3대혁명소조는 또한 주체사상이 밝힌 군중로선과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에 따라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고있는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적극 발동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광범한 근로자들이 움직이고 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에 기초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는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3대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옳게 실현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하게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오늘의 현실에 맞는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업방법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기의 지도사업방법을 수공업적인 사업방법이라고 한다면 3대혁명소조를 통한 오늘의 지도사업방법은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4페지)

혁명적인 지도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옳바른 령도를 보장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도사업방법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혁명적으로 개선되여야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특히 3대혁명수행에서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이며 현대적인 지도사업방법이 요구된다. 한두명의 지도원을 아래에 내려보내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따라서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자면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지도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정확히 실현하는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지도사업방법이며 혁명적인 지도형태이다.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가 과학적인 지도방법으로, 혁명적인 지도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지도단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료해하며 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걸린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지도방법, 지도형태로 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일군들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새세대 청년인테리들이 망라된 큰 집단으로 한 단위를 오래동안 지도하면서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고쳐나가며 모든 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지도사업을 실현하게 한다. 그리하여 해당단위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과학적인 방도를 세우며

록히 지도사업과 보장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속도전의 요구대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을 가장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게 한다.

이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지난날의 수공업적인 지도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를 실현하는 가장 우월한 지도방법, 지도형태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기와 3대혁명소조를 통한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업방법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당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의 대중령도방법을 발전시키고 완성시켜나가는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3대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령도할수 있는 튼튼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올바른 길을 따라 혁명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확한 령도를 실현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광범히 벌리시기 위하여 당조직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일군들과 지식있는 대학생들을 망라한 지도소조를 무어 우선 한 단위에 파견하시여 그들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나갈수 있겠는가를 시험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파견하신 지도소조들의 투쟁을 이끌어나가시는 과정에서 그들을 통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이 투쟁에 우리 당의 핵심들과 함께 낡은것에 물젖지 않고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참신한 새세대 청년인테리들을 같이 동원하는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면적으로 힘있게 벌리시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취하신 이 혁명적인 조치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여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유한 혁명적사업방법과 혁명적령도예술의 빛나는 구현이며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가장 합리적인 대중지도형식과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로 되며 3대혁명소조운동력사우에 찬연히 빛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2월 3대혁명소조운동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벌려나가시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들을 조직하시여 파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적요구가 가장 정확히 관철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로 소조를 무어주시였으며 지도대상에 맞게 규모

를 정하여 파견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여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당이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목적과 현지에 나가서 할 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가르치심으로 하여 3대혁명소조들은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들을 파견하신후 그들의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에서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정형을 총화해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3대혁명소조들을 찾으시여 사업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끝없이 고무해주시였으며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와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로작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질과 내용, 그 과업과 수행방도 등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은 확고한 사상리론적토대우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한층 더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발단을 열어놓으시고 이끄시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혁명적인 지도를 하고있다.

당중앙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사업에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며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불살라버리면서 일을 패기있고 대담하게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하였으며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고 그 빛나는 관철에로 이끌어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었으며 3대혁명소조들을 당일군들과 혁명적인 새세대 청년인테리들로 그 구성을 더욱 개선하고 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었다.

참으로 이 땅우에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든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발전함으로써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 나간 3대혁명소조들은…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들과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 나라의 천리마운동을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페지)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더욱 다그쳐지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3대혁명소조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받들어나가려는 고결한 충성심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한층 더 반석같이 다져졌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당백의 충성의 전위, 계급의 전위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에서 거대한 전환이 이룩되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으며 웅대한 6개년계획은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이상 앞당겨완수되였다.

사회주의교육과 문학예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마련되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힘있게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힘차게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어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이 운동을 그 본질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의 력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군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가 합심하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며 당의 요구이다. 전국각지에 파견된 당중앙위원회 3대혁명소조원들과 각급 당조직들은 힘을 합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3대혁명수행에서 지도일군들은 투쟁대상이 된것이 아니라 이 운동의 앞장에 서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며 대중의 교양자들이다. 지도일군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비약하는 우리 혁명의 벅찬 현실에 맞게 언제나 인민대중의 앞장,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여야 하며 이끌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이신작칙의 모

법으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한층 더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들은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아래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일을 잘해나가도록 도와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패기있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3대혁명소조는 자기 활동의 전과정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밖에는 그 어떤것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정책적안목에서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판단하고 옳고 그른것을 가려내야 한다. 그리하여 3대혁명수행을 가로막는 온갖 잡사상들에 투쟁의 불을 걸고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그것을 말끔히 불살라버려야 한다. 3대혁명소조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옹호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의 전위, 투쟁의 기수들이다.

3대혁명소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러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사상투쟁의 힘있는 무기이며 옳고 그른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모르고서는 사업에서 그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투쟁의 신조로 삼아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고자대하지 말아야 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일에 투신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여야 한다. 그래야 대중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3대혁명소조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충성다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며 3대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충성의 열도가 그대로 근로자들속에서 투쟁의 불씨가 되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시고 이끄시는 당의 친위대, 근위대답게 행동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의 향도따라 3대혁명소조운동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3대혁명의 붉은 기치 높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리 재 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8페지)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나라의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밝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찬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안팎의 정세를 주체혁명위업에 리롭게 근본적으로 전변시키고 조국통일의 날을 뚜렷이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1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이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다음 《일본군대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해방된 우리 나라의 남반부에 기여들었으며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일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강토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온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리우고 조선인민앞에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처음부터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를 주되는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선행경험에 의거해서는 그 해결의 실머리조차 찾을수 없는 문제였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진보와 반동의 첨예한 대립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다.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한 문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시대앞에 나선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만 명철한 해답을 얻을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가 남조선에 기여든 직후에 벌써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그 침략적본질을 간파하시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

보다도먼저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신데 기초하시여 그 해결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 나라 인민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이 원칙입니다.…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완수해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88페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의 통합문제도 아니며 그 어떤 국제적분쟁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이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어느 누구에게 의탁할수 없으며 오직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 통일문제해결에서의 자주적립장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원칙적이고 현실적인 립장이며 자기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데 대한 민족자결의 양보할수 없는 권리를 그대로 담고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8페지)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분렬의 비운이 지속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온갖 외세의 간섭이 없어지고 통일문제가 그 주인인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에 맡겨진다면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다. 이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며 진실로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의 차이, 신앙의 유무, 사회적지위와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조국통일의 있을수 있는 전도를 구체적으로 예견하시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력량준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가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민족분렬정책과 전쟁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는 전쟁의 위험이 가셔지지 않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있을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이러한 두가지 전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과 조선인민의 민족해방

위업의 실현은 결국 세가지 혁명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최대한 앞당겨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로선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조건에서 민족해방위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독창적인 혁명력량편성방침이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이 어떤 방도로 실현되든지 그 모든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며 조국통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탁월한 전략방침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심오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으로 조국통일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면서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러한 탁월한 로선과 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와 같은 악랄하고 간교한 적과 맞서서 복잡하고 간고하고 장기성을 요하는 힘겨운 투쟁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와 효과적인 방도를 가지고 그 전망을 뚜렷이 내다보면서 조국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추진시켜올수 있었다.

2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정세발전의 매 단계와 시기마다 가장 적절한 대책과 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며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침략정책과 민족분렬책동에 예견성있게 대처하시여 이미 인민이 주권을 잡은 나라의 절반땅에서 지체없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민주기지로 꾸리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력량관계를 진보와 애국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시였으며 미제의 침략정책에 맞서서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전국적범위에서 완전한 민족적 통일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현실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남조선《단독정부》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머리우에 분렬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엄중한 시기에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의 민족적단합을 실현하시고 놈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가장 진공적이며 적극적인 구국대책을 제시하시였다.

4월련석회의후 남조선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공동투쟁이 벌어졌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망국적《5. 10단선》놀음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이 날로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나라의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남북조선지역에 걸치는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의 유일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전민족의 애국적총의를 하나로 집결시킨 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의 자랑찬 결실로서 그것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후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북진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범죄적인 도발책동에 의하여 전쟁의 엄혹한 시련이 닥쳐온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백전백승의 전략과 전법, 세련된 령도력으로 미제와 그 15개 추종국가의 침략군대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북진통일》책동을 좌절시키고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김으로써 놈들이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히 추진시켜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시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정치공세를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 8. 15해방 10주년기념경축대회,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등 여러 기회에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정권당국대표들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열데 대한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방안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금임없이 성숙시켜나가시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과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이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였으며 그것은 마침내 4월인민봉기로 폭발되여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 리승만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르렀다. 리승만괴뢰정권의 붕괴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돌이킬수 없는 위기에 빠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북진통일》책동이 완전히 파산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로선의 커다란 생활력과 막을수 없는 견인력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지향이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정세밑에서 8. 15해방 15주년경축대회에서와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 제3기 제1차회의들을 통하여 남북조선련방제안을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방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키시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대중적진출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분렬의 장벽이 바야흐로 무너지가고있는데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매국역적 박정희악당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꾸며냈다.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지향을 《용공》이라는 구실을 붙여 총칼로써 억누르고 이미 거덜이난 《북진통일》론의 재판인 《승공통일》론을 부르짖으면서 전쟁정책과 군사파쑈화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있을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시는 한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매국책동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하시면서 북반부혁명기지의 각방의 지지성원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남조선에서는 혁명력량과 애국적민주력량의 결속이 강화되여 더욱더 광범한 대중이 횡포무도한 군사파쑈적폭압을 박차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정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력사적인 1971년 8월6일 연설에서 국제정세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급변시키시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을 대화의 마당에 끌어내여 조국통일위업수행을 다그치기 위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탁월한 방침에 의하여 그때까지 남북의 접촉마저 한사코 거부해온 남조선당국자들은 적십자단체의 형식으로나마 회담에 응해나서지 않을수 없었으며 뒤이어 고위급정치회담의 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북과 남의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시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히시였다. 이미 회담의 마당에 끌려나온 남조선당국자들은 그것을 통채로 받아물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성립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외세의존로선에 대한 민족자주로선의 커다란 승리이며 민족분렬로선에 대한 조국통일로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구현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였다.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의 개시와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들을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 전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크나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였다. 그러나 대세의 압력에 밀리여 대화의 마당에 나온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자마자 《대화있는 대결》과 《실력배양》을 떠벌이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형편에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며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5개항목의 방안,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방침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대책 그리고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를 망라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방안들을 련이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모든 방안과 대책들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불가결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장안에서는 더욱더 지연전술에 매달리고 대화장밖에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외세의존과 《반공》파쑈화,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여왔다. 지어 놈들은 이른바 《6. 23성명》이라는것을 통하여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상을 고착》시키고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것을 저들의 《정책》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된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선언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대화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빠졌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는 영구분렬의 위험이 닥쳐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냐 하는 이 엄숙한 시기에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

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5대방침, 이것은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공명정대한 조국통일강령이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적중한 구국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위대한 통일강령실현을 위한 투쟁에 북과 남,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을 거족적으로 조직동원하시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기적절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분렬《선언》은 그날로 된서리를 맞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진면모는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하나의 통일된 조선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은 세계의 더욱더 많은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세밑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혁명적본질을 뚜렷이 밝히시고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며,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안들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안들은 조성된 현실적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뜨리고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통일된 하나의 조국을 위한 거족적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지난 30년동안의 투쟁은 우리 나라의 모든 애국력량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량자사이의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그것은 해방직후에는 민주주의적통일독립국가건설로선과 민족분렬로선사이의 대립이였으며 그후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로선과 《북진》, 《승공통일》로선사이의 대립이였다. 그것은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길이 열린후에는 대화를 통한 단결, 합작, 통일로선과 《대화있는 대결, 경쟁, 공존》로선사이의 대립으로 표현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조선로선과 《두개 조선》로선사이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천재적예지와 대담한 전개력으로 투쟁의 매 단계마다에서 가장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를 보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세발전의 매 시기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탁월한 전략전술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흉책을 걸음마다 분쇄하시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여 조국통일방침을 줄기차게 관철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안팎의 정세는 날을 따라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되여왔으며 조국통일위업은 그 복잡성과 간고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고 영광찬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3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로선과 방침,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국통일의 3대혁명력량은 튼튼히 꾸려지고 조국통일력량과 반통일세력사이의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변동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인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가지게 되였습니다.》(《끼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끼스따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끼스따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6페지)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투쟁의 믿음직한 기지인 나라의 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불패의 력량으로 다져졌으며 그 위력은 통일의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있다.

북반부혁명기지의 지원밑에 남조선에서도 혁명력량이 더욱 장성강화되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은 커다란 잠재력을 안은채 혁명적폭발의 분출구를 찾고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되고 남조선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우러러모시고있는것, 이것은 통일로선과 분렬로선, 애국과 매국사이의 투쟁의 전도는 이미 결판이 났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력량은 민족분렬을 추구하는 매국세력에 비할바없이 강대하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것을 그처럼 두려워하고있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체적력량과 함께 국제혁명력량도 전례없이 강화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들을 수많이 가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시대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여오신 불후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의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당한 방침과 몸소 조직전개하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그와 반면에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세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속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이에 따라 미제를 구세주처럼 섬기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은 전례없는 국제적고립상태에 빠져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의 력량대비는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지난해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 우리 나라를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일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반면에 가소롭게도 이 운동에 끼여들려는 남조선괴뢰들을 문밖에서 쫓아버린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또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반영한 결의안을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으며 30년가까이나 조선의 분렬

정책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유엔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는것마저 두려워하고있는 사실들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제놈들이 꾸며낸 남조선괴뢰《정부》를 조선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광고하던 1940년대와 다름은 물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북진》을 떠들면서 감히 전조선을 먹어보겠다고 덤벼들던 1950년대와도 다르다. 뿐만아니라 오늘의 정세는 미제가 남조선에서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군사깡패들을 내세워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고 분렬의 장벽을 지탱해나갈수 있었던 1960년대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성된 사태앞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으며 극도의 신경과민상태에 빠지있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입만 벌리면 조선에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9일전쟁》, 《7일전쟁》, 《5일전쟁》을 열병환자의 잠꼬대처럼 줴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은 그에 결탁아서 《단기결전》이니, 《초전박멸》이니 하는 어리석은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더욱더 《반공》소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최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언동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광적이며 최후발악적인 징후들은 놈들이 얼마나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어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으며 그 운명이 끝장날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참으로 멀리 전진하여왔다.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오늘 그 전망을 뚜렷이 내다볼수 있게 된것은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운 특히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기때문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부터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잠도 휴식도 다 뒤로 미루시고 오직 조국통일의 민족적위업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신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그이의 정확한 로선과 방침, 세련된 령도가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조국통일의 3대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모든 당원들과 북과 남,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가장 경건한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으며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통일된 조국,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전체 조선인민이 무궁토록 번영할 휘황찬란한 그날을 앞당겨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의 정당한 위업을 위해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며 멀지 않아 조국은 통일되고야말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추세를 반영한 위대한 혁명사상

김 길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진보적인류앞에 쌓아올리신 탁월한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사상사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새로운 력사적시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세계혁명운동의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실증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와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혁명의 근본원리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모든 인민들은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 세기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근로인민대중은 각성하였으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으며 사회주의길에 들어선 수많은 인민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어 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도 자주성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인민들이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이다.

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각과 열의가 이처럼 높아지고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우리 시대처럼 강화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러한 우리 시대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모든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역할을 다하도록 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에는 우리 시대의 이 기본요구가 가장 철저하게 구현되여 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을 근로인민대중에게서 찾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며 혁명의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의 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적령도방법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과 전략전술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가장 정확하게 해명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은 새로운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정확한 혁명의 방법론을 가지고 편향없이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추세, 로동계급과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인류력사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를 펼쳐놓은 위대한 사변이며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시고 그 실천적모범으로 세계인민들을 고무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온 영광의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였을뿐아니라 해방후 인민주권을 창설하시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존

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실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싸우고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고귀한 경험을 주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가장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며 그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끓어넘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우러러 끝없이 흠모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절절히 축원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찾아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멀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우리 나라에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오늘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되고있으며 그이께서 지니신 권위와 위신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가장 높은것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반제자주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모든 인민들에게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공인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81페지)

세계의 수많은 국가지도자들과 혁명가들,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에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지도사상으로, 혁명투쟁의 무기로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사상이며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체계는 그의 완전한 독창성과 심오한 내용으로 하여 세계혁명발전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이며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할 때 세계혁명은 승리하고 매개 나라의 인민대중은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고 말하고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등 세계의 모든 대륙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

조》,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등 여러가지 연구소조들을 묶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열심히 따라배우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배우기 위한 연구소조를 결성하고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참다운 혁명의 진리를 체득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굳게 결의다지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는 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각국의 수많은 출판보도기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광범히 소개선전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삘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등 그이의 력사적인 로작들을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여러 나라들의 신문, 잡지들이 련속 실고있으며 텔레비죤, 라지오 방송들이 날에날마다 널리 보도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세계인민들에게 혁명의 참다운 진리를 깨우쳐줌으로써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상 절실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특히 최근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큰 규모의 연구토론회들을 수많이 조직진행하고있다.

지난해 12월에 끼쁘로스에서 끼쁘로스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주체사상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는 주체사상이야말로 끼쁘로스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위대한 사상을 자기 당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이 일치하게 강조되였다. 이에 앞서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과학토론회》에서는 15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온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이 주체사상을 따라나아가는 길만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복리와 진보를 위한 길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싸워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토론하였다. 지난해 일본 도꾜에서도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들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제3세계의 30여개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또고에서 진행된 《김일성주석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는 이 위대한 문헌을 제3세계나라들의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강령으로 채택하였다.

모든 사실은 세계의 수많은 국가지도자들, 혁명가들,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만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할수 있고 전반적세계혁명에 참답게 기여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길에서 살며 싸워나가려는것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고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 깊이 파악됨으로써 그것은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고있으며 세계

의 혁명적변혁과정에 더욱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제국주의의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고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참다운 번영,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다.

아세아의 광범한 대륙에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찾기 위한 투쟁에서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인민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중근동에서 미제의 사촉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빼앗긴 령토를 도로 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특히 아프리카대륙에서 미제와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이 대륙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만도 산토메 프린시페, 꼬모르, 베르데갑제도, 모잠비끄, 앙골라 등 많은 나라들이 새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마지막 보루가 급속히 무너져나가고있다.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 《안전한 후방》으로 간주되여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예속과 간섭 정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이 지역들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마지막 생명선을 끊어버리고있으며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촉진시키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추세는 이미 독립을 쟁취한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투쟁에서 더욱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자주권과 나라의 리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대하여 단호한 혁명적조치를 취하고있다.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고있던 경제부문을 국유화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고 건전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식민지대륙》들로 불리워오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오늘 광명의 서광이 비낀 대륙으로, 자주, 자립의 기발이 휘날리는 혁명의 대륙으로 전변되고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은 국제무대에서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국제관계와 국제문제해결에서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던 낡은 질서들을 마사버리고 모든 문제를 자주성의 원칙에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있다. 또한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민족적번영과 제3세계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창조력을 합쳐나가고있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 특별회의, 제3차유엔해양법회의, 제3세계청년대회,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들에서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일련의 혁명적조치들을 공동으로 취한 사실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실로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혁명과 인류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 90여개 나라와 이미 공식적인 국가관계를 맺고있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난날 남조선괴뢰도당과 이러저러한 련계를 가지고있던 나라들도 오늘에 와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주동적으로 끊어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관계를 맺고있다.

세계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울려나오고있으며 국제기구, 국제회의들에서도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으며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온갖 방해책동이 감행된 조건에서도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반영하여 제출된 우리측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사변들은 오랜기간 우리 나라를 고립시키고 외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짓을 다해온 미제의 범죄적책동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며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주체사상이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고 주체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민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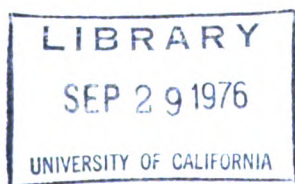
근 로 자 제 4 호 (루계 40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4월 1일 발행 • 1976년 4월 5일

ㄱ—65108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87 0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5 호(409)

차 례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김 일 성

(아르헨띠나에서 발간하는 잡지
《제3세계편람》 창간호에 발표한 론설
1975년 12월 16일)

최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회의는 《단결하여 해방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밑에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선 초미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건들과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일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목적과 리념에 부합되며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를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일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현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있는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혁명투쟁의 시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반제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현시대발전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위력한 운동이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강력한 신흥세력이다.

세계혁명발전과 국제생활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그 역할은 매우 크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세계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출현으로 세계혁명력량은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그들을 쇠퇴와 몰락에로 떠밀고있으며 피압박인민들과 신흥세력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은 인민들의 해방위업의 승리를 앞당거게 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제국주의의 몰락은 촉신될것이며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침략과 간섭을 계속하고있으며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략탈하고 착취해보리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방법으로 침략적목적을 이룩할수 없을 때에는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번영하는 새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오직 반제투쟁을 강화함으로써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여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평등하고 공고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에 충실하여야 할것이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남에게 추종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일도 할수 없고 하고싶은 말도 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려면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제국주의와도 싸워 승리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낡은 국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의 주요한 공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낡은 국제질서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고있으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부원을 략탈하고있다. 낡은 국제질서들을 없애고 공정한 새 국제질서를 세워 제국주의자들이 더는 국제무대에서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능히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촉진하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단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할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민족을 도로 찾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강화되고있으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해방위업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략탈이 없는 세계,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고야말것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진행하는것은 당조직생활에서 언제나 철칙으로 삼고 튼튼히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이것은 당이 지니고있는 사명과 투쟁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다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부대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의 참다운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 위대한 투쟁목적은 당이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며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을 정확히 이끌어나감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자기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우리 당은 전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5~196페지)

우리 당앞에는 전체 인민을 이끌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교양개조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 사업과 함께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건설을 떠나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조국의 끝없는 륭성발전을 이룩하는 문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혁명을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경제건설을 잘해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가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과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세계적인 권위와 위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인민을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당의 모든 활동과 당사업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데 돌려져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당사업과 당생활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 모든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당사업의 목적으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당조직생활자체의 본질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92페지)

당조직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을 굳게 믿으시고 맡겨주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는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개인의 공명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받들고 당의 투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당원들은 누구나 다 당조직으로부터 혁명임무를 맡고있다. 당원들이 당에서 맡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그들의 정치생활과정이며 혁명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이 혁명임무를 옳게 수행해나가는것은 그들의 당조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서있는 혁명초소는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다 혁명투쟁이며 중요한 정치활동, 당조직생활이다.

당에서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업, 당활동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에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어버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것이다. 혁명임무수행과 동떨어진 당사업, 당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 따라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철칙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만일 당조직생활을 본신혁명과업과 관계없는 단순히 집체적으로 모여앉아 학습이나 회의를 하고 당조직에서 주는 림시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당조직생활은 혁명실천에 도움을 줄수 없으며 당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혁명적단련의 수단으로 될수 없다.

물론 당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학습을 하며 또 당조직에서 주는 림시분공을 수행하는것 등도 당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회의나 학습을 하는것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당회의도 기본은 혁명과업을 중심으로 토의하고 그 수행정형을 총화하는 정치적회의로 되여야 하며 학습도 역시

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교양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조직과 당원들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을 끊임없이 단련시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한 진정한 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혁명화하여나가는 과정이며 주체형의 맑고 깨끗한 피가 온몸에 뜨겁게 흐르는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는 보람찬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페지)

혁명과업수행과정이 사람들을 혁명화하여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본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드높은 충성의 열정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참가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튼튼히 단련하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높이 간직하게 되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이 맡고있는 혁명과업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꽃피우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깊이 느끼게 되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게 된다. 또한 벅찬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혁명적신념,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혁명적각오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튼튼히 지니게 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혁명초소를 꿋꿋이 지키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실천투쟁과정에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며 영생하는 생명,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간다.

바로 자기의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표현된다. 충실성은 그 어떤 추상적개념이 아니다.

어떤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금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영원히 받들어나가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초소를 튼튼히 지키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당의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당원이 진실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당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그 누가 보든말든 언제나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당원이 참으로 혁명임무에 충실할뿐아니라 당조직생활에도 끝없이 충실한 당원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참다운 혁명전사이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도 혁명과업수행을 위해서는 머리를 쓰지 않고 아글타글 애쓰지 않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어 몸을 적시려 하지 않는것은 다 말과 실천이 다르며 충실성이 없는 표현들이다.

이와 같이 혁명임무수행과정은 바로 당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당생활과정이며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충실성을 검열하는 과정으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그 어느때보다도 빨리 다그쳐나가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는 오늘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을 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전례없이 로골화되고있는 긴장한 조건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철저히 혁명과업수행과 결부시켜 조직진행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그들의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이 우리 당사업의 근본원칙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준다.

* *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사업전반에서 특히 당원들의 당생활과 그 지도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더욱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여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생활과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혁명과업을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당사업, 당활동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것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사업은 다 이 땅우에 모든 근로자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생활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 분초를 다투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하고도 중대한 혁명과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쏟아부어야 한다.

당원들이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그들의 당생활, 당활동인것만큼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평가도 마땅히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생활에는 앞면과 옆면, 뒤면이 있다. 여기에서 혁명과업수행은 그 앞면을 이룬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면을 다 보아야 하지만 특히 그 앞면을 이루는 혁명임무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총을 잘 쏘고 적을 많이 잡는 사람이 진정한 혁명가였다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는 자기 맡은 혁명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당면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일대 혁명운동이며 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서 그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 당조직생활과 밀착시키며 이 대중적운동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이 검열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높이 발양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조직진행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며 당생활총화와 당회의, 림시분공과 학습을 본신혁명과업과 결부시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잘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우와 같은 책, 516페지)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임무수행과 결부시켜 옳게 조직진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그들의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통제하여야 하며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사업에 전심전력하여 최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힘있는 정치사업이며 혁명실천에 복무하는 산 당생활지도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생활총화와 당회의도 철저히 혁명임무수행과 결부된 사상생활총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인 회의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생활총화는 어디까지나 혁명임무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그 과정에서 잘한것은 무엇이고 잘못한것은 무엇인가를 깊이있게 분석총화하는 사상생활총화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살아가려는 건달풍을 철저히 뿌리빼고 집단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혁명적기풍이 꽉 들어차게 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생활총화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혁명임무수행에서 충성의 열정을 얼마나 뜨겁게 쏟아부었는가, 당원으로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먼저 뛰여들어 일을 헤제끼는 혁명적기풍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였는가를 똑똑히 총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림시분공수행정

형을 총화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임무수행정형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총화하여야 하며 당회의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인 회의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을 혁명임무수행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또한 비판과 사상투쟁도 언제나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난 사상적결함들을 깨우쳐주고 제기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이 혁명사업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라는것은 다 아는바입니다. 비판이 없이는 혁명운동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59페지)

비판과 사상투쟁은 당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비판과 사상투쟁은 그 과녁을 옳바르게 설정하여야 은을 나타낼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과 혁명임무수행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부족점들이 나타날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나타나는 충실성이 부족한 표현들과 본신혁명과업수행에서 발로되는 무책임한 현상들에 비판과 사상투쟁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만일 비판과 사상투쟁에서 과녁을 옳게 설정하지 못한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사소한 결함이 비판의 주대상으로 되는 반면에 본신임무수행에 투신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난히 지내는 현상이 발로될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편향들을 바로잡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수행에서 충실성이 부족한 표현들을 기본으로 하여 비판과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애써 일하지 않으며 일이 잘 안되여도 안타까와하지 않고 가슴아파하지 않으며 남의 그늘밑에서 살면서도 량심상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사람들앞에서는 큰소리를 치고 뒤에서는 흥글흥글하는 안팎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당생활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학습도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산 학습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되고 실천에 도움을 주는 학습이라야 참말로 실속있는 학습으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고 학습을 강하게 요구하는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준비된 혁명가로 만들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며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이룩함으로써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결정적으로 앞당기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반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조국광복회

방 문 권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전투적환경속에서 조국광복회 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심으로써 전민족적인 단합된 힘으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세기적념원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항일혁명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일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으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광복의 혁명적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조국광복회의 거대한 역할과 그 빛나는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민족적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조국광복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위대한 결실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후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참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로써 조선혁명의 핵심대렬을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성원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신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취할수 없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우선 그들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전선로선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애국적력량을 반일투쟁에 결속하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으로서 로동계급의 동맹자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창조적인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정세와 계급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혁명력량을 잘 편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통일전선문제는 대중을 전취하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굳게 묶어세우는가 못세우는가, 반혁명력량을 철저히 고립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결국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을 전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로는 로동계급의 압도적다수를 혁명의 편에 결속하는 문제와 농민을 동맹자로 전취하는 문제 등에 머무르고있었으며 이것을 로동계급의 혁명력량편성에서 유일한 처방으로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력사의 주인으로 지구상의 수억만 피착취, 피압박 인민대중이 투쟁무대에 등장하고있는 주체시대는 이러한 기성리론과 도식으로써는 국제자본에 의하여 련결되여있는 제국주의체계를 전복할수 없었다. 오직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반제력량을 민족적으로도 단합시키고 국제적으로도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함으로써만 제국주의체계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붕괴시키고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일제의 민족적압박과 식민지적략탈속에서 신음하던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절대다수의 광범한 대중이 일제를 타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그리하여 혁명의 사회적지반은 로동자, 농민의 테두리를 벗어나 매우 광범한 계급과 계층들을 포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계급적처지와 정치적견해가 같지 않은 광범한 사회적력량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통일전선을 이룩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력사상 일찌기 볼수 없었던 가장 광범한 혁명력량을 로동계급의 주위에 묶어세워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이 제시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조직된 력량으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통일전선운동 그리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시면서 통일전선로선을 혁명발전에 빛나게 구현하여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시기와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를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하시던 시기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군중을 계급별, 계층별로 되는 대중단체들과 반제동맹과 같은 통일전선적인 대중조직에 망라시키시여 반일민족해방투쟁과 통일전선운동의 분산성을 극복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이 시기 유격근거지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가 력사상 처음으로 수립되였으며 그의 지도밑에 제반 민주주의개혁들이 실시되고 통일전선운동의 풍부한 경험들이 축적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전국적인 성격을 가진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으신 권위, 끝없이 넓으신 포용력으로 하여 1930년대 전반기를 통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조선혁명에 철저히 구현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광범한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울수 있는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창건할수 있는 모든 주객관적조건들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36년 5월 5일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그 창립선언 및 규약을 발표하시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기관지로서 《3.1월간》을 발간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념원을 담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전국적 및 전민족적인 유일한 통일전선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이 혁명실천에 구현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론으로 하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의 자주권을 념원하는 우리 나라의 근로인민대중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을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여 창건되였을뿐만아니라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반제민족해방투쟁단계에서 제기되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온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하는 거창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계급, 계층, 성별, 직업, 년령,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공통된 민족적리해를 가지는 광범한 애국력량을 반일의 기치밑에 조국광복회에 묶어세우시였다. 이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단결할수 있는 모든 혁명력량을 묶어세울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전선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아직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창건되지 못한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통일전선조직인 동시에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는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혁명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를 의미하며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없으며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조국광복회는 바로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승리를 촉진할것을 목적한 혁명조직이였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정연한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하나의 대오에 튼튼히 결속하였다.

실로 조국광복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적이며 유일적인 령도를 보장하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결속시

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규약 및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민족대단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기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등대와 같이 휘황히 밝혀주는 조국광복의 전투적기치였다.

혁명투쟁에서 대중을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옳게 조직동원하며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편성하려면 정확한 정치로선과 투쟁강령 및 조직규범이 있어야 하며 광범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투쟁에 나선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바를 명백히 알고 온갖 창조력과 재능 그리고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 통일전선운동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정치로선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하심으로써 민족대단결의 대강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1936년에 조국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때 전민족이 통일단결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대중이 단결하여야 한다는 대중적단결을 위한 강령을 내놓았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반제반봉건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았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45페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킨 전투적기치로 되는것은 바로 이 강령에 우리 민족과 인민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과업들이 가장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는데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조국광복회의 강령에는 우선 온 민족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치적과업들이 명철하게 천명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1조에서 조선인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은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히시였다.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정식화는 이미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에서 건설한 인민혁명정부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에 기초한것으로서 실지 체험을 통해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로동계급의 진정한 혁명정권건설강령이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망라한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일제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 광범한 반일군중을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옳게 반영한 제반민주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온 민족앞에 나선 정치적과업을 제시하여주시면서 일제의 반혁명적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울수 있는 진정한 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남녀평등권을 비롯한 제반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문제들 그리고 이국땅에 가있는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관한 문제 등 민족의 사활적리해관계를 반영한 모든 정치적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정치적과업들은 그것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또한 그것이 민족적독립과 자유, 나라의 륭성발전을 지향하고 사람의 자주성과 민

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하는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공동강령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광복회의 강령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경제적과업들도 명백히 제시하여주시였다.

강령에는 일제 및 친일분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곤한 농민들에게 분배하여줄데 대한 문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한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들과 매국적인 친일분자들의 전체 재산을 몰수할데 대한 문제, 8시간로동제와 민주주의적로동보호제도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민족공업, 농업, 상업을 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회경제적과업들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었다.

강령에 밝혀진 사회경제적과업들은 일제의 식민지약탈로 하여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길이 억제되고 나라의 경제가 심히 락후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실정에서 나라의 경제적자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유일하게 정당한 경제건설강령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또한 사회문화적과업들과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대외정책과업들도 밝혀주심으로써 민족문화건설과 대외정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방향이 전체 인민들에게 명백히 파악될수 있게 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선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의 공통된 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온 민족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굳게 결속할수 있게 하는 민족대단결의 혁명적기치였으며 조국광복의 위업수행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였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그 단결을 위한 정치적강령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조직적규범과 활동준칙이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적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이 감행되는 조건하에서도 혁명조직은 생기발랄하고도 전투적이며 신축자재하게 자기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의 규약은 바로 이런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력사적인 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조국광복회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통일전선운동의 요구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공동강령의 기치밑에 하나의 원칙과 규범에 의하여 통일시키도록 하시였다.

조국광복회의 규약에는 일제를 반대하고 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려는 모든 조선사람은 남녀로소, 직업, 종교, 빈부, 당파 등의 차별없이 본회에 자원참가하여 회원으로 될수 있다고 회원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입회방법과 회원들의 생활규범, 조국광복회의 조직원칙과 그 조직형식, 각급 조직들의 활동규범들을 밝히였다.

특히 규약에는 조국광복회가 비합법적활동을 하는 조건에서 특수분회조직과 그 활동에 대한 규범들이 밝혀져있으므로 조국광복회조직을 적기관안에까지 깊이 침투시켜 조직의 비밀과 회원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시고 몸소 발표하신 조국광복회규약은 조국광복회조직과 활동에서 확고한 조직적기초로 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전민족을 하나의 공통된 리념과 사상으로 묶어세울수 있게 하였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직을 확고히 장성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은 온 민족과 인민을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력사적인 선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조

선사람들에게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굳게 통일단결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였다.

각계각층 조선민족이 일체 차별없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힘이 있는 사람은 힘과 기능을 바치여 2천 3백만 민중이 한테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국의 독립, 해방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선언의 매 문장, 매 구절은 왜적에게 짓밟히고있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며 전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려는 민족대단결의 절절한 념원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립선언에서 유구하고도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력사와 특히 조선인민의 반일투쟁력사를 개괄하시면서 지난날 우리 인민의 투쟁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주요원인은 투쟁대렬이 분렬되고 유일한 투쟁강령과 투쟁방침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지도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따라서 지난날의 투쟁을 교훈삼아 일체 반일력량을 단합하고 그들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다는것을 전체 동포들에게 밝혀주시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계급, 성별, 직업, 년령, 종교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할것을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과 규약 그리고 창립선언은 조선인민에게 조국광복전선에 모든 반제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항일전쟁에 조직동원하는 투쟁강령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일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제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4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은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확대발전하게 되였으며 동시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전국적범위에서 모든 반제력량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조국광복회를 통하여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민족대단결의 혁명적기치밑에 묶어세우자면 무엇보다먼저 광범한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심어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의 정치로선을 광범히 해설침투시키는것이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혁명업적과 공산주의적풍모를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것은 바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게 하는 결정적담보였으며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조직동원하는 결정적요인이였다.

이와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제시된 정치적과업들과 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

술적방침들을 널리 해설선전하며 조국광복회조직망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당면한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절박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우수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을 압록강연안일대와 국내깊이에 파견하시였다. 그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불멸의 업적,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특히 정치공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기초하여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공장, 광산, 탄광, 목재소, 항구들과 군수공업지대의 로동자들과 농민들 속에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조국광복회의 조직망이 전국에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유일적인 지도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 아직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창건되여있지 못한 조건에서 조선혁명에 대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령도를 조국광복회를 통하여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지역에 조직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거점으로 우선 로동자, 농민을 조직화하고 혁명화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시는 동시에 각계각층 군중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혁명적기치밑에 결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불패의 견인력으로 하여 조국광복회에는 그처럼 극악무도한 일제의 파쑈폭압속에서도 불과 수개월동안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민족주의자, 애국적종교인 등 수십만의 각계각층 군중이 망라되고 정연한 자체의 조직체계를 가진 강력한 혁명조직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의 진두에 서계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될 때 적들의 반동공세가 제아무리 악랄하고 혁명앞에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타개하면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력력히 보여주었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국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이 빛나게 실현되고 조국광복회활동에서 불멸의 업적과 경험이 이룩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이 전국에 확대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더욱더 높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련속적인 승리에 고무되고 조국광복회조직들을 통하여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더 잘 알게 된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적영웅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더욱더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더욱 과감히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당시 일제놈들까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적위인 또는 조선민족의 구세주처럼 믿고 그를 경모하며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자들이 많다.》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적단결의 혁명적기치밑에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움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발전과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남기였다.

조국광복회는 국제파시즘과 결탁한 일본제국주의에 민족자체의 주체적력량으로 강력한 타격을 줌으로써 우리 혁명에서뿐만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반파쑈운동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은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거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질뿐만아니라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계속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전선방침은 반일의 기치밑에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국광복회활동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현시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묶고 반일투쟁에서 함께 싸운것처럼 오늘날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그 어떤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이라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전민족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광복회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하면서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대를 이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리 동 희

당사업은 간부들과 당원들 그리고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것과 같은 행정식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습니다. 당사업은 오직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5페지)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인 당사업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 군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여주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는것은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대중을 다스리는 관료당이 아니라 인민대중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대중에 의거하여 혁명하는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리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이 본성적요구를 옳게 구현하자면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속에,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능란하고 활발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기 위한 사업은 강압적으로 내려먹이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오직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일군들이 대중의 정치적열성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것과 같은 행정식방법으로 일할 때는 오히려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군중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꾸준히 해설하고 설복할 때에라야 군중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수 있으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몸바쳐나설수 있다.

경험은 당사업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방

법으로 진행하는것은 주체형의 당의 당일군의 근본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7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본분으로 삼고있는 주체형의 당의 당일군은 마땅히 주체의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은 대중에게 명령하거나 호령할 권리가 없다. 명령하고 호령하는것은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이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억제하는 착취계급의 반인민적통치방법이다.

주체형의 당일군에게는 대중의 자각을 높이는 방법만이 있을수 있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방법보다 더 힘있는 대중동원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동원하는 문제는 절대로 행정적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오직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각성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언제나 해설과 설복을 위주로 하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아래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동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그들과 자주 만나서 담화도 하고 잘못한 문제는 엄하게 비판도 하고 걸린 문제는 제때에 풀어도 주면서 끊임없이 정치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진실로 감동시키고 뉘우치게 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이처럼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주체형의 당의 당일군의 근본사업방법으로 된다.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워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폐지)

오늘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이다.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

으로 확고히 전환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심오한 내용과 매우 높은 요구를 담고 진행되는 오늘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주체시대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전형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당사업을 사람과의 실속있는 정치사업으로 진행하여야만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정치사상적특질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 새 인간의 전형으로 만드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만 사람들을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데 대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로부터 더욱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과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지 않고서는 당대렬을 강화하고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도록 하여야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어떠한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

참으로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우리 당이 지닌 숭고한 혁명위업과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꾸려나가는 근본담보로 된다.

*　　　*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가장 영예롭고 위대한 정치적사업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당이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에게 쉬임없이 새로운 주체형의 피를 넣어주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여부가 좌우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넘치는 혁명가로 만들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당사업을 사회의 주인, 혁명의 주인인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정연한 당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2페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공적으로 벌리자면 그를 위한 정

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늘 유격대원들과 군중들 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그들이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교양하시였으며 혁명대오안에 정연한 정치사업체계를 세워주시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또한 한두번의 교양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체계적이며 인내성있는 교양과 조직사업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개조할수 있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옳게 세우는것은 우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제때에 해설침투시켜 그들이 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활하며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일정한 조직망과 교양망, 학습망에 망라시켜 늘 사상전을 벌리고 닦음질을 할수 있게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위한 정연한 체계가 세워져야만 간부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이 비당원들을 교양하며 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방법으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여기에서 중앙과 도의 일군들이 한달에 20일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10일간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며 집행단위로서의 군당의 일군들이 한주일에 5일간 내려가 사업하고 2일간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갈데 대한 당의 혁명적사업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에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늘 활발하게 전투적으로 진행될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실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에 모든것을 다바쳐싸우는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혁명투사로,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또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5페지)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자면 사업체계와 함께 사업방법에서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한다.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은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없게 한다.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뿌리빼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없애고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사람과의 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전투적인 사업방법이다.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속에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유해로운 사업방법으로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우리 당에서는 더는 허용될수 없다. 따라서 낡은 사업방법은 꾸준한 교양과 함께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통하여 철저히 극복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세도,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재래식사업방법의 자그마한 표현도 제때에 사건화하고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쓸어버리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전당에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일군들이 낡은 틀에 매달려 사람과의 사업을 혁명적방법으로 하지 못하는것은 적지 않게 그들의 수준이 어린것과 관련되여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의 형식과 방법을 요구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일군들이 당에 충성을 다하리고 하여도 사업 능력과 수준이 어리면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방법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적사업방법, 행정식사업방법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없애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옳은 방법론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는것은 주체형의 당의 당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은 그 수준과 준비 정도가 다르고 그들이 처하고있는 생활환경도 다르며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과업도 같지 않다.

사람과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각이한 특성과 환경, 제기된 혁명과업의 내용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각이한 대상에 알맞는 방법론을 가져야 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각이한 대상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진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당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영예로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사상

김 석 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당, 전국, 전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전면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건설의 앞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이미 그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되였으며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총적목표와 방도를 과학적으로 집대성한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문화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 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

1

문화혁명이 어떠한 혁명인가를 밝히는것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으로 되며 문화혁명을 옳은 방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시여 문화혁명의 본질을 새롭게 천명하심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2~23페지)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주의문화,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연과 사회의 힘있는 개조자, 혁명과 건

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며 인민대중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문화분야에서의 혁명적인 변혁이다.

문화혁명은 무엇보다먼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한 혁명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그들을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의식과 함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높은 문화기술수준은 사람들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확고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전제로 된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들이 모든 문화적수단들과 현대문명의 성과들을 독차지하며 근로대중에게는 사회적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초보적인 문화기술수준도 가질수 없게 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지난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문화적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는 사업은 하루이틀에 끝날수 없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기 위한 사업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로써 끝나는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치는 꾸준하고도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문화혁명은 바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의 구속에서 근로자들을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심각한 변혁이다.

문화혁명은 또한 인민들에게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여 그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생활, 참으로 문명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혁명이다.

문화생활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생활의 중요한 령역을 이룬다.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문명한 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는것과 함께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새 문화,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해야 늘어나는 인민들의 문화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혁명적인 문화,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여 사람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

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7페지)

로동계급이 지향하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일뿐만아니라 과학과 문화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이 활짝 꽃피며 공산주의적생활양식이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가장 선진적이고 문명한 사회이다.

또한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완전히 실현되는 가장 발전된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우기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보장하여야 인류의 리상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또한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상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도 문화혁명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2페지)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에 적극 작용함으로써 사상혁명을 촉진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투쟁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한것이며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도 객관세계의 본질과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전일적인 리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보다 심오하게 파악할수 있으며 혁명적세계관을 더 빨리 세워나갈수 있다.

문화혁명과정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그 혁명적인 내용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교육을 받아 자라고 혁명적인 문화예술작품을 통하여 교양됨으로써 혁명적으로 개조되여나가며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혁명가로 자라게 된다.

문화혁명은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로도 된다.

기술혁명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 과정이며 그의 성과는 기계와 기술의 창조자이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기술인재를 대량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이 모든것은 문화혁명을 힘있게 전개하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새로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를 건설하는것이 문화발전자체의 요구로 될뿐아니라 나라의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문화혁명에서 이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문화혁명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또하나의 위대한 공헌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에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문화혁명의 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3~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길을 밝히고 문화생활령역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뚜렷이 밝혀준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 정신, 도덕적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한 기초우에서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까지 끌어올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된 인테리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상정신적풍모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고 문화기술수준이 대학졸업정도에 이르러야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기사, 전문가의 수준에 올라서야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완전히 없앨수 있다. 이렇게 된 때 문화혁명의 과업은 종국적으로 완수되고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수 있으며 사람들은 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완수하려는 혁명적립장을 반영하고있으며 인민들을 락후한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혁명적군중관점을 반영한 탁월한 사상이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 과학, 문학예술 등 문화건설의 주요부문들의 호상관계와 그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과업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문화혁명에서 해결하여야 할 선차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부문은 교육사업입니다. 사회주의교육은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첫공정이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교육사업은 문화건설의 다른 부문을 발전시키는 기초로 됩니다.》

(우와 같은 책, 23페지)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하는것은 교육의 본질, 혁명과 건설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

이 교육은 사람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적인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저절로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사회적인간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주인된 립장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자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사업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인간으로 키우는 첫공정으로서 그들에게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과 지식과 체력을 갖추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모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충실히 복무하는 민족간부를 더 많이, 더 좋게 길러낼수 있다.

또한 교육사업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높은 과학기술수준과 문화적소양을 가진 새형의 인간으로 키워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의 후비간부들을 길러냄으로써 문화건설의 다른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는 기초로 된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주어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형성시키고 그들을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지식과 함께 한가지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가진 쓸모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초병으로 키워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무조건적이고도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후대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교육부문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학교교육의 총적과업이다.

교육부문일군들은 학생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성다하는 주체의 맑은 피를 넣어주어야 하며 현대생산과 과학발전의 추세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의무교육기간에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서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로 길러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도 더욱 앞당길수 있다.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모두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공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사업을 강화하여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의 지식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하며 고등교육을 강화하여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늘여나가

는것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학업을 전문으로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더많은 기사,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과학기술과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지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빨리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박힌 사대주의를 종국적으로 뿌리뽑을수 없다. 또한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연과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들과 현대기술의 원리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목적의식적인 역할을 기대할수 없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을 형상적형식으로 표현하는 문화의 한 형태로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크게 이바지할뿐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도덕품성과 문화적소양을 쌓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문화혁명을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체과학과 혁명적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일련의 원칙적요구를 견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문화건설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고 로동계급의 리념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화혁명수행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계급적립장을 튼튼히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지향을 반영한 가장 인민적문화, 자기 나라의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이며 지도적지침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문화혁명도 자체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매개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민족간부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고 자기 나라의 혁명실천에

철저히 복무하는 교육과 과학, 기술, 문학예술을 발전시킬수 있다. 그리고 민족문화건설에서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야 대중적지반우에서 참으로 인민적인 문화를 건설할수 있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킬수 있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근로자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일수 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를 세우는것이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적요구로 나서는 근거가 있다.

문화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에서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문화의 계급적성격과 사명 그리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의 합법칙적과정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사회주의문화는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반영한 혁명적문화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문화이다.

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의 창조과정은 반동적이고 퇴페적인 문화를 퍼뜨리는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반대하며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이다.

그러므로 문화건설에서 계급적립장을 튼튼히 고수하여 로동계급의 리념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화혁명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립장의 하나로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벌려 낡고 반동적인 문화가 침투하고 되살아나는것을 막아내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로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사회주의문화건설로선과 문화혁명의 기본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한 튼튼한 리론실천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문화건설로선과 문화혁명의 기본과업에 관한 리론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인민들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며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당과 인민이 문화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의하여 남김없이 실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회 건설에 착수하신 첫시기에 벌써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무르익히신 민족문화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우리 인민을 새 문화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안팎의 사정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때에도 나라의 재부를 아낌없이 돌리시면서 교육사업발전의 터전을 닦아나가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문맹퇴치를 새 사회 건설의 첫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문화건설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새로운 고지에로 오를 때마다 한계단 높은 문화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문화혁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문화건설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조직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기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은 극복되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30페지)

오늘 우리 나라는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던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락후한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체과학과 사회주의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활짝 꽃피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온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지난날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존엄있고 슬기로운 민족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장에 서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기술자,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사업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뒤이어 1967년에는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선진적교육제도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1972년부터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키는 높은 수준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을 구현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지난해에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새세대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인간으로,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교육정책의 또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며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양성하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넣음으로써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던 이 땅우에 오늘은 150여개의 대학과 수많은 고등전문학교들이 일떠서 지방마다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여기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기술

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늘어나는 간부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는 간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민족간부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서 우리 당 문화혁명강령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또하나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성인교육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모두가 다 근로자중학교를 비롯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기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이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문화혁명과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과학기술과 문학예술도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과학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가 선, 인민경제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는 현대적과학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은 확고한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촉진되게 되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도 전면적개화기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예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무기로 되고있다.

문화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참으로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현대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무지와 몽매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문명한 나라를 일떠세웠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과 오늘의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만이 모든 인민들에게 가장 문명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문화혁명의 위대한 강령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문화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갈 때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는 더욱 위대하고 찬란한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문화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전투적구호따라 사상,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적인 언어발전의 휘황한 길을 밝힌 위대한 문헌

최 정 후

우리는 지금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 높이 사회주의대건설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언어학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어건설과 우리 시대의 민족어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전면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에는 언어학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문제, 민족어발전을 위한 터를 튼튼히 닦을데 대한 문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한 문제 등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언어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그이께서 밝히신 주체적언어리론을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인 문헌이며 우리 나라에서 민족어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언어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풍부화시킨 강령적문헌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어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심오한 리론실천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언어학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88페지)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서 그것은 민족어문제해결에서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되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언어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민족어문제해결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언어학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곧 언어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한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서 언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해결에서도 의거하여야 할 혁명적립장으로 된다. 언어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언어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할수 있으며 언어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은 언어의 창조자이며 그 보유자일뿐아니라 자기 언어를 발전시키

고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이다. 그러므로 모든 언어문제해결에서 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자기의 고유한 말을 튼튼히 지켜내고 그것을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언어와 관련된 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과 함께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기성리론이나 남의 나라 경험에 대하여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되며 자기 말과 글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 민족어는 그것이 발전해온 력사적조건과 그것이 가지고있는 민족적특성으로 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언어로 존재하고있다. 민족어발전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다른 나라 말을 따르거나 다른 나라 말을 받아들여서는 자기의 민족어를 지켜낼수도 없고 발전시킬수도 없다. 다른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적태도를 없애고 자기의 고유한 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독자적인 민족어로서의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공고화할수 있다.

언어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주체를 철저히 세워 민족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적극 보장해줄수 있으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주의식을 비상히 높일수 있다.

이처럼 언어학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문제를 고찰하고 전개할수 있게 하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민족어문제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또한 민족어발전의 터를 닦을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밝히시고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의 민족어문제해결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8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우리 나라에서 민족어발전을 위한 터를 닦을데 대한 리론은 그이께서 창시하신 혁명적근거지창설에 대한 사상과 리론을 우리 나라 민족어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투쟁에 구현한것으로서 일시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력사적조건에 맞게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인공적으로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북과 남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말과 글의 발전에서도 서로 다른 길을 걷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우리 민족어가 주체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주의적 민족어의 전형인 문화어가 이룩되였다. 그러나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떨어진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말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고 잡탕말로 변하여버렸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우리 말은 엄중한 사태에 이르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어문제해결에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였

다.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어문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켜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는 한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민족어말살정책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해결될수 있게 되였으며 또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만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민족어문제앞에 가로놓인 복잡성과 난관은 오직 공화국북반부에 민족어발전의 튼튼한 터를 닦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 민족어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를 닦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문화어에 의한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과 지원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공화국북반부에 민족어발전의 튼튼한 터를 닦는것은 우리 나라 민족어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며 우리 문화어에 의한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관전적문제이다.

민족어발전의 터를 닦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디를 중심지로 하고 어느 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게 설정하고 풀어나가는것이다.

민족어발전의 터를 닦고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지는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고 민족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충분히 보장된곳이라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어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자리잡고있는곳이다.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세워진다. 평양은 또한 해방직후부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여든곳이다. 이러한 곳에서만 언어발전의 조건이 마련되고 그에 토대하여 언어가 혁명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이 민족어발전의 터로,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지로 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어가 이룩되였다. 이 문화어는 사회주의적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우리 나라에 창설된 언어기지를 공고발전시키고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어발전의 터를 닦을데 대한 리론은 우리 나라 민족어문제해결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분렬된 나라들에서 민족어문제를 가장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밝힌 휘황한 등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또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이 우리 시대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는 탁월한 사상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언어발전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로 된다는것을 밝

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다운 애국자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자기 나라 말을 참으로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78～279폐지)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것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우리 시대는 근로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다.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하며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한다.

사람들의 사회적집단인 민족은 자주권을 옹호하고 자주적인 민족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이다. 민족이 자기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자주적인 민족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민족어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속성이며 한 민족어의 존재를 규정하는 생명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민족적특성을 잃어버린 언어는 벌써 독자적인 민족어라고 말할수 없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가 못살리는가 하는 것은 곧 민족어의 존망문제, 나아가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구상에 민족적차이가 있고 민족어가 존재하는 이상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것은 언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며 또 그것은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민족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가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치고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279폐지)

《말을 얼마씩 계획적으로 고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85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언어체계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낡은 언어의식을 고치고 혁명적인 새 언어의식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언어체계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데서 풀어야 할 기본문제는 어휘정리사업을 혁명적으로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체계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말 속에 들어와있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대담하게 우리 말로 고치며 인민들속에 묻혀있는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찾아쓰고 새로 나오는 말들을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기초하여 만들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말은 제때에 우리 말로 고쳐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관철하는것은 우리 말 속에 들어와있는 한자말을 비롯한 외래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말의 단어체계를 점차적으로 고유어에 기초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듦으로써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인민대중의 낡은 언어의식을 바로잡고 언어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사람은 민족적긍지가 없

는 사람이고 자기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식하고 민족적자부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288폐지)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낡은 사상관점을 바로잡고 우리 말을 옳바르게 쓰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한자말과 외래어를 우리 말로 다듬어 언어체계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린다 하더라도 말과 글을 쓰는 당사자인 인민대중이 낡은 언어의식, 낡은 언어관습에 사로잡혀 계속 한자말과 외래어를 쓰게 된다면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마땅히 어휘정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언어체계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낡은 의식을 버리고 옳바른 언어사용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인민들이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것과 같은 낡은 언어의식과 언어관습을 없애고 고유한 우리 말을 쓰는 새로운 언어의식을 가져야만 자기들의 언어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있을뿐만아니라 언어생활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한 방도는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이밖에도 어휘정리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문제, 글자개혁에 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어발전과 관련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명을 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민족어발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해줌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어건설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주는 위대한 문헌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고정화정책과 민족어말살정책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의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이다.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또한 현시대가 언어문제앞에 제기하는 수많은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언어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풍부화시킨 고전적문헌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어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리론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우리 민족어의 주체적 발전과 인민들의 언어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언어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터가 닦아지고 반석같이 공고발전되였으며 이 터전에서 사회주의적 민족어의 전형이며 우리 민족어의 최고형태인 문화어가 이룩되고 활짝 꽃피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것이 낫습니다.》(우와 같은 책, 284폐지)

문화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구현하여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살려 발전시킨 혁명적인 언어이다.

문화어는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의 사

대주의의 후과와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에 의하여 입었던 상처를 철저히 가시고 근로인민대중이 늘 쓰는 말에 기초하여 그리고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리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언어이다. 문화어는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졌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말을 토대로 하여 언어규범이 세워진 언어로서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의 필수적수단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문화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혁명적언어사상, 주체적인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되고 발전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언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의 주체적민족어를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고있다.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이며 우리 민족어의 최고형태인 우리의 문화어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은것은 참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향도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어를 성과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어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뿐아니라 인민들의 언어생활이 몰라보게 개선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고 그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 문제는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떠나서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언어체계의 정리와 함께 언어생활에서 옳은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나라 근로인민대중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말과 글을 쓰는데서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 근로인민대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인민들속에 남아있던 낡은 언어의식, 낡은 언어관습이 가셔지게 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 리해할수 있는 쉬운 말을 하고 쉬운 글을 쓰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훌륭히 발휘되게 되였으며 말과 글의 문화성도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또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적출판물과 방송에서의 언어는 물론 인민들의 언어생활전반에 걸쳐 민족적특성이 옳게 살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로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민족별로 갈라져 살기 마련이며 조선사람은 조선땅에서 살게 될것이므로 조선말을 계속 쓰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말을 잘 살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88페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우리 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언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체적언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문제를 고찰하고 전개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우리 민족어문제해결에서는 물론 우리 시대의 민족어문제해결을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언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문화어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그 기능을 높이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공화국북반부에 튼튼히 닦아진 민족어발전을 위한 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이미 우리 말에 들어와있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우리의 고유한 말로 고쳐쓰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며 이미 다듬어진 말을 받아들여 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출판보도물과 학교는 우리 민족어발전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것만큼 여기에 큰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더욱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이룩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은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문풍의 귀감이다.

우리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따라배우는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언어사상, 주체적언어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우리 문화어를 더욱 발전시키나가야 하며 문화어에 의한 우리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언어는 교제의 수단이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다. 우리는 주체적민족어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 말을 살리고 우리 말과 글을 한층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활짝 꽃피워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수송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

강 성 산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다그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더욱더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여가고 있으며 경제와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대혁신, 대비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교통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다.

수송전선은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운수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교통운수를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빨리 발전시켜야 생산과 건설의 높은 발전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로동계급의 선진적인 사상과 기술, 문화를 농촌에 빨리 보급시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더욱 빨리 줄일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운수를 다른 부문에 앞세우며 수송전선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교통운수가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교통운수를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년간 사회주의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수송전선을 사회주의대건설의 기본전선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선차적으로 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금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아직 수송의 긴장성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빨리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요구에 수송사업이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신년사》, 1976년 1월1일, 9～10폐지)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무엇보다 올해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중심과업은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들을 점령하며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이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며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한층 더 다지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물질적힘을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혁명적인 경제건설방침이다.

올해에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를 앞당겨점령하며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긴장한 수송문제를 혁명적으로 푸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져 지난해에 이미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이 점령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비할바없이 늘어났으며 인민경제부문간, 지역간의 생산적련계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리하여 전반적수송수요는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송전선에는 의연히 긴장성이 남아있게 되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특히 전당과 전체 인민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대혁신, 대비약이 끊임없이 창조됨에 따라 그 어디에서나 원료와 연료, 자재와 협동생산품들을 더많이, 더빨리 날라다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만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 점령을 앞당길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다.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또한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6개년계획수행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다음해부터 새로운 전망계획을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점령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벌려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휘황한 리정표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교통운수부문에서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수송능력을 지금보다 몇배 높여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웅대한 투쟁목표이다. 그러므로 올해에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수송능력을 예견성있게 조성하며 생산과 수송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더큰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우리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 운수부문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키고 삭도, 벨트콘베아, 관에 의한 3화수송을 적극 실현하며 수송 조직과 지휘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수송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갈 때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봉우리에로의 우리의 진군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송혁명방침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

실적요구와 장래전망을 다같이 타산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사회주의교통운수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켜 생산과 운수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수송의 긴장성을 빠른 기간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우리 수송전사들을 언제나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교통운수부문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수송혁명방침이 있다.

교통운수부문일군대렬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명령지시라면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뚫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나라의 전반적수송능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교통운수의 면모는 날로 일신되여가고있다.

철도전기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화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이 더욱 늘어남으로써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였으며 집중수송체계가 널리 도입되였다. 항 및 부두들이 현대적으로 정비되여 선박화물수송량이 현저 늘어났으며 자동차운수부문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화수송방침에 따라 무산—청진사이 대규모정광수송관과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건설이 완공됨으로써 수송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에게는 또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수송수단이든지 다 자체로 만들수 있는 현대적인 운수기계생산기지들이 있으며 수송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기술력량도 충분히 있다.

수송전선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며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할 때 우리는 수송혁명을 힘있게 벌려 긴장한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송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고 선박수송을 늘이며 3화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철도운수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철도는 우리 나라 수송망의 골간을 이루고있으며 전반적수송수요의 압도적부분을 담당하고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혁명을 힘있게 일으켜야 나라의 전반적수송능력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수송의 긴장성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긴장한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수송 방법과 체계를 고치며 철도의 전기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대형화, 고속

도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마련하여주신 집중수송체계는 종전의 수송체계와는 전혀 다른 주체적인 수송체계이며 이미 마련된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송문제를 진공적으로 풀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수송조직체계이다.

집중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완공단계에 있는 집중화물역과 집중상하차장 건설을 빨리 끝내며 짐을 빨리 싣고 부릴수 있는 현대적인 상하차기계설비와 저장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순환 및 전문 집결수송렬차의 비중을 높이고 그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 계획화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집중수송체계의 요구에 맞게 운행표를 과학적으로 만들고 유일사령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문역을 비롯한 상하차지점들에 짐을 모아오고 철도로 집중수송해온 짐을 기동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를 더욱 다그치는것은 철도의 수송능력을 빨리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며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철도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완공단계에 들어선 철도전기화공사를 빨리 끝냄과 동시에 새 철도전기화 공사를 위한 설계를 앞세워나가야 하며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자, 기능공 양성사업을 예견성있게 앞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철도전기화구간을 계속 늘이면서 경량레루를 중량레루로 바꾸고 구조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제때에 잘하며 역구내선들을 늘여 철도의 통과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기관차, 화차, 객차 등 차량들은 철도의 기본수송수단이다.

철도공장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중량화차와 새형의 객차, 유조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부속품생산 및 수리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차량수리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임으로써 지금있는 차량으로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의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은 철도운수부문기술발전의 추세이며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지펴준 전면적자동화의 봉화따라 역구내와 조차장, 역구간의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며 기관차에 자동신호 및 머무름 장치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견인변전소의 원격조종과 렬차 및 구내통신의 무선화, 렬차운전취급과 역안내 사업의 텔레비존화를 다그쳐 운수수단의 리용률과 철도운수의 기술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들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수상운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리 늘어나는 무역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상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3페지)

강하천들과 바다를 잘 리용하여 수상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많은 짐을 빨리 나를수 있게 하며 무역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고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상운수는 철도와 달리 거리와 통과능력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이 부문을 발전시킨다면 많은 원료와 자재, 설비

들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반하여 전반적인 수송의 긴장성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수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선박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짐배들을 제때에 수리함으로써 배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배수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선진적인 수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수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항 및 운수사업소들에서는 공무동력직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중수리는 물론 대수리까지도 자체로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할수 있도록 배의 기술관리를 잘하며 배를 일상적으로 알뜰히 거둠으로써 배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항과 부두를 현대적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배길개척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있는 모든 항들을 더 확장하고 각종 기중기, 지게차, 콘베아, 삭도, 수송관 등 현대적인 운반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짐을 싣고 부리게 하여 배의 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여야 한다. 동시에 적재장, 창고를 비롯한 저장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항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재령강과 같은 큰 강들에 배길을 대대적으로 개척하며 강안들에 새로운 포구와 부두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철도, 수상 운수와 함께 자동차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자동차운수를 잘 조직하여 자동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동차의 집단적관리운영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동차의 집단적관리운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칙에 맞는것으로서 일군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데서 매우 좋다.

자동차의 집단적관리운영은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집중수송을 할수 있게 하며 자동차의 수리기지를 꾸리고 자동차들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보수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것과 같은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자동차의 집단적관리운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살려 이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형련결차를 더 많이 만들어 리용하며 자동차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선진적인 수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제때에 수리함으로써 모든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송조직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어 먼거리수송과 가까운거리수송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

철도와 선박, 자동차의 련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륜전기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짐을 더 빨리 실어나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며 올해 긴장한 수송수요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의 하나이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송대상과 수송량, 수송능력에 맞게 련대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빨리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현실적요구에 수송사업을 따라세우자면 3화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운반에서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생산한 원료와 연료들을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화물역들에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합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46페지)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은 건설비와 경영비가 적게 들며 빨리 건설할수 있는것과 같은 매우 유리한 기술경제적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화수송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를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삭도, 벨트콘베아, 관을 늘여나감으로써 긴장한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송혁명을 일으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진공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수송전선에 군대와 같은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가 있어야 군사적명령체계와 유일사령지휘체계에 의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으며 사소한 사고도 없이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규정을 잘 만들고 모두가 다 규정과 규칙대로 일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렬차, 자동차, 배의 정시운행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송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더욱 높여 국가재산과 인민들의 재산을 소중히 다루고 제때에 책임적으로 실어다주어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사업을 힘있게 도와주는것은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금속공업, 전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수송전선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어김없이 보장해주며 집중화물역과 항 건설을 비롯하여 자기들이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공업부문에서는 2만톤짜리, 1만 5천톤짜리, 5천톤짜리, 3천톤짜리 짐배들을 많이 무어 수송전선에 보내줌으로써 수상운수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게 해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짐을 제때에 실고부리워 화차회귀일수를 더욱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전군중적운동으로 교통시설을 알뜰히 꾸리고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모든 수송전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인 립장에서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전투적과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우는 바로 여기에 수송혁명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대건설의 늘어

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을 제때에 쓸어버리고 모두가 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우리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통운수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와 우리 당 교통운수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모든 수송전선에 차넘치게 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은 돌격전의 앞장에 서서 현로를 개척한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늘 아래에 내려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우리 당의 운수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참신하고 패기있는 경제선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통운수부문에 주신 교시와 그 집행방도들을 수송전사들속에 깊이 해설침투하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일떠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진군운동이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일대 혁신운동이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수송전선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는것과 함께 모두가 다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수송전사로 살며 싸우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다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두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포연탄우를 뚫고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용맹, 그 투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수송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자.

농업전선에 힘을 넣어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 고지를 점령하자

심 유 흠

올해에 우리 농촌경리부문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와 전국농업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고지를 점령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전당, 전국, 전민의 힘있는 지원밑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전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충성의 전투를 과감히 벌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농촌지원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올해의 영농전투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으며 모든 영농공정이 성과적으로 맞물려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여전히 우리의 주공전선의 하나입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이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날로 긴장해지는 조건에서 우리는 농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신년사》, 1976년 1월 1일, 9페지)

농업전선에 힘을 넣어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사가 잘되고 쌀뒤주가 넘쳐나야 나라의 위력이 강화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모든 면에서 높이 발양될 수 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극히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하에서도 해마다 대풍이 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부문이 놀라운 속도로 빨리 발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빛나게 점령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농촌이 도시를 닮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이 되는 지난해에 드높은 정치적열의를 발휘하여 충성의 대전투를 벌림으로써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또다시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10월의 대축전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였다.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끊임없는 앙양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며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지금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동경하면서 끝없는 찬사와 경탄을 아끼지 않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사실상 최근년간 세계를 휩쓴 한랭전선의 피해를 입어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농사가 잘 안되였으며 심각한 식량위기에 부닥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떤 식량위기도 모르며 모든 근로자들은 생활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누구나 다 배불리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아담하고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우리 나라는 그 누구를 쳐다보지 않으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가 생산한 알곡과 모든 농업생산물을 가지고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농업원료와 식량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해마다 거듭 풍작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늘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빛나는 결과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주체농법의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발현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고귀한 열매이다.

오늘 우리가 모든 힘을 집중하여 농촌건설을 다그치고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앙양을 가져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업전선에서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한층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혁명적기개를 또다시 힘차게 과시하게 될것이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 빨리 앞당길수 있게 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올해의 농업생산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빛나게 구현하여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적지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만 하여도 전국농업일군자회의를 비롯하여 당 및 국가의 중요한 회의들과 농촌현지지도를 통하여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영농사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친히 풀어주시였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할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농업부문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있으며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지난해 800만톤의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가 있고 전당, 전국, 전민의 힘있는 지원이 있으며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의 자신만만한 투지가 있고 올해의 농업생산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부문앞에 주신 강령적교시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올해 농업전선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17페지)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내는것은 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최근년간 북극지방의 얼음동산면적이 넓어진데로부터 생기고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은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 미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적도이북 온대지방과 적도부근 나라들에 많이 미치고있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랭해와 가물, 무더기비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미치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최근년간 우리 나라 날씨는 매우 변덕스러우며 겨울날씨에서 특징적인 삼한사온현상도 변화되였다.

이러한 한랭전선의 영향이 앞으로 오래동안 계속 미치게 될것이 예견되는것만큼 그것을 성과적으로 막아내는것은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가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낼 때 올해 농사를 잘 지을뿐아니라 앞으로도 농업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아내기 위하여서는 논벼농사에 힘을 넣어 벼랭상모를 100%하며 강냉이영양단지를 실속있게, 많이 도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실생활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난 랭상모를 전체 논면적에 100%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매개 협동농장들에서는 부식토가 마련된 정도와 로력곡선 등을 잘 타산하여 강냉이영양단지를 다할수 있는데서는 100%하고 그렇지 못한데서는 영양단지와 직파를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강냉이영양단지옮겨심기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것만큼 평당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제철에 질적으로 내도록하여야 한다.

농사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하여서는 또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농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산이 많으며 지대마다, 물짜기마다 기후조건과 땅의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모든 농사일에는 알맞춤한 시기가 있는것만큼 지대적특성에 맞게 일찍 여물고 수확이 높은 작물을 적당한 시기에 심고 가꾸는것이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종자를 일률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땅의 성질과 기후조건을 잘 고려하여 올되고 소출이 높은 종자를 골라심어야 한다.

좋은 종자를 심는 경우에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알맞춤한 때에 심어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튼튼히 자래운 벼모를 제철에 질적으로 내며 강냉이영양단지옮겨심기도 제기일안에 결속지어야 한다.

올해 농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면 김매기를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벼농사에서나 강냉이농사에서나 김을 잘 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모를 일찍 내여도 김을 매여 풀을 제때에 잡지 않으면 높은 수확을 거둘수 없다.

지금 사회주의협동벌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옮겨심기와 벼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있다. 우리는 모내기전투가 결속되는데 따라 제때에 김매기전투를 전격적으로 들이대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김매기철에 기계제초, 축력제초, 인력제초를 잘 배합하여 논밭김을 매는데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모든 논밭을 풀 한대 없는 꽃밭처럼 알뜰하게 가꾸어야 한다. 아직 돌피를 잘 갈라볼줄 모르는 지원자들에게는 돌피 뽑는 강습과 김매기강습을 잘주어 김을 실속있게 매고 돌피를 모조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협동농장들에서는 논세벌갈이와 논밭깊이갈이를 잘하는 한편 국가에서 공급되는 살초제를 쳐서 모판에서부터 돌피를 비롯한 김을 철저히 잡으며 이랑과 포기를 따라가면서 살초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뿌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시비체계와 시비방법에서 개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업생산에 화학적방법을 널리 적용하는것은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시대의 중요한 추세이다. 농업생산의 성과여부는 비료와 농약을 어떻게 쓰는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화학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져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여러가지 화학비료가 구색에 맞게 생산되여 농촌에 공급되고있다. 우리 농촌에 공급되는 화학비료는 경지정보당 물동량에서나 성분량에서 볼 때 결코 발전된 나라들에 뒤지지 않으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그런것만큼 지금 공급되는 화학비료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쓰기만 하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대농업기술발전추세와 우리 농민들속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 그리고 몸소 시험포전을 가꾸시면서 얻으신 고귀한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가장 알맞는 주체적인 시비체계와 시비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적인 시비체계에 따라 논농사에서 밑거름을 많이 주어 비료를 랑비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며 농작물의 생리적요구에 맞게 밑비료와 아지비료, 조절비료, 이삭비료, 알비료 등으로 비료를 여러번 나누어주며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옳게 배합하여 제철에 과학적리치에 맞게 시비함으로써 비료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에서는 질좋은 자급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강냉이밭에도 밑비료를 적게 주고 이삭비료를 많이 주며 알비료를 적당히 주는 한편 전군중적운동으로 분토를 많이 생산하여 포기마다 200그람씩 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시비체계와 함께 시비방법을 또한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논에 기계로 비료를 치는것이다.

우리는 모내는기계에 비료산포기를 만들어달고 모를 낸 줄을 따라 비료를 쳐야 하며 강냉이밭에도 포기마다 따라가면서 비료를 쳐야 한다.

물관리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물은 농업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큰물과 가물이 심한 우리 나라에서 물을 많이 확보하고 잘 관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올해에도 가물이 올수 있고 무더기비가 내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물방지대책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확대하는 동시에 이르는곳마다에 저수지들과 물주머니를 더 많이 만들고 보막이와 논판물잡이 등 보조수원을 넉넉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고인물빼기시설을 더잘 정비하고 저수지와 강하천제방, 해안방조제들을 더 잘 보강하며 물을 극력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쓰고 찬물을 덥혀서 논에 대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

률과 리용률을 높이는것은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9.25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농기계공장들에서 5월말까지 부속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며 모내기철에는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농촌에 대대적으로 내보내여 농기계들을 수리하여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농기계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더잘 꾸리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를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작업에 동원시키는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등 낡은 재래식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업해야 한다.

모든 농촌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두가 다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농업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해야 한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토지개량을 비롯하여 토지정리와 토지보호를 위한 투쟁, 품종배치 등 제반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매 지방의 특성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며 매 시기의 영농공정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청산리현지지도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농촌로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농사일에 집중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농번기에 건설을 비롯하여 농사일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농촌로력을 동원시키거나 불필요한 통계나 문서를 받아올리며 농사철에 회의를 조직하여 아래일군들을 불러올리는것과 같은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농촌의 모든 력량을 농사일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산작업반원들에게 로력일을 제일 많이 주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작업반원들의 로력일을 평가하며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학맹전선의 영향을 막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농업과학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농업과학자들은 주체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당의 농업정책을 더잘 관철할수 있도록 제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농업과학자들은 특히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실천에서 얻은 선진적인 영농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종합체계화하며 널리 일반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들이 실천에서 얻어낸 좋은 경험들을 수집하여 책으로 써놓으면 훌륭한것이 될수 있다.

농업과학자들은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재래식연구방법을

대담하게 마스고 들끓는 현실속으로, 농민군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토양 기후조건에 맞는 과학적시비체계를 비롯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알곡수확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잘 연구해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방침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사회주의공업과 도시로부터 농촌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각 방면에서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고있으며 기계공업, 금속공업, 전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다른 여러 부문들에서도 각종 농기계들과 기술수단들, 영농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제때에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과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돌려주고계시는 한없이 큰 사랑이며 뜨거운 배려이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촌의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날로 증대되는 사회주의공업과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 은이 최대한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에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로력적지원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한공수의 로력도 랑비됨이 없이 지원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지원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올해에 농업전선앞에 나서고있는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7페지)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농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며 농업생산실천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확고한 신념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모두가 사회주의농촌의 주인된 립장을 지키며 모든 영농사업을 책임적으로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속도전의 기세높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더 큰 기쁨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알의 쌀, 한방울의 기름, 한키로와트의 전력이라도 더 아끼고 절약하여 필요한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열성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 춘 근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파쑈광풍이 휘몰아치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짓부시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결연히 일떠서 용감히 싸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인테리 그리고 종교인들까지도 합류하고있으며 그것은 날로 더욱 심화발전하고있다.

간악한 박정희괴뢰도당은 급속히 앙양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류혈적인 폭압소동과 광란적인 《반공》책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발악할수록 더큰 위기에 빠져들어가며 위기에 부닥칠수록 그로부터 헤여나보려고 절망적으로 발악하는것은 최후멸망을 앞둔자들의 하나의 악순환과정이다.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굴러떨어진 주구의 가련한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입김을 불어넣고있지만 그것 역시 심한 오산이다.

력사에는 침략자가 무사한 례가 없고 파쑈통치가 오래 배겨난 전례가 없다. 인민들을 총칼로 탄압하는 독재자들이 꺼꾸러지는것은 력사의 흐름이다.

극악무도한 《유신》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결정적승리는 멀지 않아 이룩될것이다.

* *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국투쟁이며 민족의 사활적인 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의의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해방후 오늘까지 끊임없이 벌려온 용감한 투쟁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9폐지)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은 현시기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장애물인 군사파쑈독재를 청산하며 반파쑈적인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고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민주주의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현군사파쑈통치의 타도에 화력을 집중하게 되는것은 남조선사회발전의 앞으로 되고있는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의 예속적이며 반동적, 매국적 본질과 관련된다.

박정희괴뢰정권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조작한 력대괴뢰정권가운데서 가장 매국적정권이며 가장 악랄하고 횡포하며 야수적인 정권으로서 식민지파쑈정권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군사파쑈독재정권이 조작된 이후시기 모든 사태발전은 현군사파쑈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그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바랄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겨나갈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정의와 애국을 범죄로 취급하고 매국배족과 부정부패행위를 미덕으로 찬양하는 현《유신》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이 정권을 잡아야만 남조선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찾을수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숙원인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압박과 착취가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의 필연적산물이며 력사발전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이 침략자와 독재자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놈들에게 빼앗긴 자기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도, 삶의 참다운 가치도 가질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자면 마땅히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자주성은 사람들의 사회활동에서 근본을 이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예속되여사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체본성으로부터 온갖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사회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보정치, 강권정치가 살판침으로써 《공기없는 천지, 숨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세상》으로, 《민주주의가 침식당한 페허》로 전락되였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가 없는 남조선사회에서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 활동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되고 국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국이 휩쓸며 민생고가 절정에 이른 오늘의 남조선의 암흑상태는 외세의 침략과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이룩하는것은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 애국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조건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25페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유리한 국면과 확고한 전망을 열어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인민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원만히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온 민족이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론의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언론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처럼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는 조건에서는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없다. 거리와 마을, 학원과 언론기관들이 만고역적 박정희악당의 군화와 땅크에 짓뭉개지며 수천수만의 무고한 인민들이 감옥과 교수대에서 피흘리며 쓰러지고 《포고령》 한마디에 인간의 자주성과 인권은 물론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조국통일문제토의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사실상 북과 남사이에 마련되였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대화이전상태로 되돌아간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반공》의 간판밑에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을 탄압하는데 그 주되는 원인이 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는것과 함께 포악한 《유신》독재체제를 폭파하고 박정희역도를 《정권》의 자리에서 몰아내야만 통일운동의 성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해야 자주적평화통일을 원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이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데 뭉칠수 있으며 그들이 의사와 견해를 소통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애국적 헌신성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가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현《유신》파쑈독재가 타도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될 때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세력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은 아주 순조롭게 실현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또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한편으로는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벌리면서 다른 편으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꼬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따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5페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는 저들의 식민지지배체제를 수습하기 위한 중요한 지탱점으로서 남조선을 인제까지나 틀어쥐고있으려는데로부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으며 뻔뻔스럽게도 남조선을 제놈들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미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집중하여 작전집단을 재편성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작전지휘체계까지 세워놓은 미제는 최근 공화국북반부를 불의에 공격하겠다는 이른바 《9일작전계획》이니, 《7일작전계획》이니, 《5일전쟁론》이니 하는것까지 들고나오면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련속 벌리고있다. 심지어 미제침략자들은 일단 《유사시》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시킬 계획》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한 무모한 적대적도발행위를 더욱 악랄하

게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와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는 원흉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괴뢰도당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민족의 영구분렬과 새 전쟁 도발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지금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느니, 《국가안보에 최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나라의 영구분렬과 새 전쟁 도발준비에 날뛰고있으며 정세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고있다.

박정희괴뢰악당은 《남침위협》과 《안보》의 구실밑에 《사회안전법》, 《민방위법》을 비롯한 류례없이 가혹한 전시파쑈악법들을 무데기로 꾸며냈으며 남조선전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괴뢰군《현대화》와 《향토예비군》의 《전력화》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뿐만아니라 새로 《전투예비군》,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등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숨막히는 하나의 군사감옥으로 만들고 주민들을 총칼로 내몰아 《반공궐기대회》니, 《안보단합대회》니 하는 따위의 범죄적소동을 련일 벌리고있다. 지어 박정희괴뢰악당은 군사분계선을 비롯한 동서남해안과 섬, 산악지대에 배치된 괴뢰군무력을 완전히 《작전태세》에 들어가게 하고 전연지대를 빈번히 싸다니면서 전쟁열을 발광적으로 불어넣고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이 모든 악랄한 소동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며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폭압을 더욱 강화하고 제놈들의 장기집권을 실현해보려는 추악한 범죄행위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계속되고 박정희괴뢰도당이 《정권》의 자리에 붙어있는 한 남조선에서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없으며 더우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사태는 침략자와 매국노를 반대하는 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투쟁으로써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놈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실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남조선혁명투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인민대중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일치단결하여 거족적인 구국항전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굳게 뭉쳐 반제자주의 시대적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견결히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박정희악당을 소탕하는 결정적승리의 담보가 있다.

남조선인민대중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통하여 혁명투쟁의 진리를 더욱 똑똑히 깨닫고 혁명적으로 각성될것이며 마침내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될것이다.

이렇듯 남조선에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 *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는것은 남조선사회의 필연적산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

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1페지)

미제와 괴뢰악당의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밑에 너무도 무참히 짓밟힌 남조선인민들은 이제 더는 물러설 자리도 없게 되였다. 《유신》파쑈독재의 중압속에서 모진 굴욕과 고통을 참아온 남조선인민들은 더는 견딜래야 견딜수 없어 앉아서 죽기보다 일어나 싸우기를 결심하고 원쑤들의 폭압이 그토록 우심한 환경속에서도 독재에 반기를 들고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인민들의 반《정부》항의집회와 거기에서 발표된 《민주구국선언》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현군사파쑈독재하에서의 그 어떤 부분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박정희역도가 물러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그것은 완강성과 조직성을 띠면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를 포괄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확대되고있다.

로동자들은 로조의 결성과 해고된 로동자들의 복직, 임금인상, 《민방위대》페지를 요구하여 공동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현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결부시켜나가고있다. 농민들은 《밭을 갈기전에 파쑈정권부터 갈아엎겠다.》고 하면서 박정희역적놈을 단죄규탄하고있으며 청년학생들은 그처럼 살벌한 《긴급조치》하에서도 《유신》파쑈독재를 쓸어버릴 비장한 결심으로 대오를 결속하고있을뿐아니라 《혈맥》, 《생활》, 《의혈》과 같은 지하신문들을 발간하여 대중을 각성시키며 새로운 반파쑈구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중적공동투쟁에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미국, 일본, 카나다, 서부독일, 스웨리예 등 해외의 교포들까지 합류함으로써 남조선과 해외를 련결하는 광범한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고있다.

날로 심화발전되고있는 남조선인민대중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올해에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신년사》, 1976년 1월 1일, 12페지)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현군사파쑈통치를 때려부시는데 투쟁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불살라버리고 《긴급조치》요, 《갑호계엄령》이요 하는 따위의 파쑈폭압조치들을 철폐하게 하며 체포투옥된 모든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시키고 놈들의 파쑈적 폭압과 전횡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총력안보》요, 《실력배양》이요 하는 군비증강책동과 전쟁소동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외세의존정책을 배격하고 남조선력대괴뢰통치배들이 외세와 맺은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 《협정》들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며 그 투쟁을 하나의 흐름에 결합시켜야 한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혁명력량과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령역을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어느 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만 관계되는 운동이 아니라 압박받고 착취받는 모든 계

급과 계층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되는 대중적인 운동이다.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자와 매국자와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은 힘을 단합하여 대중적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로동자, 농민의 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청년학생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굽임없이 목적의식화하고 하나의 흐름에 결합시켜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벌리도록 해야 한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은 현군사파쑈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광범한 계급, 계층을 망라한 대중적인 공동투쟁인것만큼 더욱 조직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련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투쟁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조직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혁명의 근본문제인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전취되며 정권에 의하여 우로부터 실현된다. 민주화의 성과는 진보적인 정권에 의해서만 공고히 보장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매국적군사파쑈독재정권을 쓸어버리고 그 무덤우에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련합정부를 세움으로써만 빼앗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되찾고 짓밟힌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력사적전환의 길에 오를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모든 투쟁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공》책동에 속지 말아야 하며 반미련공,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결정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숭고한 민족적의무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것은 그 성격으로 보나 국제적추세로 보나 지극히 정당할뿐아니라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공통적인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혈육의 뜨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책임을 같이하는 립장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오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은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은 매국과 파쑈, 분렬과 전쟁을 추구하는 범죄적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인민의 요구대로 《정권》의 자리에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한다.

만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파쑈적폭압과 전쟁도발 책동에 매달려 그 무엇을 이루어보려 한다면 놈들에게는 더 큰 참패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승리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에게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혼란과 파국 상태에 빠진 미국경제

정 송 남

오늘 미제국주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을뿐아니라 미국안에서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현경제위기는 자본에 의한 무제한한 치부와 독점적고률리윤을 추구하여온 미국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속성과 본질적모순을 집중적으로 폭발시킨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커다란 파괴력과 지구성을 가지고 심화되고있는 미국의 경제위기는 경제생활전반을 혼란과 파국에로 깊이 몰아넣고있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기초자체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고 있다.

현경제위기는 미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이루고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력량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미제국주의의 서산락일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 *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미국을 휩쓸고있는 현경제위기는 그 심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이때까지의 그 어느 위기와도 비할수 없는 가장 첨예한 전면적인 경제위기이다.

지난시기 미국에서는 경제위기가 8~9년 또는 4~5년을 사이에 두고 되풀이되였고 그 지속시간도 보통 10~12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현경제위기는 1969~1971년의 경제위기가 끝난지 겨우 한해가 지나서 또다시 폭발한 위기로서 벌써 30개월이상이나 지속되고있다.

미국의 현경제위기는 경제의 《안정》과 《활기증진》을 위한 반동지배층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지구적인 성격을 띠면서 경제전반을 파국에로 깊이 몰아넣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고있습니다. …경제의 침체와 통화팽창은 지속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8페지)

미국에서 현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공업생산은 끊임없이 하강선을 긋고 있다.

종래의 경제위기들에서 미국공업생산의 저하률은 평균 8~9%를 넘어서지 않던것이 이번 위기기간에는 군비경쟁과 경제의 군사화를 미친듯이 다그쳐온 특수한 조건에서도 공업생산이 15%나 내려가고 기업들의 조업률을 40%이상 단축시키는 사태를 빚어내고있다.

지난해만 하여도 미국의 공업생산은 1974년에 비하여 또다시 15%가 떨어져 30년래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그중에서도 미국경제의 《3대기둥》이라고 하는 강철, 자동차, 건설 부문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미국의 강철생산은 그전해에 비하여 또다시 20.4%가 떨어져 1955년에 생산한것보다 적은량을 생산함으로써 그와 련관된 다른 모든 공업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며 자동차공업은 전례없는 판로난과 경영난으로 생산이 끊임없이 떨어져 전면적인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공업생산의 끊임없는 감퇴와 경영난의 심화는 독점체내부와 독점체들사이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켜 이전의 공황들과 자본주의적자유경쟁시기때보다도 더 치렬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국의 대독점체들은 현위기로부터 오는 무거운 부담을 중소기업들과 로동자들에게 들씌우며 위기속에서도 계속 독점적고률리윤을 얻기 위한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독점체들과 군수산업에 눌리워 맥을 추지 못하던 비독점기업체들의 조업률은 60%도 보장할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들은 침체와 제자리걸음끝에 파산일로를 걷고있다. 미국에서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1만 1천 500개의 회사, 상사들이 무리로 파산당하였다. 파산된 이 기업체들이 걸머진 빚은 무려 30억딸라이상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1973년에 비하여 33%나 더 늘어난것으로서 미국력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된다.

치렬한 경쟁과 판매시장의 축소로 말미암아 기업의 파산선풍은 대독점체들까지도 휩쓸고있다.

미국에서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짜내면서 치부해온 독점체인 《그란드》회사가 력사상 가장 큰 《파산》을 당했고 미국의 3대자동차회사로 알려진 《포드》, 《제네랄모터스》, 《크라이슬러》 회사들이 산하에 있는 수십개의 공장들의 문을 닫아맨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국의 대독점체들은 어떻게 하나 현위기를 모면하며 더욱더 치부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한 사기협잡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해나섬으로써 미국경제는 더욱더 혼란속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최근 서방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미국 《록키드》항공회사의 국제뢰물사건은 미국독점자본주의의 추악한 내막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의 대군수독점체인 《록키드》항공회사는 다른 비행기제작독점체들과의 치렬한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정부의 긴급융자를 받아 경영을 유지하면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의 정계, 경제계 인물들을 숱한 딸라와 뢰물로 매수하여 비행기를 팔아먹는 대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록키드》항공회사의 이 추악한 국제뢰물사건은 미국의 대독점체들이 리윤추구를 위하여 얼마나 파렴치하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동시에 이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미국독점자본주의의 취약성과 부패타락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공장조업률의 급격한 저하와 기업들의 대량적인 파산몰락은 불가피하게 해고소동을 뒤따르게 함으로써 실업자들을 홍수처럼 거리에로 내몰고있다.

미국에서 실업률은 다섯번째 경제위기가 있기전인 1969년에 인구의 4%였던것이 지난해말에는 9.2%로 증대되였다. 미국반동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완전실업자수는 850만명을 헤아리고있으며 여기에 반실업자까지를 합하면 그 규모는 무려 1천 250만명을 훨씬 넘고있다. 미국에서 실업자의 이와 같은 증대는 제2차대전후 처음보는 현상이다.

산업분야에서의 위기의 심각성은 오늘 미제가 겪고있는 심각한 석유위기, 원료위기로 말미암아 더욱 격화되고있다.

지난날 미제는 제국주의적략탈방식에 의존하여 자국원유소비량의 40%이상을 해외에서 헐값으로 가져다가 물쓰듯 탕진해왔다. 그런데 제4차중동전쟁을 계기로 신흥세력나라들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석유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가격을 응당한 수준으로 올림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석유위기, 연료위기에 직면하였다.

석유위기는 미국의 동력위기를 초래하고있을뿐아니라 석유를 화학공업의 중요원료로 삼아온 미국의 공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고있다.

지금 연료동력위기는 다른 모든 원료자원위기로 급속히 퍼져나감으로써 크롬, 운모, 망간, 니켈, 보키사이트 등 중요원료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

여오던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미국의 현경제위기는 이처럼 공업생산의 대폭적인 감퇴와 기업체들의 무리파산, 실업자의 격증과 원료난과 같은 심각한 파국적사태를 빚어냄으로써 미국경제를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가 겪고있는 현경제위기는 공업생산뿐아니라 재정금융분야의 위기와 얽혀 경제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재정금융분야의 위기의 심각성은 예산적자와 국가가 걸머진 빚이 걷잡을수 없이 늘어나고 대외무역과 국제수지에서 적자현상이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으며 통화팽창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에서 예산적자의 폭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6회계년도에 미제의 예산적자가 32억딸라이던것이 1975년에는 450억딸라로 불어났고 현회계년도에는 그것이 800억딸라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가 걸머진 빚은 력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있다. 미련방정부가 걸머진 국가채무액은 1969년 6월에 3천569억딸라였던것이 지난해에는 5천억딸라에 이르렀으며 올해에는 그것이 더욱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견된다.

미제는 또한 대외시장의 축소, 제국주의렬강간의 치렬한 시장쟁탈전에서의 패배와 수출경쟁능력의 저하로 대외무역에서 끊임없는 결손을 보고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무역적자는 1971년에 비하여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자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한때 자본주의세계에서 최대의 상품수출국으로서 대외무역의 수출초과에 의거하여 대외군사 및 경제팽창의 지출을 감당해온 미국의 처지가 심히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날로 악화되고있는 무역적자는 미국의 국제수지형편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있으며 나가서 재정금융위기를 첨예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예산적자와 국가채무액의 증대, 무역의 적자현상은 통화팽창과 신용적렬계의 단절, 《딸라위기》와 같은 재정금융위기를 빚어냄으로써 사회경제생활전반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에서는 적자예산을 메꾸기 위한 반동지배층의 인공적인 책동과 증대되는 군사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지폐의 란발로 공황기인 조건에서도 통화량이 해마다 7~9%씩이나 불어나고있다. 미국에서 폭발적인 통화팽창은 화폐의 실질적가치를 부단히 떨구고 전반적물가등귀현상을 끊임없이 초래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으며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

미국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통화팽창은 미국경제를 내부로부터 좀먹어들어가면서 경제전반을 파국에로 더욱 깊이 몰아넣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통화위기는 미국의 은행계로 하여금 심각한 파동을 겪게 하고있다. 이번 위기가 시작된 1973년이후에만도 84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진통끝에 파산당하였다.

미국에서 파국적인 재정위기는 《딸라위기》의 심화로 자본주의세계에서 딸라지배체계가 여지없이 무너져나가게 된데서도 표현되고있다.

미제의 단기채무액이 금보유량을 릉가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딸라위기》가 폭발한이래 미국의 금보유량은 계통적으로 줄어듦으로써 미제는 부득이 딸라와 금과의 교환을 정지하였으며 딸라를 대폭적으로 평가인하하지 않을수 없었다. 딸라의 시세가 끊임없이 폭락됨에 따라 이때까지 자본주의세계에서 《기준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여온 딸라의 신용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은 자기 나라 화폐와 딸라사이의 고정환률제를 끊고 자기 화폐의 환률에 대하여 저마다 련합 또는 단독변동시세로 넘어가고있다. 이것은 딸라지배체계가 몰락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리하여 미제가 서방세계의 금융계에 군림하여 자본주의세계의 화폐시세를 제멋대로 롱락하고 딸라로써 남을 누르고 지배하며 다른 나라의

경제를 저들의 리익에 복종시켜오던 시대는 끝장나가고있다.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의 전반적인 혼란과 파국을 초래하고있는 전례없이 심각한 경제위기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리고있으며 그 암담한 전도로 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 *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파국적인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산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경제는 새로운 심각한 위기에 맞다들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28폐지)

미국의 현경제위기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제도의 기본모순 특히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자본주의형태간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는데 그 요인이 있다.

미국에서는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 있으며 생산의 목적도 그놈들의 리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이런 조건에서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이 결코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경제적파국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한것이다.

특히 미국의 독점지배층은 파국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조금도 손해를 보려하지 않을뿐아니라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사회의 보다 광범한 계층의 리익을 침범하고있다. 그리하여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를 한편으로 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다른 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의 어용출판물들까지도 《세상에는 미국과 같이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 시달려 생사의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없다.》고 쓴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사회의 이러한 모순은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나날이 줄이고 국내시장을 더욱 좁아지게 하고있을뿐아니라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을 절정에 달하게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회적생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생산의 기본조건을 파괴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산생시키지 않을수 없다.

미국독점지배층이 실시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강화는 미국경제를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하고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군비경쟁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리하여 최근년간 미국에서는 군비경쟁과 경제의 군사화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감행되고 그 규모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였다. 미제의 군사비지출은 1966회계년도에 680억딸라였다면 지난해에는 900억딸라이상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여기에 간접적군사비까지를 포함하면 군사비총액은 실로 국가예산의 80%를 릉가하고있다.

이러한 경제의 군사화는 미제독점재벌들에게는 방대한 리윤을 가져다주고있으나 미국경제의 모순과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침략전쟁정책과 그에 따르는 경제의 군사화는 중공업과 경공업,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사이의 불균형을 격화시키고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불균형성을 극도로 심화시키고있으며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를 심히 파괴시켜 미국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몰아넣고있다.

그것은 또한 해외침략무력과 군사기지 유지비, 침략전쟁비용, 대외《원조》비 등 늘어나는 군사적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수탈의 강화와 통화팽창의 격화를 가져올뿐아니라 국제수지의 적자와 금의 해외류출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재정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미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의 현경제위기는 미제와 다른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격화되였으며 특히 자본주의세계에서 미제의 패권적지위가 허물어지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지난날 미제는 자본주의세계에서의 생산과 무역, 자본수출의 압도적부문을 차지하고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하여 채권국가로, 금융자본의 국제적괴수로 행동하면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여왔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세계에서 미제의 처지는 달라지고있다.

최근년간 자본주의발전의 불균등성법칙에 의하여 미제의 지배적지위와 경제력은 심히 약화되고 일본, 서독 등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이전처럼 자본주의세계에서 경제적지배와 세력권을 확장할수 없게 되였을뿐아니라 거꾸로 다른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부단한 경제적 침투와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는 치렬한 《무역전쟁》, 《통화전쟁》이 벌어지고있으며 관세문제, 원료문제 등을 둘러싸고 알륵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엄중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또한 세계식민지체계의 전면적인 붕괴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의 출현과 세계혁명발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에 있다.

지난날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그 어느 제국주의자들보다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그 부원을 긁어내면서 성장하고 살쪄왔다.

미제는 국내수요에 필요한 기본원료가운데서 중요한 전략물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데 그 대부분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긁어가며 이 지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해마다 과잉공업상품의 강매와 부등가교환으로 헤아릴수 없는 리윤을 짜내왔다.

실로 3대륙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중요한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지, 상품판매시장으로서 미국독점지배층의 생명선과 같은 지역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오늘 3대륙은 치렬한 반제투쟁전선으로 되고있다. 이 지역의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정치적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경제분야에서도 제국주의식민지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경제체계를 허물어버리고 그우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고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더욱더 부합되는 새로운 국제관계와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경제적협조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조여매고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혁명적인 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더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할수 없게 되고 과잉상품들을 제멋대로 강매하지 못하게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신흥세력나라들의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이 나라들에 침투하였던 미제의 많은 독점체들은 련이어 몰수되거나 쫓겨나고있다. 실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미제의 략탈적인 경제적지반은 전면적으로 허물어지고있으며 놈들의 마지막생명선은 여지없이 끊어져나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에게 드세찬 공격을 들이댈 때 미제국주의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모든 사실은 현시기 미국을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가 미국독점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과 그 침략적, 략탈적 본성으로부터 생겨나고 날로 심각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

미국에서 뿌리깊은 근원을 가지고 날로 심화되고있는 현경제위기는 미국사회의 불안정성과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서는 독점지배층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지난해 미국근로자들이 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을 반대하고 생활상권리를 요구하여 일으킨 파업은 6천여건에 달하였다. 최근 미국의 40만운수로동자들이 일으킨 대파업은 미국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생존의 권리를 위한 미국근로자들의 경제투쟁은 점차 사회정치투쟁으로 확대됨으로써 미국반동지배층의 정치적위기를 일층 격화시키고있다.

미제의 경제적처지가 어렵게 되고 그 힘이 약화됨에 따라 서방세계에 대한 《지휘봉》은 더욱 통하지 않게 되고있다. 많은 자본주의나라들과 《동맹국》들이 미제에게 등을 돌려대거나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는것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고립당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간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기 위한 출로를 새로운 모험적인 침략전쟁에서 찾아보려고 더욱더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안으로는 파쑈화와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새로운 침략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집중하고있으며 특히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공격용 핵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으며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남조선전역에서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로골적인 침략전쟁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해나서고있으나 그것으로써는 이미 기울어진 제놈들의 운명을 결코 건져낼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은 국내의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며 국제적으로는 모든 반제혁명력량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놈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자기 시대를 다 산 썩고 병든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근 로 자　제 5 호(루계 40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5월 1일　발행 • 1976년 5월 5일

ㄱ—05171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From:
交流圖書公司
CHIAO LIU PUB. SERVICE

To:

書名
Title GUNROJA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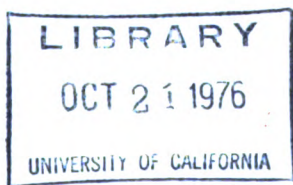
卷數
Vol. No.

期數
Issue No.

發貨單
DELIVERY SLIP (Ref: Y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제 6 호(41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6년 3월 28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을 접견하시고 그와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먼저 야스에 료스께선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께서 나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준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평양에서 만나야 하였겠는데 지금 현지지도를 하고있는중이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인차 돌아간다고 하기에 이렇게 먼길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량해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조선의 통일문제와 조일관계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것을 요청한 질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일군들과 한 담화내용도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어보고 당신이 우리 나라와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이 말해달라고 하였기때문에 먼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문제는 전반적국제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세계정세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신이 전번에 우리 나라에 왔다간 다음에 세계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변되였습니다. 최근 몇해사이에 세계정세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계적범위에서 원료난, 연료난, 식량난이 격화되였으며 많은 자본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연료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사람들자체가 미국에 앞으로 30년동안 쓸 연료원천밖에 없다고 하면서 새 연료시장, 새 연료기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아랍나라들이 연료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진짜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것을 우연한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위기에 빠져 지르는 비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리는데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경제공황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을 분렬, 리간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전복, 파괴 활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미국은 제3세계나라들의 연료무기에 대치하여 식량무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무기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있으며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무기를 대주어 서로 반목, 질투하고 싸움질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와 세계 여러곳에서 쓰는 전술의 하나입니다.

또한 미국은 겉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내적으로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미국당국자들은 량면전술을 쓰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전술을 쓰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책동을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는 《평화》요, 《긴장완화》요 하면서 떠들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세계제패를 위한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전략적으로 세계전쟁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제국주의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위기가 심할 때마다 전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도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직전에도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들과 《불가침조약》이요, 《중립조약》이요 하는것을 체결하였지만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라는것은 어느날 한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기회만 있으면 어느때든지 전쟁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제3세계나라들을 분렬시켜 각개격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조선문제 역시 미제의 이러한 침략책동과의 련관속에서 고찰하여야 합니다.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쓰고있는 침략적수법을 조선에서도 그대로 쓰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분렬하여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려고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려는데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을 통제밑에 넣어야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와 같이 취급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려 하는것은 남조선을 영원히 제놈들의 원료기지로 만들려는것과도 관련되여있습니다. 그들이 남조선에 있는 원료를 탐내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나라의 잡지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조선에 원유가 많이 매장되여있는데 그것으로 하여 앞으로 조선에서 불상사가 생길수 있을것 같다고 예고하는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반도부근 대륙붕에 매장되여있는 원유를 탐내는것 같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틀어쥐는것이 또한 필요한것입니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놈들은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하여 쏘련과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한 다음 우리 나라의 정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침략목적을 실현해보려는것과 관련되여있는것입니다. 조선문제는 당신을 처음 만났던 때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우리를 엄중히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어용출판물들을 동원하여 《9일작전계획》이요, 《5일작전계획》이요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고있으며 앞으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까지 서슴지않고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우리 나라 군사분계선일대에 핵무기를 수많이 배치하여놓았으며 요즘에는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까지 동원하여 전쟁연습소동을 벌렸습니다. 그들이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전쟁연습소동을 계속 벌리겠습니까. 조선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 역시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은 미제와 한짝입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은 철저히 미중앙정보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미중앙정보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기전에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은 미제에게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제공하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조선을 분렬하여 남조선에 대한 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전략이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당장은 그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리라고 기대할수 없습니다. 지금 조성된 정세를 보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련해서 남조선을 내놓고 물러갈것 같지 않습니다.

조선문제는 매우 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문제는 인도지나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려면 남조선인민들과 일본인민들, 아세아인민들이 각성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남조선인민들과 아세아의 적지 않은 인민들은 미제의 음흉한 침략책동에 대하여 각성이 높지 못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 와서 아세아나라들을 통치하고 통제하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못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가운데 미제를 증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미제를 그 무슨 《혜택》을 베풀어주는 《은인》으로 여기면서 미국에 붙어야 쌀이라도 얻어먹을수 있는것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과 일본의 집권자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그에 적극 추종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인민들이 각성하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책동하는 한편 인민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억압하며 탄압하고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인민들이 가난에 쪼들려 살길을 찾는데 눈이 어두워 돌아가게 만들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로 보아 조선의 통일문제는 앞으로 간고한 투쟁을 거쳐야 해결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질문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1972년 7월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에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밝혀져있습니다. 이 원칙은 좋은것입니다.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3대원칙은 우리가 내놓은것이며 남조선당국자들도 이 원칙에 동의하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남조선당국자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승인하였으며 그것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과 합의사항들을 하나하나 부정해나섰습니다. 그들은 한쪽으로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쪽으로는 그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술인것 같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우리는 미국이나 그밖의 어떤 다른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고 조선사람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을 전제로 하여 자주의 원칙을 제기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대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조선사람끼리 조국통일방침을 모색하겠다는것을 명백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남조선의 한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은 외세가 아니기때문에 《유엔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고있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자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로골적인 언행인것입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마주앉았을 때에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거나 나라를 영원히 분렬시키려 한다는것을 말하였더라면 우리는 애당초 그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지조차 않았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도 부정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와 합작하려는 용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책을 그만두어야 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어

떻게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겠습니까.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고쳐야 할 아무런 리유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비방중상하고 반대하는 《반공》깜빠니야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과 합의사항들을 짓밟고 민족분렬책동을 계속하여오다가 1973년 6월에는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갈것을 주장하여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고 영구화하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입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이 겪은 불행과 고통만 하여도 헤아릴수 없이 큰데 그것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을 어떻게 묵과할수 있겠습니까.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는 조건에서 당장 나라의 통일은 이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렬을 합법화할 필요는 절대로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영구분렬을 합법화할수 없으며 그것을 승인할수 없습니다.

민족의 분렬을 합법화하고 영구화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력사에 씻을수 없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의 력사를 후대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북대화가 왜 정체상태에 빠져있겠습니까?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마치도 우리가 남북대화에 성의가 없기때문에 대화가 파탄된것처럼 말하고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시작한것은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대로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려면 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의 분렬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수많이 잡아가두고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은 저들의 매국배족정책을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김대중을 백주에 일본에서 랍치하여다가 재판에 걸어 탄압하고있으며 자기들을 반대하는 시를 썼다고 하여 시인 김지하를 감옥에 잡아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놈들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반공법》에 걸어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고 무참히 학살하고있습니다.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은 많은 종교인들과 지어 지난날 남조선의 《대통령》이였던 윤보선까지 《반공법》에 걸어 탄압하고있습니다. 종교인들과 윤보선 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곧이들을 사람이 없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처럼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아 대화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의 간판뒤에서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더는 참을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를 그냥 붙들어두려 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

려고 책동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계속할수 없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회담을 하자는것인데 남조선당국자들이 계속 나라를 분렬시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그들과 회담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의 분렬을 추구하는자들과 마주앉아 나라를 분렬시키기 위한 회담을 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남북대화를 계속하려고 하여도 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정치도 없고 민족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론리도 없기때문에 그들과는 의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통해야 대화를 하겠는데 의사가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체포구금한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사들을 석방하며 파쑈통치를 그만두고 민주주의길로 나가며 민족분렬책동을 그만두고 통일을 지향하여나간다면 대화를 계속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남북대화를 파탄시킨 일이 없으며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의 통일문제를 토의할것을 여러번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질문한 평화협정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지 그 어떤 다른 사람과 평화협정을 맺을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주인노릇을 하고있는것은 미제침략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통수권을 쥐고있습니다. 우리와 군사정전협정을 체결한것도 역시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당사자이며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당국이 풀어야 합니다.

·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제안에 대하여 아무러한 대안도 없이 어떻게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는가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데 우리는 이미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나가는 조건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조치로서 먼저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이 서로 무장충돌을 방지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 조국통일을 위한 회담을 계속하자는것도 제의하였습니다. 절대로 평화협정체결에 따르는 구체적방안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조선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취해야 할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는데도 미국당국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싫기때

문에 일부러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당국자들에게는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이름으로 미국국회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할데 대한 편지를 보낸지 2년이 지났으나 미국은 아직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조선군사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당사자들에게 호소하는 결의가 채택되였으나 미제는 유엔총회결정도 무시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유엔총회결정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직 저들이 말하는것만 법이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것은 법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사실로 보아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지 않는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분렬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란것을 들고나왔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불가침조약》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불가침조약》이란 조선의 북과 남이 두개 나라로 갈라져있으면서 서로 침략하지 않을것을 약속하자는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분렬을 합법화하자는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시적으로 분렬되여있으면 있었지 무엇때문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 《불가침조약》을 맺어서 분렬을 합법화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불가침조약》은 본질적으로 다른것입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계속 떠들고있는데 오늘 조선에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있는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으며 우리가 남조선을 위협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여 누가 곧이듣겠습니까. 세계인민들은 누구도 그것을 곧이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남조선을 위협한다고 생억지를 쓰고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미국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평화협정도 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와 대화도 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조건을 성숙시켜야 하며 시간이 좀 걸려야 하리라고 봅니다. 인민들의 투쟁이 저절로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이 각성하여야 하며 또한 일본인민들이 각성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과 일본인민들이 각성하여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

을 공동으로 벌림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과 일본을 더는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빨리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세력이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남조선의 민주세력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배후조종에 따라 강화되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형편에서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과 일본인민들은 력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어왔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도 많이 벌려왔기때문에 앞으로 투쟁속에서 더욱 각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지금은 비록 암담하게 지내고있지마는 놈들의 파쑈적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그들은 반드시 각성될것이며 점차 투쟁에 떨쳐나서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력사적경험이 잘 말하여주고있습니다.

반동들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민들의 각성은 더욱 높아지는 법입니다.

지금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투쟁속에서 점차 각성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전반적인 정세는 세계평화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편에 유리하게 반전하고있습니다.

나는 며칠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정부친선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군주통치때 에티오피아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반동통치배들의 탄압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인민들에 대한 통치배들의 압박은 극도에 달하였고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반정부감정은 날로 높아갔으며 마침내 젊은 장교들이 들고일어나 군주정권을 뒤집어엎고야말았습니다. 군주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에티오피아는 진보적인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서는 토지개혁도 하고 많은 면에서 민족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뽀르뚜갈도 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뽀르뚜갈은 지난날 에스빠냐의 프랑코통치 못지않게 파쑈화되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민들이 민주주의적발전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는 아직 복잡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진보적세력이 그만큼 빨리 장성한다는것을 사실로써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조선의 민주세력이 미약하지만 조만간에 남조선인민들은 각성하여 조국통일의 강력한 력량으로 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까지나 괴뢰도당의 압박밑에서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며 살수는 없는것입니다.

나는 일본인민들속에도 일본이 미국의 통제밑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을 더욱 불러일으키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부당한 행동들을 세계인민들앞에 널리 폭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보다 광범한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진상을 더 잘 알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에스빠냐의 프랑꼬도당이 한것과 같은 파쑈화를 남조선에서 실시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범죄적만행과 파쑈적학정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세계인민들앞에 널리 소개선전하여 조선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지금은 남조선 형편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응당한 수준에서 일으키지 못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조선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여론을 더욱 활발히 불러일으킴으로써 조선문제가 아세아문제에서나 세계문제에서나 초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남조선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의 각성도 더욱 높아질것이며 그들의 투쟁 의욕과 기세도 높아지게 될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더욱 고무하게 될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질문한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 역시 미국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일본에서 손을 떼야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정부는 모든 문제를 미국사람들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며 미국의 《두개 조선》로선에 따라 움직이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일본은 마땅히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립장에 서야 하며 같집인 조선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살것을 념원하여야 합니다. 지금 많은 일본인민들이 그것을 념원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분렬시키려는 미제의 로선에 추종하고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미제의 전략적방침의 궤도를 따라 그 기관차에 의하여 움직이기때문에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데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것은 일본인민의 의사가 아니라 미국의 의사이며 미국을 추종하는 소수 일본반동들의 소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인민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탓하지 않습니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일본정부에 제기하여야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보며 또 그것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질문한 우리 나라의 외교방침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외교방침은 종전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외교방침에서 중요한것은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부터 제3세계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시키려는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제3세계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시키는데서 이 나라들의 약점을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미제는 식량이 곤난한 나라들에는 식량을 조금씩 주고 저들의 요구를 실현해보려고 하며 또 일부 나라에는 무기를 대주고 저들의 정치적요구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아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은 제3세계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시켜 그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미제는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미제는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면 좋지 못하다는것을 유엔에서 여러번 겪어보았습니다. 미제는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원료값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원료를 마음대로 빼앗아가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더욱 큰 공포를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나라들에도 손을 뻗치고있고 아프리카나라들에도 손을 뻗치고있으며 이 나라들을 분렬시키는 책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침은 어떻게 하나 제3세계나라들이 분렬되지 않도록 하고 이 나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지금 제3세계나라들에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3세계나라들사이에 경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면 경제적난관을 이겨낼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에서 다음으로 곤난한 문제는 민족간부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있는것입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민족간부를 양성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나라들에는 기술자들이 얼마 없으며 있다면 인문계통의 전문가들이 좀 있을뿐입니다.

지금 제3세계나라들은 농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적도이북지역나라들뿐아니라 적도근방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들이 농업을 틀어쥐고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업을 틀어쥐고나가면 빠른 시일안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성과 독립을 보존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와 정치적단결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는 작은 나라이기때문에 다른 나라를 경제적

으로 크게 도와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세계나라들에 우리의 경험도 알려주며 관개공사를 할수 있는 기술자들도 보내주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어떻게 단결하며 어떻게 하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리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많이 론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략대로 제3세계나라들이 분렬되여 다 각개격파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습니다. 미중앙정보국이 아무리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을 쓰면서 책동한다 하더라도 인민들의 눈은 속일수 없으며 결국 미제의 야망은 파탄되고말것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더 물을것이 있으면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물음: 7. 4남북공동성명의 정신 그리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귀국이 내놓은 방침들과 특히 주석각하께서 1973년 6월 23일에 제시하신 고려련방공화국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에 와서도 종래와 변함이 없다고 리해하여도 좋겠습니까?

대답: 남북공동성명에서 내놓은 우리의 주장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내놓은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한다는 립장이 아닙니다. 남북쌍방이 모여앉아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수도 있을것입니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일부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민족적대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민족적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킬 작정입니다.

물음: 주석각하께서는 항상 남조선에 대하여 간섭하려 하지 않겠다는것과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할 의사가 없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으며 한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정치제도가 있을수 있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 살수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고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억측들이 나오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계십니까?

대답: 지금 남조선집권자들은 우리가 남조선을 《적화》하고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널리 퍼뜨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같은 민족끼리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합쳐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공동적인 리익과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서로 힘을 합하여 풀어나간다면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될것입니다.

물론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미 계급적대립이 없어졌지마는 남조선에는 아직 계급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계급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사람들자신이 할 일이며 우리는 거기에 간섭하지 않을것입니다.

물음: 지금 주석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리해하고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확히 접수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투쟁속에서 점차 옳은 견해를 가지는 동시에 한쪽으로는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박정희를 타도한 뒤끝에 혹시 혼란속에서 사회주의를 강요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지금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가운데는 자기들이 민주주의운동을 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강요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하지 않겠다는것을 여러번 천명하였기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자기가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사회주의라는것은 억지로 먹이면 소화불량증에 걸립니다. 사회주의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먹여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그렇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시종일관 주관주의를 반대합니다. 주관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칙과 량립될수 없는것입니다.

물음: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탄두를 배치하고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미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국이 《남침》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위협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말들에 대하여 주석각하께서 핵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억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계시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대답: 우리는 핵무기로 무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생산할만한 돈도 없거니와 핵무기를 생산하여 시험할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것은 우리를 위협하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미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쓰지 못합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아가 서로 맞붙어 씨름을 하며 돌아가겠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습니까. 적들이 핵무기를 쓰면 자기 편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머저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남조선집권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핵우산을 자꾸 요구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에 핵무기도 요구하지 않고 핵우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음: 귀국과 미국사이의 교섭에 관한 억측들이 많이 돌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석각하의 의견을 듣고저 합니다.

대답: 우리에게는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당국자들과 끝장을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당국자들과 회담이나 접촉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의 회담이나 접촉을 어디까지나 평등한 립장에서 하려고 하지 그들에게 구걸하는 형식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당국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라도 그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당국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있으며 그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구태여 그들에게 빌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하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당국자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회담을 하자고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물음: 최근 《교차승인론》에 대하여 많이 론의되고있습니다. 《교차승인론》에 대하여 주석각하께서 전적으로 부인하고계신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교차승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중국, 쏘련, 미국, 일본이 귀국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움직임을 보인다면 주석각하께서는 그 어떤 움직임에 대하여서도 다 부정하시겠습니까 ?

대답: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이른바 《교차승인》문제도 역시 조국통일의 근본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남조선의 현《정권》은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분렬을 주장하며 외세를 끌어두고 민족적대단결을 방해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현 《정권》을 인정한다는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라 영구분렬을 전제로 하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과 남이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간 다음에도 통일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떠벌이는데 그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들이 늘 쓰는 수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영원히 북과 남으로 갈라놓으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른바 《교차승인론》을 절대로 찬성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이 《정권》을 쥐고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는데 남조선의 현《정권》이란 독립국가들이 대상하여야 할 자주적인 정권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현《정권》이 그대로 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대한 《교차승인》이란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에 대한 《교차승인》문제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분렬을 전제로 하는 그 어떤 형태의 움직임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움직임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남조선의 현《정권》에 대하여서는 어떤 관계도 가지지 말고 철저히 고립시키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남조선에 민주주의정권이 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파쑈적탄압책동을 그만두며 지난 기간 조국과 인민 앞에 지은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더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문제가 다를것입니다.

물음: 주석각하께서는 우에서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세문제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간단한 말씀속에 모든것이 다 포함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더 묻고저 합니다.

일본정부의 태도가 현상태그대로라면 한때 소문이 난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어업협정체결문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대답: 두 나라 정부들사이의 어업협정이 아니라 민간인들사이의 어업협정이라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들사이의 어업협정도 일본정부에서 그것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물음: 일본정부가《소세이마루》사건이 있은 다음 공화국과 어업협정을 맺겠다고 하는것은 제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때 일본에서는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어업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간인의 의도인지는 잘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념원하며 또 우리 나라가 일본의 곁에 있으면서 문을 닫아매고있을수도 없는것만큼 일본정부에서 승인하고 보증한다면 조일 두 나라 민간인들사이의 어업관계문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당신과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담화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중대한 혁명과업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면서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륙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수많이 끌어들여 군사분계선가까이에 배치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한편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계속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에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교활하게 책동함으로써 정세는 더욱더 긴장해지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침략과 분렬의 범죄적목적을 추구하면서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1950년 6.25의 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우리가 맞서고있는 적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전쟁으로 악명높은 가장 흉악하고 교활한 침략자들이다.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미제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지난날 근 반세기에 걸쳐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들씌웠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나 저들의 옛지위를 회복해보려고 망상하면서 미제와 짝패가 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에 끼여들고있는 음흉하고 위험한 침략세력이다.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은 바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서 상전의 비호밑에 민족분렬을 고착시켜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의 사소한 흔적마저 말살하고있는 파쑈호전광들이며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침략과 전쟁으로 이골이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길은 의연히 간고하며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 임무이며 우리 혁명의 당면한 지상의 과업이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맞서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새 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원쑤들의 모험적이며 발악적인 침략책동으로 하여 부닥칠수 있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수 있도록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놈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게 할수 있고 감히 덤벼들어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특히 우리 혁명대오를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투쟁입니다. 혁명의 승패는 먼저 정치적 력량을 잘 꾸리는가 못꾸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2페지)

우리가 적들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는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 우리의 정치적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있다. 정치적력량을 잘 꾸려야 전체 인민이 통일단결된 힘으로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맞설수 있으며 경제적 및 군사적 력량도 보다 훌륭히 준비할수 있다.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고 혁명투쟁이 간고해질수록 우리는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 통일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치사상적힘의 원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에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마련해주시였고 우리 당에 의하여 철저히 고수발전되고있는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다져나감으로써 우리의 정치적력량을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꾸려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보다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유일사상교양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유일사상교양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 바로 이것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모를 박고 유일사상교양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싸워나가는 혁명의 정수분자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억년 드놀지 않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며 온 사회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불타는 심장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 억세게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는 무서울것이 없으며 점령하

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이렇듯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적결정체로, 불패의 전투대오로 만드는데서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의 하나이다.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이 두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상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0페지)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하고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소유하고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켜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만약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짚신과 토스레옷이라는 말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난 새세대들이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도취되여 계급적원쑤가 무엇인지 잘 모르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없게 된다. 또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피흘리며 싸웠고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사회주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사람들도 점차 계급적자각이 무디여 될수록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착취계급이 청산되였으나 남반부에는 가장 악독한 착취제도가 의연히 남아있으며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검은 칼을 갈면서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특히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일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썩어빠진 반인민적통치제도에 대한 계급적증오심을 높이 배양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없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교양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이와 같이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며 언제나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혁명의 전위투사로 철저히 준비시킬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전쟁관점을 옳게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쟁관점을 바로세우는것은 미제에 의하여 항시적으로 전쟁위협이 떠돌고 있으며 특히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긴장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전쟁을 두려워하는것은 부르조아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적사상조류이다.

만약 미제에 의하여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미국놈들이 하는 전쟁은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

전쟁으로 될것이며 그를 반대하여 우리 인민이 하는 전쟁은 자기 조국을 지키며 원쑤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전쟁으로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무모하게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놈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혁명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원쑤들과 판가리싸움을 하여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사소한 환상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완벽한 정치사상적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도 제때에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리고 승리를 이룩해 나갈수 있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철저히 묶어세우는것은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은 대중을 묶어세우며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는데 돌려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4페지)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혁명대오를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질수 있으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분렬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에서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광범한 군중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야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나 정치적대결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완수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인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모범적인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이 혁명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에 대하여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이 복잡한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환경이나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을 버리고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고 혁명을 할수는 없다. 우리는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지지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본인의 현재의 계급적각오정도와 사상상태

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하며 그들이 언제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떳떳이 싸워나갈수 있도록 따뜻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있게 생활하며 미래에 대한 보다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혁명투쟁에서 온갖 열성을 다 발휘하게 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교양대상과 고립대상을 똑똑히 갈라놓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정확히 벌려나감으로써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더 많은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와 같이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오늘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옳바른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게 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권력기관이 아니며 세도를 쓰는 기관도 아닙니다. 당세도와 관료주의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는 인연이 없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6페지)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틀을 차리며 주관주의와 관료주의의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대중을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당세도와 관료주의적사업 방법과 작풍은 순탄한 조건에서는 물론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더 큰 해독을 끼칠수 있다.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강다짐으로 내리먹이거나 호령질을 하면 대중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지 않게 되며 나중에는 군중을 잃어버리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당세도와 관료주의의 조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극복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해야 하며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며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은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언제나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현시기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있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는데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다 밝혀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따라배워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

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님식사업방법그대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현시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는것은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며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요구들은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훌륭히 관철될수 있다.

전인민적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기본담보이다. 전당,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적들이 언제 어떻게 덤벼들어도 그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바로 여기에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기본목적이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인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건설이 일정에 오른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벌어지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물질적력량도 보다 훌륭히 준비할수 있다.

사상혁명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모두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할데 대한 높은 요구를 전면에 제기한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제기한 높은 목표에 상응하게 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사상혁명수행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적으로 옳게 지도하여야 하며 이 운동이 제기한 정치적과업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반석같이 다지며 특히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려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보다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떤 사나운 풍파와 준엄한 시련도 용감히 뚫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강철의 대오, 충성의 대오로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

우리 당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면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당이 제시한 이 과업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이 지펴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고 무엇보다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고히 앞당길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실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것은 당의 정책을 견결히 수호하고 당의 정책을 옳게 집행할줄 알며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옳지 못한것과는 언제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언제나 강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당에 충실한 전사이며 당에 충실한 당원이며 당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48~14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은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품성이다.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은 티없이 맑고 가장 깨끗한 량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실성이며 그 어떤 시련의 시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확고한 정치적신념에 기초하고있다.

이러한 신념은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승리의 한길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탁월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봉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열도는 정치적신념의 높이와 그 확고성에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며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끈다. 수령은 시대와 혁명,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그들속에서 허물수 없는 확고한 령도적권위를 가진다. 인민대중은 이로부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며 오직 수령의 혁명적

령도따라 나아갈 때만이 빛나는 승리와 끝없는 영예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다. 위대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것은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실성은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한량없이 뜨거운 어버이사랑 그리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뢰에서 흘러나오고있다.

이 숭고한 신뢰감, 이 고결한 감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그때로부터 인민들의 심장속깊이에 간직되고 오랜 세월의 준엄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억세여지고 굳어진 혁명적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과 시대의 갈망속에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펼치시였으며 심오한 혁명리론과 한없이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겨주시였으며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그처럼 념원하던 민족적 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로 끌어올리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신 해방의 은인이시며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 현명한 령도로 영원히 빛날 인류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신 사상의 천재, 령도의 천재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의 혁명투쟁로정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와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혁명적의리로 엮어진 영광의 로정이며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진정한 인민적수령의 거룩한 발자취로 수놓아진 빛나는 로정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력사와 혁명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고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시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어버이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편단심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굳건히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며 신조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영원한것이며 가장 높고 깨끗한것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확고한 정치적신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더없이 맑은 진실한 충실성이며 천만년을 두고 변함없이 찬란한 빛을 뿌리는 충실성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니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만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는 혁명적자각을 깊이 간직하는데서 표현되는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한없이 고결한 충실성은 일편단심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려는 숭고한 자각, 한생을 영원히 충성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가려는 철석같은 각오에서 표현된다.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을 더 없는 영예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철석같은 혁명적각오와 의지를 가진 참다운 혁명가이다. 오직 이러한 혁명적각오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있기에 끝없는 행복이 있고 크나큰 영예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울 불같은 충성심을 지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는데서 표현되는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품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의 본분이다.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집행함으로써만 우리는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한생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순간이라도 지체시키는것을 큰 과오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는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내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신념이였으며 행동의 준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참된 혁명전사는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의 주인공들처럼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충성의 한마음만을 안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내여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간다. 그들은 그 어떤 공명이나 남다른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아득바득 일한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혁명임무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나 무조건 접수하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떠나서 참다운 혁명가,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실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

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근로자들속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고있으며 혁명투쟁과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도, 혁명의 배신자들의 간악한 음모도, 그 어떤 엄혹한 난관과 시련도 다 이겨내고 사회와 자연을 변혁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찬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이 있기에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숨쉬고 움직이며 모든 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굳센 혁명적지조를 간직하는데서 표현되는 가장 고결한 품성이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혁명적지조를 지니는것은 충실성의 중요한 징표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는 자신의 신념으로 간직한 혁명적지조를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지켜나간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안팎이 다른 《충실성》, 환경에 따라 변하는 《충실성》을 모르며 일편단심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따르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이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는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고수하고 빛내이게 되며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영예롭게 간직해나가게 된다.

참으로 혁명적지조는 혁명하는 길에 나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투사로, 영웅으로 되게 하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만 영생하는 혁명가의 삶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간고한 조건에서도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영원히 빛내일줄 아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주체형의 열렬한 혁명가로 자신들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견결한 혁명적지조를 지닌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해 우리 혁명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또 걸어나가고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뿌리박고 드팀없이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며 억센 의지이다.

이러한 신념, 이러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힘을 나타내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리

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혁명적 본분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여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륭성번영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조성된 정세와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력사적과업을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하고 복잡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이고 혁명이 요구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사소한 동요도 없이 그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런 충성의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두려울것이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는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자신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끊임없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 혁명대오를 충성의 대오,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며 있을수 있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수양하여야 한다.

쇠도 밖에 오래동안 놓아두면 녹이 쓸듯이 사람들도 누구나 부단히 수양하지 않으면 신념에 녹이 쓸고 변질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자신의 충실성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자기의 충실성에 모자라는 점이 있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하며 가장 결백하고 숭고한 충성심을 지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도끼로 내리쳐도 탕탕 튀여나는 그러한 철석같은 충성의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해나갈수 있으며 총알이 가슴을 뚫는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싸워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주체형의 혁명가의 칭호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469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만 그들을 혁명

적으로 굽임없이 단련하고 어떤 난관과 시련도 용감히 이겨내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지닌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인텔한 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부단히 혁명적으로 수양함으로써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도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만을 따르는 가장 결백하고 순결한 충성의 붉은 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만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장으로 접수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굽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최상의 성과를 거두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혁명과업을 당의 의도대로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열성을 발휘하지 않고 허풍을 치며 문제가 제기되면 발뺌을 하며 책임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충실성이 없는 표현들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사람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주인다운 일솜씨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대로 철저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 대중적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일대 혁명운동으로서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기본인쇠는 어디까지나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람들속에서 충성의 열정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필승불패의 대오,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야 한다.

전체 인민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몸과 같이 전진하는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통일단결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치온다 해도 그것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당의 혁명적령도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높이 드신 민족자주의 기치

김 신 숙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서거 50주년을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력사에 남기신 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게 돌이켜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은 우리 조국강산에 민족비운이 뒤덮였을 때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이시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여놓으심으로써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들은 오늘도 찬연히 빛나고있으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주고있다.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신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1910년대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쓰라린 망국노의 생활을 강요당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식민지였던 조선은 세계에서 류례가 드문 야만적학정과 략탈로 말미암아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화적암흑상태에 처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2페지)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그 첫날부터 파쑈적폭압기구로 온 나라를 뒤덮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놈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자원과 아름답고 고귀한 재부들을 모조리 략탈하여갔으며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은 일제놈들이 피묻은 구두발로 3천리강토를 짓밟고 온갖 민족적재난을 들씌우고있는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투쟁은 뿔뿔이 흩어지 의병운동은 의병운동대로, 애국문화계몽운동은 애국문화계몽운동대로 진행되였다. 모든 투쟁들은 자기의 명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가지고있지 못함으로 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거듭 실패하고말았다.

더우기 의병부대들은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여 국내에 발붙일수 없게 되자 점차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만주의 여러 지방에 흩어졌으며 애국적지식인들과 《우국지사》로 자처하던 사람들도 해외로 망명하거나 반일운동을 줴버리고 일신의 안일을 추구하였으며 지어 시정배로 굴러떨어졌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자들은 《이제는 할수 없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구체적형편은 인민대중에게 정확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신심을 주며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각성시켜 튼튼히 묶어세우며 각종 형태의 반일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 절박한 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실태와 력사적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나라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투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딜 가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독립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력사는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자면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투쟁에서 반일력량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통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제한성을 극복하여야 하며 군사활동과 정치활동,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혁명투쟁을 폭넓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밝히신 나라의 독립을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옳은 길을 밝혀준 탁월한 방침이였다. 동시에 이 방침에는 우리 민족을 가장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으로 보시고 인민대중의 힘을 끝없이 믿으시는 선생님의 열렬한 애국사상이 반영되여있으며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의 손으로 해내고야말겠다는 선생님의 억척같은 불굴의 혁명정신이 반영되여있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높이 드신 민족자주의 기발은 사대주의로 말미암아 질식상태에 빠져있던 독립운동을 구출하고 민족재생의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였다.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선두에 서시여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자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대망국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정신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소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물론 종교인들속에까지 들어가시여 그들을 사대주의의 사상적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사대주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있는 가장 악독한 사상독소로서 혁명운동과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화근이였다. 력대로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은 사대주의를 자기들의 계급적지배를 위한 사상적기초로 삼아왔다.

봉건통치배들이 부식한 사대주의의 엄중한 해독적후과는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었다.

봉건통치배들이 뿌려놓은 사대주의독소는 나라가 망한후에도 가셔지지 않고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에까지 엄중한 해독적작용을 끼치였다.

3.1인민봉기에서 인민대중이 피흘려 싸우고있을 때 소위 《민족대표》라고 자처해나선자들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독립을 《청원》해나섰고 소위 《민족자결론》에 환상을 가지고 구미렬강의 도움으로 독립을 얻어보려고 꿈꾸었다.

사대주의에 물젖었던 《독립운동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일제의 《강대성》에 위압되여 조선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할수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청원이나 개량의 방법으로만 조선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극히 해로운 사상독소를 퍼뜨렸다. 이러한 사대투항주의자들의 외세의존사상은 인민대중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투쟁에 나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혁명운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에서 몸소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계몽시키고 선진사상과 민족자주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여주시였다.

대대로 빈곤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부터 남달리 뜨거운 애국의 정열로 가슴불태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와 지주놈들의 학정밑에서 온갖 굴욕과 무권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겨레의 운명에 대하여 한시도 잊으시지 않으셨다.

선생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나라의 독립은 바로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이 제힘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시고 인민대중을 투쟁에 나서도록 계몽시키고 각성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투쟁의 중심지로 삼고있던 압록강연안의 국경지대는 물론 평양, 강동, 은률을 비롯한 국내깊이와 무송, 안도, 길림, 몽강, 화전을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조선독립은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외세의존은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시였으며 생산자인 근로대중이 왜 못사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각성은 급속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대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되였다.

선생님께서는 한편 인민대중을 민족개량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떼내여 조선국민회 두리에 묶어세우심으로써 혁명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그리하여 무지와 몽매 속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버림을 받던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들은 계급적으로 점차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혁명투쟁의 길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또한 모든 반일력량을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에 묶어세우시기 위해 민족주의자들의 분파행동에 타격을 가하시고 민족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빼앗긴 제 나라를 다시 찾자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한데 모두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는 되는 법이 없다. 바로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단결과 사상의 통일은 매우 귀중한것이다.

거짓과 불신임, 분파행동은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절반 떼여놓고 싸우는것이나 다름없다.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치싸우는 우리들에게는 단결과 사상의 통일 이외에 더 큰 무기는 없다.》

선생님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해방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립장에 기초하여 제시된 방침이였다.

선생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단결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전투적무기이다. 온 민족이 반일의 기치밑에 굳게 통일단결하는것은 적들을 고립약화시키고 민족해방투쟁력량이 결정적우세를 이룩하게 하는 담보로 된다.

특히 반일운동대렬이 사분오렬되여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대오의 통일단결은 민족해방운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반일독립운동의 상층에 들어앉은 민족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권세욕으로부터 반일운동자들의 단합을 반대하였으며 제가끔 군소 독립운동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서로 힘을 합쳐 일제와 맞서싸울수 없었다.

1920년대초에 만주에서 활동하고있던 독립군부대들만 보아도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일제침략군놈들과 싸울대신에 제각기 분파를 이루고 반목질시하면서 다른 독립군부대들과 싸우는데까지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선생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신 무송회의와 독립군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세운 력사적인 덕수지방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당시까지만 하여도 그릇된 길로 나가던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을 조국광복의 기발아래 하나로 묶어세워 옳은 길로 들어서게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독립운동자들을 반일사상으로 끊임없이 교양하시면서 그들을 민족단합의 길로 이끌어나가시기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자들의 반일적요소들은 적극 지지해주시는 한편 비조직적이며 수공업적인 투쟁방법과 대중을 홀시하는 그릇된 견해들을 바로잡아주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통일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아량있는 포용력 앞에 탄복되여 한때 직위와 권세만을 앞세우던 독립운동단체들의 《두령》들까지도 머리를 수그리고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하였으며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싸워나갔다. 그리하여 와해상태에 처하여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은 수습되여갔고 각기 분산되여 활동하고있던 그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높이 드신 조국광복의 기발아래에 하나로 뭉쳐갔다.

김형직선생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점차 통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이 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우리 민족자체의 혁명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갔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또한 각이한 투쟁형태와 방법들을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때려눕히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무장투쟁준비를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무장투쟁에 관한 김형직선생님의 방침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며 조국광복의 곧바른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선생님께서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하여 로동자, 농민들로 새로운 무장대를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는 한편 이미있던 무장단체들에 부단히 혁명적영향을 주어 낡은 관점과 그릇된 투쟁방법을 버리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장차 대규모적인 무장투쟁을 벌릴것을 계획하시고 로동자, 농민출신의 진보적청년들을 사회중명학교를 비롯한 무관학교들에 보내시였으며 몸소 이 학교들에 나가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군사정치훈련을 돌봐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각지의 혁명조직들에서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게 하시였으며 무관학교들에서 육성된 청년들을 중심으로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각지의 혁명조직들과 무장획득을 위하여 파견된 성원들은 일제경찰을 비롯한 적기관들을 기습하고 무기를 빼앗아내며 악질주구들을 처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무장투쟁과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벌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무장투쟁과 정치투쟁,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등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력량을 축적하여 유리한 혁명정세가 조성될 때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매우 현명한 방침이다.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제의 반혁명무력을 혁명무력, 무장투쟁으로 때려엎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무장투쟁 하나의 수단에만 의거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의 강도적식민지통치를 전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장투쟁을 적극 벌려 적들에게 군사적타격을 가하는 한편 이에 각종 형태의 대중운동을 적극 배합하여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벌써 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때로부터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조직지도하시는 전행정에서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능숙하게 결합시키시여 광범한 반일력량을 투쟁에 묶어세우심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이한 투쟁 형태와 방법을 능숙하게 결합시켜나가심으로써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운동을 부단히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다.

이렇듯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심으로써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우리 나라에 새 력사의 려명이 밝아왔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온 생애는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 싸우신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생애였으며 조선근대혁명운동사를 빛내인 위대한 혁명가의 영광스러운 생애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필연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아버님의 원대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출발점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마침내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생을 바치시고 바라시던 념원은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활짝 꽃피고있으며 찬란한 열매를 맺고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열렬한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민족자주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업적을 따라배우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자신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 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

리 강 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발기에 의하여 일어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적인 일대 혁명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6년 1월 1일, 11～12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본질과 중심과업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선 그 본질에 있어서 다같이 사상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대중운동으로 되고있다.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와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가는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 점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36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개조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는 대중적교양운동이며 혁신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최대한 발양시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의 결정적고리를 찾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간을 개조하는 문제와 생산과 건설을 앙양시키는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본질적특징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발전시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생산과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 자연을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간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것을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경제와 문화, 국방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가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천리마운동은 다같이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사상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데 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에 기초하고있다.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다같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천리마의 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 다그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서의 속도전과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상전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며 속도전의 나래돋힌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혁명력량의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데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중심과업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와 같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을 자체의 중심과업으로 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제기하고있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 다시 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오른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킨 운동이다. 당중앙은 전인민적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데 있다고 가르쳤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렇듯 그 본질과 중심과업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공통성을 가진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본질적요구들을 새로운 사회경제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전진이 이루어진 기초우에서 일어난 운동이며 지난날의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벌리는 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일어난 당시의 주객관적조건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벌어지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의 오물을 청산하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당과 인민의 통일과 단결이 튼튼히 다져진 기초우에서 일어난 전인민적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며 공업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던 시기에 발단한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일어난후 근 20년동안에 걸쳐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획기적전진이 이루어진 기초우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436페지)

《우리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의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동원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8~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미풍이 꽃피게 되였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가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6개년계획이 승리적으로 완수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이러한 정치적 및 물질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일어난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벌리는 운동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당중앙에서 밝힌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곧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을 직접 투쟁구호로 제기하고있는 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과 준비된 정치적력량에 비추어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이러한 높은 목표는 제기되지 않았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과 같은 그러한 높은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실현할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으며 그를 실현할수 있는 정치적력량이 충분히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는 미룰수 없는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이 운동에서는 사상의식개조가 단순히 사상일반의 개조나 혁명가일반을 키우는것이 아니라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기본품성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를 만드는것을 가장 주되는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는 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나라의 공업화가 완성된 조건에서 진행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으로서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공업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기술공정을 적극 개선하여 생산을 고도로 현대화하며 농촌경리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친다.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건설이 일정에 오른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벌어지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이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특히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투쟁목표로 삼고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문화혁명수행에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중심목표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면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고중졸업정도의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드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렇듯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기 위한 전례없이 높고 숭고한 투쟁목표를 제기하고있는 위대한 력사적운동이다. 여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렇듯 당의 지도밑에 가장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례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벌어지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되고있다.

*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운동의 요구를 새로운 높이에서 구현하고 발전시킨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한층 더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이 단계를 옳게 설정하며 또한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혁명투쟁이 그러하듯이 사회적운동, 대중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단계와 투쟁과업을 옳게 규정하여야 대중운동을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단계와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특히 이 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적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운동인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할 전략적과업으로서 그것은 결코 짧은 기간안에 간단하게 해결될수 없다.

단계와 과업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서만 힘차게 발전할수 있기때문이다.

대중운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그 운동이 내세운 과업과 목표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며 구체성을 띨 때 높이 발양된다. 만약 대중의 준비정도와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업과 목표를 단꺼번에 지나치게 높이 내세우거나 혹은 너무 낮게 설정한다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충분히 발양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대중운동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단위의 당위원회들이 자체실정에 맞게 단계와 과업을 정확히 규정하며 특히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명백히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밝힌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 실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옳게 하는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옳게 하여야 이 운동과정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과 긍정적모범을 널리 일반화할수 있으며 나타난 부족점들을 제때에 극복해나갈수 있다. 총화와 평가 사업을 옳게 하여야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가는 근로자들에게 드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다. 특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경쟁운동인것만큼 이 사업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비롯한 종래의 사회적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중앙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로 전개하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운동을 널리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운동들은 다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기본전략적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길을 다그치는 운동이며 그 운동이 추구하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회적운동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여러가지 사회적운동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또한 가장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벌리는 혁명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발전시킬수 있다.

이 운동들은 모두다 그 본질과 중심과업에서 공통성을 가진 운동들로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성과적으로 수행된다는것은 곧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과업들이 동시에 해결되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질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 및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로 전개하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도 종전과 같이 계속 밀고나가야 하며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운동도 널리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단위들을 천리마작업반의 수준에 올려세우고 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해결하는데로 나가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힘찬 발전은 전적으로 당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이 운동의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정치사업이며 당이 틀어쥐고 지도해야 할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추진력인 당이 이 사업을 틀어쥐고 옳게 지도할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힘차게 발전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모든 부서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할것이다.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필수적요구

리 길 송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다져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날에날마다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의 거창한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력사적인 당창건 30돐기념대회보고에서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당 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뭉친 충성의 대오로 만듦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이 가르치심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의 튼튼한 골간으로,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워주시려고 그토록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가 깃들어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 대렬을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전투부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1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발전에서 합법칙적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꾸리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만 당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고 당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당이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5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대중의 선봉적 정치조직이다. 여기에는 오직 로동계급의 선각자들, 근로인민의 가장 우수한 핵심분자들만이 들어올수 있다.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당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심화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자기 대오를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벌려나감

으로써만 완전무결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계급의 조직된 선봉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처하여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그 어느때보다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였다. 당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매우 높아졌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전당간부화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수준, 실무적자질이 높아지고 그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전당의 주체사상화, 이것은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며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당 발전의 오늘의 현실은 그에 맞게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진 공산주의자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릴 때 당의 질적공고화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이룩할수 있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계속 튼튼히 꾸리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워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임무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정치사상적 및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유기체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대오로 꾸리며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해나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진행하여온 혁명적 개조과정에 비할바없이 심오한 내용과 매우 높은 요구를 담고있는 거창한 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이 어려운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하는것은 당대렬의 질적강화에 크게 달려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온 사회를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로 단합된 충성의 대오로 만들자면 먼저 사회의 심장이며 사회발전의 추진력인 당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선봉적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당대렬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꾸리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나갈 때에만 당이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혈맥속에 힘있게 뿜어주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 잘, 더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매우 긴장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악당은 침략과 분렬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놈들의 무모하고도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우리와 적들과의 대결은 결국 힘의 대결이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의 정치적힘을 키우는것이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정치사상적우월성에 기초하여 미제와 싸워이겼다. 정치사상적힘을 키우는 바로 여기에 적들을 타승할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의 정치사상적힘을 키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대렬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려 그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려야 전체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따라서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계속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면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일대 혁신운동이며 사회적인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은 행정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사업과 밀착되여있는 당적인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내밀자면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옳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꾸리는것이다.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높여야 광범한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수 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가져올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가진, 언제나 청춘의 기백과 활기가 약동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야 할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대렬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갈수 있다. 결국 당대렬의 공고성, 질적수준은 주로 그 골간인 간부대렬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진실로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투쟁하는 사람들로 간부대렬을 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그이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실성의 발현이며 우리 간부들의 기본표징이다. 간부라면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일이 잘 안되는것을 안타까와할줄 알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무조건 성실히 집행하는데 모든 심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사람이며 우리 당의 간부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바로 이러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러자면 당조직들은 간부사업에서 리력문건에만 매달려 사람들을 료해평가하는 낡은방법과 결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적본질, 진짜속을 알아내는 당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간부대렬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간부들에 대한 교양을 실속있게 하고 대상간부의 후비를 정확히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워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간부들을 제때에 선발배치할수 있다. 그리고 당에 속을 주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는 등 동상이몽하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간부선발배치사업을 옳게 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벌려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이다.

사람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쇠를 공기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산소의 작용을 받아 녹이 쓰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교양하지 않고 방임하여두면 나쁜 사상의 영향을 받아 머리에 녹이 쓸고 변질할수 있다. 아무리 계급적바탕이 좋고 혁명성이 강한 간부도 등용한 다음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일하고 교만해지고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게 된다. 간부들속에서 일을 주인답게 혁명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무책임하게 하며 작풍에서 로동계급적풍모가 부족하고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며 관료주의를 부리는것과 같은 현상은 혁명화되지 못한 표현이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모든 간부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합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줄 아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당조직들은 간부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천투쟁, 당면하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속에서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간부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육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에 끝없이 충직한 간부란 당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할 사상적각오가 되여있으며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임무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총을 잘 쏘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이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되였다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이 자체학습을 강화하고 기술학습에 적극 참가하여 현대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배우도록 하며 특히 자기 부문의 기술지식에 정통하고 능수가 되도록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간부들이 혁명적소설도 많이 읽으며 영화, 연극도 계획적으로 관람하는 등으로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간부들에게 실지사업과정을 통하여 당사업방법, 사람과의 사업방법을 체득시킴으로써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도록 조직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간부들이 열렬한 혁명가, 능숙한 정치활동가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대렬을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꾸리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것은 당대렬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대렬을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꾸리고 그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여야 당대렬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으며 당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장성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새로 자라나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 가운데서 당원후비를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워야 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준비된 핵심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학습과 당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교양과 개별교양을 옳게 결합하여 당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당대렬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5페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을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만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도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꾸리는 사업도 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철칙으로 되는것은 그들이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게 하는것이다.

당의 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순수한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습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때그때 림시분공을 받아 수행하는것만 조직생활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물론 회의나 학습을 하거나 당조직에서 주는 림시분공을 수행하는 활동도 당생활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당조직생활에서 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원들을 신임하시고 맡겨주신 본신임무를 잘 수행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한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게 될것이며 영광스러운 당의 지도를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게 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원은 당조직생활에 충실한것으로 되며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으로 된다.

당조직들은 우선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당조직생활에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간직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으로서의 우리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은 바로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특히 본신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유지된다.

실천적경험은 본신임무수행에 정력을 쏟아붓지 않으며 건달을 부리면서 어물어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당원으로서, 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칭호를 빛내여나갈수 없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해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당생활을 철저히 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총화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정치적총화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생활총화를 본신임무수행을 중심에 놓고 사상적으로 깊이 분석하는 총화로 되게 하는것은 당조직생활의 중요한 원칙이며 당생활총화의 근본요구이다.

당생활총화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사상생활총화로 되게 할 때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온갖 잡귀신들을 철저히 뿌리뽑고 집단안에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당원들이 자신을 당과 혁명에 진실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더 잘 준비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깊이 연구하며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혁명실천과 결부시켜 진행하는 문제도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고 그에 따라 조직사업과 장악통제사업을 안받침해나가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은 우리 당대렬을 충성의 대오로 더욱 철옹성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계속 튼튼히 꾸림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제도

류 금 선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새롭게 채택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정은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교육학에 의한 보육교양의 제원칙과 요구들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보육교양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후비대로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인 어린이보육교양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훌륭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의 대법전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보육교양제도를 법화함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 *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는 문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후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자기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자기의 사상대로 개조하며 그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만 자본주의사상독소를 뿌리뽑을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되살아나지 못하게 할수 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10페지)

사람들속에서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야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동원하여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경제건설만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사

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경우에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세살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는바와 같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잘 교양하지 않으면 그들의 세계관형성과 장래의 사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무도 어려서부터 잘 가꾸어야 곧게 자라게 할수 있듯이 생물체인 사람도 어릴때부터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워낼수 있다.

더우기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혁명의 과녁도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여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문제는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물론 모든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국가부담이 요구되지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혁명을 위하여, 과도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방법으로 보육교양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그들을 어릴 때부터 조직과 집단 생활에 버릇되게 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교양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낼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또한 녀성해방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녀성은 우리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동력으로서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적극 혁명화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비록 녀성들이 사회적불평등과 인신적예속,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양육을 비롯한 가정적부담에 얽매여 사회정치생활과 새 사회건설에 널리 참가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그러므로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할뿐아니라 가정일과 어린이를 키우는 부담에서 해방하고 사회에 적극 진출시켜 조직생활과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지어주는것은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고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사람들의 사상의식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할데 대한 주체적인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도

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도 하고 국방건설도 하여야 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계속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는 조건에서도 오직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막대한 국가적부담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인류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고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시책인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데 대한 공산주의적시책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인류가 오래동안 한갖 머리속에서만 그려오던 공산주의적리상이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현실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키우는데서 우리 나라가 단연 세계의 앞장에 서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의 위대한 승리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랑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할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춘 6만여개의 탁아소, 유치원이 일떠서고 여기서 350만명에 달하는 학령전 어린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사랑 속에서 세상만복을 다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가는곳마다가 어린이들의 보금자리이고 《애기궁전》으로 가득차있는 어린이들의 왕국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보육교양제도이다. 바로 여기에 이 제도의 근본특징과 우월성이 있다.

우리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하고 교양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평등한 제도라는데 있다.

우리의 보육교양제도하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을뿐아니라 어린이보육시설이 하나의 영업기관으로, 돈벌이수단으로 되여있고 부모들에게 비싼 양육비를 강요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보육제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양육비의 일부만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보육교양제도와도 구별된다.

우리의 보육교양제도는 모든 어린이들이 착취사회에서와 같은 사회악을 모르고 행복하고 슬기롭게 자라날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있는 평등한 제도이며 각자가 사회에 기여한 몫에는 관계없이 어린이양육에서 모든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산주의적원칙을 구현하고있는 평등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또한 어린이들을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키우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데 있다.

우리의 보육교양제도하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며 체계적으로 돌보아주고있다.

모든 어린이들이 세상에 태여나기전 어머니의 태내에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과학과 기술이 복무하고 모든 귀중한것들이 그들에게 아낌없이 돌려지는것이 우리의 보육교양제도이다.

우리의 보육교양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또한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사상교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집단생활을 통하여 그들속에서 조직생활기풍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키워줌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가장 혁명적인 제도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보육교양제도는 비길데 없는 우월성으로 하여 실생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나라의 훌륭한 보육교양제도에 의하여 우리 어린이들은 아무런 질병도 모르고 매우 건강하게 자라나고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바탕우에서 좋은 품성과 습관을 키우고있으며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다 받음으로써 지덕체를 갖춘 앞날의 주체형의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여가고있다.

가장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녀성들앞에는 광활한 활무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비상히 높아지고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 주체적인 보육교양강령의 력사적승리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우월한 보육교양제도하에서 살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의 결과이다.

언제나 후대육성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어린이보육교양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조직령도하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어린이보육교양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바로 이 시기에 《제일 좋고 훌륭한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혁명적원칙이 제시되고 이 땅우에 솟아오를 어린이왕국의 풍요한 터전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혁명적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어린이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보육교양기관에 대한 지도관리문제 등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혁명을 하고 건설을 하는 목적이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낄것이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많은 국가자금을 돌려주시였으며 이 부문사업을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와 전국어머니대회, 전국교원대회를 비롯한 력사적인 모임들을 마련하시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여 어린이보육교양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유치원사업에 철저히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이바지하게 하시기에 언제나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탁아소, 유치원의 조직과 운영에서도 녀성들의 사회정치활동과 어린이보육교양에 유리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거리조건, 어린

이수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시여 탁아소, 유치원의 규모를 규정하여주시였으며 녀성들의 활동상 특성을 고려하여주, 일 탁아소와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육친적인 배려를 돌리주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거리상 가까운곳에 탁아소가 있을 경우에는 녀성들의 의사에 따라 편리한 탁아소에 어린이들을 맡기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교대작업을 하거나 출장을 자주 다니는 근로녀성들을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에서도 교대제를 내오게 하시였을뿐아니라 현대적인 대규모의 주탁아소들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탁아소, 유치원의 시설을 보다 과학화, 현대화하며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잘하여나가도록 온갖 국가적인 조치를 다 취하여주시였다.

하나의 탁아소, 유치원을 지어도 그 위치를 제일 좋은 자리에 정하게 하시고 채광조건, 통풍관계, 온습도보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방의 구조와 배치로부터 출입문의 손잡이와 놀이터의 시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보살펴주시고 바로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어린이용 식료품공장과 옷공장을 꾸려주시고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소를 따로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설비와 소비품들을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생산공급해주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실 때마다 먼저 탁아소와 유치원에 들리시여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조건과 그들에 대한 영양공급정형 등을 세세히 알아보시고 친히 영양공급표까지 짜주시였으며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탁아소, 유치원에 전문의료일군들을 배치하여주시였으며 탁아소에는 아동병동과 ■시, 군에는 소아병동을 내오게 하시고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어린이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 지능정서교양을 강화하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그 어느것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속에서만 풍만한 열매를 맺을수 있었다.

실로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이 발전하여온 자랑찬 로정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보육교양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위대한 승리의 력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로 뜨겁게 수놓아진 은혜로운 사랑의 서사시이다.

그러기에 외국의 벗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하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을 못내 부러워하면서 오늘의 이 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외국의 한 벗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명한 정책을 실시하고계십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천재적인 구상을 하고계십니다. 세상사람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세계최초의 인민적시책으로 조선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에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할것입니다.》라고 감탄을 표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많은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시여 선포하신 어린이보육교양법을 가리켜 《공산주의 보육교양의 위대한 강령》, 《20세기의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혜택을 베풀어준 참말로 부러운 조치》라고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 보육교양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널리 해설침투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과 보육교양일군들이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업에서 이 법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교양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보육원, 교양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전문지식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뿐아니라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288페지)

우리는 보육원, 교양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교양원양성사업의 질을 높여 우수한 교양원들을 길러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육원, 교양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이 어린이양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전문지식에 정통하고 보육교양사업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한다.

보육원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새로운 성과에 기초하여 보육교양방법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훨씬 높이며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제공급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과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야 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오늘의 행복이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워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자라며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보육교양일군들은 또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미워하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에 습관되게 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지적교양과 정서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갖춘 앞날의 훌륭한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우리 나라 보육교양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실생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은 모든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전국가적, 전인민적 지원으로 탁아소, 유치원 건설과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교구비품, 놀이감, 식료품,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온 세상에 선포한 오늘 우리들앞에는 보육교양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지있다. 참으로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모든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키우고 녀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옳바른 길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리 상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최근에 주신 일련의 강령적 교시들에서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을 현시기 경제사업분야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 사업태도, 사업기풍이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여기에 현시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 *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중요한 표현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사람이 어버이수령님께 충실하고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진실로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나라살림살이를 꾸리는데서도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를 재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온갖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고있던 우리 인민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나라의 모든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과 물질적부를 인민들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이며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뚜렷한 표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게 하

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려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의 표시로 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게 하는것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이 심려하시는 문제이며 우리 당이 경제사업분야에 내세운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알뜰하고 깐지게,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수령님께 진실로 충실한 사람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어버이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일본새를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열도의 충성심을 떠나서 결코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생각할수 없다.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할 때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는 참다운 일본새가 높이 발양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하며 그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데서뿐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주인답게 일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므로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으로, 그것을 꾸려나가는 직접적인 담당자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으로서 응당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의 부를 늘이고 있는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세워나가는것은 곧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모두가 다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자기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한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더 잘 갖추어나갈수 있게 된다. 또한 있는 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기술혁명과업을 더 빨리 실현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을 더 잘 관철해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속에서 온갖 비문화적인 생산방법과 생활유습도 철저히 극복해나갈수 있다.

이렇듯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경제과업수행과 관련된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경제적처지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자신과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한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으로 되고있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집단과 사회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앞세우고 일을 거칠게 되는 대로 하거나 하면하고 말면마는 식으로 하는 낡은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이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골고루 다같이 잘살자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야 한다. 일을 거칠게 하고 랑비하는것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을 깐지게 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사업과 조성된 정세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게 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에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를 점령하며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튼튼한 경제적 밑천이 마련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됨으로써 방대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가지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모든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한다면 자금과 자재, 로력을 적게 들이고도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 올해에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를 점령하며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문제도 구경은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게 하여 우리 인민경제에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해나가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오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적들이 덤벼든다면 침략자들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한다. 이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

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을 힘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부담이 크고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형편이지만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세계혁명에 더 잘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부쩍 높이는 한편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게 하여야 한다.

경험은 근로인민대중이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게 할 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하며 경제사업에서 부단히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나감으로써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오늘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주인다운 태도는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방침들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편향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에는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대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방침들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데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기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 공업과 수송간, 공업과 농업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는 문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결합하여 옳게 풀어나갈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모든 방침들과 조치들은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만일 채취공업부문에서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철저히 앞세우는것을 비롯하여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당면한 생산일면에만 매달리면서 전망적으로 일을 내밀지 못한다면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게 되며 전반적나라살림살이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할뿐아니라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성과적으로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올해에 다시한번 800만톤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문제도 결국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모든 농촌지원자들이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달려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농업열성자회의에서와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계제초, 축력제초, 인력제초를 잘 배합하여 논밭김을 제때에 깨끗이 매며 한대의 돌피라도 모조리 잡고 모살이비료, 아지비료, 알비료, 이삭비료를 주는 동시에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옳게 배합하여 제때에 주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간다면 어김없이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풍족하게 꾸려나갈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혁명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주인다운 태도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하는데서 표현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성을 담아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는 중요한 예비가 있다.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해나갈 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가 적극 탐구되고 제품의 질이 더욱 높아질수 있으며 온갖 랑비를 없애고 자재와 자금, 로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수 있게 된다. 결국 모든 일을 깐지게 알뜰하고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생산을 높이는것과 맞먹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특히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높은 당적책임성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자기 맡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당적책임성이 있어야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어떠한 불리한 환경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내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사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 때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며 있는 자재와 원료, 있는 설비와 자금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내게 되며 한덩이의 쇠붙이, 한줌의 세멘트, 한쪼각의 천, 한그람의 비료나 한방울의 연유라도 아끼고 절약하여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게 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정책집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은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걸린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오늘 지도일군들의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

철하여야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들을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력, 기계설비, 자재, 자금 등 계획화의 요소들을 면밀히 타산하여 모든 균형들을 빈틈없이 맞물리며 기술지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모든 설비, 자재를 생산현장에 책임적으로 날라다주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도, 한 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 문제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엄격한 절약제도의 실시는 경제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며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필수적요구이다.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로력과 자재, 설비 및 자금을 적게 들이고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재산관리와 재정관리를 강화하여 더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을 절약하여야 한다.

대비약, 대혁신이 끊임없이 이룩되고 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현실은 한푼의 자금, 자그마한 자재라도 아껴쓰며 절약한 모든것을 사회주의건설에 바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한푼의 자금이라도 아껴써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밝혀준대로 재정총화와 생산총화를 맞물려 제때에 철저히 지음으로써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늘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국가재산을 알뜰히 관리하며 재정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재정거래관계를 신속정확하 제때에 처리하도록 하며 재정사업을 생산과 맞물려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더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물자자원의 리용과 자재공급을 개선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원단위물자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추며 설정된 기준을 선진적인 기준으로 끊임없이 갱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또한 물자를 정확히 실사하고 등록장악하며 놀고있거나 필요치 않은것들을 다른 부문에 넘겨줌으로써 전국가적,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물자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로력을 절약하며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며 한알의 쌀, 한그람의 천,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극력 아껴써야 한다.

우리는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만들며 거리와 마을, 주택과 합숙, 작업장과 포전, 철길과 도로 주변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곳을 알뜰히 꾸려야 한다.

오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다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3~364페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태도, 사업기풍에 달려있는것이지 물질적조건이나 그 어떤 다른 문제에 걸려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려는 각오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모든 일에서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온갖 낡은 사상과 사업태도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자본주의사상잔재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낡은 사업작풍과 무책임한 사업태도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세울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이 제도를 목숨바쳐 사수하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질 때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높이 발양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끊임없이 미워하며 집단주의사상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건 말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국가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 헌법과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생산과 소비, 류통의 모든 령역에서 경영활동과 계획수행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총화하는 제도를 엄격히 세워 국가계획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규률과 법적질서를 어기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기풍을 따라배우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자.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심각한 과국적위기

김 범 룡

오늘 남조선경제는 최악의 파국적위기를 겪고있다.

항시적인 침체와 혼란 속에서 허덕이는 남조선경제는 외래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로 말미암아 식민지적예속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거기에 세계경제파동의 영향까지 겹치여 더욱 심한 진통을 겪고있다.

현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벌이는 이른바 《실력배양》과 《근대화》가 허황한 망상이며 기만이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전례없는 파국상태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세의존책동의 직접적산물이며 남조선의 식민지사회경제제도가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에서의 경제위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 놈들의 멸망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　　*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의존책동에 의하여 끊임없는 파산과 몰락의 길을 걸어온 남조선경제는 최근년간 외래독점자본의 압력과 세계경제파동의 영향으로 더욱 엄중한 파국상태에 놓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있으며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1페지)

미제의 사촉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외세의존정책과 경제의 군사화책동에 의하여 안으로는 민족경제가 여지없이 파산몰락되고 밖으로는 미일독점자본에 의한 경제의 예속화, 군사적부속물화 과정이 더욱 촉진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경제는 극도로 식민지적 기형성과 편파성을 띠게 되였으며 그 파국적위기는 전례없이 심화되였다.

오늘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경제의 모든 분야와 부문을 포괄하면서 서로 뒤엉켜 강한 파괴적작용을 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파산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체로 확대재생산을 보장할수 있는 필수적전제들이 완전히 결여된 극심한 식민지적 예속성과 편파성을 면 절름발이경제로 되였다는데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남조선경제에서는 연료, 원료채취부문의 심한 락후성과 농업생산의 쇠퇴로 말미암아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공업내부에서의 원료생산과 완제품생산부문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조성되고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남조선공업은 연료, 원료, 자재 및 설비의 자체조달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의 대부분을 미일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으며 가공공업일면에만 편중되여있다. 공업에 소비되는 주요원자재의 대외의존도는 80~100%에 이르고있으며 그 압도적부분을 미일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다. 현재 원자재, 시설재, 소비재의 년간 총수입에서 미일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자재가 64.4%, 시설재는 73.5%, 소비재는 84.5%에 달하고있다.

군사경제적잠재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시되고있는 남조선의 전력, 정유, 화학 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도 거의 전적으로 미제의 유류에 의존하고 있다. 남조선의 에네르기총자원구성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4%, 그중에서도 전력생산의 90%를 석유에 의존하고있다.

남조선의 공업부문기업체들은 원자재뿐아니라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미일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다. 지금 남조선공업기업체들의 경영자금의 75～80%는 외자에 의해 충당되고있다.

남조선공업은 말그대로 연료와 원료, 자재, 설비, 자금과 기술에 이르는 모든것을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제국주의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는 전형적인 식민지예속공업으로 전락되였다. 그리하여 미일독점체들이 불경기에 빠지기만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관영기업》과 매판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체들이 례외없이 움직일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남조선의 어용출판물까지도 《경기전망의 비관론을 유력하게 하는것은 경제의 해외의존성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다.》라고 비명을 올리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전반적공업부문들에서 휴업현상이 지속되고 생산이 계속 줄어들며 기업체들이 꼬리를 물고 폐업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공업에서의 생산의 침체와 기업의 파산은 주로 원자재수급통로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더욱더 협소해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심각한 원료, 연료난에 부딪치고있는 미일독점체들은 최근년간에 이르러 남조선에 대한 원자재 수출품목과 수출량을 대폭 줄이고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하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된 남조선기업체들은 부득불 그러한 조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에 대한 석유공급을 독점한 미독점체들은 《석유파동》이후 석유총공급량의 절반을 줄이고 가격을 거의 3배로 높였으며 일본독점회사들은 석유중간제품의 수출을 중단해버렸다. 이것은 남조선의 연료, 동력 공업과 화학섬유공업에 치명적타격으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제한송전조치》를 취하고 유류를 사용하는 공업, 운수, 체신 부문은 물론 지어 놈들이 비상계엄상태에 두고있는 괴뢰륙해공군에 대한 유류공급량마저 대폭 줄이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폐업, 휴업률은 급격히 늘어나고 생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있다. 남조선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는 《차관기업체》마저 그 85%가 적자경영의 《불실기업》으로 떨어졌으며 적지 않은 매판자본의 대기업체들이 《공매》, 《불하》, 《기업합병》의 이름으로 처리되고있다.

남조선의 민족자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체들도 원료, 연료난으로 련이어 파산몰락되고있다. 지금 남조선 중소기업체의 90%이상이 만성적인 휴업과 조업단축상태에 빠져있으며 그 년평균파산률은 20%를 넘고있다.

이미 1974년에 2천여개의 중소기업체들이 원료난, 자금난, 판로난으로 휴업하였거나 파산되였으며 지난해에는 그 수자가 또다시 50%나 더 늘어났다.

민족공업을 희생으로 하여 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강도적인 수탈책동에 의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도 지난 3월초까지의 사이에 700여개의 중소기업체들이 또다시 파산몰락되였다.

남조선공업의 전면적파탄으로 말미암아 중요공업상품의 80%를 대외에 의존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공업의 예속성과 락후성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촌경리의 혹심한 파탄은 남조선경제의 위기를 더욱 엄중한 상태에 밀어넣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농촌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극도로 령락되였다.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경지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질적상태가 더욱 악화되였다. 최근 5년동안에만도 경지면적은 10만정보, 파종면적은 30만정보나 줄어들고 농경지의 80~90%가 산성화되였으며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이 곡식을 전혀 심을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황폐화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군사시설확장을 구실로 이미 있던 관개수리시설마저 파괴해버림으로써 남조선농촌은 말그대로 《만년홍수》, 《만년한재》의 참담한 지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농업은 공업원료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식량수요조차 해결할수 없는 만성적위기에 빠져있으며 실지에 있어서 식량자급률은 50%에 지나지 않으며 모자라는 식량을 메우기 위하여 해마다 300만톤이상의 외국량곡을 끌어들이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4년에 320만 5,000톤의 외국량곡을 끌어들였으며 지난해에는 3.4분기까지에만도 327만 9,000톤이라는 방대한 량의 식량을 수입함으로써 8.15후 가장 많이 외국량곡을 끌어들였던 1973년도의 량곡수입량을 훨씬 뛰여넘어섰다. 이것은 괴뢰통치배들의 외화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남조선농업의 락후성은 공업을 비롯한 남조선경제전반에 영향을 주어 그 예속성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원료난, 판로난을 들씌우고 그들을 파산몰락케 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심각한 위기는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악화시키고 력사상 류례없는 민생고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의 전면적파산으로 해마다 30만~40만씩 늘어나는 로동인구를 흡수할 길이 없게 되였다. 더우기 공장, 기업소들의 폐업, 휴업과 관련한 해고선풍으로 실업자대렬은 계속 늘어만 가고있다. 그리하여 실업자, 반실업자 대렬은 로동능력있는 주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으며 실업문제는 첨예한 사회적문제로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취업로동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명목임금은 최저생계비의 3분의 1도 충당하지 못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새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비로써 인민들에게 무거운 세금부담을 들씌우고있다. 놈들은 《집권》후 12년동안에만도 세금수탈을 무려 21배로 늘였으며 지난해에 남조선괴뢰정부의 예산수입에서는 세금이 88%를 차지하였다.

물가와 공공료금의 등귀, 세금수탈, 실업 등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이 온 남조선땅을 지배하고있다.

지금 박정희괴뢰도당은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도 제놈들의 경제가 그 무슨 《비약적인 신장》을 이룩했다느니, 《자립의 터전이 마련되였다》느니 하고 허황한 나발을 불어대고있으나 그 무엇으로써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의 진상을 가리울수는 없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과 파산은 만성적이며 파국적인 성격을 띠고 날을 따라 사회경제생활전반에 더욱더 커다란 파괴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사회가 외래제국주의에 의하여 지배되고 남조선경제가 외래독점자본의 손안에 들어있는 한 달리는 될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　　　*

남조선경제의 전례없는 파국적위기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군사적부속물화와 식민지적예속의 산물이며 박정희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이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목적에 복종시켰으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김일성 저작선집》, 제3권, 138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억제하면서 그것을 제놈들의 군사적부속물로, 식민지예속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여왔다.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근 1천억딸라의 전쟁리윤을 짜낸 미제국주의자들은 2차대전후 군수생산을 통한 리윤획득의 가능성을 잃게 되였으며 전쟁행정에서 형성된 방대한 규모의 군수경제를 계속 유지할수도 없게 되였다. 놈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과 전쟁 준비를 강화하며 경제를 전면적으로 군사화하는데서 찾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뿐아니라 식민지예속국가들의 경제까지도 군사화하여 그것을 제놈들의 군사적부속물로 전환시키는데로 나갔다. 남조선은 바로 그러한 대상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려 하는것은 남조선을 영원히 제놈들의 원료기지로 만들려는것과도 관련되여있습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분렬하여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며 영원히 제놈들의 원료기지로 만들려 하고있다.

남조선경제는 바로 놈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 략탈적인 예속화정책에 의하여 더욱더 예속과 군사화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는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경제의 군사화는 전투기자재생산이나 그것을 위한 생산수단생산이 아니라 군수품의 현지조달과 관련한 일부 군수용 소비재, 건설자재 및 전략원료의 생산부문이 기형적으로 늘어나고 군사적기동을 위한 교통시설이 확장되며 예산지출의 압도적몫이 군수용 소비재의 구입에 돌려지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경제의 군사화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와 같이 군수공업부문의 확장에 의한 공업생산의 그 어떤 일시적인 《장성》도 가져올수 없으며 다만 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기형성, 락후성을 더 심화시킬뿐이다.

오늘 남조선경제의 전면적인 파산과 심각한 위기, 그것은 바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식민지예속경제의 위기이며 여기에 그것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산생되는 주기적인 경제위기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남조선경제의 위기는 전적으로 락후한 식민지경제의 예속성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민족공업이 자체의 원료, 연료동력 기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책동하였을뿐아니라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 기업소들은 이미 있던것마저 파괴해버렸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강화하며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예속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해왔다.

날이 갈수록 아세아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고립배격당하고 정치경제적으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된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을 저들에게 보다 철저히 예속시켜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틀어쥐려고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해나서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식민지예속화책동이 바로 남조선경제를 오늘의 파국적위기에 몰아넣게 한 중요근원의 하나로 되고있다.

한편 추악한 제국주의식민지괴뢰이며 매국노인 박정희도당은 미제상전을 구세주처럼 떠받들면서 놈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적극 비호하고 그에 추종해나서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의존정책, 이것은 남조선경

제를 전면적으로 파산몰락시키는 기본내적요인을 이루고있다.

외세에 명줄을 걸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지금 이른바 경제의 《자립》이니, 《근대화》니 하면서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그것은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파멸과 예속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있다.

원래 자본이란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는것이 그 속성으로 되여있다. 더우기 식민지예속경제에 투입되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은 가장 략탈적으로 식민지초과리윤을 추구하기마련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원조》나 《경제협력》은 식민지와 약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도구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남조선현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여 그 무슨 《성장》과 《근대화》를 노리는것이 어리석은 망상이며 기만술책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엄중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경제정책에서 이른바 《원조》를 축감하고 미국사자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독점자본 특히 일본독점자본을 남조선에 들이미는 방향으로 나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제놈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추구해나섰으며 방대한 《과잉자본》을 남조선에 투하하는데 열을 올리게 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미제의 《원조》정책의 변경에 발맞추어 외래독점자본을 무제한 끌어들이며 미제의 군사력과 일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근대화》의 기만적구호밑에 남조선경제를 미제의 손아귀에 계속 내맡기는 한편 일본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1975년 6월현재 남조선괴뢰들이 끌어들인 외자는 근 86억딸라에 달하며 그중 직접 및 합작 투자총액에서 일본독점자본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공업소유권협정》이요, 《대륙붕협정》이요 하는 매국《협정》을 조작하는 한편 《중화학공업건설》이라는 구실밑에 외래독점자본 무엇보다도 일본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드는 이른바 《중화학공업건설》이란 외래독점자본에 남조선경제를 더한층 예속시키고 미일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며 경제의 군사화와 《실력배양》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범죄적인 책동이다.

외래독점자본에 매달리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에 의하여 오늘 온 남조선땅은 말그대로 외래독점자본의 략탈무대로, 공해오물이 범람하는 《공해왕국》, 《죽음의 땅》으로 전락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망국적인 외자도입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은 《원조의 진렬장》으로부터 《외자의 진렬장》으로 전환되고 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파국적위기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이며 괴뢰인 박정희도당이 경제의 《자립》과 《부흥》을 운운하는것은 한갖 허황한 망상이며 매국노에게는 아무런 민족적리념도 안중에 있을수 없고 놈들이 일삼는것은 오직 예속과 매국배족의 죄행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전례없는 경제위기는 또한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파동과 관련하여 더욱 심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몇해사이에 세계정세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계적범위에서 원료난, 연료난, 식량난이 격화되였으며 많은 자본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연료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석유총소비량의 80~90%를 신흥세력

나라들로부터 헐값으로 략탈하였다. 그러나 제4차중동전쟁을 계기로 신흥세력 나라들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석유수출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놈들은 일대 곤경에 빠지고 석유를 기본동력원천으로 하여 이루어진 현대자본주의의 공업구조는 크게 파괴되게 되였으며 《석유파동》으로부터 발단된 연료동력위기는 전면적인 자원위기, 경제위기로 확대되게 되였다. 특히 미제는 최근시기 《공포와 걱정》, 《원한과 비통》 속에서 정치군사적패배를 거듭하고 경제적으로는 심한 인플레로 수십년래의 《최악의 경기후퇴》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올해에도 그 전망은 의연히 암담하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이러한 경제위기는 미일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된 남조선경제에 심각한 파괴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식민지예속경제로서의 남조선경제는 그 구조상 취약성으로 하여 미일제국주의를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의 경제파동의 여파로 가장 혹심한 원료, 연료난, 자금난을 겪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거기에 식량난까지 겹치여 더는 수습할수 없는 엄중한 혼란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파국적위기는 《인도지나사태》이후 더욱더 격화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남조선의 사회경제체계전반을 일대 파국에 몰아넣음으로써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른바 《실력배양》과 《승공통일》 야망에 총파산을 선고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재생산의 모든 환절들에 침체와 혼란이 조성되고 생산과 류통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으며 식민지통치체제의 경제적바탕은 허물어져가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파산은 경제위기 그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를 배태하면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혁명정세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경제유신》의 간판밑에 경제의 군사화를 더욱 다그치며 외래독점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데서 찾고있으며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전쟁준비에 동원하기 위한 《총력안보체제확립》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나 외세의존과 인민수탈에 계속 매달리는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오늘의 경제적파국을 해소시킬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예속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따름이다.

남조선경제를 오늘의 예속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장벽을 허물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만 남조선경제는 공화국북반부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사회주의경제에 의거하여 자립의 길로 발전할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기아와 도탄에서 구원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짓밟힌 자주권을 도로 찾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와 외세의존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근로자 제6호(루계 410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76년 6월 1일 발행·1976년 6월 5일

ㄱ—65183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7 호 (411)

차 례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갖춘 나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자

김 일 성

(조선소년단창립 30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1976년 6월 5일)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오늘 우리의 전체 소년단원들은 나라의 혁명사업이 잘되여가고 조국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좋은 때에 커다란 기쁨과 자랑을 안고 조선소년단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나는 조선소년단창립 30돐에 즈음하여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는 전체 소년단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청소년들은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이며 대를 이어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입니다.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전도는 나라의 앞날을 걸머질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새세대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 해방후 새 조국을 일떠세우는 그 바쁜 때에 여러 혁명조직들을 내오는것과 함께 조선소년단을 무었습니다.

조선소년단은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나라 소년들의 혁명적인 대중조직입니다.

조선소년단은 창립후 지난 30년동안 자랑찬 투쟁과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을 끝없이 사랑하고 따랐으며 당이 내세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새 조국 건설의 참다운 일군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우리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을 꾸준히 따라배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새날소년동맹원들과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거울삼아 소년단조직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하여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꼬마선전자, 아버지, 어머니들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하는 꼬마선동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로동당원들과 사로청원들의 뒤를 따라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는 사업을 힘껏 도왔으며 나어린 근위대, 꼬마건설자로서의 자랑을 빛나게 떨쳤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인민주권을 세우고 새 민주조선의 터전을 다지는 사업에도 참가하고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쳐부시는 싸움도 하였으며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는 투쟁도 힘껏 돕고 우리 조국을 더욱 융성하게 일떠세우는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도 적극 떨쳐나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위대한 혁명적전취물과 행복한 생활속에는 소년단원들의 자랑찬 투쟁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단에서 자라난 새세대들이 당과 국가, 경제 기관의 우수한 일군으로, 재능있는 과학자, 문화예술인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훌륭한 군사지휘관으로 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메고나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더없는 기쁨이며 커다란 자랑입니다.

소년단조직이 튼튼히 꾸려지고 소년단원들이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은 더욱 밝으며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합니다.

나는 지난 기간 조선소년단이 이루어놓은 모든 빛나는 성과들을 높이 찬양하며 자기의 용감한 투쟁으로 조선의 나어린 혁명가의 기개를 온 누리에 떨친 우리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소년단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우리 혁명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그고 많습니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을수록 혁명의 대를 이을 소년단원들이 더욱 튼튼히 준비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이 튼튼히 준비되여야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우리의 혁명위업은 줄기차게 계속되고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입니다.

오늘 소년단원들앞에는 주체의 기발을 높이 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꽃피워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욱 잘하여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서는 지덕체를 갖춘 나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로 자라나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갖춘 나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자, 이것

이 오늘 우리 당의 부름이며 소년단원들의 전투적과업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당의 이 부름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상과 지식과 체력을 다같이 갖춘 나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소년단원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길잡이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이 요구하는대로 생각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영원히 당을 따라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에게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준것도 우리 당이고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준것도 우리 당이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준것도 우리 당입니다. 당의 품을 떠나서는 소년단원들의 오늘의 행복도 있을수 없고 래일의 희망도 있을수 없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당을 열렬히 사랑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이 주는 모든 혁명과업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전체 인민이 다같이 공부하고 무료로 치료받으며 입을 걱정, 먹을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나라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는 영예와 자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며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오늘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고있는 미제와 지주, 자본가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놈들을 우리 조국땅우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기 위하여 용감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학습은 학생소년들의 첫째가는 혁명임무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다 알고 넘어가며 숙제를 어김없이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책읽기를 좋아하며 시간을 아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글을 한자 배우고 산수문제를 하나 풀어도 우리 나라 현실과 결부되고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과학이야기모임, 글짓기경연, 읽은책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외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책에서 배운 지식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가 최우등생, 우등생이 되여야 하며 최우등학급, 최우등분단 대렬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의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소년단원들이 튼튼히 자라야

조국도 튼튼해지고 소년단원들이 건강해야 나라의 힘도 강해집니다.

소년단원들은 체육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아침체조와 달리기,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여야 하며 한가지이상의 높은 체육기술을 가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시도 읊을줄 알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예술소조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키우며 주체예술의 화원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아름다운 공산주의도덕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동무들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면서 다같이 손잡고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리기주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자기것만 귀중히 여기며 욕심을 부리는것은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과 혁명의 리익을 앞자리에 놓으며 동무들과 집단을 위한 일에서는 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공장과 학교, 기차와 뻐스를 비롯한 모든것이 다 나라를 튼튼히 하고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귀중한 재산입니다. 소년단원들은 학교의 책상, 걸상으로부터 길가의 나무 한그루, 꽃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연필 한자루,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며 생활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기 좋아하는것은 지주, 자본가들의 나쁜 사상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발전시킬수도 없고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도 없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것으로 여기며 학교일을 비롯한 모든 집단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학교규률과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을 깨끗이 거두며 말을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선생님과 웃사람을 존경하고 동생들을 사랑하며 례절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건설사업을 힘껏 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근로자들은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후대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꼬마계획》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건설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며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적극 도와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소년단원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학교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조직생활을 잘하여야 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갈수 있으며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주체의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소년단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무거운 의무는 없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소년단규약의 요구대로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조직에서 맡겨준 일을 어김없이 실천하고 그에 대하여 조직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하며 조직앞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비판하고 고치며 동무의 결함에 대하여 따뜻이 타일러주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매일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고 총화짓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새 전쟁의 불을 지르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적들의 침략책동을 날카롭게 살펴야 하며 놈들이 덤벼들면 로동당원들과 사로청원들의 뒤를 따라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설 마음의 준비를 든든히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남반부어린이들과 함께 마음껏 공부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배우고 일하며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전세계 진보적소년들과 굳게 손잡고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소년단원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이며 우리 당의 기쁨입니다.

소년단원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참으로 크며 조국과 혁명 앞에서 지닌 소년단원들의 임무는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갈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지덕체를 갖춘 나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로 자라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기자들과 한 담화

김 일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6년 5월 27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줄피가르 알리 부로총리와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기자들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먼저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해서와 또 오늘 이와 같이 당신들과 다시 만나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따뜻한 말씀을 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개괄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평양시민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은 파키스탄손님들이 가는곳마다에서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였으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는 우리 인민의 존경하는 벗입니다.

부토총리각하는 자기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새 파키스탄건설을 위하여 령도의 현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조선인민들은 이번에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를 파키스탄인민의 존경하는 지도자로서,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으로서 맞이하였습니다.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는 집권한 다음 조선인민과 파키스탄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파키스탄이 탈퇴하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부토총리각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들은 총리각하를 존경하고있으며 그를 친근한 벗으로 사귀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

니다.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는 반둥회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식전에서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와 첫상봉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총리각하가 우리의 초청을 쾌히 승낙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10년만에 오랜 친우를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이 줄피카르 알리 부토각하를 열렬히 환영한것은 응당한 일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들이 남부아세아정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 지역 정세에 대해서는 나보다 당신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아세아에서 발생되고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부터 오는것입니다.

지난 기간 파키스탄은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으로 말미암아 여러차례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년간 파키스탄인민들은 부토총리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나라의 안정을 회복하였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남부아세아준대륙의 정세를 정상화하는데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슈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인도와도 회담을 통하여 대사급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인민들과 부토총리각하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노력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비록 남부아세아준대륙에서 음흉한 모략과 침략, 파괴책동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인민들을 비롯한 남부아세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물리치고 자주,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남부아세아의 정세가 더욱 좋아지며 이 지역의 미래가 명랑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사이의 관계발전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이번에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와의 회담을 통하여 상세한 정형을 알게 되였습니다.

부토총리각하가 말씀하신데 의하면 지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파키스탄인민과 방글라데슈인민은 공동의 투쟁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

하며 서로 접근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파키스탄인민은 다같이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오늘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성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자주권을 옹호하는 원칙에서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맺고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께서 인솔하시는 친선의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조선과 파키스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변으로 됩니다.

나는 이번에 총리각하와의 회담들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두 나라 사이에는 경제기술적협조와 문화교류사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협정들이 체결되였으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국제문제들에 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게 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과 파키스탄인민은 정치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굳게 단결하며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문화적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될뿐아니라 제3세계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앞으로 조선과 파키스탄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전면적으로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조선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과 미국측의 불성의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놓은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1972년에 북과 남사이에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는데 거

기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이 3대원칙은 남조선측 대표들이 평양에 찾아왔을 때 내가 내놓은것입니다.

3대원칙의 내용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둘째로 북과 남이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이 3대원칙을 정당한것이라고 인정하고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튿날 성명문의 잉크가 채마르기도전에 공동성명의 정신을 다 유린해버렸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 와있는 《유엔군》을 외세로 간주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민족적대단결의 장애물인 《반공법》도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반공》소동을 계속 벌리였으며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학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3대원칙의 정신을 살리며 북과 남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처음부터 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과 남사이의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과 남이 분렬된 상태에서 《대결》하고 《경쟁》하고 《공존》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대결할것이 아니라 단결하여야 하며 경쟁할것이 아니라 합작하여야 하며 공존할것이 아니라 통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심지어 우리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에 부토총리각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는것으로 되며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는것으로 됩니다. 어느 나라 인민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족이 둘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조국의 분렬로 하여 30년동안이나 재난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인민이 민족의 영구분렬을 허용할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현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대외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나가며 유엔에도 전조선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로 들어갈것을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남북련방제를 실시할수 있는 시기가 성숙되였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남북련방제를 실시할수 있는 시기가 이미 오래전에 성숙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나 외세의 간섭과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 남북련방제가 실시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념원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힘을 합쳐 모든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멀지 않아 반드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야말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한것이 사실인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서는 내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말하였습니다. 나는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것을 다른 나라 기자들을 만나 담화할 때도 여러번 말하였고 그밖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을것이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남조선에 어떤 사회제도를 세우겠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는 남북공동성명에 들어있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 제3항에도 똑똑히 밝혀져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 자기의 제도와 신앙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고 같이 살아나갈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북과 남에 수립된 두 제도의 차이로 하여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려 한다고 하는것은 분렬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떠벌이는 허튼소리입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질문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피압박민족들과 식민지나라인민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제도이며 질서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도 있지만 지난날 식민지로 있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지키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새

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제3세계인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리간, 분렬, 파괴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단결하여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보려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제3세계인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이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은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폭로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기와 투쟁정신을 가지고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여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단결된 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선물》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남아세아와 중근동에서의 비핵지대창설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우리는 남아세아와 중근동에서 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아세아와 중근동에서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핵위험이 제거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핵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할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콜롬보에서 열릴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지난해에 리마에서 있은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 쁠럭불가담국가대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은 콜롬보수뇌자회의에 반드시 참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콜롬보수뇌자회의에 큰 주목을 돌리고있습니다. 지금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 80여개 나라가 망라되여있는데 이것은 매우 큰 력량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력사적인 회의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력을 다할것입니다.

콜롬보수뇌자회의에서 어떤 문제들이 토의되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토론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현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문제가 토의되여야 하며 국제경제개발문제를 비롯하여 일련의 경제문제들이 토의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경제적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

제질서를 반대하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파괴, 리간, 매수 책동을 분쇄하고 신생독립국가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과 자유와 독립, 민족적번영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문제가 토의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단결과 경제기술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여 이번 회의가 거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껏 노력할것입니다.

당신들이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난날 아프리카대륙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거세찬 투쟁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였으며 반식민주의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부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은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용감히 벌리고있습니다.

지금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도 아프리카대륙의 다른 지역 인민들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인민과 파키스탄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견결히 지지할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와 부토총리각하사이에 있은 회담에서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며 공동콤뮤니케에도 이것이 반영되여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내가 10년전에 쟈까르따에서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와 만난후 세계무대가 어떻게 변하였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국제무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력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반면에 제국주의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고있습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멍에를 벗어던지고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섰습니

다.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인 신흥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것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심한 경제위기에 빠져있는것입니다. 자본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나라들은 심각한 연료난, 원료난을 겪고있습니다. 최근 제3세계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데 따라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위기는 더욱 심해지고있습니다.

총적으로 말하여 지난 10년동안 국제정세는 세계진보적인민들, 제3세계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반제혁명력량이 승승장구하여온 반면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쇠퇴몰락하였습니다.

현시대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인민들이 세계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파국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며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방법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분렬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량면전술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인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량면전술을 간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음흉한 술책을 써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이 내가 10년전에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와 만난이후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변화이며 오늘의 국제정세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조선과 파키스탄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고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신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나는 조선인민과 파키스탄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줄피카르 알리 부토총리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매우 성과적이였으며 우리들사이의 회담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파키스탄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때로부터 스물여섯해가 지나갔다.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론설을 발표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스물여섯해가 된다.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의 본성과 악랄성, 야만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그 취약성을 날날이 폭로하였다.

조선침략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미제국주의는 자기의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채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의 거세찬 혁명투쟁에 의하여 계속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의연히 세계제패야욕을 버리지 않고 침략과 략탈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가로막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우리 조국 남쪽땅을 계속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면서 온갖 범죄행위를 다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그 취약성과 부패상이 극도에 이른 오늘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은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있다.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간파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침략과 략탈이 없는 제국주의는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245～246페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에 그 사회경제적기초를 두고있다.

독점은 제국주의의 근본특징이며 그 본질이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목적은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얻는데 있다.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지 않고서는 독점자본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수 없으며 독점적지위를 확대하고 공고히 할수 없다.

최대한의 리윤을 얻기 위한 독점자본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은 바로 이 강도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략탈하며 다른 나라 령토를 강탈하고 다른 나라 민족을 정복하는 온갖 범죄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

한다. 이때까지의 제국주의의 전력사, 그것은 피로 얼룩진 침략의 력사이며 저주로운 략탈의 력사이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략탈의 피바다속에서 태여나고 침략과 략탈의 피거품을 빨아먹으면서 살쪄왔다.

침략전쟁은 수백수천만 인민대중에게는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지만 대독점들에게는 소나기와 같은 폭리를 가져다준다.

미제국주의독점체들이 제2차세계대전전인 1936~1939년간에 획득한 년평균리윤이 54억딸라였다면 제2차세계대전시기인 1941~1945년간에는 그것이 215억딸라에 달하였다. 그리고 조선전쟁시기인 1950~1952년간에는 2차세계대전시기에 비하여 다시 그의 근 2배나 되는 425억딸라에 이르렀다. 미제국주의대군수독점체들은 웰남전쟁시기인 1965년 단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450억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전시초과리윤을 획득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정치에서 극도의 반동화, 파쑈화를 다그치고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강화하면서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바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끝없는 팽창주의적야망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결과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해진다.

그것은 제국주의대독점체들의 독점적고률리윤을 획득하려는 탐욕이 극도에 이른 반면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이 빨리 자라난 반면에 제국주의세력은 심히 약화되였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투쟁이 전례없는 규모로 벌어지고 그 결과에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신흥세력이 력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제국주의는 지난날 마음대로 략탈하며 거대한 리윤을 짜내던 원료원천지와 자본투하지, 상품판매시장을 많이 잃었으며 그 세력권은 현저히 축소되였다.

이와 함께 현대제국주의는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헤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적범위에서 원료난, 연료난, 식량난이 격화되였으며 많은 자본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과 한 담화》, 2페지)

오늘 자본주의세계가 처한 경제위기는 그전에 겪은 어느 경제위기보다도 더 폭넓고 심각하다. 이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휩쓸고있으며 그의 생산과 류통, 재정, 금융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경제파동은 특히 미국에서 혹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멈춰설줄 모르는 통화팽창,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거리에 차넘치는 수백만명의 실업자들로 하여 사회적불안이 증대되고있다. 미국경제는 더우기 심각한 연료위기로 하여 골탕을 먹고있다. 미국반동지배층내부에서까지 미국경제는 이제 새 연료시장, 새 연료기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더는 지탱해나가기 어렵게 되여가고있다고 비명을 올리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

주의세계의 현경제위기에서 발을 빼려고 안간 힘을 쓰고있으나 그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써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모대기고있다.

자본주의세계가 겪고있는 이러한 모든 심각한 위기는 불가피하게 보다 많은 리권과 세력권을 얻기 위한 대독점체들의 탐욕적인 야망을 낳게 하며 이 야망은 제국주의자들을 새로운 침략과 전쟁책동에로 추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며 독점자본에게 보다 안정된 리윤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원천지를 걷어쥐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예속하며 특히 장성하는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맞다들 때마다 그 해결방법을 해외침략 특히 침략전쟁에서 찾으려 한다는것은 력사가 잘 보여주고있다.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은 두차례의 세계대전도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이 처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며 첨예화되는 정치적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으킨것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세계대전들에 앞서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식민지세력권의 재분할과 다른 나라 령토에 대한 강탈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이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침내 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침략전쟁과 인도지나침략전쟁을 일으킨것도 당시 미국이 처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와 관련되여있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악랄하고 교활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그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발악의 표현이다.

미제국주의의 전쟁우두머리들이 자기들이 처한 현경제위기 특히 심각한 연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연료와 원료자원이 풍부한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며 지어는 이 나라들의 자원을 무력으로 강탈하겠다고까지 공공연히 위협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세계제패를 위한 미제의 야망에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과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은 그 사회경제적기초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할수 없다. 변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 아니라 그의 침략수법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성, 략탈성을 낳는 독점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본주의세계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되고있는 오늘 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략탈,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일삼는 제국주의의 수법은 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 이것은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고유한 생리이다.

현대제국주의는 자기 나라 인민들에 대한 가장 가혹한 착취와 압박의 체계이며 다른 나라에 대한 가장 야수적인 략탈과 예속의 체계이며 침략과 전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가장 반동적이며 악랄한 독점의 체계이다.

2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오늘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특히 그것은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반혁명적인 침략정책과 세계전략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으며 여기에서 갖은 음흉한 침략 전략과 수법에 매여달리고있다.

오늘 미제의 세계전략에서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겉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내적으로는 전쟁준비를 다그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국당국자들은 량면전술을 쓰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전술을 쓰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책동을 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제국주의자들은 반동통치를 유지하고 해외침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리》의 기능과 《승려》의 기능, 로골적인 폭력과 회유기만의 두가지 술책에 의거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가지 술책은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세와 대상에 따라 《힘》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고 회유기만의 방법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며 같은 정세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이 두가지 수법을 엇바꾸어가면서 쓰고있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이른바 《세계최강》을 떠들면서 줄곧 핵공갈과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 등 《힘》의 정책에 의거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이룩하려고 광분하였다. 그러나 《힘》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제의 전략은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국제력량관계는 제국주의에 더욱 불리하게 전변되였다.

바로 이러한 정세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정책변경을 운운하면서 이른바 《평화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는 교활한 량면전술에 그 어느때보다도 집요하게 매여달리게 되였다.

량면전술을 휘두르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평화》요, 《긴장완화》요, 《친선》이요, 《협조》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으며 자신을 《평화의 수호자》처럼 자처하여나서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한낱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감행하며 또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평화》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본성으로부터 결코 평화를 바랄수 없다.

미제가 들고나온 《평화전략》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였다거나 그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전략》을 내흔들면서도 결코 《힘》의 립장,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물러선 일이 없으며 또 물러서지 않는다.

미제는 《평화》를 떠들면서 인도지나

침략전쟁과 중동전쟁을 일으켰으며 《까리브해위기》를 빚어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평화》요, 《긴장완화》요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세계전쟁을 준비하는데로 나가고있다.

미제는 《평화전략》을 들고나온후 전쟁목적을 위하여 군사예산을 계통적으로 늘여왔다.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한창 감행하던 때인 1953회계년도에 미국의 군사예산이 504억딸라였다면 그것은 이른바 《평화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다음인 1963회계년도에는 596억딸라, 1968회계년도에는 762억딸라, 1975회계년도에는 877억딸라로 늘어났으며 1977회계년도에는 그것이 또다시 1천 60억딸라로 불어났다.

지금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미국이 《세계일등급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들고있으며 그 어느때보다도 군비확장 특히 핵군비확장에 광분하고있다.

미제는 세계도처에 침략적군사기지들을 늘여놓고 거기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상시적으로 배치하고있으며 《미일안보조약》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침략적군사동맹을 강화하는데 피눈이 되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평화전략》이 다름아닌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적본성의 산물로서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이며 《힘》의 정책의 변종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평화전략》이 노리는 목적은 명백하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빈말공부로써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본색을 가리우고 시간을 얻어 미국의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무마하고 세계혁명운동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세계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데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저들의 《군비를 제한》할 용의가 있는듯이 떠벌이고있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제손에 그러쥔 단 한자루의 총도 스스로 놓은 일이 없다. 반혁명적무장은 제국주의의 기본침략수단이다.

《군비제한》을 떠드는 미제의 진의도는 결국 《평화》의 기만적구호밑에 다른 나라의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우세 특히 핵무기분야에서의 우세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렇듯 량면전술에 매여달리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침략의 창끝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돌리고 신흥세력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제3세계나라들을 분렬시켜 각개격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3대륙에 침략의 창끝을 돌리고 신흥세력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한 전략은 현시기 미제의 세계전략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반동성과 악랄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반혁명적침략전략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계속 저들의 통제와 지배밑에 얽매여두려고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앞잡이들을 통한 대리전쟁, 위협공갈과 매수, 회유기만과 파괴전복활동을

비롯한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다하여 왔을뿐아니라 오늘도 의연히 이 모든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수법들을 사용하면서 이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여기에서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고있는 가장 교활한 수법의 하나가 다름아닌 분렬리간책동이다. 분렬리간책동은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한 미제의 전략에서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신흥세력인민들이 비상히 각성되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튼튼히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있으며 그들의 단결을 어떻게 하나 파괴하려고 악랄한 분렬리간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제는 3대륙에서의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령토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적리념과 신앙의 차이, 경제적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그리고 신생독립국가들앞에 가로놓인 일련의 난관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 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일으켜 서로 싸우게 하며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식량과 무기와 돈을 가지고 롱간하면서 일부 나라들을 저들에게 끌어당겨 반제자주의 립장을 지키는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데로 부추기고있다.

미제의 분렬리간책동은 결국 신흥세력의 단결을 허물고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 교활한 책략이며 3대륙의 반제력량을 약화시켜 지난날의 보금자리를 도로 차지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여 사용하고있는 또하나의 악랄한 침략수법은 파괴전복활동이다.

미제는 이 악랄한 방법에 의거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의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을 뒤집어엎고 저들의 추종자들과 앞잡이들을 그자리에 들여앉혀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예속화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3대륙지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백여차에 걸쳐 저들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민족적독립국가들의 정부를 반대하는 전복음모를 꾸몄다. 미제의 이와 같은 전복음모에는 정부요인암살, 반혁명적반란 등 여러가지 파괴암해활동이 적용되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은 신흥세력나라들과 기타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반대하는 파괴전복활동과 반혁명적반란을 감행하며 사촉하는 장본인이다. 이 악명높은 첩보모략기구는 신흥세력나라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흉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그 정체는 오늘 미국안팎에서 더욱더 폭로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파괴전복활동은 이 나라들을 각개격파하여 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한 극악한 책동으로서 신생독립국가들의 민족적자주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른바 《원조》를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는듯이 떠들면서 이 나라들의 《개발》과 《발전》을

돕는다는 구실밑에 《원조》정책을 휘두르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강도적본성으로 하여 결코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을 진심으로 도와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본질에 있어서 독점자본의 해외팽창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그것은 《원조》받는 나라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그들을 예속시키기 위한 목적만을 추구할뿐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차관》이요, 《개발》이요 하는 이름을 붙인 각종 《원조》를 통하여 3대륙의 여러 나라들에 자본과 잉여상품을 들이밀고 그것을 미끼로 하여 거액의 리윤을 짜내며 막대한 자원을 긁어가고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국적회사를 광범히 리용하고 있으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있다.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정책은 이 나라들의 공업화를 방해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가로막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로써 경제적예속화를 추구할뿐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정치적통제를 실시하고 내정에 간섭하여 《원조》받는 나라들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나아가서 이 나라들을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복종시키고 군사적부속물로까지 전락시키려 하고있다. 미제가 오만무례하게도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민족적독립국가들에 대하여 《원조》를 수단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올러메고있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반동적사상문화공세를 강화하고 이 나라 인민들에게 민족허무주의와 사대굴종사상을 고취하며 《반공》사상과 말세기적인 생활양식을 주입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상문화적침투로써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다시금 예속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하려 하고있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력량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현대제국주의의 변함없는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으며 미제야말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과 평화의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3

미제국주의의 가장 흉악한 침략적본성과 강도적정체는 조선에 대한 그의 침략정책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이미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갖은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을 다 해온 제국주의이며 조선인민이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온갖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제국주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침략적범죄행위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인민을 인

위적으로 갈라놓고 력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민족분렬의 비운을 들씌웠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듦으로써 남조선사회를 암흑의 인간생지옥속에 몰아넣고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철저히 얽어매놓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가로타고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평화적인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남녀로소 할것없이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침략적 본성과 잔인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놓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은 죄악으로 가득찬 미국의 침략력사에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장을 기록해놓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 30여년동안 남조선을 피비린내나는 군화로 짓밟고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실시한 모든 범죄적인 침략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반대하여 감행한 그 모든 저주로운 침략수법을 더욱 악랄하게 한것으로서 그 야수성과 강도성, 파렴치성과 음흉성에 있어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쓰고있는 침략적수법을 조선에서도 그대로 쓰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분렬하여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려고 꾀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침략정책에서 추구하고있는 근본목적은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식민지원료기지로 영원히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데 있다.

미제국주의의 이 목적에는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조선을 분렬하고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기 위한 반혁명적인 침략전략을 실시하였으며 또 실시하고있다.

특히 오늘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아세아의 여러 지역에서 쫓겨남에 따라 이른바 《새 태평양주의》라는 보다 흉악한 침략교리를 내놓고 조선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저들의 파산몰락되고있는 아세아식민지지배체계를 수습하기 위한 중요한 지탱점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분렬하여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영구강점정책은 《힘》으로 우리 나라의 절반땅과 민족의 한 부분을 계속 빼앗고 우리 인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민족자주권을 영원히 유린하기 위한 가장 악독한 침략정책으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략탈하는 미제국주의의 악랄한 본성과 야망

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이다.

원래 남의 나라의 령토를 무력으로 강점하는것은 제국주의가 세계에서 독판을 치면서 제멋대로 날치던 시기에 자기의 침략목적과 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거해온 가장 야만적이며 강도적인 침략수법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모든 민족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오늘날에도 이 시대착오적인 침략정책을 의연히 답습하면서 바로 우리 나라의 남녘땅에서 그것을 계속 실시하려고 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강점하려고 그 무슨 《미국의 국가적리익》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대를 철거시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을 내세워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을것을 애걸하게 하고있다. 지어 미제는 이른바 조선에서의 그 무슨 《힘의 균형》이니 《공약리행》이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유엔의 정당한 결정마저도 한사코 반대하여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구히 틀어쥐기 위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하는것과 함께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또한 미제가 조선에 대하여 품고있는 흉악한 침략적속심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미제의 정책은 분렬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침략수법에 아메리카식 파렴치성과 강도성을 합친 가장 반인민적인 침략정책이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통치함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직접적인 침략전쟁 및 강점정책과 함께 흔히 인종관계, 신앙관계, 언어관계 등에 따라 나라를 갈라놓고 민족을 분렬하는 강도적인 침략수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는 이러한 수법뿐아니라 지어는 오랜 력사적기간 한민족으로 단란하게 살아온 하나의 인민을 마구 갈라놓고 침략하는 날강도적인 분렬정책을 쓰고있다. 바로 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미제의 분렬정책은 그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유구한 세월 한강토우에서 단일한 민족으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면서 한가지 말과 글자를 가지고 같은 문화와 력사를 창조해온 그러한 인민을 총칼로 마구 갈라놓으려 하는것은 실로 침략에 이골이 나고 환장이 된 탐욕적인 제국주의가 아니고서는 감히 할수 없는 날강도적인 범죄행위이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숙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통일에 대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 다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흉악한 침략적야망을 품은 미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조선의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모든 제안들을 덮어놓고 반대하고 조선의 분렬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 벌렸으며 또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과 합의사항들이 실현되는것을 그렇듯 각방으로 반대하겠는가.

미제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자 한쪽으로는 그것을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대화가 《힘》으로 뒤받침되여야 한다는 강도적론리에 매여달리면서 남조선괴뢰도당에게 군사경제《원조》를 급격히 증강하고 그들을 단결과 합작대신에 《대결》과 《경쟁》의 길로, 대화를 파란시키기 위한 길로 내몰았으며 심지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범죄적인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국제적음모책동을 공공연히 벌렸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파탄상태에 빠지고 조선의 통일문제앞에 더욱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잡으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용납못할 범죄적책동의 결과이다.

미제국주의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인민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흉악한 장본인일뿐아니라 이 분렬을 앞으로도 영원히 고착시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룩하려는 극악한 분렬주의자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가장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고있는 파쑈통치는 그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가장 포악하고 류혈적인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를 더한층 강화하고있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함으로써 날로 뒤흔들리고있는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전쟁준비를 더욱더 다그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내세워 이른바 《유신체제》라는 전대미문의 파쑈폭압체제를 펼쳐놓고 갖가지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이였으며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을 2중으로 선포하고 남조선사회를 정보정치와 테로통치와 학살만행이 살판치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죽음의 땅으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국민총화》니 《국가안보》니 하는 간판밑에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벌려놓고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야수적으로 고문, 학살하고있으며 지어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민주인사들과 종교인들까지도 마구 체포구금하고 처형하려 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치떨리는 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은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보고 듣고 말할수 없으며 남조선사회는 말그대로 인간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완전히 짓밟히고 정의와 진리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이 무시로 탄압당하며 죽어가는 인간도살장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화신인듯이 입버릇처럼 되뇌이고있으나 오늘 남조선땅에서 실시되고있는 파쑈폭압통치는 그들이 다름아닌 파쑈와 테로의 화신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남김없이 확증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조작한 《유신체제》는 저들의 손때묻은 앞잡이이며 흉악한 매국역적이며 호전광인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통치를 부지하고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악랄한 파쑈제도이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분렬제도이며 조선의 평화를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전쟁도발제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적지배를 일층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장기적으로 주둔시키고 파쑈폭압통치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철저히 틀어잡는것이 필요하다고 타산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예속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저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남조선경제를 전쟁정책수행에 보다 철저히 종속시키고 략탈하며 다른 편으로는 괴뢰정권의 재정경제적숨통을 틀어쥐고 그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지배를 일층 강화하여 이것을 남조선영구강점의 경제적공간으로 삼으며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다른 예속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는 일반적으로 줄이면서도 남조선에 대해서는 그를 계속 유지하며 지어는 일본독점자본까지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미일독점자본의 2중의 예속물로 만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며 전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처하고있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의 도발에서 찾으며 하면서 바로 그 돌파구를 현시기 저들의 아세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선에서 찾으며 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집을 일으킴으로써 남조선에서 극도에 이른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장성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위협》이란 새빨간 거짓말과 남조선의 《안전이 아세아와 미국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만들어내여 남조선을 미국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저들의 침략무력과 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수많은 대량살륙무기들과 작전장비들 그리고 수많은 각종 탄약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여 군사분계선일대에 배치하고있다. 지어 미제의 호전광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지않겠다고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

는 한편 그 무슨 《9일작전계획》과 《5일전쟁계획》에 대하여 웨쳐대면서 전쟁열을 미친듯이 고취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는 이름밑에 매일과 같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남조선괴뢰군을 무모한 군사적도발에로 내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제안에는 외면하면서 미국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도발연습들을 계속 벌리며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겠는가.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일본반동들과의 정치, 군사적 결탁을 일층 강화하고 그들을 조선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깊숙이 끌어들이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일본반동들은 이미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전면적으로 뻗치고 미제와 함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감행하고있을뿐아니라 침략의 검은 칼을 휘두르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에 끼여들려고 각 방면으로 준비를 서두르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에서는 사실상 언제 전쟁의 불집이 다시 터질지 모를 극히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고있으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 전반적인 세계평화가 바로 조선반도를 도화선으로 하여 파괴될 커다란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현시기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세계평화를 유린하는 기본요인이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실시한 그 모든 수법과 형태를 총집결하고 그 악랄성과 야만성을 몇배, 몇십배로 능가하는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 다시말하여 민족분렬정책, 남조선에서의 군사적영구강점정책과 파쑈폭압통치 및 략탈정책 그리고 새 전쟁 도발정책은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흉악한 침략자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4

미제를 비롯한 현대제국주의는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갖은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고있으나 이로부터 그들이 얻을것이란 오직 더 큰 타격과 멸망뿐이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그자체의 고유한 모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쇠퇴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돌려세울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의 쇠퇴몰락과정은 어느 개별적인 제국주의나라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세계전반의 쇠퇴몰락과정이다. 특히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처지는 더욱더 어려워지고있다.

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허장성세하

면서 발악하는것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취약성을 보여주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조선전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미제가 걸어온 력사는 줄곧 침략과 전쟁을 추구한 범죄적력사인 동시에 더욱더 내리막길을 걸어온 패배의 력사이다.

조선전쟁과 인도지나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 꾸바혁명의 승리, 신흥세력의 등장과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 미제의 정치경제적위기의 심각화,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의 쇠퇴몰락과정을 보여주는 생동한 증거들이다.

한때 사람들의 머리를 현혹시켰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와 《구세주》의 신화, 《아메리카 제일주의와 만능》의 신화는 이미 오래전에 박산이 났으며 그 《마술적힘》은 완전히 사라졌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날이 갈수록 파탄되고있으며 미제국주의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배격당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릴수록 그들은 인민들의 더욱 커다란 항거에 부딪칠것이며 놈들의 쇠퇴몰락과정은 보다 급속히 다그쳐질것이다.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환상도 기대도 있을수 없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제반미투쟁을 견결히 벌려야만 평화를 유지공고히 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더한층 강화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남조선강점영구화책동, 새 전쟁 도발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고 그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조선인민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손잡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해방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속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한다면 반드시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1페지)

모든 반제혁명력량의 단결은 반제반미투쟁에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사회주의력량과 신흥세력나라들, 세계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에 압력을 가하고 반격을 들이댄다면 능히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물리치고 자주성을 옹호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신흥세력나라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특히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신흥세력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가장 치렬한 반제투쟁전선이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은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함께 손잡고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분렬리간책동에 경각성을 높여 그에 속아넘어가거나 따라가지 말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제국주의와도 싸워 승리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울수 있다.

최근년간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원료및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 개발 및 국제경제협조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7차특별회의, 유엔해양법회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에 관한 회의,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들의 리마회의, 유엔무역개발회의 제4차회의 등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바로 이러한 단결에 의거하여 얻은 빛나는 열매이다.

또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 그리고 평화애호나라들은 단결하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킬데 대한 조선문제에 관한 정당한 결정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인종주의로 규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

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전투적 단결과 뉴대를 더욱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을 되게 후려갈겨야 하며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고 민족적 번영과 륭성을 위한 공동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략탈을 끝장내고 경제적독립을 이룩하며 자주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는 여러가지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서로 교류할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많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도와주고 배우면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과 봉쇄 정책을 물리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하여 반제자주의 공동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그 추악한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박정희매국도당, 중근동의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 아프리카의 보스터 및 스미스 인종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도구이며 식민주의의 악랄한 대리인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침략의 발판이다.

제국주의는 이 앞잡이들을 통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독립을 위협하며 불안과 소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신흥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에 빌붙어 살면서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앞잡이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배격하는것은 반제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인민들의 혁명위업에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갖은 발악에도 불구하고 국제혁명력량은 날이 갈수록 장성하고 그 련대성은 강화되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력량이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인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는 새로운 력량이다.

혁명투쟁의 길에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 있지만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은 그 어떤 발악으로써도 력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말살할수 없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력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끝내 모험적인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의 마지막 멸망을 촉진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힘을 합쳐 투쟁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없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략탈이 없는 세계,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고야말것이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를 고수하고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스물세해가 된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년대기에 영원히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세계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쳐부시고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석같이 수호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높이 떨치였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이 력사적승리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제국주의를 타도할데 대한 장엄한 선언을 내리시고 혈전의 수만리를 헤치시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각수상으로서,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진두에 서시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시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군사사상과 군사예술, 탁월한 령군술로 력사상 처음으로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제일 규모도 컸고 가장 격렬한 전쟁이였다.

제2차대전후 국제반동세력의 두목으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서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고 전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에 날뛰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면서 최신기술로 장비한 제놈들의 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괴뢰군 그리고 15개추종국가의 무력까지 조선전선에 동원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지 다섯해밖에 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지 겨우 두해밖에 되지 않았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실로 엄혹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준엄한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성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현대전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에서의 사람과 군사기술의 호상관계, 전쟁승리에서 정치사상적요인과 군사기술적요인이 가지는 의의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꾸리시였다.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써 강대한 적을 타승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그이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사상의식은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서 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아무리 많은 전투사단과 위력있는 현대적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높지 못할 때에는 그 무기가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더구나 현대전의 조건에서 높은 전투의식과 사상의식이 없이는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이 간고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전투의식과 사상의식은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혁명군대에게만 고유한것이며 제국주의의 고용군대에게는 있을수 없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높은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굳게 믿으시고 전쟁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현대전쟁에서의 정치사상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기술적요인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는 반동리론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현대전쟁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군대가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사상적요인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고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언제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전투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 완강성과 대담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로 미제침략자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이시다.

전쟁이란 사상적대결인 동시에 전략과 전술, 전법의 대결이다. 전략전술적우세는 전쟁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강력한 무장력도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비로소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적에 비하여 월등한 전략전술과 전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할 때 수적 및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무장투쟁 형식과 방법을 창조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미제의 수적 및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적집단의 배치와 그의 행동성격, 미제침략군의 군사전략상 약점과 기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탁월한 전략적방침과 기묘한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매 전투들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매 단계의 전략적방침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첫단계에서 전전선에 걸친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시고 즉시적이고도 전면적인 반공격전과 련속적인 타격전으로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용하신 이러한 군사전략은 세계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흔히 커다란 잠재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경우에도 적들의 불의의 전면공격을 받으면 흔히 혼란에 빠지며 엄혹한 시련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반공격에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즉시적이며 전면적인 반공격전과 련속적인 타격전을 벌림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키려던 적들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인민군대의 첫 반공격전에 의하여 적의 기본집단은 섬멸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적들의 전선은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패주하는 적들을 종국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련속적인 타격전과 포위전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시였으며 정규화된 인민군부대들의 정면공격작전과 적후에서의 유격투쟁을 배합하고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적천재성, 전략전술적방침과 령군술의 위대성은 적아간의 력량관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성되였던 새로운 군사정치정세하에서 그이께서 수행하신 거창한 사업과 탁월한 령도력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세한 적을 약자로 만들어 격파하며 아군의 력량을 보존강화하면서 그들 신속히 재편성하며 재진격에로 넘어가 적들에게 또다시 결정적타격을 줄 새 전략을 작성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지휘하시였다.

기본전선과 배합하여 적후에 정규무력의 대련합부대들로써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세계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볼수 없는 독창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새로운 섬멸적타격을 줄 전략전술을 작성하시면서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그 실현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은 항일무장투쟁의 고귀한 경험과 전쟁 제1계단의 교훈에 토대하여 그리고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군사행동의 차후발전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세워진것으로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놈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어 군사행동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킨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작전적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제2전선의 우리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적후에서 적극적인 전투를 벌리여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재를 대량적으로 소멸하면서 많은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재진격과 차후의 새로운 작전적과업의 수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반공격준비를 튼튼히 갖춘 인민군주력부대들과 제2전선의 련합부대들은 모든 전선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련속타격을 줌으로써 전쟁의 형세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였다. 이것은 인민군부대들의 전략적후퇴를 조직지도하시면서 전쟁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재진격을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시는 한편 적후에 제2전선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전략의 현명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을 개시한 우리의 인민군부대들에 의하여 《크리스마스》전으로 전쟁의 승리를 결속짓겠다고 떠벌이던 미제침략자들의 허황한 망상은 산산이 부서졌으며 놈들은 38도선 이남으로 쫓겨나고말았다. 조선에서 미제의 《성조기》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짓밟혔으며 놈들의 수치스러운 완전패배는 이미 운명지어졌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전법, 군사예술의 위대성은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에서도 남김없이 시위되였다.

갱도를 기본으로 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은 조선전선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새로운 《대공세》를 감행하여나선 미제침략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전혀 새로운 전략적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투항주의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이미 차지한 계선을 튼튼히 견지하고 적들의 온갖 형태의 집중적인 타격으로부터 전투원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면서 적들의 대규모적인 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확고히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독창적인 전략적방침뿐아니라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지형지리적특성에 적합한 주체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시였다.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화력 특히 곡사포화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운동, 야간습격전 등 주체전법을 창조하시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휘하신 대전해방작전은 각 병종 부대들의 긴밀한 협동작전밑에 다양한 전투형식을 배합하여 전개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으며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예술의 위대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대작전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지휘에 의하여 적들이

인민군대의 진격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구축하여놓은 이른바 《불퇴의 선》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 《무적의 상승사단》은 전멸되고말았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맹폭격과 포화 속을 헤치시면서 멀리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전선의 형편을 몸소 살피시고 인민군련합부대들의 작전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최전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닌 인민군용사들은 멸적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고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며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1211고지의 전투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천재적인 군사예술의 위대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1,211고지전투가 왜 중요했는가? 이 전투의 커다란 의의는 이 고지를 사수함으로써 한치의 땅도 내놓지 말라는 당의 중요한 전략적방침을 견지한데 있습니다. 만일 1,211고지를 내놓는다면 숱한 고지를 잃어버리게 되며 몇십리를 후퇴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지탱점을 내놓을수 없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211고지를 희생적으로 사수했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1965년판, 503~504페지)

1211고지를 지켜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전선의 군사정세를 좌우할뿐아니라 전쟁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전략전술상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적들은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놈들은 전선서부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우리 인민군부대들을 그 방향으로 유인하고 전선동부를 돌파하기 위하여 1211고지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 간교한 기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서해안의 일부 부대들을 신속히 전선동부에 기동시키시는 한편 1211고지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일대 섬멸전을 벌려 적의 공격을 격파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한편 적의 상륙기도에 대처하여 강력한 예비대를 꾸리고 깊은 종심을 가진 방어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적들의 《하기공세》와 《추기공세》는 여지없이 격파되였으며 전쟁의 국면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이며 전면적인 반공격전, 정규적대부대에 의한 적후에서의 제2전선의 형성,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의 배합, 전선에서의 련속타격전과 적집단에 대한 포위소멸전, 갱도에 의거한 적극적인 방어전과 습격전, 산악전과 야간전, 각 군종과 병종간의 협동작전, 산악지대에서의 포병화력의 집중적리용과 유동포활동의 강화, 저격수운동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등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적용하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력사적인 승리로 결속하시였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천재적인 군사예술, 탁월한 령군술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전선과 후방을 강력한 전투진지로 꾸리시고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령도의 천재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

로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된 힘에 있다고 보시고 전쟁의 준엄한 시련에 대처하여 무엇보다도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포악한 원쑤들을 격멸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기본조건의 하나는 우리 당이 어느때보다도 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자기의 대렬을 강철같이 더 결속하는것입니다.》(《김일성선집》, 제3권, 1954년판, 166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하나로 뭉친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미제에게 련속적인 패배를 안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강력한 혁명대오로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시여 매 시기 당의 활동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당안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들과 당의 통일을 약화시키고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엄격히 폭로비판하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당안에 중앙집권적인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시였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당을 와해시키려던 취소주의자들에 의하여 나타난 관문주의적 및 책벌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리심으로써 당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시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당이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틈을 타서 당대렬을 분렬시키고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고 꾀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폭로분쇄하심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일층 강화하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게 하시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혁명력량은 비할바없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바로잡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전당적인 투쟁을 강력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1952년 2월연설에서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저애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성을 마비시키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모든 일군들이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의 리익을 존중히 하며 인민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그들

을 설복하고 교양하며 항상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할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46페지)

참다운 인민적인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1952년 2월연설에 기초하여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난 관료주의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인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본고리도 그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보시고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들고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군인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적성격과 우리의 투쟁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해설침투하였으며 군인들을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불타는 적개심과 우리 조국과 사회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또한 군대안에서 강철같은 자각적규률과 명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적극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인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고마운 인민정권과 우리 사회제도를 고수하고 조국과 자기의 향토를 지키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참다운 생활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필승의 신심과 무비의 힘을 얻었고 폭탄과 포탄이 비발치는 불바다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단합되였기에 일시적후퇴의 간고한 나날 멀리 락동강계선에 진출하였던 인민군전사들에 이르기까지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보다 큰 승리를 확신하면서 험산준령을 넘고넘어 최고사령부로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후방을 공고화하는 사업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후방을 공고화하는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후방의 공고화를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확고한 담보로 인정하시고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후방의 공고화를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증대되는 전선과 후방의 물질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막대한 물자의 소비를 동반하는 현대전쟁에서 후방을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전선에 인원과 여러가지 군수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전쟁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없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것은 전쟁승리와 인민들

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시에 미제의 야만적폭격에 의하여 우리의 공업시설들이 파괴된 조건하에서 우리 당은 농촌문제에 자기의 관심을 집중하였던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옳은 로선이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농촌이 페허로 되고 로력과 축력이 몹시 부족한 형편에서 농촌정책에 자기의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선과 후방에 량곡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지 못하였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3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농민들을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우수한 일군들을 파견하시고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으며 전선을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일대와 자강도일대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고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에로 농민들을 고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농민들은 축력도 모자라고 비료와 농기구도 변변히 없는 형편에서 소겨리반, 품앗이반을 뭇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전시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후방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날로 증대되는 전선의 물질적수요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시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언제나 깊이 헤아려보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준엄한 전쟁의 나날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에게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뜨거운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려운 전시조건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것을 국가적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에게 겨울나이 솜옷과 신발, 면직물을 공급하여주시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공급을 증가시켜주시였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국가식량을 대여해주시고 농민들의 농업현물세미납량과 국가대여곡상환을 일체 면제하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보통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병들어죽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가렬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결코 남보다 큰 경제력을 가지고있어서가 아니였다. 그러한 기적적인 현실은 오직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우리 당의 최고원칙으로 삼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인민에 대한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군후방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적극 진행하도록 하시는 한편 희생된 혁명전사들과 유가족들에게 친부모도 다하지 못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으며 전쟁마당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군무자들의 부양가족들에 대한 원호를 전국가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진행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쟁에서 희생된 당 및 정권 기관 일군, 사회활동

가, 인민군장병들과 빨찌산들의 유자녀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인민적시책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부모잃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났다.

세계가 겪은 수많은 전쟁은 수천, 수만의 고아들을 낳았고 그들을 길가의 조약돌처럼 내던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듯 준엄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부모없이 길가에서 헤매는 고아들을 한명도 볼수 없었다.

언제나 인민군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친어버이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지휘에 그처럼 바쁘신 때에도 시간을 내시여 오늘은 전선의 포화속을 헤치시며 전호속의 전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고무하시며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념려하여주시였으며 래일은 멀리 후방병원을 찾으시여 부상당한 중환자들을 뜨겁게 위로해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인민군전사들은 살아도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죽을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영웅적으로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을뿐만아니라 해방된 남반부인민들에게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반부해방지역인민들을 새 정권의 주인으로,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참다운 삶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안겨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주요작전들을 지휘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남반부지역인민들의 생활을 심려하시여 도시의 가난한 인민들과 전재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하시였으며 때로는 이름없는 한 농가를 찾으시여 군색한 살림살이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참다운 삶을 받아안은 남반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쳤으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새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대를 적극 도와 용감히 싸웠다. 남반부의 수많은 애국적청년학생들은 의용군대렬에 자원입대하여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후방은 이처럼 전쟁의 가혹한 불길속에서도 굳게 다져지고 인민들의 생활은 빨리 안착되였다.

전선은 아직 간고하고 온 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있었지만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고 모든것을 설계하여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무르익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복구건설준비에 대하여 일군들과 자주 의논하시였고 손수 전후복구건설의 주추돌을 하나하나 마련하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군사예술로 전쟁의 승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실뿐아니라 탁월한 령도예술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인민대중을 이끄시여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력사적인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 그리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군사예술, 인민군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마사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제국주의체계의 전반적붕괴와 멸망과정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를 타승한 영웅의 나라로 그 이름을 빛내이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탁월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로부터 《현대제국주의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으로, 《반제반미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한후 지난 스물세해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합니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토우에 5천만겨레가 다같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락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거창한 사업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라린 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분별없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제놈들이 지른 불에 타죽고말것이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의 진두에 서계시고 전당, 전민, 전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 보위를 위한 영웅적투쟁

전 창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보루인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적들의 발악적인 공격으로부터 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에 창설되였던 유격근거지의 방위를 위한 투쟁을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좋은 무장이 있었겠는가? 유격대원들이여야 보총과 화승총을 가졌고 그외 사람들은 창과 칼을 가졌으며 최선의 경우 일부 사람들이 사냥총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무장을 가지고도 옳은 유격전술에 따라 남자녀자 할것없이 다 무장하고 영용하게 싸움으로써 4～5년간이나 유격근거지를 견지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유격근거지를 그처럼 장기간 사수한 영웅적투쟁, 이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영웅서사시이며 오늘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주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기지인 동시에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일찌기 항일유격대창건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벌써 유격근거지의 창설방침과 구체적형태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근거지창설을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필수적과업으로 제시하신것은 강대한 적의 포위속에서도 무장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면서 장기간의 유격전을 벌릴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며 일제의 학살만행으로부터 혁명군중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외부의 그 어떤 군사, 경제적 지원도 없이 무장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자체의 공고한 군사적근거지, 후방기지를 가지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며 나아가서 당창건준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혁명운동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유격근거지창설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무장투쟁의 모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계급적구성이 좋고 반일투쟁에서 일정하게 단련된 군중적토대가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험준한 산들과 깊은 수림으로 국내와 련결되여 무장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던 두만강연안일대에 해방지구의 형태로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두만강연안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전례없이 강화된 조건에서도 오직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모든 가능한 조건들을 다 리용하여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축성함으로써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전반적조선혁명을 강력히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극악무도한 일제침략군대가 꽉 들어찬 그 한가운데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

거지를 창설하는 투쟁은 처음부터 간고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여 인민탄압에 발광하는 적들을 제압하면서 불과 몇달동안에 두만강연안일대의 넓은 지역에 적들의 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형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설된 유격근거지들에서 낡은 통치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혁명적질서를 수립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정권—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유격근거지—해방지구는 모든 권리와 행복이 인민에게 차례진 새 세상으로 되였으며 인민들은 혁명정권밑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되였다. 근거지의 마을들에는 아동단학교가 서고 어린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울려퍼졌으며 인민들은 적들의 《토벌》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주인된 긍지와 자각을 안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였으며 새생활을 창조해나갔다.

이렇듯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창설되였던 유격근거지—해방지구는 적의 통치를 철폐하고 피로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지향과 념원이 반영된 희망의 등대였다.

유격근거지는 실로 항일유격대를 물적, 인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후방기지로서,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의 기지로서 거대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책원지인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그 영향력이 강화되자 이에 당황망조한 일제놈들은 유격근거지를 없애버리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일제놈들은 항일유격대가 《동양평화의 암》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저지시키는것으로써 치안의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항일유격대가 더 강화되기전에 무장투쟁의 전략적기지인 유격근거지를 그 초기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파탄시키시고 4~5년이란 오랜기간 적의 포위속에서 유격근거지를 지켜내는 력사상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투쟁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우시고 신출귀몰하는 령활한 전략전술로 적을 족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당시 일제는 유격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처에 《집단부락》을 설치하고 중세기적《보갑제도》를 실시하여 유격근거지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놓으려 하였으며 간첩주구단체와 각종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근거지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놈들은 유격근거지에 대한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봉쇄와 파괴책동을 감행하는 동시에 대병력을 동원하여 모든것을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략탈하는 《초토화전술》과 근거지를 장기간 포위하고 공격하는 《위공작전》을 벌리였다.

일제는 유격근거지를 《일거에 소탕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동만각지의 일본군은 물론 지어 조선주둔 19사단의 일부 병력까지 동원시켜 보병, 기병, 포병, 항공대 등 《최정예》부대로 유격근거지《토벌》에 달라붙었다. 적들은 그 어떤 손실을 당하더라도 유격근거지

《소탕전》을 끝장내고야말 심산으로 련일 수많은 병력을 투입하였다.

모든것이 불에 타고 마사져버린 유격구의 형편은 참으로 간고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더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이 시각에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유격근거지에 닥쳐온 위기를 몸소 타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전술과 유격전법을 창조하시여 근거지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첫시기만 하여도 유격투쟁에 대하여 본받을만한 경험이나 써놓은 교범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직 실지 투쟁과정에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유격투쟁의 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능숙히 적용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는 항상 적에 대한 사상적, 전술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시였으며 주도권을 틀어쥐고 근거지보위전투를 비롯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 적을 최대한으로 소멸하는 것을 유격전의 기본원칙으로 삼으시고 적이 집중하여 공격하여올 때에는 유격대는 분산하여 적의 배후를 도처에서 공격하여 소멸하며 적이 분산되였을 때에는 유격대의 집중된 력량으로 들이쳐 소멸하는 령활한 전술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적들의 집요한 《위공작전》으로부터 근거지를 방위함에 있어서 수적으로나 장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과의 정면대결만을 고집하는 군사적모험주의자들의 무모한 주장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적극적인 방어와 기동적인 적후방교란작전을 배합하는 탁월한 전술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전반적인 유격근거지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적극적인 방어와 적후방교란작전을 배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전술의 정당성은 력사적인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의 승리적종결로 력력히 실증되였다.

1933년 겨울부터 일제놈들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있던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무려 5,000여명의 대병력을 투입하고 비행기와 대포까지 동원하여 근거지를 없애버리려고 발광하였다.

적들의 이렇듯 방대한 병력에 비하여 당시 근거지에 있던 항일유격대는 2개중대에 불과하였고 그밖에 반일자위대와 소년선봉대 등 반군사조직성원들이 있었을뿐이였다.

전투의 형편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일부 력량을 친솔하시고 적통치구역에 진출하시여 《토벌》중심지였던 왕청시가와 량수천자, 북봉오동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습격전투를 조직지휘하심으로써 적들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으시였다.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유격근거지를 겹겹이 포위하고있던 일제놈들은 뜻하지 않았던 배후로부터의 타격에 당황망조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마침내 포위진을 풀고 황급히 도망치지 않을수 없었다. 일제침략자들은 소왕청유격근거지의 《토벌》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에도 거듭 집요하게 덤벼들었으나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유격전술에 의하여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

그렇듯 간고한 정황속에서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적들의 중중첩첩한 포위속을 뚫고 적의 배후를 타격한것은 참으로 대담무쌍하고 령활한 작전이였으며 전국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탁월한 전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탁월한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전법이 있음으로 하여 적들이 그처럼 집요하게 달려들던 발악적인 공격을 그때마다 쳐부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광대한 유격근거지를 영예롭게 사수할수 있었다.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투쟁의 빛나는 승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위력이 낳은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혁명적각오,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인민유격대가 일제를 타승하고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결정적담보입니다.》(《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 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꾸리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밖으로는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처부시고 안으로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는 심각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시면서 대원들과 인민들을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항일혁명대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결속되였으며 종파주의자들, 이색분자들이 혁명대렬내에 조금도 끼여들지 못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 이것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그 실현을 필생의 혁명임무로 삼고 싸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통일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였을뿐아니라 혁명투쟁의 실천행동에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였다.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해서 결써 대하거나 홍정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투쟁하였다.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혁명전사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 지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말았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자기들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신념화된 충실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절대적인것으로 되게 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라도 극복하고 반드시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 신심을 확고히 가지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친히 령도하시였을뿐만아니라 가장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간고한 전투의 나날에도 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은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학대와 착취만 받아오던 근거지인민들을 무한히 감동시켰다. 근거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혁명정부하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찾게 되였으며 토지를 분여받고 녀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누구나 다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듯 적들의 끊임없는 《토벌》공세에 대처하여 매일같이 격전을 벌려야 하는 그 간고한 정황속에서도 근거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과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혁명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참다운 자유와 삶을 누리였으며 인민을 위한 새 정권, 새 제도의 고마움을 체험하였다. 실생활을 통해서 근거지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진 자유와 참된 삶이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는것을 깊이 깨달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근거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유격근거지를 지켜 목숨걸고 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전투가 가렬해지고 정황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더 굳게 결속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내외의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유격근거지를 끝까지 지켜냈다.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투쟁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또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근거지를 요새화하여 혁명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우신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자위적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구역에서는 유격대를 정치군사적으로 장성발전시킬뿐아니라 적위대, 소년선봉대 등 반군사조직들을 확대강화하고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켜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1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유격근거지보위방침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원쑤와의 투쟁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함으로써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철벽의 요새로 꾸리며 자체의 힘으로 적의 침공을 물리치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해방지구의 전인민적방위를 조직하는 사업에서 항일유격대를 핵심으로 하고 적위대, 소년선봉대 등 반군사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유격대오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몸소 군정훈련과 전투들을 조직하시여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전투원으로 키우시였다.

이와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시기 위하여 반군사조직들의 대오를 확대하고 무장장비를 강화하며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반군사조직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인민적무장형식이다. 반군사조직에는 그 성원들이 생산도 하면서 군사활동을 하는만큼 근거지의 많은 청장년들과 녀성들이 망라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의 방침에 따라 광범한 인민대중이 반군사조직에 망라되고 모두가 군사를 배우며 자체를 무장함으로써 유격근거지는 생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하나의 전투대오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반군사조직성원들은 유격근거지를 요새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을 받들고 간고한 투쟁을 벌리였다.

험준한 산발과 무수한 봉우리들, 깊은 골짜기들과 심한 경사지와 절벽, 울창한 산림으로 에워싸인 유격구들은 그 자체가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있었다. 그러나 적들의 대규모적침습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유리성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으며 여기에 2중 3중의 경계조직과 방위시설을 배합하여 적들이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일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근거지 인민들은 요소요소에 사격호를 굴설하고 적의 포사격과 폭탄에도 견딜수 있는 땅굴을 팠으며 중요지대에는 전호도 여러겹으로 파놓았다. 또 모든 길굽이와 통로마다에 함정을 파놓고 통나무를 가로질러놓는 등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침입하는 적들이 마음대로 기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근거지의 경계를 위해 중요한 산봉우리마다에 배치된 망원초로부터 바다초, 받읍초, 문전초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경계와 신호 체계를 세워놓았다.

유격근거지에서 식량, 피복 등 군수물자를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하는 문제는 근거지가 적들의 장기간의 《토벌》작전을 이겨내게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였다. 군수물자생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식량이였다.

근거지인민들은 식량생산을 위하여 한손에는 무기를 다른 손에는 낫과 호미를 들고 적들과 결사적인 전투를 하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뿐만아니라 근거지인민들은 유격대의 병기창과 피복대 사업도 적극 도왔다.

실로 유격근거지의 방위체계, 이것은 오직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자위적군사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위대한 모범이다.

이렇듯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곳곳에 방어시설과 군수물자생산기지를 갖춘 항일유격근거지는 적의 그 어떤 발악적 책동도 그때마다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으며 적들이 어쩔수 없는 철벽의 성새로 되였다. 바로 이러한 요새에 의거해서 싸움으로써 적들의 거듭되는 발악적인 공격속에서도 한두달도 아닌 4~5년이란 장구한 기간 유격근거지를 지켜낼수 있었다.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투쟁의 전행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의 빛나는 영웅서사시이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았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웠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이 겪은 난관과 시련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단벌로스레웃으로 령하 40도의 혹한을 견디여내야 하였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하였다. 식량이 부족하여 풀과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웠으나 나중에는 그것마저 떨어졌다. 겨울에 한길씩 되는 눈속을 헤치고 마른풀이며 다래덩굴을 뜯어다 소금도 없이 삶아먹어야 하는 곤난은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것이였다. 그들은 이러한 곤난과 함께 혁명대오내에 잠입한 간첩, 암해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면서 매일같이 달려드는 적들을 물리쳐야 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은 원쑤들이 불지른 재더미우에 한해에 수십번씩이나 다시 집을 지으면서도 파헤쳐놓은 곡식밭에 또다시 씨를 뿌리면서도 새 전투를 준비하였다.

준엄한 싸움의 나날, 전투초소에 서있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유격근거지자체가 하나의 전투마당이였다.

녀성들은 적들의 총탄이 작렬하고 불짜기마다 적이 욱실거리는 그 위험한 속에서도 유격대원들에게 탄약을 운반해주고 더운물과 밥을 운반하였다. 정황이 급하여 이고 오를수 없을 때는 밥을 자루에 넣어 끌고서라도 기어이 전투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였다.

아동단원들도 탄우와 눈보라 속을 헤치면서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적정을 정찰하여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전투가 한창 벌어지는 고지우에서 혁명가요를 불러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대원들의 전투사기를 고무하여 주었다.

로인들까지 고지우에 올라가서 돌무지를 쌓았다가 기여드는 놈들의 머리우에 돌벼락을 안겨주었다.

간고한 전투속에서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미풍이 활짝 꽃피였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혁명적락관주의의 빛나는 모범이 온 대오에 차고넘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

도밀에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승리의 날을 보고야말리라는 불같은 마음, 이 불굴의 투쟁정신이 총진 유격대원들로부터 어린 아동단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심장에 억세게 고동쳤으며 그 힘이 바로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근거지를 끝까지 지켜낼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악조건과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굴함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한 영웅적투쟁으로써 광대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지켜냈다.

근거지방위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위력이 낳은 빛나는 열매였다.

최신무기로 장비한 대병력을 동원하여 발악적으로 공격하여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유격근거지를 지켜낸 이 빛나는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신출귀몰하는 천재적인 전략전술의 결과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며 흠모하는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운 대중적영웅주의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그처럼 장기간 유격근거지를 사수한 영웅적투쟁,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영웅서사시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력사적승리는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광대한 유격구를 보위해냄으로써 갓 창건된 항일유격대가 최신무기로 장비한 그 어떤 적과도 싸워이길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적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군사정치적참패를 안겨주었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발전과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유격근거지창설과 그 보위를 위한 투쟁경험은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간악한 일제와 맞서싸워이긴 투쟁경험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고귀한 투쟁경험을 연구하고 따라배우는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들앞에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발휘한 백전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본받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김 봉 주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며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되는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계속하여나가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 어떤 역경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견결한 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투사로 키울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들의 대부대를 튼튼히 마련할 때 우리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 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치렬하게 벌어지는 계급투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려 할 대신에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게 지내려는 비혁명적이고 비계급적인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지어 지난날 계급적원쑤들과 피흘리며 싸웠고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바쳐싸운 사람들속에서도 점차 계급적각성이 무디여지고 생활에서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혁명을 계속하기 싫어하는 그릇된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되며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계급적원쑤를 잊어버리고 놈들과 끝까지 싸우더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복잡한 계급투쟁에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시련을 이겨낼수 없고 혁명을 계속하여나갈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계급적립장을 저버리고 안일해지며 계급적원쑤도 제국주의도 증오할줄 모르게 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게 되며 결국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혁명을 말아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혁명교양, 계급교양 문제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 앞에 가장 숭고한 혁명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일찌기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계속하며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 력사적위업이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은 곧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떠나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도 생각할수 없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간고한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고수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며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변함없이 싸워나가려는 굳은 각오와 혁명적의지를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야만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철의 대오로 만들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여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

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높은 계급의식,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온갖 적대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사상투쟁, 계급투쟁행정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사상,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사업인것만큼 이를 실현하는 행정에서는 적대적사상조류의 항거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비로동계급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만 온갖 적대적사상조류들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낼수 있으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적극적인 옹호자로 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이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새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여 벌써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62~63페지)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혁명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등장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인 새세대들은 짚신과 토스레옷이라는 말도 잘 모르며 그들속에는 계급적원쑤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혁명의 담당자들은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로 바뀌여지고있지만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언제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자기 조국과 부모들의 쓰라린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물젖어 편안하게만 살것을 바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부닥치게 되는 시련과 난관앞에서 동요와 주저를 가져오게 될수 있다. 이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정력적으로 인내성있게 벌려나가야만 그들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과 야수성을 똑똑히 알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 끝없이 미워하며 그놈들과는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견결한 혁명적립장, 굳은 혁명적의지를 가질수 있다.

바로 이렇게 되여야 새세대들은 혁명의 명맥, 주체의 피줄기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나라에는 날로 더욱 긴창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매우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그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과 략탈의 범죄적목적을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륙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수많이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하고 남조선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사촉밑에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은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일으키고있으며 새 전쟁 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모하고도 발악적인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한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 특히 정치사상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계급적각성과 혁명적각오를 가져야만 적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감히 덤벼들어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정세가 첨예하고 복잡해질수록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하게 벌리는것은 적들과의 대결에서 확고한 승리를 담보하는 원칙적문제이며 미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의 성과여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정치사상적각오가 어느정도 되여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적요구의 하나이며 이 운동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이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철천지원쑤 미제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탄을 퍼붓는 심정으로, 피흘려 싸우는 남조선동포들을 구원하는 혈육의 정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확고한 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숭고한 혁명위업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 *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하고 복잡하며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우리는 아직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나라의 절반땅에서는 한 피줄을 이은 동포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온 민족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땅우에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 투쟁에서는 시련도 겪어야 하며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온갖 시련을 강의한 혁명적의지로 완강히 극복해나갈 때 간고하고 어려운 우리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시종일관한 혁명적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관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순결한 계급적량심과 강의한 혁명적지조 등을 근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0페지)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숭고한 리념과 계급적리해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적세계관의 기초원리로부터 시작하여 세계관의 모든 내용과 그 형성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완벽하게 밝혀줌으로써 혁명적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음으로써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가장 철저한 로동계급적관점,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고상한 혁명가적기풍이 담겨져있으며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했던 항일혁명선렬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백두의 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안일과 해이, 로쇠와 침체를 배격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살고 일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20페지)

우리와 직접 맞서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제침략자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이다.

미제는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인민에게 뼈에 사무친 원한과 분노를 서려놓았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무고한 동포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36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는곳마다에서 천추에 용서못할 저주로운 죄악과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오늘은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에 대한 침략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므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교양하며 언제나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만행을 력사적으로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놈들의 야수성과 교활성이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늘도 지난날보다 더 험악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로 하여금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놈들의 썩어빠진 반인민적통치제도를 끝없이 증오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언제나 남반부인민들의 처지와 조국통일의 숭고한 의무를 잊지 않도록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전쟁관점을 바로가지도록 하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제놈들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군사행동을 하며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지않겠다.》고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격화되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긴장해지고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 정세에서 전쟁관점을 똑바로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다.

전쟁관점을 옳게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언제나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 권태증도 배격하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적들의 불의의 공격에도 맞설수 있는 빈틈없는 정치사상적준비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국주의와 평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

잡히지 않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교양하는것은 전쟁관점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적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검은 칼을 갈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혁명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적들과 맞서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비관을 모르며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대하며 적들이 발붙이고 책동할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도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만일 적들이 무모한 불장난을 한다면 우리는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본때있게 싸워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는 만만한 투지와 각오를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을 짓부셔버리는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미제와 온갖 반동무리들을 영영 쓸어버려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가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제도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해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사상개조운동이며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람들을 우리 혁명의 참다운 역군으로 키울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세차게 벌려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건설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력, 지혜를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신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단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법칙

정 성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최근에 주신 강령적교시들에서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최근년간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커진 가공공업이 은을 내게 하며 나라의 경제를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도처에 현대적인 대야금기지들과 동력, 화학, 기계제작, 건재 공업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대대적으로 개건확장되였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비할바없이 확대되였으며 가공공업의 생산능력과 잠재력이 비상히 커졌다.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많은 자금과 로력을 들여 건설한 가공공업이 은을 내게 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과 흑색 및 유색금속광물, 희유금속과 비금속 광물들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야 금속, 화학, 기계, 건재 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과 동력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에 옳은 균형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앞세우지 못하여 원료와 연료를 넉넉히 대주지 못하면 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이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법칙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한 사실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8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래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는것은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법칙이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주의경제는 부문들사이에 옳은 균형이 유지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다.

밀접히 련관된 인민경제부문들가운데서 생산의 첫 공정, 공업생산순환의 첫 단계를 이루는 채취공업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에 옳은 균형이 유지되고 원료, 연료에 대한 가공공업의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만일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경제발전법칙의 요구를 어기면 여러 부문들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고 원료, 연료의 부족으로 가공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게 되며 주체적인 립장에서 경제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거대한 공업생산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특성과 그 발전의 필수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채취공업부

문에 투자를 집중하는것과 함께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비롯하여 채취공업발전을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광물과 석탄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고 가공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제때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여러가지 기계와 전기설비, 전자기구들과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기술혁명과업도 더 잘 수행할수 있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의 자립성,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하며 우리 경제를 주동적으로 빨리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연료위기, 원료위기로 하여 경제가 심각한 혼란과 파국 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떤 원료, 연료 위기도 모르며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함이 없이 필요한 원료, 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원료, 연료 생산을 부쩍 늘여나감으로써 우리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국방건설도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다.

또한 가까운 앞날에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를 비롯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채취공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얼마전에는 함경북도를 몸소 찾으시고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우고 철도수송, 자동차수송, 관수송을 옳게 배합하여 원료를 제때에 운반하며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을 비롯하여 채취공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였다.

채취공업을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로 규정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당조직을 발동하여 채취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제반 사업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우리에게는 채취공업부문을 현대적기계설비들로 훌륭히 장비할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인 중공업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채취공업발전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채취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억세게 싸워나가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는 무엇보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지질탐사사업은 채취공업의 첫 공정이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탐사와 굴진사이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며 채취공업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계통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탄광, 광산들의 심부와 주변에 대한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망탐사를 강화하며 탐사의 집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술혁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탐사방법을 종합적으로 도입하여 탐사 속도와 효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지질탐사부문 일군들은 지질탐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우리 나라의 지질과 지형 조건에 맞는 새로운 탐사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탐사설비를 현대화, 경량화, 고속도화하고 시추 및 굴착기 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결정적으로 앞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부문내부의 균형을 옳게 유지하는것으로서 채취공업발전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법칙이다.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앞세워야 채탄장과 채광장을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여 광물과 석탄 생산을 전망적으로 조직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면한 생산일면에만 치우쳐 굴진과 박토를 차요시하는 낡은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굴진과 채탄, 굴진과 채광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투하비률을 5대5로 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기본굴착기는 3년분이상, 준비굴착기는 6개월분이상 앞세우는것이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채굴부문의 로력과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굴진부문에 건장한 청년들과 좋은 설비들을 먼저 돌림으로써 높은 채굴속도와 함께 보다 높은 굴진속도를 이룩하여 굴진을 채굴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굴진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굴진속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고속도굴진공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굴진공들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선진기술공정과 기계설비들을 널리 받아들여 굴진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탐사와 구체적인 설계, 집체적인 협의에 기초하여 갱건설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굴진을 앞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세부탐사와 작업탐사 자료에 기초하여 굴진을 옳게 계획화하고 수갱 및 사갱 건설을 전망성있게 앞세우며 구체적인 설계밑에 굴착기 방향과 규모를 바로 정하고 굴진공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움으로써 헛굴진과 오작굴진을 없애고 굴진효률을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채취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1~12폐지)

채취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광물과 석탄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은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이다.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것은 현

시기 채취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며 탄광, 광산들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투적과업이다.

채취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탄광, 광산 기계공장들을 비롯한 자체의 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 고속도착암기와 대형착정기, 대형압축기, 대형적재기, 대형마광기 등 채굴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산, 탄광들에서는 공무동력직장을 튼튼히 꾸리고 부속품생산 및 수리 기지를 강화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만들고 이미 있는 설비를 개조하여 그 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갱들의 골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대형기계와 중소형기계설비들을 잘 배합하여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것과 함께 운반에서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를 널리 받아들여 원료와 연료를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화물역들에 제때에 날라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탄광, 광산들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이 빨리 높아나는 새로운 현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며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채취공업부문 일군들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생산조직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로력관리사업과 보장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늘 갱막장에 내려가 언제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와 모든 자재를 계획적으로 막장에까지 날라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튼튼히 세워 기업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며 생산에서 파동성이 없이 계속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더 많이 광물과 석탄을 캐는데 돌리며 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한사람당 생산액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탄부들과 광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 채취공업부문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다시금 깊이 료해하시고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더 잘 가닿도록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며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합숙, 목욕탕 등을 더 잘 꾸려주고 물고기,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들을 떨구지 말고 넉넉히 공급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채취공업부문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이 부문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금속공업, 건재공업, 림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는 강재와 세멘트, 갱목, 전선, 시약 등 여러가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내주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자동차, 굴착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적재기, 광차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무산광산을 현대적인 대광물생산기지로 꾸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

로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채취공업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로선이며 채취공업발전을 위한 일관한 방침이다.

오늘 채취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바로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하게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채취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채취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인 집행대책과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사업에서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하여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며 이것저것 주물거나 일을 중도반단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중심고리에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한다. 여기에서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전망이 좋고 조건이 유리한 탄광, 광산들에 인적, 물적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을 부쩍 올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채취공업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모든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고치며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오직 그대로 일하고 생활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걸린 고리를 적극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를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며 모두가 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채취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은 실로 영예롭고 보람차다.

모두다 속도전의 불길을 더욱 높여 하루를 열흘 맞잡이로, 열흘을 일년 맞잡이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광물과 석탄 생산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은 승리하고있다

손 진 팔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더욱더 많은 민족적독립국가들을 자기 대렬에 단합시키면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정책은 제국주의가 파산몰락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 발전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는 제3세계 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53～154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여나온 위력한 혁명운동이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혁명투쟁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은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혁명의 거세찬 폭풍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 이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반제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 발전의 이 기본추세를 반영하여나온 력사적운동이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운동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자기 주권의 쟁취 및 공고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어떠한 위협과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투쟁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 새 세계 건설에 일떠선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과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요인으로서 세계혁명과 인류해방 위업에 성과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시대의 요구와 지향, 진보적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혁명운동으로 나타난것은 인류력사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세계의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출현으로 세계의 전반적혁명력량이 결정적으로 강화되고 현시대의 자주적발전추세를 촉진시키는데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였다. 반면에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지배령역은 현저히 좁아지고 제국주의의 쇠퇴몰락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

날이 갈수록 쁠럭불가담운동에는 더욱더 많은 민족적독립국가들이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이 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첫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당시 불과 20여개 나라를 망라하고

있었던 쁠럭불가담운동은 오늘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80여개의 나라들을 자기 대렬에 단합시키고있으며 세계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고있다.

참으로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신흥세력으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한 쁠럭불가담운동은 현시기 세계혁명발전과 전반적인 국제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그들을 쇠퇴와 몰락에로 떠밀고있으며 피압박인민들과 신흥세력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3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범죄적인 도발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제3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평화, 독립, 발전, 협조 및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관한 선언》과 《쁠럭불가담 및 경제발전에 관한 선언》 그리고 동남아세아와 중근동 문제, 인종차별을 반대할데 대한 문제, 비식민지화문제 등에 대한 정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일체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인민의 자결권을 보장하며 조선인민자신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것을 요구하는 《조선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전횡을 반대하고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정치선언과 경제선언,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모든 조치들은 현시기 세계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방도로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난해 리마에서 《단결하여 해방을 이룩하자!》라는 구호밑에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는 우리 나라를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이는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며 미제의 추악한 주구인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른바 《쁠럭불가담운동가입》을 단호히 부결하였다.

최근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회의에서 채택된 콤뮤니케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조선에서 모든 긴장상태와 새 전쟁위험을 없애며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외국군사기지를 철페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반제자주적성격을 뚜렷이 과시한것으로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굳은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 되는 동시에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공동으로 취하고있는 모든 반제자주적인 정책들은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고 제국주의침략세력에 강력한 타격을 주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나아가는 이 운동의 리념과 원칙에 맞게 각기 자기 나라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정책을 단호히 짓부시

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아세아에서 웰남, 캄보쟈, 라오스 등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미제의 강도적침략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벌려 최후승리를 이룩한 사실, 중근동지역의 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하여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의 도발적인 침략책동에 강력한 타격을 안겨준 사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수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외래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면서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히 하고있으며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없애고 일련의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개혁들을 실시하는 등 새 사회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인민들의 자결 및 독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주고있다. 최근년간 유엔총회와 기타 국제기구들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일치하게 제국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 및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강력히 폭로규탄하였으며 민족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을 비롯한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자유와 독립, 사회적진보과정은 더욱 촉진되고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에서 정치적지반을 잃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을 침범할수 없게 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이 더욱 강화될 때 폭력적수단 특히 침략적군사쁠럭에 의거하여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은 종국적으로 파탄되고 놈들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원을 튼튼히 지키며 자기의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고 빼앗긴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다. 지난해 이라크에서는 외래석유독점체의 리권을 국유화하여 나라의 석유자원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가이아나, 가나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제국주의독점체들을 쫓아내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뻬루를 비롯한 일련의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령해와 경제 수역권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선포하고 바다자원의 보호를 위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세워진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행위를 폭로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유엔총회 제7차특별회의에서는 《개발 및 경제 협조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지역적협조기구를 내오고

있으며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와 략탈을 막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신흥세력나라들의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제국주의의 략탈적인 《원조》정책을 반대배격하고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튼튼한 민족경제를 건설해나가고있다.

나라의 자원을 지키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지반은 허물어지고있으며 이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에 의거하여 치부하여온 제국주의자들은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에 의하여 3대륙에서 제국주의의 마지막 생명선이 끊어져나갈 때 놈들의 멸망은 더욱 불가피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군사쁠럭과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들을 해체할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긴장상태의 완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이러한 투쟁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더욱더 큰 지지를 받고있으며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쁠럭불가담운동에 의하여 인류에게 그처럼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치욕스러운 제국주의는 급속히 멸망하고있으며 자유와 해방, 사회적진보와 평화를 위한 정의로운 위업의 승리는 힘있게 앞당겨지고있다.

지금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이 운동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될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성의있게 준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많이 론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23페지)

세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문제와 국제경제개발문제를 비롯하여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반대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책,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파괴, 리간, 매수책동을 분쇄하고 신생독립국가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자유와 독립, 민족적번영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문제 등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될것이다. 그것은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이렇듯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으며 이 운동의 숭고한 리념은 빛나게 승리하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앞에는 이 신성한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반제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아직도 세계에는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고있으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말살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는 반동세력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쁠럭불가담운동에 참가하고있는 나라들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4페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지난날 오래동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침략과 간섭을 계속하고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옛지위를 다시 차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

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 민족적 독립과 번영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성과적 발전은 반제투쟁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한것이다. 오직 반제투쟁을 강화함으로써만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공고히 하고 평화와 안전,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며 평등한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전제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갈수 있고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에 맞게 모든 대내외정책을 실시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는데서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으면서부터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에 참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각종 압력을 가하고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파괴책동, 전복음모, 무력간섭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다른 한편 놈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벗》으로, 《원조자》로 가장해나서면서 식량과 무기 같은것을 조금씩 대주는 방법으로 쁠럭불가담나라들에 저들의 정치적요구를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리간시켜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분렬을 방지하고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더욱더 단결된 력량으로 진출할 때 그 힘은 비상히 강화된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침략책동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완전히 끝장내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대에 강요된 불평등한 현국제경제질서대신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며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불합리한 국제기구들을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기구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이 필요하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앞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초래된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자기의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자기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가져야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일도 할수 없고 하고싶은 말도 할수 없다.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잔재를 없애고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협조하고 교류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과 여러가지 경험들을 다 가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경제적난관을 이겨낼수 있을뿐아니라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능히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번영을 빨리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목적과 리념에 부합되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단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할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우와 같은 책, 9~10페지)

우리 인민은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반제자주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과 언제나 한대렬에 서서 공동의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투쟁을 자기자신의 위업으로 간주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근본장애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민족을 도로 찾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수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국제적지지성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여기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의 승리적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줄기찬 공동투쟁에 의하여 인류의 해방위업은 크게 촉진될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략탈이 없는 세계,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의 건설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근로자 1976년 제7호 (루계 411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6년 7월 1일　　발행 • 1976년 7월 5일

ㄱ—65333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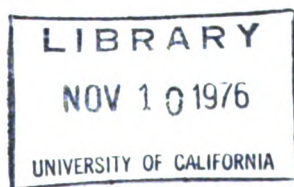
평 양 근로자사 1976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8 호 (412)

차 례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사 대외편집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1976년 5월 29일)

물음: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현세계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답: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큰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현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세계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였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세계혁명력량은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승리적전진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피압박인민들과 신흥세력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날이 갈수록 세계혁명위업과 국제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현시기 많은 국제문제들이 정당하게 해결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끝장내고 모든 문제를 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입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이 빨리 확대발전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동의 영향력을 막으며 그것을 파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켜보려고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파탄시키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것이 필요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단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오늘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은 그들을 서로 긴밀히 련결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물음: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자주성과 협조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과 이 나라들사이에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존중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진실로 자원적이고 평등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는 나라들사이의 《협조》는 불평등과 예속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협조》의 미명밑에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협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들이 정치, 경제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는 서로 자주성이 존중되고있으며 진실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세계의 인구와 령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고 서로 교류할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이러한 방대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습니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물음: 콜롬보수뇌자회의를 위한 준비와 이 회의로부터의 기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대답: 오는 8월 콜롬보에서 있을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이 국제무대에서 날로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 때에 열리게 됩니다. 이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그 규모와 상정된 문제의 중요성으로 보아 쁠럭불가담운동발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회의로 될것입니다.

지금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물론,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고있으며 이 회의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다른 모든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함께 콜롬보수뇌자회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이 회의의 성과를 위하여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이번 콜롬보수뇌자회의에서는 현시기 국제적으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고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회의예비의정에는 국제정치정세의 총화와 평가문제, 국제경제정세와 개발문제를 비롯한 초미의 문제들이 포함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토의해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마련할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회의가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데 깊은 주목을 돌릴것을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된 위력을 시위하며 이 운동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력사적인 회의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물음: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할수 있겠습니까?

대답: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서 반제자주를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위업의 한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지지성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날 많은 쁠럭불가담나라 국가수반들이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주었습니다. 특히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규탄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이와 같은 지지성원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여론을 더 많이 불러일으켜 미제가 남조선에서 배겨내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조선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들이 남

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널리 폭로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여론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켜줄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특히 다가오는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지난 기간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준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쁠럭불가담나라 정부와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물음: 존경하는 주석님께서는 조선과 유고슬라비아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고계십니까? 그리고 당면한 콜롬보수뇌자회의준비와 전반적쁠럭불가담운동체계내에서의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협조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자주성을 요구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현단계와 국제무대에 새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여 날로 개화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유고슬라비아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빨리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지난해 6월에 있은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의 유고슬라비아방문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유고슬라비아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호상 신의와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의 뜻깊은 상봉과 유고슬라비아 정부와 인민이 우리에게 표시한 열렬한 환영과 환대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의 유고슬라비아방문이 있은 다음 조선과 유고슬라비아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접촉과 래왕이 많아지고있으며 정치분야에서 호상 지지와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제기술적협조가 확대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을 따라 확대발전되고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것으로서 진실하고 훌륭한것입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앞으로 유고슬라비아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은 멀지 않아 스리랑카에서 열리게 될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준비하는 사업과 전반적쁠럭불가담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에서도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들과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협조는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선 중대한 문제들을 풀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도움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 ☆

혁명하는 사람들답게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자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고있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매일, 매시각 전례없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이리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이 땅우에 주체의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행군길은 보다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우리 혁명이 일대 비약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으로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적으로 생활한다는것은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답게 생활을 긴장하고 검박하게 그리고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적생활기풍은 혁명가들의 고유한 품성이며 혁명적사업기풍, 혁명적학습기풍과 함께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가적기풍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혁명적생활기풍으로 살아야 합니다.》

혁명가들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혁명투쟁에 나선 사람들이다.

혁명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새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혁명발전의 법칙이다. 그러나 혁명은 순풍에 돛단배처럼 순조롭게 전진하지 않으며 또 하루이틀에 끝나지도 않는다. 혁명투쟁과정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이 두려워서 투쟁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태도라고 말할수 없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가들은 혁명의 길우에 가로놓인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애로들을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계속 전진하여야만 자기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혁명투쟁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안일과 해이, 순간의 답보와 침체도 허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긴장하고 검박하게 살며 부단히 투쟁하고 계속 전진할것을 요구한다.

혁명가들은 수령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가장 큰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투쟁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나간다.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은 혁명적인 생활속에서 살며 간고한 투쟁속에서 일생을 끝마치게 되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은 그들이 수령을 위함이라면, 혁명의 요구라면 청춘도 행복도 생명도 다 바치겠다는 혁명적 신념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기때문이

다.

참다운 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혁명적생활기풍은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인생관에 기초하고있다.

혁명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 없이 자기 한몸의 안일이나 향락을 바라고서는 할수 없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뜨뜻한 온돌방에서 가족들과 안락하게 사는것이 편안한줄 몰라서 기나긴 15성상이나 풍찬로숙하면서 혁명투쟁을 벌린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였기때문에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끝까지 투쟁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와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은 풀뿌리를 먹으며 싸우면서도 그 누구도 개인의 공명과 출세, 일신의 부귀영화에 대하여 생각한적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언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으로 생활하였다.

혁명적으로 생활하는것은 이처럼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생활기풍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하여야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숭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나갈 때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 이 땅우에 주체의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울수 있다.

혁명적으로 생활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생활기풍일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생활태도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고 뒤떨어진것을 반대하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창조하는 사회이며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또한 전체 인민이 같은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단합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있는 사회이며 모든 중요한 재부들이 다 사회적소유로, 전인민적소유로 되고있는 사회이다.

온갖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며 모든것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자체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이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자신이 어떠한 기풍으로 생활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완전히 청산해야 건설되는것만큼 모든 분야에서 낡은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낡은것과 새것과의 치렬하고도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며 모든 일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는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사회를 빨리 발전시키고 옳게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과 나라에 조성된 긴장하고 긴박한 정세는 우리들에게 더욱 혁명적으로 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하는 도상에 있습니다. 미제가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수 없으며 혁명하는 시대의 사람들답게 언제나 검박하게 살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혁명의 길우에 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절반땅을 되찾지 못하였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하며 당면하게는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들을 단숨에 점령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동시에 간악한 원쑤들의 야만적인 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녘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피흘리며 싸우는 그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혁명하는 나라, 신흥세력나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자라는껏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힘겨운 일들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로골화되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수행하고있다.

지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과 분렬의 범죄적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절정에 이르고있으며 그 어느때보다도 본격화되고있다. 놈들의 류례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매우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본격화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여 편안히 살수 없으며 잠시도 긴장성을 늦추고 안일해이하게 생활할수 없다. 우리는 단 한시도 전투적태세를 늦추지 말고 혁명하는 사람들답게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생활기풍으로 살아야 원쑤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참으로 혁명적으로 생활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서 떼여낼수 없는 고귀한 품성으로 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생

활태도, 생활기풍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합니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토우에 5천만겨레가 다같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락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국을 통일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간고하고 어려운 투쟁이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그의 사촉을 받는 국내외의 온갖 반혁명세력과 싸워야 하며 이 투쟁에서 많은 곤난도 겪어야 하고 가슴아픈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도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전투적이며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야 한다.

혁명적으로 생활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생활기풍을 더 높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4페지)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생활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생활기풍이다.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지금 우리가 낮잠을 잘것을 바라면서 침략의 검은 칼을 갈고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만일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날라리를 부리며 무사태평하게 지내거나 안일해이한 생활을 한다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수호해낼수 없다.

안일해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는것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책동도 제때에 짓부실수 있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여 당 및 국가, 군사 비밀이 절대로 새여나가지 않도록 하며 제정된 생활 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비밀을 철저히 지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와 맞서고있는 간악한 원쑤들은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우리의 내부를 탐지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만일 무경각하게 비밀을 루설한다면 그것은 적을 도와주는것으로 되며 우리 혁명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적경각성을 높여 우리의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도와 질서, 규률이 없는곳에는 꼭 《귀신》이 있고 어두컴컴한곳에는 반드시 《도깨비》가 나타나는법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제정된 절차와 질서대로 해나가는 혁명적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된 생활 규범과 질서를 어기는 사소한 경향도 용허하지 말고 그와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며 전당이 오직 당중앙을 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리하여 적들에게 자그마한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주인다운 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국가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한알의 쌀, 한그람의 철,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45페지)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꾸리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며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은 우리 인민이 피땀을 흘려 만든 로동의 열매이며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며 재부이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모든 재부의 창조자인 동시에 바로 그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절약하는것은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과 재부가 다 인민의 공동소유로 되여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기본요구로 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생활기풍으로 된다.

국가와 인민의 공동재산을 되는대로 거두거나 귀중한 원료와 자재를 마구 탕비한다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도 없고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일수도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도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쓰고있는 모든것을 소중히 다루고 아끼는것이 다 인민을 위한것이고 혁명을 위한것이며 그것이 곧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한알의 쌀, 한그람의 철, 한방울의 휘발유도 극력 아껴써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보다 더 근검절약하여야 하며 푼전을 아끼고 계속 긴장하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남이 보건 말건 또 그 누가 알아주건 말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여야 하며 4년동안 무보수애국로동을 하면서도 조직화된 로동계급에 못지않게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한 청진시녀성로력지원자들의 주인다운 생활기풍과 참다운 일본새를 본받아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는 혁명적생활기풍을 높이 발휘

하여야 한다.

우리는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것과 함께 개인살림에서도 쓸데없이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낡은 생활습성에서 오는 온갖 사치와 허례허식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현시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지도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핵심력량이며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들이다. 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재산을 맡고 직접 관리할 책임과 임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나라살림살이가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지도일군들이 얼마나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보다 적은 로력과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재산이 랑비되는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하며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애써야 하며 로력과 설비와 자재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망탕 랑비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이 된 크나큰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나라살림살이를 보다 깐지고 알뜰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설뿐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검박하게 하는데서도 실천적모범을 보여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참다운 삶의 보람은 자기 한몸의 안일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 있다.

지도일군들은 개인의 안락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혁명가답게 언제나 사생활을 검박하고 수수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더 숭고한 혁명가의 품성을 지니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전사들과 같이 입고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혁명적으로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생활을 검박하게 조직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중요한 하나의 생활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활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생활에서 혁명적선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연구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이 차고넘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아가자.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

김　창　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고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철학적기초우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신것이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를 이루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인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오늘 우리 나라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자랑찬 열매를 맺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참다운 혁명의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것은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서 근본특징으로 되며 그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확고히 담보하는 원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자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따라서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의거하여야만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무엇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푸는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로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다하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새롭게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한 혁명리론과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준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람,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자체가 있을수 없고 세계가 무의미하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현실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오늘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새 시대이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처럼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자주, 자립에 대한 지향이 강렬하며 력사적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늘어나고 세계혁명발전에서 대중이 노는 역할이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차게 이끌어나갈수 없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워야만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가장 과학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참말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울데 대한 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선행시대와 구별되는 주체시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고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사회혁명의 합법칙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의 지위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예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총적목표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을 전개한다는 것을 말한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혁명리론은 혁명의 본질과 목적,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 혁명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따라서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것으로 되자면 혁명리론이 담아야 할 이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한 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선차적으로 밝혀야 할 혁명의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혁명의 본질, 근본목적을 새롭게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페지)

사회혁명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혁명리론의 가장 중심적인 구성부분이다. 혁명리론의 다른 모든 문제들은 혁명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련결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혁명투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혁명리론확립에서 중추를 이루는 혁명의 본질문제에 유일하게 옳바른 과학적해명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은 자연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동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근본속성이며 사람의 존재와 활동방식을 규제하는 근본조건이다. 사람은 그 무엇에도 예속되거나 구속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간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혁명투쟁은 결국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다. 계급적대립과 그에 기초한 낡은 사회제도는 적대적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기본사회적질곡이며 따라서 적대적계급사회에서 벌어지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주되는 형태이다.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한것도, 오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것도 결국은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유린하는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예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며 또한 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도 제국주의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한것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옳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과학적열쇠를 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계속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혁명의 근본원인과 필연성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모든 사회혁명의 근원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데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며 사회혁명의 필연성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준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 인민대중은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인것만큼 사람,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될 때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완전히 합법칙적이다.

그러므로 착취사회에서 사람들은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 투쟁한다.

인민대중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됨으로써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기본질곡인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이 청산되며 따라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력사적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여러모로 구속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

상은 사회혁명의 성격에 대하여서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들인 혁명의 기본임무, 사회계급적관계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주어짐으로써 혁명의 성격을 보다 깊이 밝힐수 있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놓고볼 때 매개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는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제도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더욱더 실현시켜주는데 있다.

혁명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산하여야 할 낡은 사회제도와 자주성이 실현되는 정도는 서로 다르며 바로 이에 따라 혁명의 성격과 류형이 규정된다.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계급적제관계도 인민대중이 해당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중심에 놓고보아야 정확히 밝혀질수 있다.

혁명의 성격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어떤 사회계급관계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어느 정도로 실현하는 사회제도를 세우는가에 따라 규정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해당한 혁명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관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가에 따라 그 혁명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투쟁의 본질, 근본 목적과 원인, 그 성격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사회혁명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가 주어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의 목표를 옳게 세우고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에 대한 구속이 있는 한 혁명은 필연적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혁명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굴함없이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일뿐아니라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과 전술이다.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는것은 혁명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을 묶어세우고 발동시키는것을 기본방법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나라 혁명가들의 과업은 국내외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방법을 세우고 평상시에는 암초를 에돌고 필요없는 희생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핵심을 키우고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장성시키며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혁명정세가 조성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지체없이 반동통치를 짓부시는 결정적투쟁에 일떠서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43페지)

혁명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을 비롯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옳게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는데서는 혁명과 건설의 객관적조건과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이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객관적

조건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라는 견지에서 전략과 전술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문제는 물질적생활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대중이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준비되여있는가 준비되지 못하였는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정세를 주동적으로 성숙시켜나가는가 못나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근로인민대중이 각성하여 하나의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여나가는데서 사회생활의 객관적, 물질적 조건이 일정하게 작용하는것만큼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혁명의 객관적조건이 아무리 성숙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대중이 준비되지 않으면 혁명은 일어날수 없고 승리할수도 없다. 근로대중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결속되면 객관적조건을 빨리 성숙시킬수 있으며 객관적조건이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혁명과 건설에서 능히 승리할수 있다.

따라서 혁명의 전략전술이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고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정확히 선택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로 되려면 혁명의 객관적조건을 정확히 평가하면서도 근로대중의 역할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함으로써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마련할수 있게 하였으며 객관적조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겨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해당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계층에 속하는 대중이 혁명투쟁의 동력으로 된다는 관점에서 혁명력량편성문제를 해결하고있다. 해당한 혁명투쟁에서의 혁명력량이란 그 혁명이 목표로 하는 자주성의 실현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근로인민대중을 말한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묶어세워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할데 대한 원칙, 사람과의 사업,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근로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울데 대한 문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근로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혁명투쟁에 인입할수 있게 되였으며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가지고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옳게 선택하는 것은 정확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옳게 선택하는데서 혁명의 객관적조건과 주관적요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시기를 선택하는데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계급적력량들의 호상관계가 발전하는 객관적과정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혁명발전의 객관적과정을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계급적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결정적요인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워야 할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통하여 나타나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열

마나 앞당기는가 하는것도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인민대중이 로동계급의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계급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으면 혁명정세의 발전과정을 주동적으로 성숙시켜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더욱 빨리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인 혁명의 전략전술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조성된 정세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울데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인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 제시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8페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개하고있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풍부하고도 고귀한 력사적경험을 총화하고 과학적으로 일반화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혁명의 모든 고귀한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에는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기전의 혁명투쟁과 주권을 쥔 다음의 혁명투쟁경험, 비합법적투쟁과 합법적투쟁의 경험,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경험, 반제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경험, 유격전쟁과 현대전쟁의 경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경험 그리고 당과 인민정권, 근로단체, 혁명무력을 창건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세우고 령도한 경험 등 참으로 끝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심오한 모든 분야의 투쟁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그 내용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탁월한 혁명리론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근본방향과 방도를 밝혀주고있으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명확히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뚜렷이 제시해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가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밝혀졌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사회혁명의 합법칙적과정과 매 단계의 혁명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 혁명의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중심으로 사회혁명발전과정을 통일적으로 봄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순차적과정으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였으며 매 단계의 혁명과업과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인민으로 되기 위한 혁명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첫단계의 혁명으로 된다는것이 밝혀졌다.

주체사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새롭게 밝힌데 기초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반제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중투쟁을 벌릴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혀줌으로써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와 봉건적질곡을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며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앞길을 환히 열어주었다.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민족적자주권을 고수하고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견지에서 사회혁명발전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지체없이 사회주의혁명에로 나가야 할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경제기술적조건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원하고 사회의 혁명적개조를 맡아할만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여있는가 하는것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실현하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온갖 착취와 압박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혁명이지만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인민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사람들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3대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발전되는 단계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사회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였으며 혁명투쟁의 로정과 순차성이 완전히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본질적요구, 그 완성의 합법칙성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인류해방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이 낡은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자면 우선 온 사회를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그들이 낡은 사회의 도덕, 락후한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준비되여야 하며 물질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두 요새와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인 목표와 방향, 방도가 뚜렷이 밝혀졌으며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과 과업이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의 두 요새와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계급해방을 실현한 다음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혁명리론이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탁월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의 동력을 밝히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기초우에서 국제적 련대성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고있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인민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편향없이 끝바로 확신성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전략과 전술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은 백전백승할것이며 영생불멸할것이다.

당의 정치적지도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승리의 확고한 담보

리 찬 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3대혁명소조를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 파견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더 힘있게 추진시키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갈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대중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것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당이 제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검덕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청산리의 협동농민들이 선참으로 추켜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는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로 급속히 확대되여 이 운동의 불길은 오늘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전당과 온 사회가 높은 혁명적열의와 전투적랑만으로 들끓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지난날 천리마운동이 일어났던 때와 같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해불높이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며 우리의 앞길에는 더욱 휘황찬란한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는 길에서 빛나는 장이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미 시작을 잘 뗀 이 운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이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 모든 혁신운동은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244~245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대중운동발생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대중운동은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전개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조성된 정세와 주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당의 혁명적령도, 정치적지도를 떠나서는 대중운동이 일어날수 없으며 올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없다. 이것은 대중운동발생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합법칙성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대중적운동으로 발단된 천리마작업반운동도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창조되고 전사회적운동으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올수 있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 문제는 바로 대중운동발생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하는것은 대중운동발생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일뿐아니라 이 운동이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 더 높은 단계의 과업을 실현하는 혁명운동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직접 자기의 투쟁구호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정치사상적 및 정신도덕적 풍모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유기체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대오로 꾸리며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해나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진행하여온 혁명적개조과정에 비할바없이 심오한 내용과 매우 높은 과업을 담고있는 거창한 사업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높은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 그 어떤 시련의 시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하는것을 주되는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근본요구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님으로써만 우리는 풍모와 자질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주체형의 피만이 차넘치는 충성의 대오로 굳게 다져나갈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및 방법을 깊이 소유하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는 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의 요구에 맞게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로동의 본질적차

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생산에서 끊임없는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다.

이 운동은 또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이 일정에 오른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상응하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는것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이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특히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투쟁목표로 삼고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문화혁명수행에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중심목표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면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고중졸업정도의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드는것을 투쟁과업으로 하고있다.

이렇듯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례없이 높고 숭고한 투쟁과업을 제기하고있는 위대한 력사적운동으로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으로 된다. 그러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 정치적으로 옳게 지도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이 틀어쥐고 지도해야 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우리 혁명의 당면한 2대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일대 혁신운동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6년 1월 1일, 11~12페지)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게 되는 당의 전략적의도는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자는데 있다.

우리 혁명의 당면한 지상의 과업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이다. 이 력사적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간고한 투쟁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악당은 침략과 분렬의 범죄적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적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우리가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러자면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는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조국을 통일하는것과 함께 조선혁명의 당면한 2대과업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전환기에 처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6개년계획을 완수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

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운동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대중적운동으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닦는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처럼 우리 혁명의 당면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혁명운동이며 민족과 국가의 장래번영과 관련되여있는 중대한 운동이다.

그런것만큼 이 운동은 마땅히 당이 틀어쥐고 옳게 지도해나가야 하며 이렇게 할 때만이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원만히 달성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이 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앞에 나선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중앙에 충성다하는 참된 길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공고히 하면서 이 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1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키는것은 이 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행정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이 발기하고 조직전개하는 혁명운동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켜야 하며 오직 그렇게 하여야만 이 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가 실속있게 보장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킨다는것은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자기 사업의 중요구성부분으로 여기고 일상적으로 낮을 돌리며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과 기술문화개조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전격전, 섬멸전, 집중공세의 방법으로 해제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제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이 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한다는것을 말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키고 옳게 지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과 기술,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는 류례없이 거창한 일대 혁명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어느 한두 부서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킬수 없다.

이 운동에 대한 당의 지도는 당앞의

모든 부서들이 다 참가할 때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자체 실정에 맞게 단계와 과업을 정확히 규정하며 특히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진행정형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와 평가 사업을 옳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당조직들이 작전과 총화, 평가 사업을 잘하여야 이 운동을 다그치고 좋은 경험들과 긍정적모범을 널리 일반화할수 있으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극복해나갈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당내부서들사이의 배합작전, 협동작전도 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키고 옳게 지도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의 본질은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이 운동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

광범한 군중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적극 동원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로 하여금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결별하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이 언제나 틀을 차리지 말고 대중과 소탈하게 어울리며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대중을 따뜻이 대하고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기수, 나팔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이 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가장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조직화된 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3대혁명소조를 적극 내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것은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0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당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조직하여주신 혁명전위이며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이 틀어쥐고 지도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혁명운동이다. 그의 활동방법은 사상전을 벌려 일군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며 배워주는 당적, 정치적 방법이다. 3대혁명소조를 통한 지도사업방법의 이 우월성은 지난날의 수공업적인 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현대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는데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자체의 구성과 사명, 혁명적본질과 활동방법의 우월성으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를 적극 내세우

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며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의 력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며 3대혁명소조를 적극 내세우고 그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이 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방도의 하나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이 정치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결코 이 운동을 당이 도맡아안고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이 운동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진행정형을 정상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자기 동맹의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사업,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동맹원들이 이 운동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총회, 위원회, 생활총화회의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결의집행정형을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총화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온 나라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사업을 더욱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당은 행정경제기관들이 자기 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을 중심임무로 삼고 경제관리와 생산 및 기술 지도를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이 이 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기관들이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해석선전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삼고 이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결의조항들이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기업관리와 농장경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기발을 들고나가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당일군들이며 이 영예로운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바로 여기에 현시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근본열쇠가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제기하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의 과업을 다같이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우리 당의 위대한 방침에 의하여 이 운동의 앞길에는 보다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는 더욱더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성심을 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밝힌 강령적지침

김 기 봉

오늘 우리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8월, 공산당이 신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립하는 대회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신 때로부터 30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다.

이 고전적로작에 담겨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창건의 방침과 그 필연성,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인 로동당의 성격과 임무,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창립된 로동당을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전변이 일어나고있던 환경속에서 신민당과 합당하여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하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창건은 당시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근로대중이 분렬되는것은 최대의 위험입니다. 우리의 투쟁임무를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은 더욱 튼튼히 뭉쳐야 하며 단합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앞에 제기된 위대한 민주과업을 완수하는데서 가장 결정적인것은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참모부, 근로인민의 유일한 전투적선봉대를 꾸리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로동당을 창립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78페지)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당자체발전의 필연적요구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으며 로동계급은 아직 수적으로 적었을뿐아니라 청소하였고 인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준비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만을 당에 받아들인다면 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없었다.

당이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기 위하여서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뿐아니라 애국적열성이 높고 혁명성이 강한 선진적인 근로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널리 받아들여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였다.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당시 근로자들의 정당인 공산당과 신민당이 따로 존재하여있는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을 분렬시킬수 있는 위험성이 조성되고있었다. 그뿐아니라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여러개의 당들이 존재하는것을 리용하여 종파분자들이 분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와 국내반동세력이 민주력량을 분렬시키고 탄압파괴하려는 책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것이였다.

이로부터 혁명력량의 분렬을 막고 전체 인민을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통일적으로 대표하는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이 필요하였다.

당시 공산당과 다른 근로자당들이 합당할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히 성숙되여있었다.

북반부에서 공산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된후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량적으로, 질적으로 빨리 장성강화되였으며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확고히 쟁취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을 사회의 진보와 국가정치생활의 변화에 맞게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였다.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해방후 급속히 자라난 공산주의대렬이 있기때문에 공산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한 다음 당안에 있을수 있는 비계급적요소를 능히 소화하여 유일사상화, 공산주의화할수 있었다.

또한 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들이 서로 동맹할수 있는 정치경제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이루어졌다.

이 모든것은 북반부에서 공산당이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인민의 통일적인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으로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로동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은 그 필연성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타산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며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근로인민의 대중적당건설의 길을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합당후 대중적당건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조직규률과 사상통일을 훼손시키며 당을 한갖 근로대중의 구락부로, 소자산계급식우의단체로 만들려는 경향과 견결히 싸워야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근로대중의 모든 선진분자들을 포용할수 있는 대중적로동당을 창립한다는것은 결코 당의 정치적존엄성과 당대렬의 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약화시켜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동당은 근로대중의 조직된 전투부대이며 선봉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의 통일과 순결성과 강한 규률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대렬내에 유일한 사상의지와 규률이 없다면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79~8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합당후에도 우리 당의 성격은 여전히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그것을 대중적당건설에서 확고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

시였다.

당의 성격은 당을 창건하는 수령이 제시한 지도사상과 투쟁목적, 당건설원칙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된다고 하여 결코 자기의 근본성격을 달리할수 없다.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건설원칙에 철저히 기초하여 당안에서 사상의 일색화과정을 다그쳐나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성격을 보존할뿐아니라 그것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고수하는 것을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인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고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여야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따라서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는것은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당건설과 관련하여 특히 세포핵심을 부단히 육성확대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핵심당원들을 육성하고 그 대렬을 확대하는것은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당원들은 정치의식수준과 사업능력에서 한결같지 않으며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는 실정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차이를 단번에 없애고 모든 당원들의 수준과 능력을 일시에 똑같이 높일수는 없다. 그런것만큼 먼저 핵심을 길러내고 점차 모든 당원들을 핵심당원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였다.

참으로 세포핵심들을 육성확대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하게 되는 실정에서 당대렬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서의 로동당을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만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와 어긋나는 모든 경향과 무자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확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공산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방금 합당하였기때문에 당대렬안에서 여러가지 서로 같지 않은 경향들이 나타날수 있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함에 있어서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은 해방후 우리 당안에 기여들어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며 혁명발전을 엄중히 저애하는 죄악적

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을 유일한 사상에 기초한 통일체로, 강철의 전투대오로 꾸리기 위해서는 온갖 종파주의적경향과의 투쟁을 날카롭게 벌려 이를 철저히 청산해야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창건된 로동당을 강유력한 대중적정당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당이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군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이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위력의 원천이며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기본열쇠로 된다.

우리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야 대중속에서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자체를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힘있는 당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또한 간부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간부는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우리 당의 핵심진지를 강화하고 당대렬을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의 강령, 당의 정책과 결정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그들자신의것으로 되게 하며 대중자신이 그 실현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며 당이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조직된 부대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당 창립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당은 광범한 근로대중가운데서 선발된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대중적정당으로 빨리 발전하게 되였다.

당은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을 공고히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근로대중을 분렬시켜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제와 국내반동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탁월한 기여를 한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로동계급뿐아니라 근로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망라하는 근로인민의 통일적인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을 밝히시였다.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대중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리론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탁월한 당건설리론이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지향이 비상히 증대되고있다. 한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날로 확대강화되는 공산주의운동을 말살하며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반동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앞에는 보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전취하며 근로대중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중적당을 건설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확고히 견지하는 원칙에서 로동계급과 함께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여 그들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은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주체형의 대중적당을 건설하는 곧바른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명철하게 밝혀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대중적당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을데 대한 방침,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하고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할데 대한 방침, 당핵심을 끊임없이 육성할데 대한 방침 등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통일적인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새로운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리론이며 당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창조적인 리론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은 우리 당건설의 실천에서 빛나게 구현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짧은 시일안에 광범한 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한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로, 주체의 기치따라 어떠한 풍파도 뚫고나갈수 있는 우리 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인 당건설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철저히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훌륭히 풀어나가는 존엄있는 당으로, 로숙한 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과 대오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200만의 당원을 가진 큰 당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대렬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싸워온 로혁명가들과 우리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기발을 들고 혁명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온 오랜 당원들 그리고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새로 자라난 젊은 당원들의 대부대로 자라났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혁명적원칙성과 견결한 반제적립장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과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하여 국제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위부대의 하나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광명한 공산주의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우리 당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기백으로 투쟁하며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여나갈때 우리 당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다.

현대전쟁의 특성과 그 승리의 요인

김 철 만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으며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적들의 침략과 도발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원쑤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쑤들이 감히 무력으로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는 이를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때려부실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15~316페지)

원쑤들의 새로운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현대전쟁의 특성과 그 승리의 요인을 똑똑히 인식하는것이다.

* *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현대전쟁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전쟁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현대전쟁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신것이다.

현대전쟁의 특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전쟁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옳게 해결되여야 현대전쟁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출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철저히 물리치고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쟁의 규모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위력한 현대적무기의 출현, 전쟁의 시간적지속성 등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현대전쟁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전쟁은 옛날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현대의 전쟁은 많은 인원과 복잡한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는 립체전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입니다.》
(《김일성군사선집》, 제1권, 466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현대전쟁의 특성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현대전쟁의 특성의 하나는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싸우는 전면전쟁이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립체전이라는데 있다.

정규군과 함께 전체 인민이 싸우는것은 지난날의 전쟁과 구별되는 현대전의 중요한 특성이다.

현대전쟁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전투마당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전체 인민이 다같이 싸우는 전사이며 온 강토가 하나의 전투마당으로 전변되게 된다. 싸움이 일어나면 전선의 군인들뿐아니라 후방에 있는 인민들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물론 전쟁의 계급적내용에 따라서 인민대중이 의식적으로 참가하는가 또 열

마나 많이 동원되는가 하는 차이는 있다. 전쟁이 정의의 성격을 띨 때에는 그것이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기때문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게 된다.

한편 제국주의자들도 강압적으로 인민들을 전쟁에 동원시키고있으며 놈들의 총칼에 못이겨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현대전쟁에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난 시기의 전쟁들과는 비할바없이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되는것이다.

현대전쟁은 또한 전선과 후방의 차이가 따로 없고 전투행동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립체전쟁이다. 현대전쟁이 립체전쟁으로 되는것은 무장과 군사기술이 발전하여 넓은 공간에서 다 싸울수 있는 륙해공군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종과 병종이 출현한것과 관련된다.

비행기와 함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륙군만이 있었다. 그리하여 전투행동은 언제나 륙지에서 시작되여 륙지에서 끝났다. 그것도 제한된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잘 조직된 몇차례의 격전으로 전쟁이 끝나군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함선과 비행기가 출현하여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전투행동은 땅과 하늘, 바다에서 동시에 벌어지게 되며 온 강토가 하나의 싸움마당으로 전변되게 된다. 이와 같이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의 차이가 따로 없고 온 나라가 전투마당으로 전변되며 정규군과 함께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싸우는 전면전쟁이며 립체전쟁이다. 현대전쟁의 이러한 특성은 로동계급과 그 당들이 정규무력을 강화할뿐아니라 전민을 무장시키고 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이 언제든지 원쑤들과 맞서싸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온 강토를 철벽의 요새로 다질것을 요구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쟁의 중요한 특성이 또한 최신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에 토대하여 현대적군사기술기재들이 동원되는 기계화전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이라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에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현대전에는 최신무기와 군사기재들이 동원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868페지)

무장과 군사기술의 질적수준은 전쟁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력발전수준에 따른다. 생산력발전수준이 높지 못했던 시기에는 무기도 역시 발전하지 못한 유치한것들이였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무장장비도 급속히 발전하여왔다. 오늘에 와서 무장장비의 기계화수준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더욱더 현대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의 전쟁은 최신군사과학기술이 적용되는 고도로 현대화된 기계화전쟁이라고 하시였다.

오늘의 전쟁을 현대화된 기계화전쟁이라고 하는것은 전반적무장이 기계화, 자동화되여 화력과 타격력이 비상히 증대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시대에 와서 군사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위력한 투쟁수단들과 원거리파괴수단들이 출현하여 화력과 타격력은 비상히 증대되였다. 또한 현대전에는 기동이 빠른 무장과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수송수단이 많이 동원됨으로써 인원과 무기, 전투기술기재의 기동이 비상히 빨라지게 되였다. 위력한 타격력과 비상히 빠른 여러가지 현대적 군사기술기재와 무기의 출현은 현대전쟁을 고도로 조직화하고 과학적인 타산밑에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위력한 현대적인 무장과 여러가지 군종, 병종이 참가하는 현대전은 전투조직과 지휘, 전투행정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다시말하여 오늘의 전쟁은 각이한 군종과 병종들의 긴밀한 협동밑에 고도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진행되며

또한 각이한 부문의 전문인원들을 망라한 참모부들에 의하여 과학적인 타산과 엄밀한 계산밑에 모든 군사행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현대전쟁은 최신군사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현대화된 기계화전쟁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이다. 현대전쟁의 이러한 특성은 군사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군사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군인들이 자기 무기뿐아니라 자기 부대 편제무기에 정통하며 적의 무기도 척척 다룰수 있도록 숙련될것을 요구하며 참모부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전은 또한 장기전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것은 현대전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되고있다.

전쟁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전쟁에 대한 대중의 리해관계와 생산력의 발전수준 그리고 전쟁에 필요되는 인적물적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생산력발전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많은 군사인원과 물질적력량을 전쟁에 준비시킬수 없었고 동원시킬수도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전쟁을 오래 끌래야 끌수 없었다. 오늘은 지난날과 사정이 다르다.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른 오늘에 와서는 전쟁에 오래 대처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마련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하여 전선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가능성과 조건이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더욱더 증대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전쟁은 장기성을 띠지만 그 수행방법, 매 작전과 전투들은 속전속결을 요구한다.

현대전이 장기전이라고 하여 전쟁을 질질 끌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현대전쟁은 총체적으로는 장기전이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매 작전과 전투들은 속전속결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현대전이 위력한 타격수단들과 기동성이 빠른 기동기재들에 의하여 진행되는것과 관련된다. 교전쌍방은 현대전의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전쟁을 속전속결하려고 한다.

전쟁이 장기성을 띠는 동시에 속전속결을 요구하는 현대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자예비를 조성하며 인민경제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시체제로 재빨리 개편할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대전쟁은 전쟁에 인입되는 인적, 물적 력량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전투행동이 넓은 공간속에서 벌어지며 시간적인 지속성 등에서 종래의 전쟁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현대전쟁의 특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전쟁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와 국방건설과 군사전략전술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해나가는데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인 전쟁관점에 기초하시여 현대전쟁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심으로써 전쟁에 관한 로동계급의 리론이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현대전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대전쟁의 특성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현대전쟁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전쟁준비를 빈틈없이 갖출수 있게 되였으며 어떤 제국주의침략무력도 자체의 힘으로 때려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

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명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현대전쟁의 특성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승리의 요인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전쟁승리의 요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새로운 전쟁에 대처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갖추며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쟁승리의 요인에 관한 사상에서 출발점으로 되는 근본문제는 주체적요인, 내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에서 인적요인과 물적요인, 인민대중의 역할과 군사기술의 호상관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주체적력량과 국제적지원의 호상관계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사람, 인민대중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동력이며 매개 나라의 내적요인, 주체적력량이 혁명전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천재적사상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력량입니다.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53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의 내부력량이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혁명전쟁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매개 나라에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야만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하고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내적요인, 주체적력량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혁명전쟁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주인이 바로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는데 있다. 혁명전쟁에 사활적리해관계를 가지는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이 주체적립장,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야 전쟁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제정신을 가지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튼튼히 마련하고 그것을 전쟁승리에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내적요인, 주체적력량이 결정적이라는것은 외적요인, 외부의 지원을 무시해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며 국제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자체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면서도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우리 혁명의 많은 지지자, 동맹자를 가지고있으며 이들과의 친선단결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에서와 마찬가지로 혁명전쟁을 수행하는데서도 자체의 힘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와 인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려는 확고한 립장에 서야 한다.

내적요인, 내부력량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은 혁명전쟁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당들이 확고한 주체적립장, 자주성을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주체적력량을 정치적력량,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으로 규정하시고

혁명투쟁, 혁명전쟁에서 이 3대력량의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은 주로 정치적력량,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의 세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가지 힘을 다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정치적력량을 더 강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8페지)

정치적력량,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은 전쟁승리에서도 작용하는 내적요인으로서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인들이다. 정치, 경제, 군사적력량은 전쟁승리를 위하여 서로 밀접히 통일되여 작용하면서도 그것들이 전쟁에서 노는 지위와 역할은 서로 다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의 요인에서 정치적력량 다시말하여 정치사상적요인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것을 다른 모든 요인들의 기초로 되는 결정적요인으로 규정하시였다.

정치사상적요인이 전쟁승리의 요인들 가운데서 첫자리에 놓이며 그 기초로 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의 주인이며 사람의 사상의식이 혁명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혁명전쟁은 인민대중을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전인민적전쟁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각적이고 단결된 정치적힘이 없이는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더우기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립체전쟁인 현대전은 인민대중이 전쟁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

전쟁승리를 위한 정치사상적요인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을 수령과 당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전쟁은 그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숭고한 사명을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동원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인민대중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사상적각오와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일떠서 싸울 때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적요인은 전쟁승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한편 정치사상적요인은 전쟁승리를 위하여 작용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을 강화하는데서도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전쟁승리를 위하여 마련하게 될 강력한 경제력도, 위력한 군사적힘도 모두가 정치사상적요인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만 튼튼히 준비되게 된다. 자각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단결된 정치적힘에 의해서만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체로 튼튼히 준비할수 있으며 그것들을 전쟁승리에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이처럼 정치사상적요인은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요인으로서 전쟁승리를 담보하는 모든 요소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인민대중의 높은 사상의식, 전투의식을 요구하는 현대전은 혁명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당들과 인민들에게 정치사상적요인을 강화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정치사상적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자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당과 인민, 군대의 확고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그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당과 인민대중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수령이 내놓은 군사전략적방침관철에서 통일성과 유일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게 할

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또한 그것은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갈수 있게 하며 군대가 인민의 지지와 원호속에 언제나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게 한다.

어려운 전쟁의 조건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확고한 통일단결은 사회주의하에서만 가능하다.

인민대중이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고 그들사이의 동지적관계가 날로 발전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사회가 적대적계급으로 갈라져있고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사회의 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은 침략자들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는 정의의 전쟁으로서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운다. 자기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 싸우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국가가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할수 있는 결정적힘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전당과 전민, 전군이 하나와 같이 통일단결되여 모두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침략자도 쳐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천재적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이며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전당과 전민, 전군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우리 인민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며 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 전민, 전군의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불타는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숭고하고 억센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이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때 우리는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모두가 어떤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성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비장한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적요인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경제적요인을 결합시켜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65폐지)

경제적요인, 물질적힘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전쟁의 운명은 전선에서 싸우는 군대의 전투활동에 의해서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상태, 전시경제의 조직, 군사전략물자의 예비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경제적요인의 역할은 특히 현대전쟁에서 더욱더 커진다. 립체전, 기계화전, 장기전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전쟁은 최신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에 기초한 투쟁수단과 발전된 무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전쟁에 대처할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전쟁에 대처할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립적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물자예비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잘 꾸리며 전략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정치사상적요인, 경제적요인과 함께 군사적요인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킬수도 없으며 정치적력량과 경제적력량을 보호할수도 없고 그것을 더욱 강화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85페지)

군사적요인은 정치사상적요인, 경제적요인과 함께 전쟁의 결말을 결정짓는데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쟁은 직접적으로는 교전쌍방사이의 무장력의 충돌이다. 따라서 전쟁의 승리는 구경은 혁명무력이 반혁명무력을 격멸소탕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다. 정치사상적요인이나 경제적요인도 결국은 군사적요인을 통해서 전쟁승리에 작용한다.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수행할수 없으며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최신군사과학기술이 적용되는 현대전에서는 잘 조직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군사력이 없이는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자들과 싸워 승리할수 없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전선과 후방을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철벽의 요새로 다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의 역할에 기초하여 전쟁승리의 모든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정치사상적요인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일적으로 강화해나갈수 있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 혁명전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현대전쟁의 특성과 승리의 요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전반적세계혁명을 다그치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현대전쟁의 특성과 전쟁승리의 요인에 관한 사상은 우리 인민이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고 나라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보다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며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을 투쟁의 기치로 삼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적들이 분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놈들을 단매에 요정낼것이며 이 땅에서 한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탕할것이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것은 당일군의 참된 일본새

리 기 순

우리 당은 오늘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우러러흠모하며 따라배우는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답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본받아 일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실천속에서 창조되고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일해나갈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혁명적방침은 당사업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강남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당사업전반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올수 있게 하였다.

* *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당사업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대중지도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업의 대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입니다. 당일군들은 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아래에 내려가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5~2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것, 이것은 우리 당 사업방법의 변함없는 원칙이며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이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당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해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린다는것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사람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남을 시켜서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제손으로 수확을 거두어들인다는것은 일단 포치한 사업을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서 거두어들이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결속하고 총화한다는것을 말한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사업방법은 주체형의 당일군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된 일본새이다.

대중지도의 이 참다운 일본새는 당사업전반을 새롭게 혁신하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무엇보다먼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대중지도방법으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 당의 방침으로 무장시키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되게 하는데 있다.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종래의 낡은 재래식사업방법과는 달리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웃단위의 일군들이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하부말단까지 제때에 기동성있게 침투될수 있게 한다. 그리고 보다 준비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높은 수준에서 실속있게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 당의 의도가 그대로 사람들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되게 한다.

뿐만아니라 이 사업방법은 아래우가 서로 기맥이 잘 통하게 함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되고 하나의 규률에 따라 움직이는 불패의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꾸려지게 한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그 수행 방도와 대책을 옳게 세우며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높이 발양시켜야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신속정확히 제때에 대중속에 침투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똑똑히 알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발양시키게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은 웃사람이나 아래사람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서로 지혜를 합쳐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며 그 어떤 조건도 탓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해나갈수 있게 한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일본새는 또한 우리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신이 직접 군중을 교양하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며 당정책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벌려나가자면 우선 자기 자신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실지 사업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준비정형을 검열받게 되므로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된다.

특히 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생산자대중의 참신하고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따라배우게 되며 혁명적조직성을 키워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철저히 뿌리빼고 생기발랄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품성을 소유하게 된다.

참으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당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는 참다운 일본새로 된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이 대중지도의 이 참다운 일본새를 따라배우는 여기에 당사업을 혁신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가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 문제를 당건설과 혁명승리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우리 당 창건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오늘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에 맞게 바로잡아나가시기 위하여 심려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하여 전당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따라배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혁신하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합리적인 기구를 마련하여주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당사업을 벌려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제손으로 풍만한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체계를 고치는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체계를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3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마련되여있다 하더라도 일군들의 당적수양이 부족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옳은 정책적지도를 할수 없으며 정치사업이 은을 나타낼수 없다.

강남군당위원회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사전에 아래에 내려가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릴수 있게 준비를 잘해가지고나간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의도대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포치도 제때에 빈틈없이 하여 착실한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전준비를 불철저하게 하고 아래에 내려간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능란하게 하지 못하고 일단 포치한 사업도 정책적선에서 옳게 결속하고 총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결국 우에서 포치하는 문제들을 계단식으로 되받아넘기는 전달자밖에 될수 없었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며 사전준비를 잘하는것이 바로 아래에 내려가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풍만한 수확을 거두어들일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우리는 실지 사업과정에서 절실히 느낄수 있었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우선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으며 일군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기초우에서 아래에 내려가도록 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일군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학습하여

환히 깨놓도록 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공산주의적대중령도리론으로 일군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당위원회적으로 또는 부서단위로 조직하였으며 실지 사업과 결부하여 청산리방법을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를 대론쟁의 방법으로 광범히 토론하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그릇된 사업작풍의 근원과 해독성을 인식시키는 사업도 짜고들었으며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도 벌렸다.

군당위원회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일군들에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인식시킨데 기초하여 책임일군들이 수준이 어린 지도원들을 데리고 계획적으로 아래에 내려가 배워주는 사업, 부서단위로 력량을 편성하여 한개 단위에 내려가 집체적으로 토의하면서 경험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 조직부와 선전부의 배합작전을 벌리는 사업, 일군들의 하부지도경험과 정치선동, 경제선동 준비정형을 발표하는 사업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아래에 내려가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는 사업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에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여주신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접촉하고 담화하는 방법, 사람들을 통하여 실정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당정책을 관철하는 방법들을 확고히 체득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 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김일성동지략전, 학습제강, 강연해설담화제강, 지도사업요강, 직관공작에 필요한 도구와 노래보급을 위한 하모니카 등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서 강연회에도 출연하고 학습지도도 하고 정치선동, 경제선동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필요한 량식과 수단들을 배낭속에 넣어가지고 내려가도록 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면 초급일군들에게 제기된 과업을 되받아넘겨주고 경제수자나 따지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종합하여 우에 보고하는식의 낡은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 먼저 사람부터 만나보고 사람의 사상상태를 파고들어 사업의 전모와 그 본질을 진단하며 거기에 기초하여 자신이 직접 사람들을 교양하고 도와주는 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이 현실에 침투하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제손으로 훌륭한 씨를 뿌리고 풍만한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필수적전제로 된다.

당사업은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군중이 활동하는 현실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현실을 떠나서 당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군중을 각성시키고 군중을 움직이는 사업을 떠난 당일군들의 활동이란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이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혁명적인 일본새로 사업하자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야 군중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아래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당정책이 어떻게 관철되고있는지 알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생동하게 벌려나갈수 있다.

올해 이른봄 랭상모씨뿌리기를 앞두고 모판준비를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웃단위의 일부 일군들은 언땅이 채녹기도전에 모판을 만들라고 내려먹였다. 그렇지만 농장원들은 잘 받아물지 않았다. 이산리에 내려간 군당일군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같이 자면서 허물없이 어울려 생활하는 과정에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해 가을갈이한 땅이 채 녹

지도 않은곳에 모판을 만들고 씨를 뿌리면 지금은 모르지만 얼마동안 지나면 벼모가 잘 돋아나지도 않고 몰고루 잘 자라지도 않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만일 군당위원회가 이런것을 제때에 포착하지 못하였더라면 올해 모내기철에는 물론 전반적인 벼농사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수 있었을것이다.

이렇게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허물없이 어울리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일군들은 아래실태를 정확히 료해하며 군중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군당위원회가 풀어야 할 문제도 제때에 반영시켜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였다.

경험은 땅의 구체적실정을 알고 씨를 뿌려야 착실한 수확을 거두어들일수 있는것처럼 일군들이 현실에 침투하고 군중속에 들어가야 그들의 사상상태와 움직임을 환히 꿰들고 그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기동성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는 당의 방침대로 책임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함께 침식도 일도 휴식도 꼭 같이하는것을 생활화하고 제도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당위원회는 현실에 침투할수 없게 하는 제반 요소들을 없애며 일군들이 현실에 더 많이 침투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자면 일군들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정치사업을 벌려나가는 옳은 방법론을 소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이 가는곳마다에서 강연, 담화, 해설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널리 선전하며 정치사상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4페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면 남을 시키거나 부려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자신이 직접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당정책관철의 집행자, 조직자가 되여 활동해야 온전한 수확을 거두어들일수 있다.

조직부일군이건, 선전부일군이건, 지도원이건, 책임일군이건 아래에 내려가는 모든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벌려나갈줄 알아야 한다.

상암리, 동정리를 비롯한 많은 리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협동농장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근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와 우리 군에 주신 현지교시를 통달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농법을 확고히 체득하고있는것은 이곳에 나간 군당일군들이 아래일군들과 짜고들어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문답식학습을 조직하고 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자신이 직접 틀어쥐고 부단히 반복심화하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다.

또한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도 아래일군들과 같이 마주앉아 계획을 세우고 포치하며 그 집행을 다같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밀고나갈 때 당정책관철에서 빛나는 열매를 맺을수 있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자면 당일군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공산주의적품성을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세도를 쓰고 인민들앞에서 까다롭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설복과 교양 대신에 강다짐으로 내려먹이거나 당정책관철에 몸을 적시지 않고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지 않으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될수 없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할수 없다.

자기는 뒤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사람을 군중들은 존

경하지 않는다. 대중은 진심으로 자기를 깨우쳐주는 사람, 남보다 덜쉬고 새벽공기도 먼저 마시는 사람, 군중의 요구와 애로를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세심히 풀어주는 이러한 일군을 존경하고 자기의 속심을 털어놓게 된다.

우리 일군들이 바로 이런 품성을 지녀야 진실로 군중의 사상상태와 움직임을 환히 꿰들어볼수 있고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적중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닐뿐아니라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신작칙하는것은 말로써 백마디, 천마디 하는것보다 더 큰 위력을 나타내는 정치사업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서 모범이 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 아래일군들과 군중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크게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여야 하며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풍만한 수확을 거두어들일수 있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부단히 반복심화시켜야 그 참다운 우월성이 높이 발양된다.

우리가 해마다 한해 농사경험을 분석총화하고 또 다음해 빈틈없는 농사차비를 하는것처럼 우리 당일군들도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일단 포치한 사업을 결속해가지고 올라와서는 재무장, 재작전하고 내려가는 사업을 부단히 반복하여야 한다. 그래야 하부지도사업에서 빛나는 결실을 맺을수 있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은 다른 모든 당조직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군당위원회사업에서도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군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됨으로써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이 극복되고 청산리방법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대중속에 거침없이 제때에 정확히 침투될수 있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고있다.

또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군중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상하합심하여 군앞에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을 제때에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최근년간 우리 강남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고 투쟁함으로써 해마다 알곡생산이 체계적으로 장성하였다. 그리고 군자체로 벽돌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공장들을 건설하여 놓음으로써 군내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오리목장을 군자체로 건설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당중앙이 가르친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일해나갈 때 당사업을 더욱 심화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바로잡아나갈수 있게 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현시기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진행된 력사적인 중요산업국유화

손　전　후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일떠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며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발포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에 마련하여주신 중요산업국유화는 근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가혹하게 짜내던 일제의 식민지예속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자주적민족경제건설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개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승리적으로 실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새 사회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중요산업국유화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공업의 자립적발전의 자랑찬 력사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시고 제때에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적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위대한 력사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공업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전면적승리의 빛나는 로정이다.

력사적인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발포 30돐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일찌기 독창적인 산업국유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제때에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심으로써 이 땅우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주체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높이 칭송하면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실현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여 중요산업에 대한 전국가적,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관건적문제이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없앨수 있으며 나라의 중요생산수단들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에 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마련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40페지)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략탈적인 침략전쟁과 온갖 악랄한 수법으로 세계 수억만 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웠으며 식민지예속국가들의 경제명맥을 거머쥐고 풍부한 부원을 강도적으로 략탈하였다.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은 식민지예속국가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으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

주적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인민들의 피땀을 악착하게 짜냈다.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강도 일제는 우리 나라 공업의 90%이상을 틀어쥐고 그것을 일본공업의 완전한 부속물로 만들었으며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공업원료산지로,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독점자본의 투하지로 만들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한 다음 우리 인민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이 가지고있던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이였다.

외래독점자본의 소유를 그대로 두고서는 식민지예속의 경제적지반뿐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지반을 청산할수 없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었다.

오직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국유화하여야만 반동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없애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다. 그래야만 또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튼튼히 마련하고 경제를 계획적으로 급속히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새 사회 건설의 필수적요구, 산업국유화의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토지개혁과 함께 중요산업국유화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이 소유한 공장, 광산, 철도를 비롯한 중요산업을 몰수하여 전체 인민의 소유로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문제해결의 혁명적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산업국유화강령의 창시, 이것은 산업문제해결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산업국유화강령은 생산수단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소유관계를 전국가적, 전인민적 소유관계로 변혁할것을 근본내용으로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철저한 산업국유화강령이다. 이 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산업국유화를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강령을 가지게 되였으며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한길로 더욱 힘있게 달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밝혀주신 주체적인 산업국유화강령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산업국유화실시의 귀중한 밑천으로,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는것과 함께 강력한 인민정권기관을 세우시고 산업국유화를 인민정권의 당면임무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으며 그 성과적수행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전반사업을 보살피시는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강선을 비롯한 중요산업지구를 찾으시여 지난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고역에 시달리던 우리 로동계급을 넓으신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하루빨리 로동조합과 공장위원회를 조직하고 패망한 일제와 그 주구들의 산업을 장악운영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일제와 그 주구들이 소유하고있던 중요산업을 몰수하고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반혁명

분자들의 발악적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도록 권력기관들을 옳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이 가지고있던 중요산업은 짧은 기간에 인민정권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돈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업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그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시기 위하여 1946년 8월 10일 력사적인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은 모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을 방해하는 반동분자들, 조선인민에게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주는 조선인민의 엄정한 대답이였으며 그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였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됨으로써 1,0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모든 철도, 체신, 은행 등이 국가의 완전한 소유로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분야에서 국영경제가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신 다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겹쌓인 경제적난관을 타개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산업을 복구발전시키며 인민경제에서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승리적으로 진행된 중요산업국유화는 일찌기 산업국유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산업국유화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자랑찬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자주적민족경제건설의 기초를 성과적으로 닦는 빛나는 승리와 찬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경험은 무엇보다 국유화의 대상을 옳게 규정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후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기업만 국유화하고 민족자본가들과 중소기업가들은 다치지 않았으며 도리여 그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57페지)

전인민적소유로, 국가소유로 넘길 산업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산업국유화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국유화대상을 옳게 규정하여야 식민지적예속의 경제적지반과 식민지통치의 잔재세력을 철저히 소탕할수 있으며 계급투쟁의 전략전술을 바로세워 더 많은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 친일파들의 소유만을 몰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자본가들의 소유는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중소기업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개혁으로서의 산업국유화의 대상을 반제투쟁에서 청산할 반동세력의 소유로 규정하심으로써 산업국유화대상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여야 무엇보다 외래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이 소유

하고있던 모든 산업, 운수기관과 함께 문화기관, 재산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몰수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소유로 만듬으로써 반제혁명과업을 가장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반제애국력량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고 적들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킬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소유와 함께 자본가로서 혁명을 배반한자, 외세를 등에 업고 인민들을 탄압학살한자, 일제에게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자,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을 지지하고 기업을 거기에 복종시킨자들을 친일주구, 예속자본가로 규정하시고 그들의 소유를 몰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에 의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제당하였으며 불철저하게나마 반제의식과 나라의 독립에 대한 념원을 지니고있던 민족자본가들, 인민정권과 민주개혁을 지지하며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국가적지도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장려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그들의 투기적경향과 모리행위를 반대하며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법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시였다.

산업국유화대상규정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이며 산업국유화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중요산업국유화를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그 어떤 부대조건도 없이 무상으로 한꺼번에 몰수하여야 산업국유화를 가장 성과적으로 할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조성된 혁명정세, 혁명력량의 준비정도를 깊이 통찰하시고 그 어떤 조건부나 부대조건도 없이 중요산업을 무상으로 몰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방침은 원래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이 소유한 산업이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마땅히 인민의 소유로 넘겨야 한다는데 근거를 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혁명적인 몰수방법이다. 또한 이 방침은 혁명력량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건에서 적들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고 중요산업을 철저히 몰수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무상몰수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로동계급은 어떠한 경제적부담이나 부대조건도 없이 공장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상몰수방법은 매상이나 부분적인 유상몰수방법보다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저러한 매상이나 유상몰수의 방법은 국가로 하여금 재정적부담을 지게 하며 적들에게는 소생할 틈을 주게 된다.

오직 무상몰수의 방법만이 국유화의 철저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근로인민들을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뿐아니라 반혁명세력이 발을 붙일수 없도록 그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소탕해버릴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상몰수의 원칙에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경우에도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하도록 가르치시였다.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이 발붙일틈만 있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침략과 략탈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는 조건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여러 단계에 걸쳐 국유화하는것은 그만큼 적들에게 숨돌릴수 있는 시간적여유와 경제적지반을 남겨두는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국유화

함으로써 적들에게 조그마한 숨돌릴틈도 주지 않았으며 중요산업을 단번에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중요산업국유화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마련하는 문제, 산업국유화의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 권력기관들을 옳게 조직동원하는 문제, 국유화를 실시한후 뒤처리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실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산업국유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한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산업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승리적으로 진행된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는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발생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40~141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산업국유화는 무엇보다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을 수탈하고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제국주의적 착취와 예속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였으며 나라의 중요생산수단들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리용할수 있는 기본조건을 지어놓았다.

중요산업국유화가 승리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잔인무도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략탈의 경제적지반이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나라의 산업을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적극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이때부터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착취와 예속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산수단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실시됨으로써 또한 인민경제에서 국가적부문의 지도적지위를 보장하며 계획적기초우에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이 지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중요산업국유화가 승리적으로 실시된 결과 산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발생하였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이 작용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산업을 계획적으로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중요산업국유화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중요한 개혁이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의 전제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공업의 압도적부분을 거머쥐고있던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국유화하여 전국가적, 전인민적 소유로 만듦으로써 사실상 산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였다. 토지혁명의 뒤를 이어 산업국유화가 승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업국유화법령을 제때에 발포하시여 자주적민족경제건설의 기초를 닦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1947년부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었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위대한 승리가 있음으로 하여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로동계급이 전시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전쟁승

대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파괴된 경제를 빨리 복구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제때에 실시하시여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공업분야에서 전인민적소유가 압도적지위를 차지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는 전후 짧은 기간에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할수 있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산업국유화는 또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중요 공장, 기업소의 주인으로, 산업의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무한히 제고하였으며 민주조국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주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은 국가주권과 함께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을 이끄는 령도계급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중요산업국유화의 위대한 승리는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으며 조국통일후 남조선에서 산업문제해결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승리적으로 진행된 중요산업국유화는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우리 당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 이룩한 경험은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경제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고있으며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소탕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고수하고 진정한 경제적자립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없애지 못할 때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는것은 물론 쟁취한 정치적독립도 잃게 되고 식민지노예의 치욕스러운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으로서의 산업국유화실시에 관한 리론, 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리고 우리 당이 산업국유화과정에 이룩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은 산업국유화문제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완성하고 가일층 풍부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신 때로부터 30년이 지나갔다. 지난 30년간 산업국유화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남김없이 실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승리의 자랑찬 력사는 당면한 현실과 함께 혁명의 먼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제때에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때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백전백승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나가게 된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차있는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모두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전면적자동화의 빛나는 본보기

김 태 식

오늘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기술, 문화 혁명의 력사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에 따라 공업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복구건설의 첫삽을 들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은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은 빈터우에 현대적인 주체공업을 일떠세웠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의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는 참으로 놀라운 비약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방침의 자랑찬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도 온 나라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자동화가 빛나게 실현된 현대적인 대야금기지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이 땅우에 전면적자동화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다함없는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밝혀주시면서 공업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을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다.

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에는 생산기술적특성으로 말미암아 고열과 유해가스, 먼지가 있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은 로동생활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적기술을 널리 도입하여 산업텔레비죤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실현할 때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고 일을 홍겹게 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을 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로동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은 또한 착취와 압박에서뿐아니라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여 국가주권과 생

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전반적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화함으로써 손로동을 없애고 생산자대중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게 된다.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신비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또한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높일수 있다.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건설자로 튼튼히 키우며 생산문화를 확립하여 문화혁명과업을 더 잘 관철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혁명과업이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전면적자동화를 다그쳐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 전면적자동화의 빛나는 본보기로 꾸며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제철소, 제강소들에서는 사별장, 립철회전로, 환원단광로, 용광로, 평로, 전기로들의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로동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었습니다.》(《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25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황철에서는 강철직장을 비롯한 전반적생산공정에 산업텔레비존이 도입되고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가 섰다. 또한 사별장, 5.14직장, 환원단광직장, 소결로직장, 규석직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장들과 생산공정이 종합적으로 원격화되였다.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널리 실현됨으로써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오늘 황철에서는 산업텔레비존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수천도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로안을 감시하고있으며 불구름을 뚫고 쇠물을 나르는 강철직장의 육중한 천정기중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이 무선초단파에 의하여 움직이고있다. 유해가스와 먼지가 많이 나던 생산공정들이 원격화되고 대규모의 종합배풍체계가 완성되여 유해로동이 없어졌으며 로동자들은 말그대로 기계감시공으로 되고있다.

전면적자동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생산로력은 훨씬 줄어들고 생산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원격조종화가 맨먼저 실현된 사별장과 원격화의 본보기단위인 5.14직장에서는 생산로력을 3분의 1, 4분의 1이하로 줄이고도 생산을 훨씬 더 많이 내고있다. 종전에 수백명의 장정로력이 일하던 환원단광직장은 불과 몇명 안되는 녀성들이 꽃주단을 편 조종실에서 자동조종단

속으로 모든것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보람찬 일터로 되였다.

전면적자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업관리도 더욱 개선되였다. 산업텔레비존과 무선통신의 도움으로 일군들과 지령원들은 전반적생산공정을 한손에 거머쥐고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지휘를 보다 기동적으로, 통일적으로 손쉽게 하고있다.

또한 생산문화가 더욱 철저히 서고 제품의 질도 훨씬 높아졌다. 전면적자동화의 세찬 불길속에서 황철은 력사적으로 쌓인 때와 오물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청춘공장으로 다시 태여났다. 현대적인 대형설비들이 널리 도입됨으로써 원료를 더욱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전면적자동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배려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날데 대한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됨에 따라 사람들은 모두가 혁명적랑만에 차넘치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싸워나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현대과학기술을 능숙하게 다룰줄 알게 됨으로써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실로 전면적자동화의 세찬 불길속에서 오늘 황철은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황철의 전면적자동화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로동계급을 힘든 로동과 고열로동, 유해로동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였다는데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길 사나운 로앞에서 일하는 강철전사들을 생각하시여 휴식도 잊으시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힘든 로동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하여 끝없이 심려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알고있는 황철의 로동계급은 하루빨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여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불같은 충성심으로 한결같이 일떠서 전면적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다그쳤다. 이리하여 황철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 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황철에서 실현된 전면적자동화는 또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경제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본보기로서 전면적자동화와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유물을 말끔히 청산하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면적자동화의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황철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는 또하나의 돌파구가 열렸으며 로력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부쩍 높일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지펴준 황철의 봉화는 전면적자동화를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을 앞당겨나가는 본보기로 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도록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홰불로 된다.

* *

황철에서 일어난 전면적자동화의 봉화는 우리 인민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

서뿐아니라 힘든 로동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열매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새 기술혁신의 자랑찬 성과이다.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력사적숙망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고된 로동에 시달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불길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을 나라와 주권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완전해방에 대한 강령을 제시하시고 힘든 로동까지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온갖 심려를 다하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지난날의 《겸이포》에 현대적인 대야금기지를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으며 고열과 유해가스, 먼지로 하여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일을 힘내기로만 하던 이곳 로동계급에게 갖가지 로동보호시설을 갖추어주시고 힘든 로동을 적극 기계화하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황철을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로 규정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 황철로동계급이 힘들어할 때마다 황철을 찾으시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안겨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걸에서도 몸소 천수백도의 화염을 내뿜는 로앞에 가까이 다가서시여 용해공들이 받는 열풍을 가늠해보시며 고열과 싸우는 강철전사들을 생각하시여 끝없이 심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힘든 로동과 고열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전면적자동화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우리 인민이 어버이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여 올린 수많은 보약과 의약품들도 모두 황철로동계급에게 보내주시는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황철의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핵심부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힘든 로동까지 완전히 없애여나가는 전면적자동화의 맨앞장에 설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이 용해공들을 고열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직접 틀어쥐고 밀고나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5페지)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자동화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황철을 전면적자동화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였다.

황철에 먼저 자동화의 불길을 지펴 그것이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할데 대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방침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한 혁명적방침이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자동화의 새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를 지켜선 황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의 표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자동화

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방침이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적지도에 의하여 황철에는 드디여 자동화의 새 아침이 밝아왔으며 온 나라에 전면적자동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모든 일군들이 자동화를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로서가 아니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일환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동화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밝힘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에게 전면적자동화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자동화에서 첫째가는 원칙은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또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보는 원칙, 주체적인 자동화전법을 밝혀주었다.

당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의 자동화전법은 사람중심의 전법이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가놈들은 로동자들이야 무거운 질통을 지든 사나운 불길과 숨막히는 먼지속에서 고통을 받든 아랑곳하지 않으며 이미 있는 낡은 공장을 자동화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낡은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하려면 새 공장을 짓는것과 거의 맞먹는 엄청난 돈이 들기때문이다.

이미 있는 공장에 대한 자동화는 오직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보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주체적인 자동화전법이 밝혀짐으로써 황철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심장깊이 느끼며 자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또한 자동화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고 속도전,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각지에 예견성있게 마련하여놓으신 자동화요소와 자동화계기기구 생산기지에 의거하여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로 자동화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기술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울수 있게 되였다. 속도전, 사상전의 세찬 불길속에서 강철직장의 산업텔레비존화는 불과 한주일에 끝나고 5.14직장의 원격화는 예정보다 다섯달이나 앞당겨완수되였으며 황철은 짧은 기간에 완전히 새로운 공장으로 다시 태여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흑색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부문들에서 고열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하여야 합니다. 고열이 특별히 심한 부문부터 먼저 시작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55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는 전면적자동화는 한두개의 생산공정이 아니라 한개 직장, 한개 공장씩 통채로 원격화하여 어렵고 힘든 로동의 흔적까지 없애며 우리 공업을 현대기술이 오르고있는 최고의 높이에로 올려세우는 웅대하고도 거창한 사업이다. 따라서 전면적자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단계를 옳게 설정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고열이 특별히 심한 부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점차 원격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먼저 강철직장을 산업텔레비존화하여 로동계급에게 자동화의 우월성을 인식시킨 다음 원격화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히였다. 또한 원격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사별장과 같이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단위의 원격화를 실현하여 사람들에게 자동화에 대한 신심과 경험을 체득시키고 점차 두 공정이상의 생산흐름과 고열로들을 가진 직장들을 종합적으로 원격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제철소전반을 완전히 원격화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자동화의 단계를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황철로동계급은 비로소 지난날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자동화, 원격화에 대한 뚜렷하고도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한대상씩 섬멸전을 벌리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전면적자동화를 최대한으로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황철로동계급에게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는 원천이였으며 전면적자동화의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자동화를 위한 투쟁에 일떠선 황철로동계급에게 실로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황철에 유능한 기술집단을 파견해주었으며 자동카메라와 산업텔레비존을 비롯한 수많은 자동화 설비와 자재를 보내주었다. 또한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예술인들을 파견하여 전격적인 경제선동을 벌리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자동화, 원격화를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겪는 자그마한 애로와 수고까지 철저하게 덜어주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소음때문에 겪는 지령원들의 안타까움까지 헤아리고 전문일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무선화를 실현하게 하였으며 혁명전사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수많은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황철로동계급은 남먼저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만을 드리는 가장 큰 행복을 지닐수 있었으며 온갖 난관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동화의 새길을 개척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업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면적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하루빨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애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주체적인 자동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황철의 경험은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높이 추켜든 전면적자동화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할 때 짧은 기간에 전면적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전면적자동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과업실현을 더욱 앞당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야 할것이다.

미제의 세계제패야망과 남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

신 용 복

흉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년간 안팎으로 얻어맞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행하면서 여전히 세계제패의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는 〈평화〉요, 〈긴장완화〉요 하면서 떠들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세계제패를 위한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전략적으로 세계전쟁을 준비하고있습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3페지)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항시적동반자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을 들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이다.

흉악한 미제는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자기의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다.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의 엄중한 교란자이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있거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힘의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가장 횡포한 군사적위협과 끊임없는 무력간섭과 침략전쟁을 벌려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에 매달리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과 파괴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딸라를 미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특히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아세아에 집중시키고 이 지역의 군사기지화를 다그치면서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발광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조선침략전쟁도발은 바로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반대하는 《힘의 정책》의 직접적산물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였으며 그것은 미제의 전면적파산의 서막으로, 내리막길의 시초로 되였다.

일찌기 아메리카대륙에 해적의 무리로 나타나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을 감행한 때로부터 백수십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불퇴》와 《상승》만을 뽐내오던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조선땅에서 여지없이 깨여지고 그 취약성과 부패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제는 지난 23년동안 끊임없이 엄중한 위기를 겪으면서 멸망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인도지나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 꾸바혁명의 승리와 앙골라인민의 승리, 신흥세력의 등장과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 미제의 정치경제적위기의 심각화,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의 쇠퇴몰락과정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로골적인 《힘의 정책》에 기초하고있는 미제의 침략적군사쁠럭정책도,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봉쇄》정책도, 같은 지역,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이른바 《닉슨주의》도 파산을 면할수 없었다.

이것은 허장성세하던 미제의 《힘의

정책》과 침략적전략들이 자주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더욱 높아가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그 어디에서도 통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날이 갈수록 미제의 쇠퇴몰락과정은 더욱 다그쳐지고있으며 세계의 전반적정세는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에서 력량관계가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전변되고 사면팔방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리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한 침략책동을 벌리고있다.

놈들은 한편으로는 《평화》의 너울을 쓰고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 리간시키기 위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만 손을 뻗치는것이 아니라 아세아나라들에도 손을 뻗치고있고 아프리카나라들에도 손을 뻗치고있으며 이 나라들을 분렬시키는 책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교활한 미제는 신흥세력나라들의 정치적리념과 신앙의 차이, 경제적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악용하여 이 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아 분렬시키려 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식량과 무기를 조금씩 대주는 방법으로 신흥세력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에 기여들어 침략적요구를 강요하고있으며 서로 반목, 질투하고 싸움질하게 만들어 각개격파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쓰는 전술의 하나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흉악한 전술에 매여달리게 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관련되여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경제공황에 허덕이고있다.

아랍나라들의 연료무기에 얻어맞고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원보호투쟁에 부딪쳐 심각한 연료위기, 원료위기를 겪고있는 미제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이 단결하는것을 무서워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이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것을 방해하며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술을 쓰고있는것이다.

미제는 제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때마다 침략전쟁을 도발해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1차세계대전도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제2차세계대전도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침략전쟁에서 그 출로를 찾으며 《평화》의 간판을 정면에 내걸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량면술책을 쓰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평화》의 간판밑에 《불가침조약》, 《중립조약》을 맺고 불의에 전쟁을 일으키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내적으로는 전쟁준비를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것이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손쉽게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적용하고있는 교활한 침략적수법을 조

선에서도 그대로 쓰고있다.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고 꾀하고있는 미제는 말로만 남북대화와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척하고 실지로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겨 대화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평화》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우리의 평화협정체의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유엔총회결정도 모두 외면하고 오직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세계인민들의 해방과 자주적발전,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인 미제국주의의 교활한 침략적정체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세계전쟁을 준비하고있는 미제는 침략의 거점을 남조선에 두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재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미제가 전쟁준비에서 남조선을 전략적거점으로 삼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이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세계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침략적《요충》, 제놈들의 세계전략의 《2대거점》의 하나로 간주하고 여기를 《전략적요충》으로 언제까지나 틀어쥐려 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는가 못쥐는가 하는것을 곧 아세아에서 제놈들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세계의 《전략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있다.

오늘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한국〉이 몰락하면 그 충격은 미국뿐만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맹방전체와 서구라파 나아가서는 세계전체의 전략적인 힘의 균형까지 깨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당지역에 전술적핵무기를 배치하고 제놈들의 정규군을 주둔시키며 그 지역을 전략적핵무기체계의 《방위선》에 포괄시키는것을 《전선방위지역》에 관한 군사전략적내용으로 규정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어놓고 그곳을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있다는 사실은 바로 놈들이 침략전략에서 남조선을 얼마나 중요시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제가 세계전쟁준비에서 남조선을 전략적거점으로 삼고있는것은 특히 남조선을 제놈들의 원료기지, 군사기지로 틀어쥐는것과 함께 그것을 기지로 하여 일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자원보호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된 위력앞에서 허둥지둥하며 심각한 연료난, 원료난을 겪고있는 미제는 조선반도와 그 부근의 원료와 자원을 탐내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하여 쏘련과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종국적패망을 막기 위한 마지막지탱점으로 틀어쥐고 새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전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 전세계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흉계로부터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우리 나라

군사분계선일대에 핵무기를 수많이 배치하여놓았으며 요즘에는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다음 극히 모험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대한방위공약의 준수》를 거듭 확인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준비에 광분하여왔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전시체제로 재편성》하고 그 무력을 대폭 늘이였다. 미제는 얼마전에도 일본에 있는 제놈들의 탄약창고로부터 로케트포탄을 포함한 각종 탄약을 대량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웰남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살인비행단으로 악명을 떨친 미제8전술전투비행단을 남조선에 은밀히 끌어들였다. 이와 함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군사분계선일대에 수많이 배치하였다.

미제호전광들은 무력증강에 기초하여 단기작전계획인 《9일작전계획》, 《5일작전계획》 등을 짜놓았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미제가 미국본토로부터 《에프―111》 최신형전투폭격기편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연습을 벌린데 뒤이어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를 끌어들여 포항부근에서 상륙작전훈련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이어 벌리고있는 각종 전쟁연습소동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제놈들의 침략군무력을 증강하고 발광적인 전쟁연습을 다그치고있는 미제는 현지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들을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각종 살인무기들을 남조선괴뢰들에게 수많이 넘겨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이 련이어 남조선에 기여들어 현지에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남조선호전분자들에게 전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미제의 전쟁정책의 요구에 따라 오늘 남조선에서는 도처에서 비행장, 항만, 로케트기지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이 신설확장되고있으며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미제의 전쟁정책수행에 동원리용되고있다.

지금 박정희괴뢰도당이 괴뢰군무력증강을 위한 새 《5개년계획》을 짜놓고 괴뢰군의 장비《현대화》를 다그치고있는것도, 학원을 완전히 군사화하면서 대대적인 《학생병영훈련》소동을 벌리고있는것도, 전쟁정책실현에 장애로 되는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말살하기 위한 일대 파쑈광란극을 벌려놓고있는것도 모두 미제의 전쟁정책수행의 일환으로서 놈들의 부추김밑에서만 감행되고있다.

흉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남조선에서뿐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조선주변지역들에서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에 리용하기 위하여 이미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재편성하고 강화하여온 미제는 《미일공동작전》을 위한 이른바 《미일방위협력소위원회》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매일과 같이 전쟁모의를 벌리고있다.

미제는 특히 오끼나와를 조선을 겨냥하는 공격기지라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거기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집결시키고있으며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상의 기지들과 일본의 여러 기지들에 있는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놓고 《공수훈련》과 《항행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것은 오끼나와를 포함한 일본령토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발진기지, 작전보급기지, 핵공격기지로 전변되고있으며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일공동작전체제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남조선강점군을 골간으로 하고 여기에 남조선괴뢰군무력을 전면적으로 투입하며 일본을 적극 끌어들여 침략적군사작전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공화국북반부를 직접적공격대상으로 하여 벌리고있는 이 모든 범죄적책동은 오직 전쟁전야에만 있을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군사적모험으로서 그것은 사실상 놈들이 1950년 6월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던 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남조선에 계속 둥지를 틀고앉아서 또다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며 세계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과 전세계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침략행동이다.

* *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강화하고있는 제놈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가리우고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잡소리를 늘어놓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계속 떠들고있는데 오늘 조선에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있는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4~15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떠드는것으로써 제놈들의 남조선영구강점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제호전광들은 《남침위협》을 떠들어대며 그 《제지력》으로서 《미군의 한국주둔이 필요》하다고 떠벌이였다. 조선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날뛰면서 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는 미제가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흑백을 전도한 강도의 론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미제를 위협한다고 하여 과연 누가 곧이 듣겠는가.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그 무슨 《남침위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남으로부터의 북침책동에 의하여 조성되고있다.

《남침위협》이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략적인 구호이며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제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탄이다.

놈들이 떠들어대고있는 《세력균형》도 역시 마찬가지다.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며 평화를 유지하는데 《세력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유엔총회결정을 무시하고 제놈들이 말하는것만 법으로 여기는 날강도 미제국주의자들만이 떠벌일수 있는 망발이다. 그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정체를 가리우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고 《힘》으로써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침략야욕에서 나온 추악한 궤변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지하고있는 우리의 참을성을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치솟는 격분을 가지고 지켜보고있으며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언제나 혁명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끝끝내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제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길뿐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것은 조국의 통일이다.

미제침략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남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전쟁위험이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감출수 없다.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준비와 도발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참을성있는 일관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모든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우리가 제기한 평화협정체의에 응해나서야 하며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고 유엔총회 제30차회의결정대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하여야 한다.

일본반동당국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끼여드는 분별없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의 이 정당한 립장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국회와 정부들이 적극 지지옹호해나서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생동한 실례로 된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선의 분렬을 끝장내는것은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으로, 시대의 요구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지위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이 심화발전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는 때에 핵무기를 휘두르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날뛰는 미제야말로 진짜머저리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여 남조선에 눌어붙어 침략과 전쟁 책동을 일삼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차례지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6년 제8호(루계 41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8월 1일　　발 행 • 1976년 8월 5일

ㄱ—65369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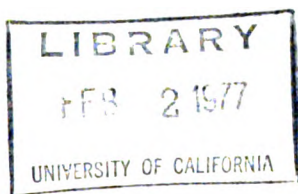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제9호(41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철옹성같이 지키자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8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워주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찬란히 뿌리는 사회주의 새 조선이 솟아오르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는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났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살기좋은 인민의 지상락원이 일떠섰으며 지난날 남에게 억눌리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나라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굳건히 보위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 *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지키고 더욱 공고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력량인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자기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낡은 력량인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며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제도를 그 누구에게도 공순히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세력은 력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쇠퇴몰락하는 자본주의제도를 더 부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과 중상을 일삼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 제도를 철저히 고수하고 그 거대한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두 제도간의 투쟁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확고히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몸

소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그 참다운 우월성을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내이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외곡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시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3천리강토우에 그것이 빛나게 구현된 사회, 온 민족이 다같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압박없고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20성상의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시고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시여 새 생활 창조의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폐허우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낡은 사회의 유물인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영영 없애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사회제도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이 있으며 다른 사회제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것, 이것은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바라고 바라던 념원이며 지향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당당한 생활을 하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과 지향이 빛나게 실현되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고 력사의 창조자이며 그들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으로, 모든 사회적재부의 향유자로 될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을 때라야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의 손에 쥐여야 사회를 자기의 요구와 의사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재부를 나라와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에 전적으로 돌릴수 있다.

착취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고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다. 황금만능의 세상인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며 돈없는 가난한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

로소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으며 그 생활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저절로 발휘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를 움직여나가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이 제도의 본질에 맞게 모든 문제를 사회와 국가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해결하며 모든것을 근로대중에게 더 잘 복무하게 하는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4페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이 참다운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리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근로인민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보다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돌려지고 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나라의 모든 재부가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전적으로 리용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대중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기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해결해나가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를 나라와 자기자신을 위한데 전적으로 돌리고있다.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하고 모든것을 그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며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된 모습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였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천년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에 살고있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주체의 조국으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지난날 억눌리고 뜯기우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전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이룩된것이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의하여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으며 이 은혜로운 제도를 적들의 침해로부터 철옹성같이 지키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모든 조건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주고있는데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자주성을 튼튼히 보장받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예속과 무권리 속에서 살아오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오늘은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4~345페지)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사활적 요구이며 그것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민주주의적성격을 보여주는 근본징표로 된다.

사람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릴수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이 근로하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가장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장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감으로써 정치적자주성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부를 얼마나 많이 향유하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데 있다. 사회와 인민을 위한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외면하고 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그런 사람의 생활은 참된 인간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당조직생활과 여러가지 근로단체조직생활을 통

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사회제도이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력사의 창조자인 근로대중이 가장 존엄있고 보람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활짝 꽃피워나가는 참다운 사회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참다운 정치적자주성을 튼튼히 보장받고있을뿐아니라 물질문화생활령역에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준다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45페지)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자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할뿐아니라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은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전면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을 다같이 잘살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이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복무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때에만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나라살림살이의 호주로서 인민들의 모든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고있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신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안전한 로동조건과 훌륭한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의 생활까지도 나라에서 책임적으로 돌보아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먹고입고 쓰고사는데 대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무상치료, 무료교육제의 혜택으로 병을 치료하고 아들딸들을 공부시킬데 대한 걱정을 모르고 지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가적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각급 학교들에서 앞날의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모든 사람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겪고있는것과 같은 고질적인 실업과 빈궁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불행을 모르고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뿐아니라 래일에 대한 보다 휘황한 생활의 전망을 열어주며 특히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리고있다.

착취와 빈궁, 온갖 고역과 멸시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이 지난날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 행복에 넘치는 생활, 오늘 모든 근로자들이 마음껏 누리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은 오직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고도로 높임으로써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결정적우월성이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현상이다.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동원할 때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사회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속에서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열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사회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 여기에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또한 전체 인민이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또한 좋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신년사》, 1975년 1월 1일, 9페지)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합된 불패의 정치적력량으로, 하나의 화목한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인민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그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여있고 그들사이에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오직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그들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가 기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사회가 적대적계급으로 갈라져있고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착취사회에서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실현된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순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구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혁명과 건설의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쟁취되였고 온갖 난관과 엄혹한 시련을 이겨낸 가장 위력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뚫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왔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 비약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단결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인민적이며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그 위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자기들의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전면적으로 발휘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재부의 향유자로 되게 하는 가장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며 이 제도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이 제도를 떠나서 오늘의 보람찬 삶과 끝없는 행복에 대하여, 앞날의 희망찬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과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운 이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결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곧 우리 인민의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 주체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혁명하는 더없는 영광과 행복,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석같이 다지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7~35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혁명초소마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뿐아니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그것을 철옹성같이 고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지금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무모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의 발광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전체 인민군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맞받아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태세를 튼튼히 갖추고있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에게 끝없는 행복과 영예를 안겨주는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그 어떤 원쑤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철벽으로 지키며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는 당의 믿음직한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 다른 한손에는 총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의 전투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의 대진군을 세차게 다그치며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허용하지 말고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철석같이 다져나가기 위해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안팎의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철옹성같이 지키며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미제의 발광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위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려는 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억센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공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계속 힘있게 발전하고있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또다시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되고있다.

온 세계가 파국적인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으며 가물과 큰물, 눈서리 피해로 농사를 크게 망치고있는 때 우리 나라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성심의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최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거대한 생산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지 않고는 남조선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45페지)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문제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 한편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하여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빨

리 높일수 있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조선에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도발책동과 군사행동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어느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형편에 놓여있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들어선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하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 것으로 다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 때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도 감히 덤벼들수 없을뿐아니라 적들이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더라도 놈들을 단매에 쳐부시고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빛나게 고수할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며 랑비현상을 없애고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본밑천인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불패의 보루로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이 있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다그쳐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겹쌓인 난관을 뚫고 이 땅우에 일떠세운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물질적토대이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위력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만들어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성과적으로 앞당겨나갈수 있다.

우리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더 많은 탄광, 광산들을 개발하고 발전소, 화학공장, 세멘트공장, 비료공장, 기계공장, 경공업공장들을 일떠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오늘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생산과 건설을 더욱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가지고있다. 이를 옳게 동원리용하여야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뿐아니라 가까운 앞날에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달성하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로의 우리 인민의 천리마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드높이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하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다.

실로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는 여기에 현시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켜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전투과업이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놓은 투쟁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빨리 높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이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을 집중화하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수송을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그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생산건설을 다그치고 채취공업과 수송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며 랑비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증산절약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국가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한알의 쌀, 한그람의 철,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45페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국가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근로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마땅히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자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이며 나라살림살이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답게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여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증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이 해결하려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

나가며 절약하고 증산하는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증산절약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며 경제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운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며 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8페지)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이며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경제기관들과 생산단위들이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밑에 통일적으로 움직이고있다. 또한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졌으며 인민경제 부문간, 부문내부간의 생산소비적련계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므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고 경제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워야만 인민경제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모든 인적 및 물적 력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 속도전을 계속 힘있게 벌릴수 있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생산건설을 다그치고 채취공업과 수송을 앞세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이다.

생산건설을 다그쳐야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수 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건설분야에서 발판개와 새로운 공장건설의 두 전선에서 일대 공격전을 들이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논판개가 완전히 끝났으며 발판개도 적지 않게 실현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판개를 다그치기 위한 공격전을 들이댄다면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그 어떤 왕가물과 무더기비의 피해도 이겨낼수 있으며 발곡식의 정당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발판개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집중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방침대로 각 도에서 몇개대상씩 맡아 새로운 공장건설을 전격적으로 벌리며 건설력량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또한 이미 시작한 중요건설대상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 수송을 앞세우는데 계속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가공공업의 생산잠재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부쩍 높이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를 더욱 힘있게 열어제끼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전력을 빨리 낼수 있는 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고 탄광, 광산들에 자재와 설비를 우선적으로 대줌으로써 동력과 연료, 광물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화차와 기관차 생산을 훨씬 늘이고 그 수리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지금 진행하고있는 철도전기화공사들을 빨리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랑비

를 없애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커다란 예비는 랑비를 없애고 절약하는데 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 우리가 물자와 자금, 로력을 1%만 절약하여도 그것은 실로 방대한 량에 달하게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보탬으로 된다.

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속 불러일으킴으로써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원단위소비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기, 석탄, 연유, 강재, 유색금속, 세멘트, 목재를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공정전반을 장악하고 생산조직과 기술지도, 자재공급과 물자보관관리사업을 개선하며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여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고 설비, 자재, 자금의 사장, 류용, 랑비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낡은 자재와 부산물, 폐설물까지 모조리 회수하여 효과있게 쓰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키고 제품검사제도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로력랑비현상을 없애고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요구이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로력비중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며 로동규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 로력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또한 로력배치사업을 개선하여 로력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끊임없이 일으키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명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옳게 세우는것이다.

명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이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증산절약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앞으로 사회주의대건설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천재적으로 통찰하시고 명년도 인민경제계획작성의 총적방향과 부문별 과업, 그 수행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명년도 계획을 세우는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집행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계획작성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하며 현실적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타산하여 전투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깊이 해설침투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만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고 조직지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나라의 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람하지 않는 뒤떨어진 사상과 낡은 관습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3폐지)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강연, 해설담화, 기동선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두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창조적열의를 가지고 증산절약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학예술, 출판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증산절약투쟁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사실과 경험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그를 적극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고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랑비하는 것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강한 투쟁이 없이는 좀처럼 뿌리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교양과 함께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 본위주의, 무책임성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일대 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 때 근로자들속에서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 일본새가 높이 발양되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차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과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켜야 하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각종 증산경쟁운동과 돌격대운동을 활발히 벌려 이르는곳마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조직들은 생기발랄한 청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요대상건설을 맡아 해제끼도록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애호하며 유휴자재와 폐설물을 회수하는 등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사상교양, 사상투쟁과 함께 엄격한 통제사업을 배합하여야만 생산과 건설에서 나타나는 무규률적인 현상과 국가사회재산을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수 있다.

국가, 경제 기관들에서는 낡은 사상이 나타날수 있는 틈이 없도록 규범과 규정들을 더욱 개선완성하고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일군들이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도록 옳게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복구건설의 첫삽을 들던 그 기세, 그 투지로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용맹,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앞길은 참으로 휘황찬란하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군사적위력을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겨나가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김 기 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있었다.

혁명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다져졌으며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을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더욱더 굳세여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루어진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싸운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앞에 매우 위급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벌써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인정하시고 혁명투쟁의 전기간 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일제의 음모책동에 편승하여 혁명대오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미쳐날뛰던 종파사대주의자들과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반혁명적모략과 각종 파괴행위를 제때에 극복하면서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켰으며 공산주의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3~4페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은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다.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이 겹쌓이는 혁명의 길에서 로동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하며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야 한다.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유기체로 굳게 뭉친 혁명대오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탁월한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오직 수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만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지난날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는 화요파, 엠엘파, 상해파, 북풍회파 등 여러 갈래의 종파가 생겨나 더러운 파벌싸움을 벌림으로써 혁명대렬은 분렬되고 조선혁명은 시련의 소용돌이속에서 모대기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도탄에 빠진 인민, 시련을 겪고있는 조선혁명을 건져줄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애타게 기다리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이 절절한 념원과 피타는 갈망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인민의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분오렬되여있던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전략전술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상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통일단결의 튼튼한 사상적기초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단결을 위한 사상적기초를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새세대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심으로써 혁명대오의 핵심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세대의 생신한 공산주의자들로 항일혁명대오를 꾸리시고 가렬한 무장투쟁의 실천활동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움에 나선 혁명전사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몸소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시여 대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살며 싸우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심으로써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혁명적기백으로 차고넘치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뿌리빼고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을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이색분자들을 반대하는 견결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종파투쟁을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혁명대오안에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잡탕사상이 조금도 자리잡을수 없게 하시였다.

특히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의 통일은 더욱 확고히 보장되였다.

당시 일제놈들의 간교한 기만책동에 넘어간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민족배타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반《민생단》투쟁을 자기들의 종파적목적달성에 악용하여 수많은 우수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을 희생시키고 혁명대오안에 리간과 반목을 조성하여 대오의 통일단결을 약

화시키는 엄중한 죄악적책동을 감행하였다. 결과 혁명대렬안에는 일시나마 공포와 불안, 호상 불신임의 분위기가 조성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일대 시련을 겪게 되였다.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탁월한 혁명리론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원칙성으로 종파사대주의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좌경기회주의적책동과 그 후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심으로써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의 길을 걷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항일혁명대오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대오로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항일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 이것은 력사상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위대한 통일단결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철통같은 통일단결이였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12폐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높은 권위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인민들의 충성심이 하나로 결합되여 이루어질 때 가장 공고하고 위대한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이시였다.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며 온 민족, 전체 인민이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높이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항일혁명대오는 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함에 따라 모든것을 수령님께 의탁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통일단결되게 되였다.

지난날 그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우리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오랜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고 자주성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게 되였으며 손에 무장을 들고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선 가장 긍지 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조선의 혁명가들과 항일혁명대오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만을 충성으로 우러러모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조선혁명가들의 유일한 소망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힘껏 싸우는 오직 그것뿐이였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생을 싸우며 싸우다 죽는다 해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에 묻히고싶은 심정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결한 량심이였다.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길이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추호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마를줄도 모르고 식을줄도 모르는 이 불타는 충성심으로 하여 항일혁명대오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온 대오가 한덩어리가 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유력한 전투대오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꽉 들어찬 끝없는 충실성,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그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불보다 더 뜨거운 충성심에 떠받들리여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더욱더 굳세여지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였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또한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대오가 굳게 뭉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기초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9페지)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오직 탁월한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서만 비로소 실현된다.

만일 혁명대오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딴 사상이 있거나 사상상 통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대오는 하나의 혁명대오라고 할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련합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맺어진 단합은 온갖 이색적인 사상의 침습과 분파적행동을 면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참다운 통일단결이라고 말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항일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가장 순결하고 억센 통일단결이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혁명대렬에 뭉치게 한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싸워야 조선이 독립되고 혁명이 승리한다는 하나의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혁명의 붉은 기발아래에 한덩어리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항일혁명대오, 그것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상, 자기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접수한 혁명가들의 대렬이였으며 주체적 조선혁명로선의 실현을 자기들의 필생의 임무로 삼고 싸운 혁명대오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항일혁명대오가 굳게 통일단결됨으로써 모든 혁명가들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결속되게 되였으며 이색적인 잡사상의 침습을 막고 대오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게 되였다.

또한 혁명대오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지배하게 됨으로써 온 대오가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고도의 조직성과 규률성, 무조건적인 행동통일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결속됨으로써 항일혁명대오는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우리 혁명의 첫 대오로서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또한 혁명적동지애와 공산주의적의리로 굳게 단합된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0페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참말로 불패의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고상한 동지관계, 도덕적뉴대로 굳게 뭉친 통일단결이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온 대오가 혁명투쟁의 간고한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할수 있으며 대렬의 통일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나갈수 있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이룩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통일단결은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도 굳게 뭉친 참다운 혁명적인 통일과 단결이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동지애의 깊은 뉴대로 이룩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숭고한 동지적의리와 혁명전사에 대한 어버이사랑이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의 한길에서 싸우는 대원들을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그들을 굳게 믿어주시였으며 대원들에게 불보다 더 뜨거운 동지적사랑, 육친의 정을 돌려주시였다.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진 선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이야기 하나만을 놓고도 우리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고 뜨거우신가를 가슴깊이 느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처럼 한없이 고매하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대원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주심으로 하여 혁명전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사랑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뜨겁게 간직하고있었으며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우러러모시면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였으며 한없이 흠모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이루 형언할수 없는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수량상으로 우세한 강도 일제의 상시적인 포위공격과 원쑤들의 온갖 간계에도 끄떡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자기 대오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었던것은 바로 그들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을 심장깊이 새기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심어주신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뉴대로 굳게 결합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온 대오안에 고상한 동지적사랑과 공산주의적도덕의 아름다운 기풍이 차고넘치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언제나 서로 친형제, 친혈육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혁명과 동지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고 숭고한 동지적사랑이 꽃피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높이 발양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의 고결한 품성은 항일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한없이 뜨거운 동지적친밀성으로 더한층 굳세여지게 하였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또한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지고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전투적인 통일단결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의 온갖 원쑤들을 짓부시는 심각한 투쟁이였으며 엄혹한 자연조건을 극복하면서 원쑤와 생사를 판가리하는 피어린 싸움이 련속되

는 력사상 전례를 모르는 준엄한 혁명전쟁이였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도 그 어떤 간난신고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깨뜨릴수 없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설한풍 휘몰아치는 밀림과 광야에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한두해도 아닌 기나긴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강철의 대오로 굳게 뭉쳐 일제침략자들의 군사적공세를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험난한 투쟁의 시련을 뚫고 불길과 눈보라의 수천수만리를 헤쳐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이처럼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이루어진 반석같은 통일단결이였으며 피어린 투쟁의 불길속에서 더욱더 공고화되고 그 위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불패의 통일단결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하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이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고상한 동지적뉴대로 결합된 숭고한 통일단결이였다. 그것은 또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지고 굳세여진 불패의 통일단결이였다.

항일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성심에 기초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음으로 하여 혁명앞에 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승승장구하였으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였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우러러모시고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영광스러운 항일혁명대오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억년드놀지 않는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여 놓았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해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이 귀중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인민은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분렬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이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일대 전격전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더욱더 철통같이 다져지고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에 떠받들리여있으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그 불패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우리의 통일단결을 마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그 어떤 원쑤들이 덤벼든다 해도 단매에 때려눕힐 억센 힘이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혁명과 건설을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조국은 철벽으로 보위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와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여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철저히 보위하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조국, 모든 근로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온갖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다.

지구상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사상의 기초에는 계급의식이 놓여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도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사상의식인것만큼 다른 모든 사상의식과 마찬가지로 그 바탕에는 계급의식이 놓여있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자각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계급의식의 발현이며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그들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의 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의 결합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진행될수 없다는 사정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주의조국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하나의 민족적단위이다. 사회주의조국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풍부한 자연부원,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마련되여있다. 조국의 강토와 인민, 거기에 있는 모든 사회적부를 떠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생각할수 없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공산주의에 가서도 제나라땅에서 살아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그 무엇에도 휘지도 꺾이지도 않는 강의한 민족적의지와 높은 민족적긍지를 간직하며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을 가진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감정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그 누구보다도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견결히 배격한다.

그러나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자주의식은 계급의식과 동떨어진것이 아니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자주의식은 어디까지나 계급적립장에 선 민족적의식이며 계급의식과 결합된 민족애이다. 민족적의식은 그것이 계급의식과 결합됨으로써만 민족배타주의, 민족리기주의와 인연이 없는것으로 되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부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리익에 복무하는것으로 된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의식과 결합되고 자기 계급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이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된것,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불가분적인 통일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국제주의적인 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는 국경이 없으며 매개 나라의 혁명위업은 세계로동계급의 국제혁명위업의 한부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참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 사람들로 되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 사람이라야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된 사람들로 된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과 분리할수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통일되여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됨으로써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온갖 계급적 착취와 억압이 없어진 토대우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최고형태의 애국주의이며 가장 철저하고 진정한 애국주의이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그 나라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한다. 그런것만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것은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것으로 된다.

그런데 사회발전의 력사가 확증하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은 오직 사회주의적발전의 길에서만 철저히 보장될수 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무궁한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로 되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들만이 가장 철저하고 참다운 애국자로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들도 《애국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저들의 착취와 억압을 가리우며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침략하기 위한 새빨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착취계급들은 다만 정권을 잡기 위하여 그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저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허울좋은 《애국주의》구호를 내거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력대 괴뢰두목놈들도 나라를 미일침략자들에게 팔아먹으면서 인민들에게 《충신》이 되라고 부르짖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억누르고 제놈들의 범죄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참말로 착취계급들, 부르조아반동들의 《애국주의》는 그 어느때를 막론하고 진정한 애국주의로 될수 없는것이다. 오직 사회주의적애국주의만이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애국주의로 되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진정한 애국주의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혁명과 건설을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의 하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커다란 긍지와 영예감을 불러일으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타는 애국적열정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온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이 있는것이며 참다운 삶의 기쁨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있는것이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제도는 끝없는 행복의 요람이며 모든 활동의 터전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서 드높은 자각적열성을 발휘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혁명과 건설을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모든 근로인민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을 북돋아주어 그들로 하여금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고무하여준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투쟁은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혁명투쟁을 하고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그 어떤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고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민족적긍지와 민족자주의식을 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조국의 독립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

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민족의 모든 훌륭한 유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도록 고무추동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근로인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매개 나라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고 세계혁명의 발전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가는것은 바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 매개 나라 혁명의 성과적인 발전을 떠나서 세계혁명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으며 반대로 세계혁명의 승리적발전을 떠나서 매개 나라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참으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형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강도 일제를 무찌르는 간고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심으로써 조국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멀리 앞으로 전진하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진 오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그리고 근로인테리들과 방선의 초병들 지어는 평범한 가정부인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도 사회주의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우러러보면서 원쑤들을 반대하는 애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동포들도 어머니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유구한 력사에서 숭고한 애국심을 오늘처럼 그렇게 높이 그리고 폭넓게 발휘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뿌리박고 확고히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에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현대의 간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확고히 고수하였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서 그 위용을 찬연히 빛내이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과 불굴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깊이 간직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요인의 하나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조국에서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리고있는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의무이며 본분이다.

모든 근로자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일터마다, 초소마다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만 그 어떤 조건에서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

조성된 정세와 발전하는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시대에 처하여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길에서 멀리 전진하였으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 앞에는 의연히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드높은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모든 혁명초소마다에서 더욱 큰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로력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7폐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표현이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곧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 우리 민족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묶어세우는 중심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인 공산주의락원이 약속되여있는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온갖 충성을 다하는것은 혁명투쟁의 근본리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며 주체형의 혁명가가 마땅히 지녀야 할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

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높은 애국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날것이며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창조적로동의 불길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의 중요한 표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은 사회의 부를 창조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원천이며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단결시키는 수단이다.

근로자들이 보람찬 로동에서 창조적불길을 더욱 높여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풍부한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사회주의조국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로력적투쟁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로력적열성을 발휘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충성의 애국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적애국로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표현이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숭고한 발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로동자들과 사무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군인들과 가두녀성들의 충성의 애국로동은 결코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불타는 충성심에서 나온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으며 또한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사회적애국로동에 적극 떨쳐나서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애국적로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국가와 인민의 공동재산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입니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살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2페지)

국가재산은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그러므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것은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근본요구의 하나로 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근로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기본품성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가 다 자신과 전체 인민을 위한것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생산하고 건설하여도 인민들이 쓰기 편리하도록 알뜰하고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귀중한 사회적재부로서 더 잘, 더 많이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방울의 물, 한키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극력 아껴씀으로써 나라살림살이를 더 빨리 늘여나가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번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군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은 조선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의 발악적인 전쟁소동에 고도로 되는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있을수 있는 원쑤들의 불의의 침공에 언제든지 맞설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적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전당, 전군, 전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원쑤들을 맞받아나가 놈들을 격멸소탕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사상전의 방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운 연렬한 애국자들,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례없는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긍정적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나가는 커다란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애국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로동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지 않으며 국가, 사회 재산을 아껴쓰지 않고 소중히 거두지 않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근로자들속에 깊이 심어주시고 소중히 키워주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박 정 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 우리앞에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가르쳐주시였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행정경제사업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며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발전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의 근본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조국을 통일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두가지 혁명과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부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7페지)

당은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이다.

당의 사명은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으며 당사업과 당의 모든 활동은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종국적인 투쟁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나서는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는 당이 경제건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당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도 결국 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에 의하여 평가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동떨어진 당사업, 당활동이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내부사업과 함께 당사업의 2대구성부분의 하나이며 정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항상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당중앙은 오늘 일군들이 당내부사업을 한다고 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할것을 강조하고있다.

당조직들은 매개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해당 단위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당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내부사업은 당원들과의 사업, 간부들과의 사업, 당세포들과의 사업, 당위원회들과의 사업에 귀착된다. 당조직들을 잘 꾸리고 그것들이 다 당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당원들이 다 잘 움직이게 하는것도 결국 당이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낯을 돌리지 않는 현상은 그에 대한 그릇된 관점에서 나오는것만큼 당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때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며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내부사업과 함께 경제건설에 낯을 더 돌리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급속한 전진과 당앞에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0페지)

오늘 전국도처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이에 맞게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들과 또다시 8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은 전당, 전국, 전민의 힘을 총동원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왕성한 투지와 약동하는 패기를 안고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해제낄것을 요구하는 전투이다.

이 무겁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은 당조직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그들을 속도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지도기관인 당조직들이 대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고 혁명적 열의와 정열에 넘쳐 일하게 하여야 그 어떤 난

판이 가로놓여도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오늘 우리 당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당조직들이 생산과 건설의 모든 단위들에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그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하는데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거나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면서 경제사업에 낮을 돌리지 않는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은 행정경제기관이라는 《기계》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도록 발동을 거는것으로써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옳게 지도통제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온갖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고 그것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세워주는것이다.

행정경제사업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는것은 행정경제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그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방향적지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가야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를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고 분공을 조직하며 그 관철에로 당원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짜고들어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집행정형을 늘 검열하고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당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행정경제사업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당적지도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어디까지나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의 지도로 되여야 하며 장악통제하지 않으면서 지도하려고 하면 그 지도가 실속있는것으로 될수 없다.

당조직들이 행정경제기관들을 장악통제하지 않으면 당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없으며 옳은

지도대책도 세울수 없고 실속있게 도와줄수도 없다.

행정경제사업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하여야 실태를 환히 꿰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할수 있다.

또한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을 장악통제하면서 지도하여야 당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알수 있고 바로잡아줄수 있다.

당정책집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하면 행정대행을 하지 않고 행정경제사업을 옳은 당적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이처럼 행정경제사업을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할데 대한 원칙은 당조직들과 일군들 속에서 행정을 대행하는 그릇된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옳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지도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당조직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틀어쥐고 나가면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철저히 장악하여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는데 온갖 심혈을 쏟아부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제때에 장악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우리 당조직들이 지닌 기본사명의 하나이며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당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긴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심고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지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의 관철 정형을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22페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는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경제과업수행을 힘있게 떠밀어주고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발동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방향을 설정하며 그에 따라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전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산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제선동은 군중을 당의 경제정책집행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대중정치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방침이 인민대중에게 파악될 때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것이며 당의 구호도 대중자신의것으로 접수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당조직들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앙양과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 온 나라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선전일군이건, 조직일군이건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대중속에, 생산현장에 들어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것이다.

당일군에게는 전문부문이 따로 없으며 경제선동은 조직일군이건, 선전일군이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모든 일군들이 선전원, 선동원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자각성과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위력한 방도이다. 그러므로 조직일군이건, 선전일군이건 또 중앙의 간부이건, 초급일군이건 그리고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군중속에 깊이 해석선전하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야 하며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지휘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격식과 틀이 없이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대오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일군들의 당정책집행정형을 알아보고 그들의 애로와 요구를 포착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떠밀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데서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극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애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21페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지도인것만큼 그것은 경제사업을 대행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면서 행정식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것은 당적지도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하게 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집행을 옳게 장악할수도 없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도 없다. 그리고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면 행정경제일군들은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게 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당사업도 잘 안되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나아가서 당의 권위를 훼손시킬뿐이지 덕을 볼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당일군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

업을 가로타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당조직들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는 행정경제일군에게 그 집행이 분공되며 그들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아무리 당조직들에서 옳은 대책과 방도를 토의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행정경제사업이 옳게 보장될수 없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기관들과 그 지도일군들이 당앞에서 지닌 자기의 임무를 똑똑히 알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기가 맡은 분공을 높은 책임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이 서로 합심하여 당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잘하고 경제기술일군들은 경제기술사업을 잘해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활동을 뒤받침해주면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없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경제건설을 떠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이 없고 기술을 모르면 경제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질수 없으며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실속있게 가르쳐줄수 없다. 일군들의 수준이 높아야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다.

오늘 일부 당조직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형식적으로 되고있는 중요한 원인도 일군들의 수준이 낮은데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지식을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기술을 적극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능력을 현실이 요구하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다시한번 비약을 일으키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

한 중 모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을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살리면서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2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준다.

문학예술이 인민들의 심장을 울리며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형식이 옳게 결합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킨다는것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학예술형식에 혁명적인 내용 다시말하여 낡은것은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켜야 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의 사명으로부터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으로 하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과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건설하는 문학예술은 마땅히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과 그들의 혁명위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자면 공산주의적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고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킨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문학예술작품에 공산주의적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그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이 심오하게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 민족적형식이란 그 나라 인민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인민적인 문학예술형식이며, 사회주의적내용이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근로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담은 혁명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주의적내용이다.

문학예술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작품의 내용이 사회주의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이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여야 인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위업수행에 몸바쳐나서도록 고무하는 참된 교과서로, 로동계급의 당의 수중에 장악된 힘있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내용에 관한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작품의 주제사상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작품의 내용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화함으로써 표현되게 된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이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지는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공산주의적사상성을 구현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작품에서 사회주의적내용은 민족적형식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으며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는 사회주의적내용만으로써 전적으로 담보되는것은 아니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에서 내용은 형식과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작품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내용이 형식속에서 존재한다는 일반론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으로 되여야만 자기의 혁명적본성과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켜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 심원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민족적형식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적내용의 표현형식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발붙이는 민족적바탕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에게 고유한 민족적인 예술형식을 가지고있다. 민족적인 예술형식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매개 나라 인민이 가지고있는 예술형식은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다듬어지고 발전되여온것으로서 거기에는 그 민족에게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이 깃들어있다. 그러므로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 쓰는것은 문학예술작품에 민족적특성을 풍부하게 구현하며 그것을 그 나라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훌륭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작품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을 그 민족에게 고유한 예술형식을 통하여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 민족의 심리와 감정, 구미에 맞으며 따라서 그들의 심장을 크게 울릴수 있게 한다.

참으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과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옳은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에 맞게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새롭게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을 말한다는 점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이나 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안된다, 조선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음악을 해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587페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정의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명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개념을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고 자기 나라 인민과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 과학적정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정식화를 주심으로써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본질적요구로 될뿐아니라 우리 시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방향이라는것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그 구현을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고유한 예술형식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선사람들은 노래와 춤은 우아하고 점잖은것을 좋아하며 말투는 부드럽고 겸손한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 우리 인민의 우수한 재능이 잘 반영되여있는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30페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인민들이 이룩한 민족적인 예술형식, 민족적표현수단들과 묘사수법들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 우리 인민의 우수한 재능과 창조적지혜가 잘 반영되여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옳게 살려 쓰는것은 문학예술작품에 민족적특성을 구현하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시고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노래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굴곡이 심하지 않고 온근하다. 그리고 아름답고 귀맛이 좋으며 부르기 쉽게 되여있다. 여기에 우리의 음악의 민족적선률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우리의 무용은 률동이 우아하고 점잖으며 부드러운것으로 특징적이다.

우리 인민은 미술분야에서도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것이 특징으로 되여있는 고유한 미술형식인 조선화를 발전시켜왔으며 그 화법은 간결하고 선명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족예술의 우수한 특성을 심오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에 이바지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적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혁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률, 새로운 률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줄 알아야 한다.

민족적예술형식을 사회주의를 건설하

고있는 오늘의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개조하고 혁신하는것은 인민대중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기본사명과 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민족적인것을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바탕으로 삼으며 창작에서 민족적형식을 살리는것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적인 노래형식이라고 하여 지난날의것을 그대로 살릴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부르기 헐하고 알아듣기 쉽게, 현시대의 미감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적형식이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문학예술의 민족적형식도 시대적요구와 계급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은 민족적형식을 혁신한다고 하여 그것이 가지고있는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마저 제거하는 현상을 반대한다. 이러한 그릇된 경향은 문학예술에서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릴수 없게 할뿐아니라 민족적특성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낡고 불건전한 문학예술이 머리를 쳐들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공산주의적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흐리게 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이 자라나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게 된다.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지난날에 이루어진 민족적인 예술형식들을 오늘의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옳게 결합시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구미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문학예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가 자기 나라 혁명이며 혁명의 주인은 다름아닌 그 나라 인민자신이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온다.

오늘날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투쟁한다. 매개 민족은 자기 나라가 처한 지리적환경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서로 다른 혁명발전단계에 놓여있을뿐아니라 고유한 생활풍속과 문화적전통을 가지고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민족국가를 단위로 새 사회를 건설하고있는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도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민족적형식을 바탕으로 삼고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음으로써만 문학예술을 진정으로 자기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고 자기 나라 혁명에 이바지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사상은 이와 같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을 참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 나라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을 밝혀주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사상은 민족적특성을 풍부히 체현함으로써 매개 나라의 문학예술을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에게 진정으로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로 개화발전시키게 할뿐 아니라 세계혁명적문학예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화시키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다.

* *

우리 당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문학예술 즉 조선인민에게 복무하고 조선혁명을 촉진하며 그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전혀 새로운 우리 식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당의 이 방침은 주체적문예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넓은 길을 펼쳐주었다.

우리 당이 밝힌 우리 식의 문학예술, 그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가장 철저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주체시대의 새형의 문학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 구현을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인류문학예술의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지를 대담하게 개척하면서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문예분야에서 주체를 세운 결과 우리의 문학예술은 민족적바탕을 가지고 빨리 개화발전하게 되였으며 근로대중의 생활과 로동을 즐겁고 흥겹게 하는데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355폐지)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의 민족적형식에 우리의 사회주의적내용을 담고있는 우리 식의 혁명적문학예술이다.

우리 식의 문학예술의 사회주의적내용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있게 담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내용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을 첫째가는 원칙적요구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인민을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불타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식의 문학예술의 민족적형식은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계승되여온 예술형식을 새로운 사회주의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오늘의 미감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며 고상하고 힘있는 형식이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우리 식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사회주의적내용과 세련된 민족적형식의 완벽한 결합으로 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예술성을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무장시키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가극예술의 불멸의 기치로서 현대혁명가극발전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으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대 전성기를 이룩하고있는 《피바다》식가극예술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피바다》식가극은 내용에서 혁명적일뿐아니라 그 형식에서 종래가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우리 식으로 새롭게 만든것으로 하여 특출하다. 《피바다》식가극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 민족적인 예술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혁신하여 발전시킨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피바다》식가극은 가극의 노래를 절가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당의 현명한 방침을 관철하여 가사들을 절가로 만들고 그에 맞게 아름답고 유순한 민족적선률로 곡을 붙임으로써 가극의 음악을 인민적이며 통속적이며 민족적인것으로 일관시키게 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구미에 맞지 않고 리해하기 어려운 종래가극의 낡은 음악형식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미학적기호에 맞는 새로운 《피바다》식가극예술의 형식을 낳게 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되였다.

《피바다》식가극은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되는 음악과 노래로부터 무용, 무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선적인것,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삼음으로써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그것을 빛나게 구현한 당의 현명한 방침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것으로 찬란하게 개화발전시켜나가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민족적형식을 더욱 세련시켜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더 빨리 창작해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본질적요구

강 광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만년대계의 대건설물로 웅장하게 일떠서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올해 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장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이다.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의 정책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은 현재와 가까운 앞날만 보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라의 먼 앞날의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였으며 대중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천재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일찌기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본질적요구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력사적기간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매 시기 제기되는 당면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뿐아니라 경제건설의 전략적인 단계와 전망적인 투쟁목표를 옳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앞당겨달성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고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에 있기때문에 생산이 자연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진행되게 되며 나라의 경제를 전망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있기때문에 나라의 장래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까지 타산하는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며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망과업과 당면과업을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목표인 전망과업을 옳게 제시하고 그것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만 전체 근로자들에게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안겨줄수 있으며 모두가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하게 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칠수 있다.

전망과업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의 당면과업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당면과업을 옳게 규정하여야 조성된 정세와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전망과업의 수행을 최대한으로 앞당길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목표인 전망과업과 매 시기의 당면과업은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야 한다. 비록 전망목표를 훌륭히 내세웠다 하더라도 대중에게 매 시기의 당면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지 않는다면 생산과 건설을 실속있게 진행할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전망목표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반대로 앞날은 내다보지 않고 당면한 생산일면에만 몰두한다면 개별적부문, 개별적단위에서 생산을 일정하게 늘일수는 있어도 인민경제의 선행공정들을 예견성있게 앞세워발전시키지 못하여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할수 없게 된다.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진척되여 부문간 련계가 밀접해지고 경제발전속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련계가 밀접해지면 개별적부문, 개별적단위에서의 생산성과가 련관된 부문에 주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의 발전속도가 높아지면 전망목표의 점령이 더욱 앞당겨지게 되며 전망과업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진척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다같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인민경제의 선행공정들을 전망적으로 빨리 발전시켜 부문간, 부문내부간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갈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은 올해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중심과업은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들을 점령하며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입니다.》(《신년사》, 1976년 1월 1일, 7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세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된 조건에서 우리앞에 나선 당면한 중심과업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이미 이룩한 승리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료와 자재, 협동생산품들을 공장, 기업소들에 제때에 대주고 설비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모든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돌릴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전망계획을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

략적목표인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경제건설의 규모와 그 발전수준에서 일찌기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거창한 투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선행공정들을 예견성있게 빨리 발전시켜 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부문간, 부문내부간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올해에 우리가 생산을 정상화하여 최근년간 비상히 커진 가공공업의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앞으로 수행하게 될 새로운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원료, 연료, 동력, 수송 문제를 풀고 생산공정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여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된 승리는 불패의 것으로 튼튼히 다져질것이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대비약이 끊임없이 일어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갈 때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이 계속 일어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정확히 규정하시고 그것을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았던 정전직후 경제건설의 방향과 매단계에서의 투쟁목표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빨리 쌓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근본문제로, 혁명의 전도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후경제건설의 단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전후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나라의 장래전망까지 타산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였으며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도 구애되지 않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준 혁명적인 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건설의 단계와 기본로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는 전후의 그 어렵고 복잡한 형편에서도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전쟁의 피해를 말끔히 가셔내고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사회주의농업을 건설하는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과 당해년도계획작성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한고지를 점령하면 련이어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하시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온 강산에 넘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본주의세계가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때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의

매전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앞날에 대한 보다 휘황한 전망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차게 벌릴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또다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방도까지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고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민족기술간부를 예견성있게 키울데 대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들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호상관계를 천재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이며 원료, 연료, 동력, 수송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고 자체의 기술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 생산과 건설을 전망적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굴진과 박토를 채탄, 채광에 결정적으로 앞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일들을 불이 나게 해제끼면서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온 나라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고 당면한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으며 일군들이 전투를 전망성있게 벌려나가지 못하는것을 제때에 깨우쳐주시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있은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에서도 또다시 경제를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주동적으로 취하시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새로운 혁명적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의 하나인 은률광산에서는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인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건설공사가 완공되여 당면한 철광석생산을 부쩍 늘이면서도 광산을 전망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며 온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확고한 전망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감으로써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기 위한 방도들도 명백히 제시되여있다. 문제는 우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날을 내다보면서 당면과업수행을 최대한으로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접수하고 관철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0～26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여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한 과업을 짜고들어 집행하지 않거나 앞날을 보지 않고 당면한 생산에만 급급해하며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이미 하던 일을 줴버리는것은 다 일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겉치레만 하며 발라맞추는 형식주의, 요령주의의 표현이다. 그것은 결국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 서지 못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사상적각오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반대하는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녀야 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언제나 당면한 오늘뿐아니라 나라의 장래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까지 생각하여야 하며 하나를 만들어도 만년대계로 되게 한다는 립장에 서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국가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다.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것은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이다.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도달하여야 할 전망적인 투쟁목표와 당면한 과업을 밝혀주는데 있으며 계획 그자체가 전망계획과 당면전투계획으로 나누어지는것과 관련된다.

계획을 정확히 세우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발전방향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설비, 자재, 로력, 자금 등 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기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련관된 모든 고리들을 풀고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할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당면전투계획인 경우에는 조성된 정세와 환경에서 전망목표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계획을 옳게 세우는것과 함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계획을 분기별, 월별, 일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81페지)

생산의 정상화는 국가계획에 예견된 인민경제의 균형들을 정확히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이며 올해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생산을 정상화하여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곧 전망과업과 당면

파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선행공정들을 전망성있게 앞세워발전시켜야 하며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수행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망과업과 당면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기때문이다.

오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따라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송혁명을 다그쳐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커진 가공공업은 더 많은 원료와 연료를 요구하고있다. 채취공업을 발전시켜 석탄과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수송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제때에 충족시켜야 가공공업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채취공업과 수송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새 전망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중요한 전투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맡겨진 전투임무의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당면한 생산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당의 방침따라 굴진과 박토를 결정적으로 앞세워 탄광, 광산들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고 선박수송을 늘이며 당의 3화수송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기앞에 맡겨진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계획은 한갖 예측인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의 발전방향을 규정한 지령이며 모든 국가기관들과 경제기관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의무로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당면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전망과업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국가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규률을 위반하는 현상들과는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옳게 결합시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문제는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크게 달려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혁명의 지휘성원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매 시기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불이 나게 해제끼는 동시에 하루살이식으로 일하는 그릇된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전투를 전망성있게 조직지휘하여 자기 부문 사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휘황한 전망과 맡겨진 전투과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 분공조직을 잘하여 모두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더욱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자.

지방예산제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우월한 예산제도

김　　인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인 지방예산제가 실시되고있다. 지방예산제는 그 독창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지방예산제실시정형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방예산제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재정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촉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지방예산을 잘 세우고 옳게 집행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며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방예산은 중앙예산과 함께 국가예산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다. 나라의 기본재정계획인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갈라지며 지방예산은 도예산과 시, 군 예산으로 구성된다.

국가예산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중앙예산이다. 이와 함께 지방예산도 나라살림살이의 중요한 한 측면을 반영하며 재정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리용하는 기본형태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앙예산의 주도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을 옳게 운영하여야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자금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 경제문화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다.

지방예산은 또한 지방살림살이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지방의 살림살이를 원만히 꾸려나가도록 재정적으로 확고히 담보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설정하는 방향에 따라 지방예산을 옳게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지방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지방예산을 옳게 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지방경제와 지방살림살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천재적으로 통찰하시고 일찌기 그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지방예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지방예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조건을 전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에 일정한 권한을 주고 필요한 조건도 마련하여주어 지방인민위원회들로 하여금 창발성을 적극 내여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69페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경제관리와 재정관리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모든 지방들에서 국가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함께 지방예산제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계선을 정확히 가르고 지방들에 예산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출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지어준 다음에는 많이 벌어들이면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체로 경제문화건설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일을 벌릴수 있고 벌어들이지 못했을 때에는 예산지출에서 제약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지방예산집행과 지방살림살이운영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을 고도로 높이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힘쓰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으로 된다.

매개 지방들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지방경제의 토대가 약하고 지방들에서 자체로 예산 수입과 지출을 맞출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지 못하였거나 그것을 담당하여나갈 일군들이 준비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예산제를 실시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지방예산제를 실시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조성되였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벌방지대나 산간지대나 할것없이 지방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지방살림살이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졌다. 또한 지방들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져 모든 지방에 살림살이를 자체로 훌륭히 꾸려나갈수 있는 일군들이 준비되였다. 이리하여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였으며 나라의 재정토대를 튼튼히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지방예산제는 우리 나라 재정예산체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열어놓은 새로운 예산제도이며 가장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예산제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창의창발성을 더욱 높여 온갖 재정적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입니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살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2페지)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예산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는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는데서 결정적역

할을 하는것도 근로대중이다. 따라서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사업도 결국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지방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방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지방예산을 옳게 집행하고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동시에 그들이 높은 책임성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경제적공간을 설정하는것이 필요하다.

지방예산제는 지방예산을 해당지역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접 련결시키고 지방들에서 자체로 예산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나가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부가운데 자기자신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나야 자기자신도 잘살수 있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깨닫고 지방예산을 집행하며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적극 참가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제는 온갖 재정적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우리 나라 국가예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와 함께 모든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예산제도로, 가장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으로 된다.

그것은 다음으로 지방예산제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다같이 원만히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킨다는데 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하면서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만일 인민생활은 안중에 없이 국가예산수입을 늘인다는 명목밑에 상품값을 높인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게 되며 국가예산수입자체도 늘일수 없게 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수입을 보장하는 근본방도는 생산을 장성시키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지방예산제는 지방들에서 재정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게 할뿐아니라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사회급양사업과 편의봉사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것은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한편 국가재정수입을 빨리 늘이게 함으로써 물건값도 낮추고 로임도 더 높일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

이리하여 지방예산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배려가 더 빨리 가닿게 하며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지방예산제는 또한 모든 지방을 다같이 고르롭게 빨리 발전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예산제도이다.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경제문화발전에서의 지역적차이를 없애고 나라의 모든 지방을 다같이 고르롭게 빨리 발전시키며 전반적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지방예산제는 해당지역의 호주로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질좋은 소비품들을 경쟁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사회급양과 편의봉사 사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고 모든 지방을 다같이 고르롭게 빨리 발전시킨다. 지방예산제는 또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지방예산에 보충해주던 자금을 모두 중앙공업의 확대재생산에 돌릴수 있게 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길수 있게

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지방예산제는 지방들에서 예산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나가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지방 경제와 살림살이를 개조해나가게 하는 새로운 예산제도이며 지방의 당면한 경제문화건설뿐아니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 가장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지방예산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지방예산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예산과 지방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태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모두가 지방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고 지방의 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지방공업생산액은 1974년에 그전해보다 120%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또다시 129%나 높아졌다. 이와 함께 편의봉사망과 사회급양망이 늘어나고 봉사의 질이 높아져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면서도 나라의 재정수입을 많이 늘였다.

이리하여 산간지대의 일부 군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 군들이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도, 시, 군들이 국가에 들여놓는 자금은 해마다 수억원에 달하게 되였다.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지방예산제야말로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예산제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새로운 형태의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방예산제를 더욱 실속있게 실시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지방예산제를 실속있게 실시하여야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으며 더 많은 자금을 국가에 들여놓아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 나라의 재정토대를 반석같이 다져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과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비롯한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수입과 지출은 국가예산의 두 측면을 이루고있으며 예산의 성과적집행은 그 수입을 높이는 사업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제를 더욱 실속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예산수입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지방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계화도 하고 폐설물과 유휴자재, 지방에 널려있는 자연자재 같은 것을 널리 리용하여 여러가지 일용품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소득을 창조하고 국가수입을 늘이면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68페지)

오늘 지방들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매우 방대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이고 지방예산수입을 빨리 늘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도들에 탄산소다, 가성소다와 같은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소화학공장들을 꾸리고 이미있는 강철공장들에 압연설비를 갖추어 원료, 자재, 소재를 지방자체로 생산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하는 단능기계공장들을 꾸려 지방공업의 물질적토대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는것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지방공업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업기업소들이 지방공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중앙공업기업소들은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며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듯이 지방산업공장들을 한두개씩 담당하여 도와주는 운동을 벌려야 하며 지방들에서는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이 다 후원기업소들을 가지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짜고들어야 한다.

또한 기능공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고등중학교에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지방공업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가까운 년간에 지방산업공장의 모든 관리일군들을 기사, 기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식료혁명, 봉사혁명을 다그쳐 사회급양사업과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회급양과 편의봉사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정치사업을 잘하여 봉사부문일군들의 영예감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부문에 들어가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재봉침, 라지오, 텔레비죤을 비롯한 갖가지 현대적생활도구의 부속품을 생산하여 편의부문에 공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각종 건재와 건구를 더 많이 팔아주어 살림집들을 알뜰하게 거둘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봉사망을 늘이고 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지방이 더욱 흥성거리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인민생활에서 활짝 꽃피게 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예산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 나라의 돈을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것은 지방예산제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세간살이를 잘못하여 랑비한다면 벌어들인 보람이 없으며 지방예산을 옳게 집행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이것이 우리 당이 내놓은 투쟁구호이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당의 부름따라 설비와 자재,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더욱 낮추어야 하며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푼전이라도 쪼개쓰는 심정으로 나라의 재정을 아껴쓰고 절약하여야 한다.

나라의 재정을 아껴쓰지 않고 랑비하는것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엄격한 통제가 배합되여야만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방들에서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지 않고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예산수입계획의 수행정도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며 기관, 기업소들에 자금을 내줄 때에는 항목별로 엄격히 따지고 계획된 범위안에서 꼭 필요한 자금만 내주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방예산제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지방살림살이의 호주인 지방정권기관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틀어쥐고 밀고나가는가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인민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살림살

이를 책임진 주인입니다. 하나의 가정에서도 주인이 제구실을 똑똑히 해야 살림살이가 펴여나가는것처럼 군에서도 군의 주인인 군인민위원회가 자기의 역할을 옳게 하여야 군의 모든 살림살이가 잘 꾸려져나갈수 있습니다.》(《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464페지)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우만 쳐다보거나 조건타발하는 일이 없이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려나가야 한다. 특히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인민경제계획과 지방예산을 동원적으로 세우고 계획에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야 하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국가에 보다 많은 리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적인 사회주의 재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일재정총화를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재정총화체계와 재정처리에서 속도전의 요구를 구현한 즉결제도, 재정관리에서 련대적책임제, 사업수행에 뒤따르는 재정검열제도를 비롯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재정관리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였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영광스러운 당이 창조한 새로운 재정관리의 모범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정관리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하며 재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사상교양사업에 과학적인 관리조직사업과 엄격한 통제를 결합시켜 경제관리와 재정관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또한 지방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 자기 지방의 기관, 기업소들의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재정계획수행에 대하여 늘 지도통제하고 검열하여야 하며 지방예산제실시정형에 대하여 매달, 매분기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지방예산제를 옳게 실시하는데서도 그 결정적 담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과 지방예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방예산제를 옳게 실시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안으로 모든 지방에서 다 예산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국가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것처럼 모든 도, 시, 군들도 자력갱생하여 자립적으로, 제발로 걸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오늘 지방예산제를 더욱 실속있게 실시하는것은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지방예산제를 실속있게 실시할 때 지방의 살림살이는 알뜰하게 꾸려지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릴것이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불패의 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방예산제를 더욱 실속있게 실시함으로써 재정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남조선괴뢰도당은 악착스러운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김 철 형

최근 조선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모한 책동과 함께 괴뢰통치배들의 부정부패행위는 극도로 우심해지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악당의 부정부패행위는 놈들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남조선현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외세에 나라를 팔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는 만고역적일뿐아니라 권세와 치부를 위해서는 그 어떤 범죄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인간쓰레기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부정부패의 우두머리이며 남조선사회를 휩쓸고있는 온갖 전횡과 협잡, 부정부패의 장본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얼마 안되는 매판자본가들과 민족반역자들이 〈정권〉을 쥐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리익도 주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일신의 향락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58페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조종밑에 총칼로써 《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제놈의 군사파쑈체제를 강화하며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누리기위한 밑천을 마련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명줄을 걸고있는 이 역적놈에게는 민족의 리익과 번영, 나라의 통일독립과 자주성이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것을 희생으로 하는 권세와 안일향락만이 있을뿐이다.

박정희도당을 우두머리로 하는 괴뢰통치배들은 외래독점자본 그리고 매판재벌과 결탁하여 나라의 모든 자원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인민의 피땀을 악착스럽게 짜내고있다. 부정부패는 남조선지배층내에서 가장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으며 그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정희역적놈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외자도입에서 외래독점자본가들에게 《특혜》를 주고 《정치헌금》과 뢰물을 받아먹는 부정행위, 《원조》를 둘러싸고 서로 뜯어먹는 부정부패와 무역거래에서의 사기, 탈세 행위, 은페된 기업경영 등 갖은 수법을 통해 막대한 부정축재를 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내막이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오늘 박정희괴뢰악당의 부정부패는 절정에 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매우 심합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착취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숱한 돈을 부정축재하였으며 그것으로 회사와 호텔 같은것을 경영하면서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24~25페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의 악랄성은 무엇보다도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넘기고 외래독점자본과 결탁하여 숱한 재산을 긁어모으고있는데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서방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는 미국《록키드》항공회사의 국제뢰물사건에서도 정체가 드러난바와

같이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의 거간군을 통하여 《록키드》항공회사와 비밀계약을 맺고 수많은 딸라와 뢰물을 받아먹었으며 그 대가로 남조선을 미제독점체의 판매시장으로 더욱 내맡기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비단 《록키드》항공회사뿐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나라 독점체들로부터도 숱한 뢰물을 받아먹었다.

박정희역적놈은 남조선에 침투한 미국갈프석유회사로부터 이미 두차례에 걸쳐 400만딸라의 《정치헌금》을 받아먹은것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이 회사로부터 도합 1천만딸라의 뢰물을 비밀리에 받아먹었다. 그 대가로 박정희역적놈은 갈프석유회사에 경제적 《특권》과 《리권》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울산정유공장을 함께 경영하여 한해에 750억원의 순리익금을 짜내고있다.

미제상전의 식민지군사화정책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갈프, 칼렉스를 비롯한 미국석유독점체들의 리윤추구에 발맞추어 박정희괴뢰악당은 남조선경제를 미국독점회사들의 값비싼 석유에 얽매여놓고 막대한 치부를 하고있으며 미제는 남조선의 정유산업을 통하여 엄청난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고있다.

이것은 박정희역적놈이 집권이래 수많은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이고 놈들과 정치경제적으로 결탁하여 악랄하게 감행해온 부정부패의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상전이 던져주는 이른바 《원조》에서도 많은 돈을 떼먹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란 그들의 군사침략정책과 무제한한 략탈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정희매국역적은 《경제부흥》과 《실력배양》의 명목밑에 숱한 《원조》를 끌어들이고있으며 그 대부분을 제놈의 장기집권야망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있다.

박정희매국역적은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달려 더 많은 《원조》를 구걸하고있으며 최근에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적극 추종한 대가로 놈들로부터 800억원을 받아 테로통치유지비와 개인향락에 탕진하였다.

박정희역적놈은 일본 반동지배층, 독점재벌들과도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히 결탁되여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한일협정》체결을 서두르면서 일본상전으로부터 선금으로 5천만딸라를 받아먹었다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역적놈은 1963년 괴뢰대통령《선거》때에도 일본미쯔이재벌로부터 8억딸라이상의 차관을 끌어들여 많은 몫을 《선거자금》과 개인향락에 써먹었으며 미쯔비시독점재벌로부터는 100만딸라를 받아먹었다. 이밖에도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독점재벌들과 공모하여 《삼성재벌밀수사건》, 《한국알루미니움사건》, 《서울지하철사건》등 사기협잡을 수없이 조작하고 막대한 돈을 떼먹었다.

모든 사실은 박정희역적이야말로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려 미일상전들이 던져주는 《원조》를 뜯어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더러운 2중주구이며 최대의 부정축재자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정희매국역적의 부정부패행위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겉으로는 《청렴》과 《결백》을 떠벌이면서 인민대중을 기만하고 제놈은 그 막뒤에서 관권을 휘두르며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결탁하여 음흉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정축재행위를 계속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착취사회에서 국가권력과 독점재벌은 밀접히 결탁되여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주인노릇을 하고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에서 괴뢰정권과 매판자본의 결탁은 더욱 악랄한 형태를 띠고있다. 괴뢰정권의 《특혜》와 《융자》등으로 배를 불리고있는 매판자본가들은 군사파쑈통치의 기둥으로 되고있으며 박정희역적놈을 치부케 하는 지반으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력대의 어느 괴뢰보다도 매판재벌에 더 깊숙이 뿌리를 박고있다. 놈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정희역도는 지난 15년동안 네차례의 괴뢰대통령《선거》에서 2천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썼다. 바로 그것을 섬긴것이 매판자본가들이며 오

을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뒤받침해주고있는것도 매판자본가들인것이다.

남조선피뢰도당과 매판자본가들은 서로 공모하여 시장폭리, 탈세, 밀수 등 온갖 부정과 사기협잡으로 막대한 재부를 긁어모으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의 이른바 《군정》시기의 《4대의혹사건》과 《민정이양》시기의 《3분폭리사건》, 최근 시기의 《금록통상부정대출사건》 등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얼마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분노를 자아낸 《금록통상부정대출사건》에서만 해도 박정희매국역적은 제놈의 졸개를 시켜 74억원을 부정대출하여 수많은 유령회사를 꾸며놓고 사기협잡으로 무려 그 10배에 달하는 돈을 빼냈으며 그것을 해외예금과 유흥비로 탕진하였던것이다.

시장을 독차지하고 폭리를 거두는것은 남조선피뢰도당과 매판자본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치부의 생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꼬리를 물고 벌어졌던 《면사파동》, 《철근파동》, 《유류파동》 등 각종 《물자파동》의 배후에는 피뢰도당과 매판자본가들의 결탁과 롱간이 뒤따랐으며 그때마다 놈들은 막대한 폭리를 거둬들였다.

박정희매국역도가 지금까지 이처럼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고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부정축재한 개인재산은 알려진것만 해도 무려 1천억원이 넘으며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외국의 은행들에 저금한것만도 2천만딸라나 된다고 한다.

추악하기 그지없는 박정희피뢰악당은 부정축재한 돈을 가지고 비밀리에 회사와 호텔 같은것을 경영하면서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있다. 박정희역적놈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뉴욕에 《아리랑하우스》라는 료리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하며 하와이에는 《와이키키리소트》라는 일류급호텔을 경영하고있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의 부정부패행위의 교활성과 악랄성은 그 어떠한 추악한 범죄행위도 아무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이 역적놈은 정치적탐욕과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못하는짓이 없다. 박정희피뢰악당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내맡기고 경제명맥과 리권을 2중으로 팔아먹고도 부족하여 동족의 피와 정조까지 팔아 제놈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인간적죄악을 저지르고있다.

박정희피뢰도당이 집권후 맨 선참으로 착수한 노릇이 인민들에 대한 탄압학살만행과 함께 《이민》과 《유흥관광》책동이였다. 놈들은 《해외이민법》, 《해외개발공사》 등 수많은 노예매매 악법과 기구를 만들어놓고 20여만명의 남조선인민들을 외국 농장주와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였다. 최근 놈들은 1981년까지 100만명의 가난한 남조선인민들을 《이민》의 명목밑에 해외에 종신노예로 팔아넘길 흉책을 꾸미고있다.

박정희매국역도는 어른들뿐아니라 《국제양자》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나어린 소년소녀들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어린이들의 장기까지 팔아먹는 끔찍스러운 범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날 조선사람들이 이역만리 미국하와이에까지 《이민》으로 팔려가 혹사당하고 멸살당한 가슴아픈 력사는 아직도 우리 인민의 기억에 생생하다. 바로 그 원한의 력사, 피의 《이민》력사가 오늘 남조선에서 되풀이되고있는것이다. 실로 박정희피뢰도당이야말로 돈벌이에 눈이 뒤집힌 극악한 매국노이며 20세기의 노예장사군이다.

박정희반역도당은 지어 남조선녀성들을 외래침략자들과 《호색동물》들에게 노리개로 팔아넘기고 그 몸값을 뜯어먹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국가전략기업》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남조선에서 《유흥관광》놀음이 이처럼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성행하고있는것은 박정희피뢰도당의 극도에 달한 기생성

과 부패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것은 또한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놈들의 반동적통치수법에서 출발한것이다.

개인향락과 사치, 부화방탕, 이것은 착취자, 매국역적들의 고유한 속성이며 생활양식이다.

남조선의 력대 어느 괴뢰보다도 반역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해온 박정희괴뢰도당은 사생활도 매우 추잡한 죄악으로 가득차있다. 박정희역적과 특권층들이 호화주택과 《고급료정》, 《유흥장》에서 누리고있는 극단한 사치와 부화방탕은 놈들의 추잡한 사생활의 한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박정희괴뢰도당은 돈벌이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위하여 남조선녀성들에게 무서운 타락과 륜락을 강요하고 수십만의 청장년들을 남부웰남에 미제침략군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개죽음을 당하게 하였으며 제놈의 수욕을 채우며 노리개로 삼던 녀인과 지어는 녀편네까지도 서슴없이 총으로 쏴죽인 극악무쌍한 매국노이며 짐승만도 못한 인간쓰레기이다.

그런데 박정희악당은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서정쇄신》을 위한 《부조리일소》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인민들을 들볶고있다. 놈들의 이러한 소동이 제놈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반감을 무마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과 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려는 허튼수작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모든 사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권세와 탐욕,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범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매국배족과 부정부패의 원흉이며 최대의 흡혈귀라는것을 실증하고 있다.

* *

부정부패의 원흉인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는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역적으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며 놈들의 파쑈통치의 위기를 반영한 필연적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의 력대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왐잡이들이며 자기 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92페지)

나라와 민족을 팔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희생시켜 제놈들의 탐욕적인 배속을 채우는것은 제국주의앞잡이들의 본성이다.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치고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홍정하고 팔아먹지 않은놈이 없으며 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은놈이 없다. 력사적으로 사대매국노들은 민족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쓸어넣고 그 대가로 저들의 안일과 부귀영화만을 추구해왔다.

더우기 상전을 바꾸어가면서 미일제국주의의 충실한 사환군으로서 더러운 명줄을 이어온 박정희괴뢰도당의 안중에는 민족의 운명과 리익이란 털끝만치도 있을수 없다. 사대매국사상이 골수에까지 사무쳐있는 박정희매국도당은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제물로 바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본업으로 삼는 철저한 제국주의식민지괴뢰이며 무지막지한 파쑈교형리이며 만고의 역적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박정희놈으로 말하면 역적의 더러운 피줄을 타고난 매국족속으로서 일본놈의 손탁에서 철저한 친일주구로, 동족을 살해하는 인간백정으로 자랐고 일제의 패망후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의 룩무로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밀고학살한 민족반역자이다. 박정희역도는 미일 두 상전을 업고 민족의 리익이 되는것이라면 모조리 해치고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죄다 반대하면서 매국노의 본성을

철저히 굳혀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박정희괴뢰악당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다못해 또다시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한일협정》에 도장을 찍고 근 반세기에 걸치는 조선인민의 피값이나 다름없는 《대일청구권》을 몇푼의 돈으로 흥정해버렸던것이다. 또한 《어업권》문제도 놈들의 요구대로 처리함으로써 남조선의 100만어민과 300만어촌주민들의 생명선인 황금어장을 일본놈들에게 송두리채 떠넘기고말았다.

지난날 리조말엽의 사대매국역적들이 《을사보호조약》, 《정미칠조약》을 강요한 일제에게 아부굴종하고 나중에는 3천만원에 나라를 팔아넘겼으며 그 《공로》로 일본《천황》으로부터 15만원의 《은사금》을 받아먹었다면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3억딸라로 떠넘긴 《공로》로 1억 3천만딸라의 《정치자금》을 받아먹기까지 하였다. 《을사오적》을 훨씬 릉가할 박정희매국역적만이 오늘도 총칼과 돈으로 인민들을 죽이고 짓누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몇푼의 딸라와 마르크와 일본돈으로 바꾸어 제놈의 권세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할수 있는것이다.

이런 매국역적에게 어찌 한쪼각의 민족적량심인들 있을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주구, 파쑈독재자에게는 정치도 없고 민족도 없고 초보적인 인간의 도의도 없고 오직 매국배족과 부정부패만이 따르기 마련이다.

결국 박정희괴뢰악당이 감행하고있는 매국배족과 부정부패행위는 그놈의 타고난 역적행세의 연장이며 계속이다.

극도에 달한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는 또한 멸망의 막다른골목에 이른 놈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부정부패행위를 혹심하게 하기때문입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파업에 대하여》, 24페지)

반동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것을 반대하여 인민들이 더욱더 완강하게 항거해나서는것은 혁명투쟁발전의 하나의 법칙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괴뢰도당의 민족분렬과 전쟁책동, 전횡과 부정부패행위로 말미암아 인민대중과 괴뢰통치배들사이의 대립과 사회계급적모순은 더욱 심예화되여가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억압착취하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다.

세계정세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미제는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외토리괴뢰가 된 박정희역도는 더는 미제상전을 하늘같이 믿을수 없게 되였으며 끈떨어진 갓모양으로 굴러떨어질 날이 멀지않게 되였다.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군사파쑈통치의 위기,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극도에 달한 부정부패의 중요한 사회정치적배경을 이루고있다. 눈앞에 닥쳐온 제놈의 비참한 말로를 예감한 박정희역적놈은 파쑈《유신》독재를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으며 《정권》을 타고앉아있는 기간 최대한으로 재부를 늘이고 최대한의 안일과 향락을 누리려고 발악하고있다.

요즘 박정희괴뢰도당과 고위특권층 속에서는 제놈들이 부정축재한 막대한 재산을 은밀히 해외에 빼돌리려고 서로 앞을 다투고있으며 《이민》의 명목으로 가족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는 등 갖은 추태가 벌어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엑소더스작전》이라는 암호로 불리우는 《청와대총도피작전》계획까지 짜놓고있다. 이 역적놈은 몇해전에 5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주고 미국에서 개인전용기 《보잉707》까지 사들였으며 언제든지 도망칠수 있게 《청와대》지붕에는 5대의 직승비행기를 대기시켜놓고있다. 지어는 장차 남조선에서 도망친 다음 쓰고살 《코페

아센터》라는 22층짜리 큰 건물을 미국에 사놓고있으며 졸개들을 《밀사》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에 보내여 제놈의 재산을 빼돌릴 《교섭》을 벌리는 한편 유사시에 간편하게 가지고 도망칠것을 타산하여 《청와대》지하실에 10톤의 금괴와 각종 귀중품들을 쌓아놓고있다.

모든 사실이 명백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축재행위와 놈들의 《해외도피》소동은 남조선의 어지러운 사회상과 식민지군사파쑈통치의 위기를 반영하고있으며 그 멸망을 예고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악착스러운 부정부패행위는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고있으며 온갖 사회악을 빚어내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적략탈,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매국배족적책동과 부정부패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의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근로대중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사회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예적인 굴종과 인격적인 멸시, 참을수 없는 빈궁만을 강요당하고있다. 한줌도 못되는 관료배들과 특권층은 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으나 광범한 근로대중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갈수록 가난에 쪼들리고있다. 그리하여 근로하는 사람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격적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것이 돈에 의해 평가되고 돈으로 흥정되고있다.

착취와 억압,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는 민족적인것,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이 짓밟히고 초보적인 인간도덕생활의 규범은 그 흔적마저 찾아볼수 없게 되였으며 패륜과 패덕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극도에 달한 남조선사회의 부패성과 기생성, 이것은 반동적인 남조선사회제도가 빚어낸 필연적산물이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악정과 학정, 부정부패가 가져온 악독한 후과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외세에 빌붙어 민족을 배반하고 인민들을 악랄하게 억압략탈하고있는 흉악한 매국역적이며 남조선천지를 인간생지옥으로,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 인민들을 죽음의 도탄속에 밀어넣고있는 장본인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하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과 놈들의 부정부패행위가 뿌리박고있는 현군사파쑈제도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남조선인민들은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물질적부의 진정한 향유자로 될수 있다.

투쟁만이 참된 삶의 길이며 민족의 통일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하여서만 침략자와 억압자들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새생활을 마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매국역적 박정희괴뢰악당을 타도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무모한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침략자와 매국노들은 결코 오래갈수 없다. 현대력사는 침략자와 독재자, 매국노들의 운명이 피할수 없는 비극으로 끝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준엄한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고 놈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날은 멀지 않아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당한 위업

김 석 진

오늘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대내적으로 혁명적인 사회경제적변혁들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억제하여온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투쟁은 이미 쟁취한 민족적자주권을 국내에서뿐아니라 대외분야에서까지 완전히 실현하여 참으로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럽고 정당한 투쟁이다.

낡은 국제경제관계를 변혁하고 국제경제문제해결의 새로운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것은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지배와 략탈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신흥세력나라인민들과 함께 낡은 국제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 *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현시기 국제관계발전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이며 완전히 성숙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 착취와 략탈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고 평등과 호혜,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9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기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은 3대륙인민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 이 지역의 민족들과 인민들을 마음대로 억압착취하기 위하여 예속적인 국제경제질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았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부당한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세계무역과 국제통화금융 및 운수, 보험 등 여러분야를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였을뿐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저들의 원료공급지, 판매시장, 투자지역으로 전변시키고 막대하게 치부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의 대다수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오늘에도 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공간으로 하여 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고귀한 로동

의 열매를 계속 략탈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현국제경제질서는 무엇보다도 극도의 불평등성으로 특징지어지고있는 가장 불합리한것이다.

현국제경제관계에서 불합리한 무역조건 특히 부등가교환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많이 수출하는 원료와 1차산품의 값은 가장 낮게 정하고 제놈들이 수출하는 공업제품의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설정하여놓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차이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수출하는 공업상품의 평균가격은 1970년을 100으로 볼 때 1975년 1. 4분기에는 187로 올라갔다. 이와는 반대로 신흥세력나라들의 수출품가격은 1974년 한해동안에만도 아연가격은 42%, 동가격은 47%, 고무가격은 57% 각각 떨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부등가교환의 방법으로 저들의 잉여상품을 실현하고 필요한 공업원료의 대부분을 빼앗아감으로써 막대한 치부를 하고있으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는 해마다 큰 손실을 주고있다.

1951～1972년기간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부등가교환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입은 손실액은 실로 1천 222억 6천 900만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현국제경제질서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는 불리한 극히 불평등적인 경제질서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국제경제질서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경제를 말살하고 무제한한 경제적략탈과 팽창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예속적이고 략탈적인 질서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조》요, 《협조》요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과 경제거래를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에 대한 가혹한 략탈과 지배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주는 《원조》는 례외없이 정치적부대조건은 물론 매우 높은 리자를 붙이고있을뿐아니라 그 대부분을 자국의 잉여상품으로 처리하며 그나마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싼값으로 실현하고있다. 그리고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원조》와 차관을 원료와 제품으로 상환받을 때는 그 가격을 세계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정하여 받고있다. 이러한 조건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더 많은 채무를 걸머지지 않을수 없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걸머진 채무액이 1971년에 792억딸라이던것이 1975년말에는 1천 450억딸라로 늘어났다. 지금 적지 않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낡은 빚을 갚기 위하여 새 빚을 지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경제적《원조》가 빚어낸 결과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를 길안내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하고있는 다국적기업은 이 나라들을 더욱 예속적인 처지에 빠뜨린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공업발전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기여든 다국적기업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경제생활에 혼란을 조성하고있으며 투자에 대한 면세조치 등 치외법권적요구를 들이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다국적기업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의 원료와 함께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여 현지에서 상품을 독점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더 크게 치부하고있다. 다국적회사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경제발전을 저애하는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는 이 부당한 경제관계는 지난날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한

경제를 물려받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있다.

현국제경제질서의 부당성은 제국주의자들이 국제경제관계의 중요공간들을 제멋대로 롱간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국제경제기구, 국제통화제도와 같은것들을 리용하여 국제경제관계를 저들의 독점적리윤추구에는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놓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과 무역거래에는 매우 불리하게 여러가지 장벽을 조성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낡은 국제경제질서가 식민주의제도의 산물로서 제국주의의 독점과 략탈, 통제와 억압의 질서이며 철두철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이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로 하여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민족적리익에 맞게 마음대로 쓸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그들의 민족경제건설은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이 불평등하고 략탈적인 국제경제관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없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적진보의 위업을 완수하려는 신흥세력나라인민들에게 있어서 참을수 없는 질곡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이 투쟁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적발전을 지향해나서는 오늘의 시대적추세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국제관계가 소여시대의 국제정치경제적세력관계의 반영인것만큼 종전의 낡은 국제경제관계가 타파되고 그것이 오늘 새로 조성된 국제력량관계에 상응하게 개편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국제경제관계는 세계각국인민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세계인민들의 념원과 의사와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제멋대로 주인행세를 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지배해나가고있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과 민족들이 온갖 형태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발전을 지향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발전추세는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제관계질서도 마땅히 평등과 호혜, 자주성의 원칙,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자연부원과 제반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자주권을 행사하는데 기초한 공정한 질서로 될것을 요구한다.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만이 지난날과 같이 국제경제문제들을 몇몇 크고 발전된 나라들이 제멋대로 처리하거나 다른 나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없애고 신흥세력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적독립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문제토의에 참가할수 있게 하며 국제경제문제들을 그들의 리익과 의사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새사회,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떠선 생기발랄한 혁명력량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자기 손으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

론문헌집》, 98페지)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예속적이고 략탈적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고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수 있는 위력한 담당자들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광대한 지역과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를 망라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반제자주위업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국제무대에 당당히 진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략탈을 짓부시고 국제경제관계를 새롭게 변혁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최근년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원료및개발에 관한 회의, 리마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 유엔총회 제7차특별회의, 제4차유엔무역개발회의들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은 일치한 투쟁으로 국제경제관계에서 전횡을 부려온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갈 일련의 합리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 100여개의 신흥세력나라들이 그들의 공통된 경제적리해관계를 대변하는 《77개국집단》에 망라되여 긴밀한 뉴대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경제적략탈을 반대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싸우고있다. 아랍나라들이 석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벌리고있는 투쟁, 3대륙의 여러곳에서 지역적인 경제협조기구들을 뭇고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적인 략탈에 대처하고있는 사실들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이 날로 심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많은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고있으며 국제경제관계에서는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 의하여 낡은 국제경제질서가 짓부셔지고 평등과 호혜,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전면적으로 확립될 때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의 자연부원에 대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수 있게 되고 그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는 보다 유리한 외부적환경이 마련될것이며 공정한 국제경제협조관계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그것은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저주로운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밑뿌리로부터 끊어버림으로써 그 멸망을 앞당기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이렇듯 국제경제관계의 변혁을 위한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투쟁은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전횡을 끝장내고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워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더욱 촉진시키는 정의로운 위업이다.

*　　*

오늘 신흥세력나라인민들앞에는 국제경제관계의 낡은 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은 발전도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

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파키스탄회교공화국 기자들과 한 담화》, 1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한 투쟁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신흥세력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은 낡은 국제경제관계를 변혁하는데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국제경제관계의 낡은 질서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은 신흥세력나라들과 제국주의사이, 혁명력량과 반혁명사이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신흥세력나라들이 하나의 단결된 혁명력량으로 나가야만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다.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현시기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이 단결된 력량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고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어떻게 하나 이 혁명력량을 분렬리간시켜 각개격파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지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기 위하여 식량과 무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온갖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사이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사소한 리해관계의 차이까지도 크게 떠들어대면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게 하여놓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리간책동에 대하여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면 승리할수 있고 흩어지면 각개격파당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단결을 강화할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에게 굽임없는 강력한 투쟁을 들이대야 한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나 예속과 불평등이 지배하는 국제경제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못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놈들은 국제경제관계개선에 그 무슨 관심이나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백방으로 방해하고있으며 낡은 질서를 완고하게 고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신흥세력나라들이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단결된 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선물》을 받을수 없는것이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오직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관계를 변혁하고 신흥세력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국제경제문제들을 해결해나갈수 있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이 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신흥세력나라들이 저들의 원조없이는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떠들고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그들자신이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처지에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세계의 인구와 령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신흥세력인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그들사이에는 누구를 예속시키고 지배하려거나 남의 리익을 희생시켜 일방적리익만을 취하는것과 같은 일이 있을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나간다면 이 나라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이 강력한 경제적뉴대를 이룩해나갈 때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화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제국주의경제체제의 전면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을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나가는 실천적과정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뗄수 없는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신흥세력나라인민들과 함께 싸워나가는것을 자기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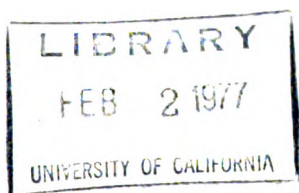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신흥세력인민들은 반드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종국적으로 허물어버리고 완전한 평등, 호혜,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움으로써 착취와 략탈이 없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며 인류력사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이다.

근 로 자 1976년 제9호 (루계 41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 1976년 9월 1일 발 행 • 1976년 9월 5일

ㄱ—65393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第10호(414)

차 례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서른한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새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과 함께 걸어온 보람찬 투쟁의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참다운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주체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고 오랜 기간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생소한 길을 헤쳐오면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우리 당은 오늘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에서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끄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당을 필승불패의 강철의 전투부대로 강화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며 이 땅우에 위대한 변혁을 이룩한 영광의 력사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은 그 당이 어떤 혁명전통을 자기의 력사적뿌리로 삼고있는가에 의하여 중요하게 규정된다.

뿌리가 튼튼하여야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라듯이 풍부한 내용을 담은 고귀한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으며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참다운 혁명전통은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 투쟁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한없이 귀중한 재부로, 주체적혁명력량장성의 력사적뿌리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발휘하는 사상정신적힘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된다. 즉 혁명전통은 장기적이고 간고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전진하도록 명맥을 이어주는 력사적원천으로,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기치밑에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류례없이 어려운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더없이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것이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마련된 업적들과 경험들이라는데 있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주체의 밝은 앞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준엄한 투쟁속에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주체의 혁명전통의 가장 귀중한 내용이며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하고 빛내여야 할 혁명적밑천이다.

또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나 끊임없이 확대되였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혁명업적과 귀중한 투쟁경험이 이룩되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창조하신 이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우리 당은 창건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끝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재부중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는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20여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닦아졌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다오메 공보및민족방향부 연구계획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당을 창건하기에 앞서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이룩하여야 당을 순조롭게 창건할수 있고 창건된 당이 튼튼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새로운 길을 밝히시였으며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

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반영하시여 주체적립장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정력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26년에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으로서 주체형의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 당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자주의 기치밑에 투쟁의 길에 나선 새세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이 빨리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과 그것을 발전시키시여 무으신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몸소 길러내신 새세대의 혁명가들은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이나 종파사대주의가 끝수에 배인 이른바 《혁명가》들과는 전혀 다른 가장 순결하고 참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는 참다운 혁명적골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새세대의 혁명적골간은 주체적혁명력량장성의 기틀로 되였으며 당창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당의 력사적뿌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더욱 억세게 자라나 우리 당과 혁명의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시여 이를 동시에 밀고나가심으로써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훌륭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무장투쟁과 여러가지 반일혁명조직들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검열되고 단련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길러내심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적기초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대오가 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인 혁명로선으로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광범한 반일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시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주체형의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이처럼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닦아졌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주체형

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가장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 불멸의 혁명적재부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당은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때에 자기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을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에로 힘있게 이끄는 필승불패의 강철의 당으로, 인민의 참다운 향도적력량으로 빨리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신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였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창건으로 우리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참다운 혁명의 전위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당이다

당이 어떤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하는것은 그 당의 성격과 사명, 생활력을 규정하는 근본징표로 된다.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옳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4페지)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을 규정하는 근본사상이다.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것은 당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의 창건은 물론 당의 공고발전과 당활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의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과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기초로 삼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점과 태도를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제시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을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참다운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위대성과 전투성, 당의 로선과 정책의 독창성과 창조성의 원천도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있다.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도 주체사상에 철저히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이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확고히 의거하고있는 근본사상이며 그 근본초석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과 활동의 기본요구이며 원칙이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지침으로 할 때만이 당은 자기 대렬을 불패의 위력을 가진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대중을 힘있게 움직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의 사상리론적기초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실현되여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굳게 뭉쳐있는것은 우리 당의 본질적특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8~9페지)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을 밝힌 탁월한 사상이며 당건설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지침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질, 그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울려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된다. 수령은 당을 창건할뿐아니라 당의 지도사상과 투쟁강령,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전당을 령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무기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조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인것만큼 이 무기에다 이런 포탄, 저런 포탄을 마구 쓸수는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로선, 하나의 정책만이 있을뿐이며 두개의 사상, 두개의 로선이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지배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거나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당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기 대렬의 확고한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지배하며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기회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들은 우리 당안에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뿐아니라 당대렬을 확대하고 당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당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시대의 혁명적당건설의 요구를 반영하여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묶어세움으로써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력한 대중적정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적인 대중적당건설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시여 우리 당을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광범히 망라하여 자기 대렬을 확대강화하며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와 긴밀한 련계를 맺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자체발전의 합법칙성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의 참다운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로동계급의 핵심적지위와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적극 받아들여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대중적당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그래야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강력한 혁명적당을 건설할수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한 대중적당을 건설하는것은 당자체발전의 견지에서뿐아니라 오늘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튼튼히 견지하면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당을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건설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은 당활동에서도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구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7페지)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매 시기에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한 수령이 내놓은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여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매 시기마다에 제시하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관철함에 있어서 언제나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과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당사업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람과의 사

업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혁명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그 추동력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힘있고 생활력있는 주체의 대중 령도체계이며 령도방법이다.

이렇듯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가는 가장 힘있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되고있으며 그 찬란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을뿐아니라 그 사명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주체사상의 전면적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는데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의 령봉에서 개척하신 공산주의혁명위업이다. 이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사회, 모든 사람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참다운 공산주의락원을 이 땅에 일떠세우는 영예롭고 숭고한 위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력사적인 진군운동이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해놓은 모든 사회적변혁에 기초하여 새로운 매우 높은 요구와 목표를 내세우고있는 위대한 사회적변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드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여러 단계에 걸치는 장기간의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불멸의 혁명적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타도하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심으로써 그이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신 항일혁명위업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와 조국광복의 실현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은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힘

있게 이끌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에로 곧바로 넘어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전후시기를 사회주의혁명의 가장 적당한 시기로 인정하시고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사회경제관계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이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을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우리 당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도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탈이 아니라 협동화하는 방법으로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전환이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혁명이 빛나게 완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지난날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은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중앙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이 전투적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드팀없이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강철의 의지와 혁명적신념이 차넘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항일혁명위업의 계속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과정은 일찌기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전두에 서신 그때로부터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과정이 시작되였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새 사회를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

하고 그 실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주체사상화과정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렸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맞게 당건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위대한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더욱 세차게 붐어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갈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이 힘있게 관철됨에 따라 우리 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우리 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그 찬연한 빛을 끝없이 뿌리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갈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 당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영원히 변심을 모르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까지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집단으로 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온 나라가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고있으며 이 땅우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과 통성의 시대를 펼쳐놓았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허물수 없는 높은 권위와 신임을 쟁취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빛나게 이끌어 이 땅우에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보람찬 로정이며 온갖 준엄한 시련을 뚫고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온 영광의 로정이다.

* *

영광스러운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만능의 힘을 지닌 강철의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비약과 변혁을 끊임없이 이룩하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더욱 무겁고 어려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통일된 강토우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 어렵고 무거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신을 주체형의 맑은 피가 약동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충성의 위훈탑을 더욱 높이높이 쌓아올려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드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위대한 투쟁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력사적인 사변

강 석 숭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선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조선혁명의 새 진로를 밝혀주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실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반세기에 이르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승리의 력사이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과 기적이 창조된 자랑찬 력사이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몸소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개시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행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기 위하여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페지)

192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조선혁명에서는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혁명투쟁에서 옳은 로선을 채택하는것이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사정과 함께 이 시기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실태와 관련되여 있었다.

1920년대 전반기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정확한 혁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쓰라린 진통을 겪고있었다.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

민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싸움질만 하였으며 실지 혁명투쟁에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었다.

또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자들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할 대신에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뛰여다니면서 파벌투쟁만 일삼고있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운동자들은 이와 같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릴 대신 남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보려는 사대의존의 길로 나갔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이러한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으로 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전개되여왔으나 쓰라린 실패와 수많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었다.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고있던 조선혁명은 피의 교훈만을 부둥켜안고 몸부림칠뿐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있었다.

오직 민족주의운동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이 걸어온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로 나가야만 기울어진 조선혁명을 구원할수 있었으며 줄기차게 발전시킬수 있었다.

20세기 20년대는 조선인민만이 아니라 억눌리고 뜯기우던 식민지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투쟁의 정확한 길을 찾아 헤매고있었으며 운동의 옳은 령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력사의 절박한 요구, 우리 인민과 피압박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시대와 인류의 피타는 부름속에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사상사가 도달한 모든 진보적사상리론들을 깊이 파고드시며 국내외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의 길을 탐색하시였다.

언제나 모든것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였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시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하며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인 투쟁의 길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새롭게 개척하신 자주적인 투쟁의 길은 참으로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조선혁명을 구원하고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는 참다운 혁명의 길이였으며 압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혁명의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롭게 선택하신 혁명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시기 위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을 뭇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조직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은 그 실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조직을 내오며 그를 통하여 혁명을 령도해나간다.

탁월한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혁명조직이 결성되여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조직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조직을 결성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직의 골간으로 될 핵심들을 키워내는것이다. 조직적골간들이 준비되여야 혁명조직을 튼튼한 기초우에서 결성할수 있으며 혁명을 힘있게 떠메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앞으로 내올 혁명조직의 핵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비밀리에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시는 한편 그들을 사상의지적으로 튼튼히 결속하시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새로운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많은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이 순결하고 참신한 새세대의 젊은 공산주의자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그들로써 혁명조직을 뭇기 위한 준비사업이 빈틈없이 갖추어져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1926년 10월 10일 화전에서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회의를 소집하시였으며 10월 17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고 그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첫 혁명적인 전위적조직의 탄생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참다운 혁명적인 전위적조직을 가지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종래의 모든 조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적인 전위적조직이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할것을 자기의 목적과 사명으로 하는 새형의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것을 내세웠으며 최종목적으로 조선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할것을 력사적사명으로 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강령을 내세웠다.

혁명조직이 어떤 투쟁강령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그 조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징표이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정확한 투쟁강령을 내세워야 혁명조직이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종국적목적과 당면한 투쟁과업을 옳게 규정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공산주의적투쟁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투쟁강령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절실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주체적인 투쟁강령이였으며 자주,독립,사회주의,공산주의를 위한 조선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전투적기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정확한 투쟁강령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던 종래의 크고작은 모든 조직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나라의 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주체적인 투쟁강령, 원대한 투쟁목표를 내세운 새형의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그 투쟁강령을 명확히 제시하심으로써 옳은 투쟁강령을 가진 혁명조직이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던 조선혁명은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 혁명의 종국적목적과 당면한 투쟁과업이 밀접히 결합된 명확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힘찬 진군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또한 모든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한 자주적인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정확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혁명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만약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게 되며 결국은 좌왕우왕하면서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

사대주의와 종파주의로 말미암아 혹심한 피해를 입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새롭게 출발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가장 근본적인 립장으로 확고히 견지해나갔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공산주의자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혁명활동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전개하며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이렇듯 자기 주견을 못가지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갈팡질팡하던 종파의 이러저러한 조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자주적인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성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키우신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공산주의자들로 조직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조직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구성하고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보장하는것은 조직의 공고발전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조직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조직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말해주는 심각한 교훈이였다.

1925년에 나왔던 조선공산당은 주로 계급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한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로 구성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있었기때문에 대렬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었으며 일제의 탄압을 이겨낼수 없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 자라난 젊은 공산주의자들로 조직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새로 육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성원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서 나왔으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였다. 그들은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맹세한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새로 자라난 젊은 혁명가들로서 고루한 민족주의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만 숨쉬고 행동하는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참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무대에 동장함을 알리는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되였을뿐아니라 인민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고있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수행할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으며 활동을 개시한 첫날부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은것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그 계급적성격으로 하여 처음부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가지게 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종래의 모든 조직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적인 전위적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5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였다.

그것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혁명의 새시대가 시작되였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첫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오랜 세월 망국의 비운속에서 탁월한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조선인민은 비로소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되면서부터 선행한 민족주의운동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사대의존의 길로 나가던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자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이후시기부터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

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남에게 눌리우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였으며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던 조선혁명은 자주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을 결성하여주심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종래에 발로시켰던 여러가지 제한성과 악페들을 완전히 근절할수 있는 새로운 진정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명확한 목표와 확고부동한 투쟁의 기치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서 힘차게 전진하였다.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에 의하여 새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당의 투쟁목표와 목적, 사명을 밝혀주는 당강령의 원형이 마련되였으며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는 공산주의대렬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을 계기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대렬은 새로운 참신한 력량으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상 질적개선을 가져오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수 있는 근본방향이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형의 당인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내리기 시작하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것이 더욱 억세게 다져졌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제때에 창건될수 있었으며 오늘처럼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인 당으로,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위력한 전위부대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령도는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며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혁명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기관지 《근로자》를 창간하신 때로부터 30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당의 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보외에 리론잡지를 내올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고 몸소 무르익혀오시였다.

당기관지인 정치리론잡지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석선전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전개하여 일반화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사명을 지니고 1946년 10월 25일에 창간되였다.

《근로자》의 창간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과 함께 정치리론잡지 《근로자》가 창간됨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전투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잡지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출판물이며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적출판활동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으며 혁명적출판보도물에 관한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간하신 신문 《새날》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잡지 《3.1월간》을 비롯하여 《서광》, 《종소리》 등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고 이끄시는 행정에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시고 키워오신 이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에서 태여나고 그것을 직접 계승하고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적출판물로 자랑높은 것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은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왔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전체 인민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인민대중의 친근한 벗으로 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혁명의 나팔수로서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조국보위의 성전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수행하는 어려운 시기 언제나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창조와 변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 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불러일으키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기관지 《근로자》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걸어온 이 영광의 로정에서 언제나 당과 함께 숨쉬며 전진하여왔다.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킴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리론수준이 높아지고있는 커다란 성과에는 당리론선전사업의 일환을 맡고있는 《근로자》의 업적이 깃들어있다.

당기관지인 정치리론잡지 《근로자》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적으로 하여 권위있는 혁명적출판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보와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의 제호를 손수 달아주시고 그 편집 방향과 내용, 문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우리 기자, 편집원들을 끝없이 고무하여주시였으며 몸소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출판보도리론으로 당적출판보도물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에 관한 사상을 철저히 고수하고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혁명적실천에 맞게 심화발전시켰을뿐아니라 출판보도활동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위대한 출판보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은 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각이한 단계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행동강령이다.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맡겨진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적출판보도물을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훌륭히 구현된 혁명적출판물로 강화발전

시키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출판물에서 당성이 완전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그 대중성과 인민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음으로써 출판물들의 진실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입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80페지)

계급투쟁의 힘있는 무기인 출판보도물은 언제나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며 그에 복무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목적과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으며 철두철미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전파하며 그를 빛나게 실현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이 당적출판보도물은 로동계급의 당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적출판보도물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몸소 출판보도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이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오직 주체의 혈통만을 이어나가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면서 당적출판보도물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공산주의적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임에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와 그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하신 일련의 력사적인 연설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들에서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그 정당성, 주체확립의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당사상사업과 출판보도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가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출판보도사업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당의 목소리를 온 누리에 높이 울리는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은 주체의 혁명적출판물로 장성발전할수 있었다.

실로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갈피마다에는 당적출판보도물을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심혈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기자, 편집원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을 베풀어주시고 그들을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필전사로 키우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 편집원들에게 시대의 선단을 걸으면서 당정책을 언제히 옹호하고 널리 전파하는 정치활동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주시고 그들을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세워주시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적출판보도물의 편집

방향과 내용을 몸소 가르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심으로써 우리 기자, 편집원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글을 쓰고 편집하며 우리 당 출판보도물에 언제나 당의 숨결이 세차게 맥박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 편집원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으며 기자, 편집원들이 당적출판보도물 발간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붓도록 끝없이 고무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자, 편집원들을 이처럼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끝없는 지혜와 지칠줄 모르는 힘을 안겨주시기에 그들은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믿고 따랐으며 혁명의 필봉으로 수령님과 당을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문필전사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잡지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와 잇닿아있다.

당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성격과 사명을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결부하여 새롭게 밝혀주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맞게 출판보도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오늘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출판보도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이렇듯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이 걸어온 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로 성장해온 영광의 로정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당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있는 발전하는 현실은 잡지 《근로자》와 모든 당적출판보도물앞에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리론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워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제기하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나가고있다.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당적출판보도물을 더 훌륭히 발간하는것은 우리 출판보도일군들앞에 나선 가장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을 맡아선 당적출판보도물들이 선전선동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 사상사업이 들끓을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적출판보도물들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몸에 주체형의 피가 끓어번지는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당적출판보도물앞에 나

서는 주되는 임무로 된다.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출판보도사업을 철두철미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모를 박고 벌려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있게 론증하며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꾸준하고 실속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한결같이 수령님을 진심으로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준비시키는것이다.

대중을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그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떨어져서는 옳바로 수행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소유하여야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반동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사상사업방향에 따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을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며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특히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된 조건에서 모든 당적출판보도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배양하고 옳바른 전쟁관점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용감히 뚫고나가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 성전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도록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당적출판보도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틀어쥐고 출판보도사업을 진공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충성의 대오, 불패의 혁명대오로 굳게 다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위력한 사상적무기, 전투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9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우리의 당

적출판보도물의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

모든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속도전에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대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 선전교양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기본전략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 우리 당의 경제건설정책들을 리론적으로 해설선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건설의 실천투쟁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우에 더 빨리 실현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당적출판보도물앞에 나서고 있는 영예로운 과업이다.

우리의 모든 당적출판보도물들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범죄적인 민족분렬정책을 낱낱이 발가놓고 준렬히 단죄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반파쑈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에 실리는 모든 론설, 사설, 기사, 정론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력사의 심판대에 제소하는 힘있는 고소장으로, 인민대중을 반미구국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세계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대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여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당적출판보도물앞에 나선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의 원칙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당의 제도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이 영원히 주체의 혁통을 빛나게 이어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설선전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당적출판보도물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는것이다.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기자, 편집원들이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되여야 당의 사상선전사업이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바로될수 있으며 대중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고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사업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

모든 기자, 편집원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이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출판보도일군들은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온몸에 언제나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번지게 해야 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출판보도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과정이야말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고 충성의 열도를 검열받는 보람찬 과정이다. 기자, 편집원들은 혁명적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강화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정력적인 문필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근위대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기자, 편집원들이 문필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기자, 편집원들이 누구보다도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론리정연하게 해설하는 글을 써내야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더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모든 출판보도일군들은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두가 열렬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환하게 통달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깊이 알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때만이 우리 기자, 편집원들이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로서의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으며 출판보도사업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생기발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속에서 당의 문필전사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출판보도사업에 몸과 마음 다 바쳐 일하는 우리 기자, 편집원들의 긍지와 영예는 끝이 없다.

모든 당적출판보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당적출판보도물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는 불멸의 사상

한 희 호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류의 해방위업수행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은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인민대중이 가장 옳은 립장과 방법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위대한 결실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옳바른 혁명적세계관과 혁명리론, 전략전술과 함께 과학적인 혁명의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우리 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줍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옳바른 지도사상으로 되자면 과학적인 혁명적세계관과 그에 기초하여 밝혀진 혁명의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옳은 방법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중요구성부분이다.

혁명의 방법론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편향없이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의 방법에 관한 리론의 전일적체계이다. 다시말하여 혁명의 방법론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혁명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태도,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의 방법에 관한 리론이다.

혁명의 방법론을 바로 세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정확히 해결하는것이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은 혁명의 방법론의 가장 주되는 내용을 이루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옳은 립장과 방법을 가져야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를 끝까지 관철할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있어도 그 실현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다면 혁명에서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옳게 밝히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혁해나가는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 옳은 혁명의 방법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주인된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립장과 근본방법,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합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요구는 세계의 면모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주체사상의 가장 옳바른 견해로부터 흘러나온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투쟁에서 어떤 립장과 방법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현실세계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철학적견해에 따라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의 면모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었으며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고 세계의 변화발전을 사람의 결정적역할의 견지에서 보는 새로운 립장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고 세계의 변화발전을 사람의 결정적역할의 견지에서 볼데 대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밝혀주는 립장과 방법은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저절로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노릇을 제대로 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그가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확고히 가질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옳게 지킬수 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가장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립장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투쟁의 본질과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입니다. 근로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일뿐아니라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립장과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과 그 활동의 위력을 가장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립장과 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자연의 생활환경에 본능적으로 순응하는 동물과는 달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된다. 자주적립장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의 생명이며 근본속성인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립장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실천활동에서 불패의 위력을 나타낸다.

사람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을 가지고있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의 모든 활동의 위력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에 중요한 원천을 두고있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 창조적인 존재이기때문에 행동하기에 앞서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고 그 결과를 예상하며 객관세계의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한다.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이러한 창조적본성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립장으로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립장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담당자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한 립장과 방법임으로 하여 근로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으로 되며 모든 혁명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옳은 립장과 방법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 관료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언제나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그리고 자기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관점을 가지며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에 대한 옳은 태도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주인된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어떤 인민도 남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활동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옳게 처리하고 풀어나갈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확고한 독자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대주의를 하면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없게 될뿐아니라 원칙성과 일관성이 없이 남을 덮어놓고 따라가 나중에는 옳고그른것을 가리지 못하고 온갖 편향을 다 범하게 된다.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문제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주적립장이야말로 로동계급의 립장을 철저히 지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립장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지켜야 할 근본립장으로 된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대하며 자기 나라의 현실과 자기 인민의 투쟁경험에 튼튼히 의거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에 대하여 비판적태도를 가져야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특히 자기 나라의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모든 로선과 정책의 과학성과 혁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만일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따른다면 현실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없을뿐아니라 인민대중과 리탈되여 그들의 역할을 높일수 없게 되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오직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주인된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다.

교조주의와 함께 주관주의, 관료주의 등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주인된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관주의, 관료주의 등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창조적열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노릇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의 하나이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억제하는 주관주의, 관료주의 등을 철저히 극복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높이 발휘하게 한다. 따라서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속에 들어가 제기된 모든 문제를 대중과 같이 토의하고 해결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창조적립장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고와 혁명적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또한 우리 시대의 근본특징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인민대중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립장과 방법이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근본특징이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각과 열의가 오늘처럼 높아진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우리 시대처럼 강화된 때는 있어본적이 없다.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요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나서는 선결문제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기초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우리 시대가 제기한 이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을 밝혀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다그쳐질것이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인류해방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힘차게 벌어질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중요한 특징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나라 내부의 주체적혁명력량에 있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된다.

자기 나라 혁명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주체이며 따라서 자기 나라 혁명을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의 중심에 놓는것은 매개 나라 당과 혁명하는 사람들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만일 혁명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도외시하거나 부차시하고 민족적임무를 떠난 그 어떤 국제적임무만 내세운다면 자기의 기본

임무로부터 물러서게 되며 결국 시대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없게 된다.

오직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이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시대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야말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여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근본립장, 근본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주인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로동계급의 당과 근로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완벽하게 밝혀줌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에 관한 리해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왔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그들이 주인된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립장과 방법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근본립장, 근본방법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 혁명의 옳은 방법론을 가지게 되였다.

2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과 건설의 근본립장, 근본방법인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정책과 로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그들자신이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5페지)

우리 당이 걸어온 력사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찬란한 승리와 성과들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함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

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중한 문제이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발전방향과 수행방도를 제시할수 있고 그 관철에서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한 독자적인 정책만이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수립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하는 문제는 결국 혁명과 건설을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가는가 이끌어가지 못하는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드는가 만들지 못하는가,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사회계급적관계,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와 요구, 우리 인민의 리익과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철두철미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사회주의혁명로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 등 당의 모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낳은 위대한 열매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한 빛나는 본보기이며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는 힘있는 증거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 혁명의 옳바른 발전방향과 수행방도를 밝혀주는 라침판으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명확한 전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으며 또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독자적으로 규정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것만큼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파악되고 그들의 실천투쟁에서 산 지침으로 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물질적힘으로 나타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마땅히 인민대중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하며 그들속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세우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당의 대중령도에 관한 혁명적인 방법과 형태를 창조하심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에 대한 혁명적인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청산

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대중적인 대전군운동인 천리마운동 등은 대중에 대한 당의 옳은 령도를 실현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대중령도의 훌륭한 형태이며 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령도의 훌륭한 형태와 방법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몸소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때마다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속에 들어가시여 대중과 마주앉아 애로를 타개하며 혁신을 일으킬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시고 찾으시였다. 이 과정에 당의 의도와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하나로 굳게 결합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낳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 및 국가 사업 전반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새로운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고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운동이 세차게 일어남으로써 당의 정책이 대중속에 제때에 철저히 침투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기풍이 튼튼히 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혁신운동이 세차게 벌어짐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은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다.

특히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혁명적방침따라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빛나게 구현하여 발전시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세차게 벌림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 변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최대한으로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그 결과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일찌기 없었던 혁명적비약이 이룩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인민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원칙적인 사상투쟁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그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마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관철할수 없게 하는 사상적장애물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는 한편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반동적본질과 표현형태, 그 해독성과 극복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상해방의 힘있는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모든 문제해결에서 자체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우리 당이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

로써 우리 당의 력사, 우리 혁명의 력사를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력사로 만드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남들이 수세기에 걸쳐서도 하지 못한 거창한 혁명과업을 짧은 기간에 아무런 편향없이 승리적으로 수행한 세계사적업적으로서 빛나고있다.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이룩해놓은 사회의 혁명적개조는 그 폭과 내용, 심도에 있어서 전례없이 거창하고 심각한것이며 혁명과 건설의 전로정은 그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생소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할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바로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았으며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간데 있다.

우리 당의 력사는 국제혁명운동력사에서 류례를 찾을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한 세기적인 위훈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은 혁명과 건설의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 전술에 대한 요구를 절박하게 제기하였다. 다른 당의 투쟁경험이나 방법을 가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느 한 문제도 풀어나갈수 없었으며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혁명앞에 가로놓인 어느 하나의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없었다.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 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견결히 관철하였고 주체의 방법론의 요구대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으로 틀어쥐였기때문에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오늘의 승리에로 이끌수 있었다.

우리 당의 력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국제혁명운동발전에 끝없이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하여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당이 이룩한 풍부한 경험들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근본문제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태도와 립장을 가질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가 있을뿐이다.

사상전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힘있는 수단

조 세 웅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현시기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무거운 임무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악당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그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이 긴박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일군들로 하여금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만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쳐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또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거창한 사회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현실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3대혁명수행에서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오늘과 같이 긴장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끄떡없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할수 있다.

당중앙은 이러한 현실적요구로부터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만 일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 *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세우는데서 사상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상전은 일군들에게 혁명적인 세계

관, 옳바른 사상관점을 세워주며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뽑고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 방법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사상전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그것이 일군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수 없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9페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사상의 표현이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는 그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문제가 아니라 사상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사상의 표현인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은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이러저러하게 나타난다.

위대한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가질 때 일군들은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으로 일해나갈수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주체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이며 사람이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라야만 참말로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으로 일해나갈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군들속에 인민대중을 천시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는 부르죠아사상잔재가 남아있을 때에는 당세도, 관료주의, 행정식방법을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 사업작풍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부르죠아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그 기초에 놓여있는 사상관점, 사고방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혀준 사상전은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사상개조의 특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방침으로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포괄하고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는 심각한 사상투쟁과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상교양과정을 거쳐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된다.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들이대야 새로운 선진사상이 잘 들어갈수 있으며 새로운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낡은 사상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일적과정속에서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상전의 본질적특성이며 기본내용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를 위한 필수적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통일적과정으로서 사상의식령역에서의 하나의 혁명이며 근본적인 변혁과정이다. 일군들을 혁명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사상전을 힘있게 들이대야 한다.

사상전은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혁명적이며 반인민적인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세차게 들이대고 그들에게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완강한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일군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킨다.

그러므로 일군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소유한 일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군들속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전은 이처럼 사상의식발전과 인간개조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속에서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도록 하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진 일군으로 만드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데서 사상전이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 전개방법이 전투적이며 진공적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밝힌 사상전의 전개방법은 속도전의 원칙을 사상사업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그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전투적으로,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가장 빨리, 가장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은 사상전의 혁명적전개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혁명적으로, 가장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의식개조방법으로 된다.

일군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일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을 늘이는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게 된다. 그것은 이 사업이 일군들의 머리속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내려오면서 뿌리박힌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고 불멸의 주체사상과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뿌리빼는것은 전투적이며 진공적인 전개방법을 요구한다.

오늘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생긴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굳어진것이다.

원래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등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인 사업작풍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우리 당에는 한때 사대주의에 물젖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앉아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퍼뜨려놓았다.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일할 대신 당세도, 관료주의, 행정식방법 등 낡은 사업 방법

과 작풍으로 일해왔다. 그리하여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퍼뜨려놓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내려오는 과정에 굳어지고 습성화되였다.

고질화되고 만성화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전격적이고도 진공적인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들이대지 않으면 안된다. 전격적이고 진공적인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서만 일군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잔재와 그에 기초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빠른 시일안에 밑뿌리채 뽑아버릴수 있으며 그것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수 없게 할수 있다.

전격전, 집중적인 사상공세, 섬멸전의 방법은 사상사업의 요구와 의식개조의 특성에 맞게 모든 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게 함으로써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장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게 한다. 다시말하여 사상전의 혁명적전개방법은 혁명과 건설에 제동기를 거는 낡은 사상과 그 표현인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는데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면팔방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진공적으로 들이대게 함으로써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빠른 시일안에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게 한다.

이와 같이 사상전은 그 전개방법이 전투적이며 진공적인것으로 하여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뿌리뽑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 *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29페지)

당세도,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방법 등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혁명과 건설의 이모저모에서 우리의 힘있는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일군들이 만일 자기를 특출한 존재로 여기면서 세도를 쓰고 행세를 하며 대중의 창발적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현실속에 깊이 침투할 대신 잡다한 문서놀음에 매달려 제기된 사업을 계단식으로 아래에 내리먹이거나 제기된 문제를 깊이 연구할 대신 즉흥적으로 결론하여 망탕 처리한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없으며 당과 인민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와 같은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은 그것이 비록 자그마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미치는 후과는 엄중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전은 당세도,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방법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중요과녁으로 하고 여기에 투쟁의 예봉을 돌림으로써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 두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

는 충실성, 이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결정적담보이며 힘의 원천이다.

현실생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높은 일군은 어김없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하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함께 숨쉬면서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훌륭히 풀어나가고 있으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는 인연이 없는 당세도,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방법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려는 충성의 열도가 부족한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다.

그러므로 사상전은 마땅히 일군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더욱 높이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서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일군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전의 목적은 일군들을 온갖 재래식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모든 일군들을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간고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지하혁명투쟁과 무장투쟁,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면서 몸소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가장 세련되고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에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여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다 주어져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로동계급의 참된 사업방법의 집대성이며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사상전의 용광로속에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불살라버리고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으로 자기자신을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일군들이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대중을 능숙하게 이끌어 맡겨진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낼수 있는 담보가 있다.

사상전을 벌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당내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내민주주의를 발양시키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대중이 창발적의견들을 대담하게 제기할수 있는 실질적조건을 지어주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530페지)

당안의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당안의 민주주의를 발양시키지 않고서는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없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없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전에서 당안의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여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말하게 해야 일군들이 자기의 결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사업을 바로해나갈수 있다.

당원대중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실천활동으로 관철하는 사람들이기때문에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나타나는 결함의 본질과 그 해독성, 후과에 대하여 제일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당안의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하여 당원들이 누구나 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결함을 가지고있는 일군들에 대하여 원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하게 함으로써 일군들이 자기의 결함과 부족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군들은 당원대중의 비판과 창발적의견들을 허심하게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일군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 과오를 범할수 있으며 비판을 받을수도 있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일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것인것만큼 일군들은 비판받는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비판을 받기 싫어하거나 비판된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분발할 대신에 비판을 좀 받았다 하여 우울해지고 맥을 놓는 일군은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자신의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고쳐나갈수 없으며 격동적인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동지들의 비판을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가진 혁명의 참다운 지휘성원으로 준비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사상정신적보약으로 여기고 그것이 비록 일시적으로 쓰고 아프다 하더라도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투쟁속에서 대담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옳바른 지도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전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사업방법, 사업작풍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사상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당원들의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생활총화제도를 강화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당생활총화회의에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한 문제를 기본으로 토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조직들은 사상전에서 아무러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통제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비판을 받은 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비판을 받았거나 과오를 범한 일군들에게 더 자주 접근하여 그들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상전이 참말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으로 되게 하며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중앙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몽땅 받아안고 그대로 구현해나가는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리 재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화발전하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본질적요구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혁명임무 그리고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원리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 *

원리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심오한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리론과 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위대한 사상이며 여기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주는 혁명의 근본원리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소유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할수 있다.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원래 당사상사업의 근본요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당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교양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선전사업이란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리론으로 교양하며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4페지)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결코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힘있는 존재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인이 되고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사상사업은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원리교양은 당사상사업의 이러한 목적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원리교양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관점과 태도, 립장과 방법을 가지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수 있으며 모든 사물과 현상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할수 있다.

원리교양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리교양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가질수 있으며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확신하고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 락관과 신심에 넘쳐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원리교양은 또한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로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혁명가적정신을 소유할수 있게 한다.

원리교양을 강화할 때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매개 혁명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 전략전술적원칙들을 똑똑히 알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훌륭히 체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살며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이와 같이 원리교양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사업의 기본내용의 하나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임무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를 철저히 보장해나가는 사회적개조과정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진행하여온 사회적개조과정에 비할바없이 높은 요구를 담고있는 어려운 사업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전례없는 넓이와 깊이를 가진 심각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규정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사상사업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킬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자면 그들의 온몸에 주체형의 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살수도 없고 투쟁할수도 없으며 전진할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원리교양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집행자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리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깊이 체득시켜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철석같은 의지로 삼고 오직 수령님의 사상대로만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할수 있다.

원리교양을 강화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킬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게 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우리 당 사상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로골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긴장되고있는 현정세하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나라에는 극도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미 전쟁준비를 끝내고 직접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극히 모험적인 단계에로 넘어가고있다. 놈들의 무모하고도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정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할 때 그들이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끗끗이 싸워나갈수 있으며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놈들을 단매에 때려부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참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근본요구로 나서고있다.

* *

우리 혁명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원리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강화하여나가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 여기에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그리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원리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또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근본 방향과 요구,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깊이 체득할 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시키기 위한 사업을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그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떨어져서는 옳바로 수행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지키게 할수 있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또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할수 있다.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옳바른 전쟁관점을 세우도록 하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평화에 대한 조그마한 환상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혁명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구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사회주의, 공산

주의 사회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을 깊이 파악시킴으로써 그들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원리교양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이란 무엇이고 왜 로동을 해야 하는가를 진심으로 깊이 깨닫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수 있으며 로동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원리교양은 과학적이며 옳은 방법론에 의거하여 진행될 때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수 있으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오랜 기간 참을성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세심한 연구와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2페지)

원래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어떤 사업이나 할것없이 그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옳게 서야 한다. 아무리 사업내용이 명백히 세워졌다 하더라도 방법론이 옳게 서지 않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수 없다.

그러므로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따라서 원리교양도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진행될 때 보다 실속있는것으로 될수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원리교양의 위력한 방법은 혁명의 원리를 하나하나 리치적으로 깨우쳐주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리치적으로 깨우쳐주는 방법은 호소적방법에 비하여 해당한 문제에 대한 본질을 깊이 체득시키는 우월한 방법으로 된다. 이 교양방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인식시켜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리치적으로 깨우치는 방법을 여러가지 형식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원리적으로 가르치는데서 론리성을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된다. 론리성이 보장되여야 인식시키려고 하는 내용의 본질을 명료하고 똑똑하게 줄수 있고 따라서 원리교양이 목적하는 성과를 원만히 달성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원리교양은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원리교양은 혁명실천과 결부되여 진행될 때 보다 생동하고 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과 결부하여 원리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론쟁은 원리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론쟁을 거듭하는 과정에 우리는 해당한 문제의 본질을 리론적으로 더욱 깊이 파악할수 있게 되며 확고한 주견을 세울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맹렬한 론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옳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원리교양을 보

다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듯 원리교양을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옳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선전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전간부들의 구성을 개선하며 그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8페지)

우리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원리교양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원리교양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는 일군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원리교양사업을 잘하기 위한 옳은 대책과 방도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를 직접 맡아보는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낮으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원리교양이 참말로 실속있게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의 일군들은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로작, 모든 교시들을 다 환하게 통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보다 몇배, 몇십배 넓고 깊이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리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임무와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보다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훌륭히 키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축성하는것은 주체공업건설의 근본방도

김 철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공업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공업을 일떠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공업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주체공업건설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을 건설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지난날의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제발로 걸어가는 위력하고 생활력이 강한 현대적중공업과 발전된 경공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자주, 자립, 자위의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주되는 성과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어버이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주체공업건설방침의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살을 붙이는 일을 계속하여 약한 부문들은 보강하고 없는 부문들은 갖추어 공업을 빨리 완비하는 한편 우리 나라 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이상을 자체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47페지)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을 건설한다는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공업을 일떠세우고 그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으로 되려면 모든 공업부문들의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자기 나라의 과학기술과 자체의 튼튼한 물질생산적토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개별적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부문들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초원료생산기지와 가공 및 합성원료생산기지를 꾸려놓으며 자체의 튼튼한 생산기술적토대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빨리 발전하는 공업을 일떠세워야 주체공업을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공업만이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받지 않고 제발로 튼튼히 서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위력한 주체공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공업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는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자기 나라의 전

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자원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공업건설의 본질적요구로부터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필요한 원료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원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원료를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면 공업이 안전하게 발전할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라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국내의 자원에 의거하여 공업을 건설하여야만 공업부문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립적공업을 빨리 건설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체의 원료를 해결하는 정도는 공업의 주체성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료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무엇보다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쌓게 된다.

매개 나라마다 혁명발전단계와 력사적환경, 제기된 혁명과업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매개 나라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을 이루는 공업부문에서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되여야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을수 있다.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료, 기술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여야 경제를 안전하고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할수 있다. 또한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자금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다.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료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원료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사회경제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풍부한 자원을 강도적으로 략탈하는 방법으로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해결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원료생산은 자본가들의 리윤획득에 철저히 복종되여있다. 독점자본가들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가 식민지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 눅거리로 빼앗아오는것보다 더 비싸기때문에 자체로 자원을 개발할 대신에 해외에서 략탈해오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게 된다.

독점자본가들은 국내자원을 개발하는것이 수지가 맞는 경우에도 자연부원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이 아니라 코앞의 고률리윤만을 추구하면서 망탕 개발한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연부원이 전망적인 계획밑에 합리적으로 개발될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원개발이 자연발생적일뿐아니라 가지고있는 원료, 연료들도 마구 랑비하게 된다. 원료의 리용이 개별적자본가들의 리윤획득에 복종되기때문에 전 사회의 리익에 맞게 원료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되며 군수생산을 비롯하여 경제발전과 하등의 인연이 없는 부문에 막대한 원료

를 탕진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가들을 원료략탈에 더욱 발벗고나서게 한다.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 제도의 본성으로부터 자본주의적방법으로 원료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원료문제를 풀고 주체가 선 공업을 일떠세울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자연부원의 개발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에 확고히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한 주체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 더우기 많은 나라들이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투쟁하며 중요 가공공업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조건하에서 그 어느 나라도 오래동안 원료공급지대 또는 농업지대로 남아있을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들은 나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건설행정에서 국내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축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자체의 자원에 튼튼히 의거한 주체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봉쇄 정책을 성과있게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어디까지나 자체의 자원에 기초하여 공업을 건설하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여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71폐지)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봉쇄 정책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

주체공업을 건설하여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을 가져야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자주성의 원칙에서 평등하게 맺을수 있다.

뿐만아니라 어떠한 복잡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혼란도 없이 경제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더우기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이 심각한 원료난, 연료난을 겪고있으며 파국적인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외부적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매개 나라가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원료, 연료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한 주체공업을 건설한다고 하여 결코 문을 닫아매고 필요한 모든 원료들을 다 자체로 생산보장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자원이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현대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수많은 원료, 연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국내산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나라는 없으며 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내부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는것은 주체공업 건설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나라마다 자연경제적조건이 다르고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다르며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품종과 량도 같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나라들은 유무상통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협조하

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매개 나라가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거나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수 없는것은 대외무역을 통하여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한 주체공업을 건설하며 다른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협조를 강화할수 있다.

이와 같이 자체의 원료에 튼튼히 의거하여 발전할수 있도록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공업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체의 원료기지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원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공업부문이 다 우리 나라의 원료자원에 튼튼히 의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22페지)

현대적공업과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여러가지 시초원료와 가공원료, 합금 및 합성원자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현대적공업과 과학기술 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채취공업과 1차가공공업부문들을 다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도록 시초원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워야 공업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옳은 균형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시초원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초원료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자연부원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이룬다. 자연부원이 제한되여있는 나라들에서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한 주체공업을 건설하는것은 자연부원이 풍부한 나라에 비하여 어렵고 힘든 일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자원이 적은 나라라 하여 원료문제를 자체로 풀고 주체공업을 건설하는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매장되여있는 모든 자원이 탐사발견된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탐사개발되지 않고있는 자원이 많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가 자연부원을 적극 탐사하고 개발한다면 주체공업건설을 위한 원료원천을 더 많이 조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채취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방침은 공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을수 있게 하는 옳바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공업건설을 위한 원료원천을 더 많이 조성하고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나라의 자원을 확고한 전망밑에 계획적으로 개발리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전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주체공업건설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전문적인 지질탐사기관들을 조직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와 기술력량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광범한 군중의 힘에 의

거하여 지질탐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질탐사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채취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 늘이며 기술혁명과 과학연구사업을 추진시키는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 자원을 찾아내고 없는 자원은 있는 자원으로 대용하며 자기 나라에 있는 원료원천을 동원리용하여 주체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모자라는 자원은 더 찾아내고 없는 자원은 있는 자원으로 바꾸어쓰는것, 이것은 원료문제해결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확고히 구현한것으로서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요 추세를 반영하고있는 현명한 방침이다.

현대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자연부원을 더욱더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새로운 원료와 자재를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옳게 리용한다면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대과학기술발전이 열어놓은 가능성에 의거하여 화학적방법으로 합성원료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연탄과 석회석과 같은 우리 나라의 원료들을 쓰는 화학공업부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자연원료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여러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원료, 연료를 쓰는 부문들에서 그것을 적게 쓰거나 국내산으로 바꾸어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콕스탄, 원유, 생고무를 비롯한 일부 공업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따라서 이것을 적게 쓰거나 자체생산으로 전환하는것은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하여 국내산원자재들을 적극 쓰도록 하는 한편 수입원자재와 국내산원자재를 배합하여 쓰며 점차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의 배합비률을 높이는 등 수입원료를 적게 쓰며 극력 절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료 및 기술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시초원료생산기지와 합성원료생산기지를 꾸리며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자기 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제적파동이 일어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전진할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7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

채공업건설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채굴공업기지를 마련하여놓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채취공업발전을 위한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원료, 연료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였다.

무엇보다 지질조사 및 반굴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채취공업의 선행공정인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 없다고 하던 여러가지 광물자원들이 새로 발견되였으며 매장량이 더는 없다고 하던 곳에서도 철광석을 비롯한 수많은 시초원료자원들을 더 많이 찾아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채취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부문의 생산이 더 빨리 늘어날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취하신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있던 탄광, 광산들이 현대적기술로 개선확장되였으며 수많은 대규모광산이 새로 개발되고 수백만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대규모선광장들이 도처에 일떠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는 채취공업부문에서 품위가 높은 광석뿐아니라 품위가 낮은 광석까지 다 캐내며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며 이를 위하여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자체의 자립적인 시초원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합성원료생산을 늘이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화학적방법으로 합성원료를 생산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섬유원료를 자체로 해결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기때문에 알곡생산에 그 대부분을 돌려야 하며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목화가 잘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자연조건에만 빙자하면서 섬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면 자기 나라 원료에 발을 튼튼히 붙인 방직공업을 세울수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날론섬유생산을 공업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원료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화학적방법으로 섬유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과학기술적성과에 토대하여 처음에는 2만톤능력의 현대적인 대규모비날론공장을 세웠고 그다음에는 그 능력을 5만톤이상으로 확대하여 현대적인 대비날론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비날론과 함께 갈과 강냉이대로 화학섬유를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해냄으로써 섬유문제를 농산원료로서가 아니라 공업적방법으로 완전히 풀수 있게 되였으며 입는 문제를 국내산원료를 가지고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입원료를 적게 쓰거나 국내산원료로 대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중공업, 경공업 원료들을 국내원료로 대용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날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가지 제품들을 국내의 풍부한 카바이드를 가지고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화학공업과 화력발전소도 원유를 사다가 하는것이 아니라 국내에 풍부한 원료, 연료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국내의 튼튼한 자체의 원료생산기지가 창설강화되는 행정에서 공업원료구성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

였다. 시초원료생산이 빨리 늘어나고 그 종류가 다양해진것과 함께 특히 값싸고 질좋은 합성원료와 가공원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시초원료생산을 빨리 늘이며 모자라는 자원은 더 찾아내여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없는것은 있는 자원으로 대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제발로 걸어갈수 있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을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확고히 발전하는 위력한 주체공업으로, 그 어떤 세계적인 원료위기와 연료위기, 경제파동의 영향도 받지 않고 빨리 발전하는 생활력이 강한 공업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은 지난 기간 두 차례의 혹심한 파괴를 입었고 두 차례의 복구기를 거쳤으며 여기에 10년이상의 기간을 허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빨리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생산은 1957~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기간에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1970년에는 그것이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세계적으로 원료위기, 연료위기가 휩쓸고 경제파동이 극심했던 최근년간에도 우리 나라의 공업은 계속 빨리 장성하였다.

공업부문에서 6개년계획은 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상 앞당겨 1975년 8월에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그 기간에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는 6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14%를 훨씬 릉가하여 18.4%에 이르렀으며 공업총생산액은 2.2배로 늘어났다.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많은 자금과 로력을 들여 건설한 주체공업은 오늘 다면적으로 발전된 위력한 사회주의공업으로 전변되였으며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발양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료, 연료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며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채취공업부문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굴진과 박토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며 설비의 대형화, 고속도화를 다그침으로써 원료, 연료의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는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설비와 자재, 자금과 로력을 더욱 아껴쓰면서도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원료, 연료 생산을 맡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위업과 자주적조국통일을 앞당겨나아가자.

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통일과 민족적번영의 혁명적기치

김 건 환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조국통일위업은 미제의 식민지예속으로부터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함으로써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자유와 행복,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력사적위업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서만 빛나게 성취될수 있다. 모든 인민들이 자주성을 수호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것을 요구하는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우리 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 인민이 미제와 온갖 반동들이 그처럼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도 민족자주의 원칙을 튼튼히 지키고 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았기때문이다.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통일과 민족적번영을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5페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조국의 분렬은 나라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만 우리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우리 인민은 자주권을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 끝없이 륭성번영할수 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며 조국을 통일함이 없이 조선혁명의 완성을 말할수 없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조국통일위업의 위대한 기치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이 조국통일과 민족적번영을 담보하는 필승의 지도사상이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관점,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옳바른 지도사상을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떨쳐나서야만 승리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옳은 지도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된 정치적력량으로 전환될 때 혁명투쟁의 참다운 주인으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은 그 간고성과 복잡성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요구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

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개척자인 인민대중이 모든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혁명의 합법칙성과 시대적요구, 인민대중의 리익과 민족적 지향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근본사상으로서 인민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옹호하고 나라와 민족이 온갖 예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길을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혁명투쟁이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계급해방과 민족해방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를 준다. 민족문제의 견지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사상이며 모든 민족이 온갖 예속과 억압을 배제하고 자주권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만이 우리 인민의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가장 정확하고 심오하게 밝혀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9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상 우리 인민과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식민지적압박이 인민들을 짓누르고 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조건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권리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실체적표징이다. 모든 민족은 자주권을 요구하며 외세의 예속과 지배에서 벗어나 존엄있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것을 요구한다. 남에게 억눌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듯이 다른 민족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는 민족은 없다. 또한 어떤 민족국가든지 외세에 의하여 민족적존엄을 유린당하고 자주권을 잃으면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영예와 존엄이 있고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할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혁명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위업에서도 모든 인민들과 민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성을 고수하며 자주독립을 굳건히 지킬데 대한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밝혀줄뿐아니라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관점과 립장을 정확히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철저한 자주적립장에서 자기의 민족문제를 해결할것을 가르치고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수 있으며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통일문제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라는데로부터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국통일위업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

인민의 민족주체적력량이다.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고 통일된 조국을 선사할수 없다. 우리 인민의 민족문제는 오직 주인인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사대주의, 외세의존과 량립될수 없다. 사대의식과 외세의존이 지배하게 되면 민족자주의식이 마비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이 횡행하게 되며 민족은 예속과 망국의 비통한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 력사적사실들은 이것을 잘 증명하고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무능한 봉건통치배들과 《진정서》요, 《청원서》요 하는 따위를 들고 사방 돌아치던 사대주의자들과 매국노들의 책동에 의하여 근 반세기동안이나 망국의 치욕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분렬의 새로운 민족적비극을 겪고있는것도 외세의 침략과 함께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의 매미의존정책과 매국배족행위때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자신이 그것을 개척해나갈때만이 참된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외세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단호히 배격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며 그 누구에게도 의탁할수 없다는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관점을 가지게 한다. 그것은 또한 모든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고 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맞게 그리고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의 사상리론적기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민족의 해방과 근로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사상리론과 전략전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옳게 밝힐수 있으며 투쟁의 기본방향과 주객관적조건의 변화에 맞게 투쟁 형태와 방침을 규정하고 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사회혁명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더우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애국자와 매국자,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 사이의 심각한 대결이며 혁명과 반혁명의 치렬한 투쟁이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이 거창한 민족해방위업은 옳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서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그 주동적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이다.

민족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근로인민대중을 떠나서 민족의 리익이 있을수 없고 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을 온갖 예속과 압박에서 해방하여 자유로운 인민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주체사상만이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과 구체적인 투쟁방도를 밝혀주는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된다.

혁명전략에서 혁명력량문제는 기본을 이루며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서도 구경은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그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주체사상은 나라의 통일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민족주체적력량으로 된다는 관점에서 조국통일의

대량편성과 력량강화방도, 매 시기의 투쟁 형태와 방법 등 포괄적인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다. 오직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구현해나갈 때만이 옳바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 관철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주객관적조건을 주동적으로 성숙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통일위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될뿐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는 단결의 기초로 된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조국통일의 혁명적기치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단결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적인 사상리론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할 때라야만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특정한 계층의 리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을 하나의 단합된 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전인민적, 전민족적 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사상적기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리익과 민족적념원 그리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사상으로서 무엇보다도 통일문제해결의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준다. 사람을 자주적인 존재로 보며 근로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은 특히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등대처럼 밝혀주고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다.

주체사상은 또한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이미 검증되고 우리 인민의 심장에 확고히 자리잡은 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칠 때 반드시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간고한 시련과 영웅적투쟁으로 가득찬 조선인민의 해방투쟁력사의 가장 중요한 총화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이 불멸의 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며 그이의 령도가 있는 한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이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함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2대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위업은 조선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전국혁명과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통일적과정을 이루고있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이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력사적행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민족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십으

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광복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새 조국,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국해방후 우리 혁명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둘로 갈라진 특수한 력사적조건에서 새롭게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나라의 절반땅은 일제식민지통치의 36년간에 이어 또다시 예속의 길에 떨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30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민족적인 완전한 독립은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조국의 분렬은 전반적조선혁명과 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주고있다.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조선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의 조국통일은 갈라진 국토와 민족의 기계적인 재통합이 아니라 남조선에 수립된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전 국토와 민족을 완전해방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조국통일문제가 제기된 이러한 력사적근원과 조선혁명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전국혁명과의 불가분의 련관성은 조국통일위업자체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으로, 민족해방혁명의 련속적과정으로 되며 그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조국통일위업은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수행되는 성스러운 위업이며 그이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인민의 장구한 민족해방혁명의 계승으로서의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마땅히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서만 승리할수 있으며 그 기치밑에 이룩되는 통일만이 참다운 통일로 될수 있다.

* *

우리 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행정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2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이룩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당면한 중심문제로 규정하시고 언제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 조건에서 제기된 민족해방문제와 민족재통일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시고 그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민족적념원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국통일문제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예견하시고 그 본질과 성격을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기본방침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어떤 립장과 원칙을 견지하며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것인가를 명석하게 밝혀주고있으며 그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지금까지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

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민족자주적립장과 반제혁명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분렬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전략에서 혁명력량문제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3대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일관한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적응하게 무려 150여차례에 걸쳐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들은 민족자주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관된것으로 하여 통일위업을 전진과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었기때문에 안팎의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혁명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남북협상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5대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갈수 있는 민족공동의 원칙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민족앞에 다가온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통일위업을 완수할수 있는 주체적인 통일강령이 마련되였다.

실로 지난 30여년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자주통일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온 로정이였다.

오늘 공화국북반부는 그 어떤 사나운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불패의 혁명기지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 위력앞에서 원쑤들은 겁에 질려 갈팡질팡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진리인 주체사상은 총칼의 숲을 헤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더욱더 깊이 침투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커다란 견인력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의식화, 조직화되여가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주체의 빛발로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통일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더욱더 깊이 신봉하고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파쑈폭압과 살륙만행이 횡행하는 그 엄혹한 조건에서도 목숨바쳐 싸워가고있는것이다.

오늘 조선의 통일문제는 세계적관심의 초점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대중적시위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많은 국제회의들에서는 조선문제가 중요한 의정으로 상정토의되고있으며 우리의 위업을 지지하는 공동투쟁이 세계적규모로 확대되고있다. 최근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선언과 결의들을 채택한것은 그 뚜렷한 표시로 된다.

조선은 반드시 주체의 기치밑에 통일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1년 투쟁해서 안되면 2년 투쟁하고 2년 투쟁해서 안되면 3년 투쟁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투쟁해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37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선의 통일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결정적으로 몰아내야 하며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조선을 분렬하여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려는 미제의 전략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더욱더 교활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기 위한 구실을 얻으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지난해 제30차유엔총회에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 우리측의 정당한 결의가 채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한편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많은 핵무기와 현대적대량살륙무기들을 끌어들여 전쟁준비를 다그쳐온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에로 넘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8월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에서 계획적인 도발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침략무력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미제의 대대적인 군사행동으로 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다.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은 미제의 그 어떤 도발과 침략책동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새 전쟁도발행위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놈들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모독하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미제의 교활한 량면전술에 경각성을 높이고 놈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도발책동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한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주체의 사상의식과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키고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세계의 면전에서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놈들이 남조선에 더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기의 민족문제해결에서 결코 침략과 예속, 매국과 분렬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토우에 5천만 겨레가 다같이 행복을 누릴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고야말것이다.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

손 진 혁

오늘 우리 나라에는 가장 흉악한 침략자이며 전쟁방화자인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오래동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끝내고 지심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극히 모험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8월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에서 도끼를 든 군사불한당들을 내몰아 비렬한 도발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자위적조치가 취해지자 미제의 전쟁두목 포드놈은 수십대의 직승비행기와 제트전투기 지어 《비52》전략폭격기편대까지 출동시키고 수백명의 무장인원을 동원하여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우리측 나무를 찍어내고 초소를 들부시는 날강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자가 한그루의 나무를 상대로 하여 《작전》한 이 파렴치한 도발은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쟁을 강요하고 전쟁의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면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감행된 흉악무도한 범죄적음모책동이였다. 미제의 이 류례없이 악랄한 도발행위는 놈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판문점에서 제놈들이 감행한 엄중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파렴치하게도 우리측에 넘겨씌워보려고 악랄한 허위선전을 일삼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해나서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판문점사건이 있은 다음 《비상대기령》을 내려 남조선에 있는 전체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부대들을 완전한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하였을 뿐아니라 일본과 태평양상의 기지들에 있는 전체 미군과 지어 미국본토의 일부 병력까지 언제나 출동할수 있는 《경계태세》에 두고있다.

미제는 방대한 무력을 완전한 전투태세에 몰아넣는 한편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조선반도에 집결시키고있다. 놈들은 오끼나와의 나하에 본부를 둔 미제3해병단산하 1천 800명의 침략무력을 선발대로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미국본토와 오끼나와로부터 《에프111》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편대들을 새로 더 끌어들여 남조선에 전개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조선해역전역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100여대의 비행기와 유도미싸일 등으로 장비한 공격용 핵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기둥으로 하여 여러척의 순양함과 구축함, 프리케트함으로 구성된 미해군기동함대와 핵잠수함들을 조선해역에 침투시켜 군사행동을 하게 하고있다.

세계전쟁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러한 군사적책동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도발전야에만 감행할수 있는 극히 엄중한 행위이다.

지금 조선에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 위한 미제의 대대적인 군사행동으로 하여 어느 순간에 전쟁이 폭발할지 모르는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미제의 이 모험적인 군사행동은 조선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는 전반적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며 악랄한 도전이다.

미제가 고의적으로 판문점사건과 같은 악랄한 군사적도발을 일으키고 그것을 계기로 전쟁소동에 더한층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놈들이 어떻게 하나 전쟁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면서 기

어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침략과 전쟁, 이것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자기의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17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는데서 다른 어느 제국주의자들보다도 악랄하고 교활한놈들이다.

미제는 력사적으로 가장 야수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전쟁방화자이다. 미제국주의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이르는곳마다에서 강도적인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였다.

갖은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타국인민에 대한 도발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는것은 검은것을 희다고 하는데 버릇된 미제날강도들의 상투적인 전쟁도발수법이다.

가장 흉악하고 강도적인 미제는 1898년에 제놈들의 군함 《메안》호의 폭발사건을 조작하고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들씌워 미국—에스빠냐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인류력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제국주의전쟁의 피비린내나는 력사의 막을 올렸으며 그후 끊임없이 간악한 기만과 폭력의 방법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을 강점하고 략탈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제날강도들은 1950년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할 때에도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미리 완성해놓은 다음 당시 미제우두머리의 《특사》였던 악명높은 전쟁미치광이 덜레스란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6월 25일을 기하여 《북한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고 직접 명령하였던것이다. 미제가 1964년 8월 제놈들의 군함 《매독스》호와 《터너조이》호를 바크보만에 침입시켜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고는 웰남측이 저들의 군함을 공격하였다고 거짓선전을 하면서 북부웰남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한 강도적죄행도 이미 잘 알려져있다.

미제가 지구상에 그 추악한 몰골을 나타낸 때로부터 200여년동안 놈들이 일으킨 백수십차례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은 그모두가 다 이러한 음흉하고 교활한 수법에 의거하여 감행된것이다.

력사는 전쟁의 근원이 제국주의에 있으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 바로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략탈, 침략과 전쟁 책동을 일삼는 미제의 수법은 멸망에 가까와갈수록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유린하면서 계획적으로 도발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회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악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나섰다.

미제가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정탐행동을 감행하다가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나포되자 철면피하게도 사실을 외곡날조하여 세계여론을 기만하려고 책동하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전쟁공갈을 감행하여나섰던 사실,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이씨 121》을 공화국령공깊이 침입시켜 도발행위를 감행하다가 단호한 징벌을 받자 또다시 우리를 헐뜯는 한편 발광적인 전쟁소동을 일으켰던 사실들은 놈들의 침략성과 전쟁도발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 뚜렷한 증거로 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책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정세를 전쟁접경에 몰아넣음으로써 조선인민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정면으

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놈들이 어떻게 하나 흑백을 전도하여 직접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며 그의 가장 로골적인 표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는 범죄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강도적궤변을 정당화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엄중한 도발행위와 군사행동은 놈들의 흉악한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미리부터 꾸며진 계획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5페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는 그 중요한 전략적거점을 남조선에 두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삼고있는것은 여기로부터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새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전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전세계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이러한 흉계로부터 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추진시켜왔다.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놈들이 캄보쟈, 라오스, 웰남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다음 더욱 모험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는 아세아의 여러 지역에서 쫓겨남에 따라 이른바 《새태평양주의》라는 더욱 흉악한 침략교리를 내놓고 조선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는 저들의 아세아정책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지탱점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미제는 공공연히 남조선을 미국의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는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쳐왔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전시체제로 재편성》하고 최신전쟁장비로 무장시켰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와 로케트포탄을 포함한 각종 탄약을 대량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사분계선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웰남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악명을 떨친 전술전투비행단과 군사인원들을 은밀히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미국본토로부터 핵폭탄과 병력을 조선전선에 긴급히 실어나를수 있는 《수송체계》를 세워놓았다. 미제호전광들은 이러한 무력증강에 기초하여 《선제공격》과 《속전속결》을 제놈들의 기본전술로 확정하고 이른바 《5일작전계획》, 《9일작전계획》과 같은 단기작전계획까지 짜놓았다.

이와 함께 미제는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에 써먹기 위한 계획도 적극 다그쳐왔다. 놈들은 현지의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최신형무기들을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남조선괴뢰들에게 수많이 넘겨주었으며 저들의 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에 비행장, 항만, 로케트기지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들과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였다. 상전의 지시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슨 《총력안보》요 뭐요 하면서 괴뢰군증강과 함께 《민방위체계》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청년학생, 녀성, 지어 로인들까지 강제로 끌어들여 군사훈련에 내몲으로써 남조선전역을 하나의 병영으로 전변시켜놓았다.

미제가 오끼나와를 포함한 일본령토를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발진기지, 전략보급기지, 핵공격기지로 전변시켜놓

고있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미제는 이처럼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쳐왔으며 이미 그것을 완성해놓고 지금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구실을 찾고있는것이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파쑈테로통치를 극도로 악랄화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탄압말살함으로써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려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군사행동에 발맞추어 《총력안보》와 전쟁태세의 강화를 구실로 파쑈탄압을 더한층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놈들이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에게 《긴급조치》위반이라는 황당한 《죄》를 걸어 집단적으로 중형을 들씌운것은 남조선에서 애국적민주주의운동을 말살하고 파쑈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인민에게 다시금 재난과 참화를 들씌우려는 가장 흉악한 침략자, 전쟁방화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타민족을 전쟁으로 침략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은 미제의 본성이다. 미제의 침략성과 략탈성은 놈들이 어려운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 악랄해가고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벌리고있는 모험적인 군사도발책동과 전쟁소동은 놈들의 위기를 반영한것이며 쇠퇴멸망하여가는자들의 발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의 취약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25폐지)

미제의 날로 격화되는 전쟁도발책동은 놈들의 힘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그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밑에 《힘의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가장 횡포한 군사적위협과 끊임없는 무력간섭과 침략전쟁을 벌려왔다. 미제는 첫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조선전쟁에서 찾으려고 날뛰였으며 그후 새로운 경제위기가 거듭될 때마다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해왔다. 조선전쟁은 바로 미제가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힘의 정책》의 직접적산물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그것은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로 되였다.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후 지난 20여년동안 미제는 끊임없이 엄중한 위기를 겪으면서 멸망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은 파탄되고 놈들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라오스, 캄보쟈, 웰남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당한 심각한 정치군사적패배, 미제의 침략적군사블럭체제의 붕괴, 신식민주의정책의 파산, 이 모든것은 미제의 쇠퇴몰락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력량관계는 미제국주의에 더욱더 불리하게 편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전쟁을 분수령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의 세력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예속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신흥세력인민들이 진보와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등장함으로써 미제국주의의 지위는 약화되고 그 멸망은 더욱 다그쳐지고있다. 미제가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제놈들이 처한 이 심각한 위기에서 헤여나며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악랄한 반혁명적책동이다.

미제의 취약성은 놈들의 세계침략정책의 파산에서뿐아니라 미국안에서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정치경제적위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미국안에서는 미제의 무모한 침략정책에 항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이 더욱 앙양되고있다. 미국 도처에서 《조선에서 전쟁을 반대하자》, 《군대를 본토로 끌어오라》는 집회와 시위가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독점지배층의 가혹한 착취와 반인민적파쑈화정책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이 투쟁에 나서고있다. 지배층내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드놈에 대한 반대파세력의 공격과 제놈들의 전쟁책동을 정당화하려는 포드일당의 발광적인 책동으로 하여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있다. 날이 갈수록 미국사회의 정치적불안정성과 사회계급적모순이 심각화되고있으며 독점지배층의 정치적지반은 뒤흔들리고있다.

미제는 전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으며 거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허우적거리고있다. 미제는 전후 여섯번째로 들이닥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벌써 수십개월동안 지속되고있는 파국적인 경제위기는 미국의 경제생활전반을 만성적인 침체와 혼란 속에 몰아넣고있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생산의 감퇴와 기업의 파산, 실업의 격증, 멈춰설줄 모르는 통화팽창과 국가채무의 증대, 날로 악화되는 국제수지와 딸라위기는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한때 자본주의세계에서 《황금왕국》으로 우쭐렁대던 미제의 지위는 허물어졌으며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여가고있다.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자원을 보호하며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따라 미제는 더욱더 심각한 연료위기와 원료위기를 겪고있다.

침략과 전쟁 정책의 파탄과 안팎으로 가해지는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헤여날수 없는 파국과 궁시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벌리고있는 미제의 무모한 전쟁책동은 바로 놈들의 심각한 위기와 사회적모순을 배경으로 한 필연적결과이며 그 취약성의 집중적표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저들의 신세를 건져보려고 남조선에서 파쑈폭압과 전쟁책동을 강화하고있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력사를 창조하는 주인인 인민들이 념원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아가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는 세계적범위에서 높이 울려퍼지고있으며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는 주장은 막을수 없는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회의들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지난해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것을 요구하는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지금 대다수 유엔성원국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미제가 유엔의 결의대로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놈들의 침략군대를 지체없이 철거시킬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세계의 대세는 더욱더 조선인민에게는 유리하게 미제에게는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체 조선인민은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84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세의 흐름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면서 이미 파산된 《힘의 정책》으로써 그 어떤 출로를 찾아보려 한다면 그것은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우리 인민은 물론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진 우리의 혁명력량은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으리만큼 비상히 강력하다.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군대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전체 인민은 날로 악랄해지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지켜보고있으며 놈들이 일단 덤벼든다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과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지켜낼뿐아니라 놈들을 이땅에서 영영 쓸어버릴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투쟁에 일떠선 혁명적인민과 혁명군대는 그 어떠한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으며 놈들이 다른 나라 인민들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억압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할 그 어떤 구실도 없다.

조선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인민은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미제의 흉악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것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6년 제10호(루계41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10월 1일　　발 행 • 1976년 10월 5일

ㄱ—65419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호 (415)

차 례

축 하 문

《근로자》편집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창간 3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편집일군들과 잡지발행에 복무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근로자》의 창간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잡지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옹호보위하고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우리 당의 위력한 리론선전수단이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이다.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시고 키워오신 혁명적출판물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에서 태여났으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출판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간하시고 이끄시는 잡지 《근로자》는 지난 30년동안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함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근로자》의 기본임무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대중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혁명리론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그들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있습니다.

《근로자》는 창간 첫날부터 언제나 당과 함께 숨쉬며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리론선전사업을 벌림으로써 우리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왔다.

《근로자》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근로자》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되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근로자》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전체 조선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철

저히 고립시키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잡지 《근로자》는 창간후 오늘에 이르는 30년동안 언제나 당의 의도에 맞게 리론선전사업을 벌려왔으며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선에서 당의 충실한 방조자, 대중의 친근한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대변자로서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견지하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하여 광범한 독자들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신임을 받고있다.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의 중요한 초소를 담당한 《근로자》편집일군들은 지난 기간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들어쥐고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충성을 다하여왔다.

오늘 《근로자》편집집단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문필전사들의 집단으로 훌륭히 자라났으며 잡지 《근로자》는 우리 당의 권위있는 정치리론잡지로 되였다.

《근로자》편집집단이 이룩한 모든 자랑찬 성과와 빛나는 업적은 전적으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의 결과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편집일군들이 지난 기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잡지 《근로자》는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잡지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고매한 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과 공산주의적풍모를 소유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무게 있는 론설과 자료들을 더 많이 써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적자각을 더욱 높이며 그들을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사상정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잡지 《근로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해설선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투쟁

과 전설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잡지 《근로자》앞에 나선 과업은 매우 무겁고도 보람차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문필활동을 벌리는 당사상전선의 초병들이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들이며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귀중한 리론선전일군들이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기가 쓰는 글들에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훌륭히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이 자기앞에 나선 숭고한 사명과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당이 지펴준 출판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출판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현실에 들어가 문제점을 찾아내여 기발하게 착상하며 글을 원리적으로 론리성있게 씀으로써 잡지를 정치사상적내용이 풍부하고 전투성과 호소성, 대중성이 강한 혁명적출판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잡지발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과 혁명에 충실한 문필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실무적자질과 문필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당 정책을 다 환하게 통달하여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져야 하며 수령님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따라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근로자》편집일군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편집집필활동을 원만히 벌려나갈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편집일군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6년 10월 25일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이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전투적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최근 모든 부문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준것으로서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진설전투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이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대고조를 일으켰던 그 기세, 그 열정으로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증산절약투쟁의 세찬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경제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힘있게 앞당겨야 한다.

* *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여온 지난 전기간 언제나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대중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왔다.

전후시기 우리 나라에서 줄기차게 발전하여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모든 힘을 다하여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원래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엄격한 절약제도를 실시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47페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국가주권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랑비를 없애고 모든 사회적자원을 절약하여 나라살림살이를 끊임없이 늘일수 있는 온갖 조건이 지어져있다.

사회주의경제제도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절약제도의 실시가 중요한 법칙적요구로 나서며 인민경제가 전사회적범위에서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고있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모든 물적 및 인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절약제도는 전사회적인 것으로 된다.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들어서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마련되였다.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와 다방면적인 경제구조, 현대적기술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커다란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한편 우리 인민은 지금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이미 마련하여놓은 커다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더 많은 탄광, 광산들을 개발하고 보다 현대적인 발전소와 기계공장, 경공업공장, 세멘트공장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동원리용하여야 우리는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다.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조선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침략자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어느때보다도 긴장되여있다.

우리는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온갖 증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놈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릴수 있다.

우리 당이 오늘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전투적구호의 실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르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이 구호를 높이 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더욱 힘차게 앞당겨질것이다.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현시기 우리 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입니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살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82페지)

모든 혁명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랑비를 없애고 절약을 강화하는 투쟁에서

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진심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면 온갖 랑비를 반대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가사회재산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과 근로자들의 리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사업에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무엇보다도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국가사회재산을 자기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찬달로 깐지게,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사업일뿐아니라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키우는 숭고한 사회정치적문제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그들은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가게 되며 한그람의 자재, 한대의 설비,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극력 아끼고 절약하게 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면 할수록 그들속에서는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특히 그들이 사회의 부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날수록 자기도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궁지와 높은 자각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언제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수행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당중앙이 제시한 사상전의 방침에 따라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교양을 진행하면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국가사회재산을 랑비하는 현상을 완전히 없앨수 없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공동재산을 망탕 다루거나 물자의 합리적리용을 방해하는것과 같은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일부 사람들속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을 철저히 가셔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꾸려나가며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모든 분야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우리 지도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

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운영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며 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8페지)

조성된 정세와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전례없이 커졌으며 인민경제부문간의 련계도 매우 복잡해졌다. 따라서 절약투쟁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현실발전에 확고히 따라세워야 증산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야만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밑천, 있는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현시기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물자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류통되는 물자자원은 전에 비할바없이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물자자원의 1%만 절약하여도 그것은 막대한 량에 달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커다란 보탬으로 된다.

물자자원의 합리적인 리용대책을 세우고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는것은 증산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한편 물자리용과 자재공급 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들어 원료, 연료, 자재를 랑비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기와 석탄, 연유, 강재, 세멘트, 목재 등을 극력 절약하여야 하며 적은 물자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낡은 자재와 부산물, 페설물들을 모조리 회수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제품검사제도를 강화하고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것은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힘을 넣어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고리이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이다. 특히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로력랑비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로력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비생산부문과 간접부문의 로력을 줄이고 직접 생산로동에 참가하는 로력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로동규률을 철저히 세워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는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실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주요한 경제적공간이다. 독립채산제를 옳게 운영하면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수 있으며 절약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기업관리에서 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계획화사업을 부단히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조성된 정세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야 모든 물적 및 인적자원의 합리적리용을 보장하고 랑비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으며 전반적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실현하여 계획화사업에서 일군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경영활동이 치차와 같이 딱딱 맞물고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며 무궁무진한 생산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계획을 언제나 넘쳐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국가사회재산관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자본주의사상이 새로 생겨날수 있는 사회경제적근원은 없으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아직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되는대로 다루거나 랑비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사상교양 하나만으로 없앨수 없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앞세우면서 통제사업을 실시하여야만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할수 있다. 사상전선과 함께 통제전선에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며 절약투쟁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국가통제기관들에서는 공동재산관리에 대한 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움으로써 조그마한 랑비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우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공동재산관리 규정과 규범들을 정확히 만들고 그것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관리 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그 어떤 무규률적인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통제기관들은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랑비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묵과하지 말고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여 사회주의생활규범에 어긋나는 그릇된 현상들이 배겨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절약투쟁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의 지도에 크게 달려있다.

절약의 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나라의 모든 자원을 백방으로 아껴쓸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절약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높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깊이 해설침투시키는 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절약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기본담보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 때 근로자들속에서는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이 높아지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차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일본새를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도처에서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속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절약투쟁의 선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절약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열렬한 애국주의운동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대중적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은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절약투쟁에로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은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증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출판물전통은 우리 당 출판물이 계승한 력사적뿌리

우리 인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간하신 혁명적출판물 《3.1월간》발간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1936년 12월 1일,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혁명적출판물 《3.1월간》의 창간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우리나라 출판물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혁명적출판물 《3.1월간》은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결성하신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의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적출판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대표적인 출판물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은 바로 《3.1월간》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과 우리 출판보도일군들의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다.

혁명적출판물 《3.1월간》창간 40돐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가슴뜨거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튼튼히 계승발전시켜나갈 굳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창시하시고 몸소 혁명적출판물의 원형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당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한부분으로서 혁명적출판물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은 시대를 대표하는 선진사상의 옹호자, 전파자, 관철자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따라서 새로운 력사적시대는 새로운 혁명사상과 함께 그를 옹호하는 새형의 출판보도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도사상을 요구한다. 혁명적출판물이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선전방향과 편집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며 출판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을 밝혀주는 혁명적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의 창시는 실로 인류사상사에서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건설과 출판보도활동에서 일대 혁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서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출판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들

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적출판물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출판물은 대중선전교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일시에 수백만 대중에게 동일한 사상과 구호를 제시해주고 대중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키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혁명적출판물은 항상 수많은 독자대중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광범한 대중속에 신속히 전파하고 혁명조직과 대중간에 일상적인 산 련계를 지어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전선의 위력한 무기이다. 그러므로 혁명조직은 혁명적출판물과 같은 사상적무기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혁명적출판물을 가지지 못한 혁명조직은 무장을 해제당한 군대와 같이 무력한 조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특히 항일무장투쟁과 같은 엄혹한 조건에서 혁명적출판물을 가지지 못한다면 일제통치의 암담한 처지에서 헤매는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줄수 없으며 조선혁명에 대한 전략전술과 투쟁구호를 제때에 알려줄수 없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수 없는것이다.

실로 혁명조직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출판물을 가져야만 광범한 피압박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반혁명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대중을 승리에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출판물의 이러한 역할로부터 혁명투쟁에 복무하는 출판보도물은 응당 손에 무장을 잡고 무장한 원쑤와 맞받아싸우는 혁명군대의 무기와 같이 위력해야 하며 원쑤의 심장을 꿰뚫는 총탄과 같이 그렇게 예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혁명적출판물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없어서는 안될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혁명군대의 무기와 같은 전투적인 출판물을 건설할데 대한 가장 명철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모든 혁명조직들이 출판물을 어떤 위치에 놓고 그 역할을 어떻게 높이겠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출판물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혁명적출판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에 대하여서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출판물이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출판물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출판물의 건설과 그 활동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며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주견을 가지고 글을 쓰며 독자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교양함으로써 혁명적출판물이 조선혁명에 더 잘 복무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적출판물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출판물건설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혁명적출판물에 대한 모든 지도사상의 초석으로, 그 출발점으로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출판보도활동에서 로동계급의 당성을 고수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 출판물의 인민성과 대중성을 높일데 대한 원칙 등을 독창적

으로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적출판물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적출판보도사상에는 우리 시대에 진행되는 모든 혁명투쟁,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을 위한 투쟁 등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서의 혁명적출판물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출판물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수많은 혁명적출판물을 창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출판물력사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수록한 단행본이나 잡지 《3.1월간》과 같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당시 항일유격대원들을 교양하고 조선인민에게 혁명적영향을 주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출판물의 출현과 그 발전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출판보도사상과 지도리론이 빛나게 구현되는 영광스러운 로정이며 그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해주는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혁명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물을 창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이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하기 시작한 첫시기에 《새날》, 《농우》, 《볼쉐위크》 등 수많은 혁명적출판물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발간하신 혁명적출판물들은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새롭게 제시된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로선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의 핵심적골간으로 키우며 당시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던 무장투쟁준비를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대원들과 유격근거지 인민들 그리고 적통치구역의 인민들과 국내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조직동원할 사명을 지닌 《3.1월간》을 비롯한 신문과 잡지, 소책자, 선전문 등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의 창간은 우리 나라 혁명적출판물의 력사에서뿐만아니라 조선인민의 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3.1월간》은 조선혁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쓴 기관지로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혁명적출판물 《3.1월간》은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조직기구인 조국광복회의 전투적기관지로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해석선전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물이였다.

잡지 《3.1월간》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단합하며 조선인민의 주체적힘에 의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을 따라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사상적기수로

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전체 인민대중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또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었던 가장 준엄하고 간고한 시기에 혁명적출판물들은 원쑤를 무자비하게 폭로단죄하였으며 인민대중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만이 《3.1월간》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은 주체의 위업을 개척해나가는 시대의 기수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출판일군들은 한손에는 무장을, 다른 한손에는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원쑤와 맞서싸우는 긍지높은 주체형의 문필전사로서의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출판물을 지도하시는 행정에서 출판활동의 모든 분야에 긴쳐 실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혁명적출판일군의 양성과 출판기지의 축성으로부터 출판물의 편집과 그 발행 그리고 그의 배포와 리용에 이르기까지 출판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출판일군들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립적으로 문필활동을 해나가며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출판활동으로 대중을 혁명승리에로 불러일으킨 혁명적기풍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귀중하고도 풍부한 경험과 업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출판보도사상과 함께 우리 당 출판물이 굳건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출판물을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력사적뿌리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주체적출판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오늘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에 훌륭히 계승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커다란 힘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전통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과 《근로자》를 비롯한 수많은 당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고 그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 속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창간된 우리 당 출판물들은 창간 첫날부터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훌륭히 복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9페지)

우리 당 출판물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이 그러했던것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심어주고 혁

명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그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혁명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우리 당 출판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집단적선전자, 집단적조직자,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관철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우리 당 출판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위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일떠세우는 세기적변혁을 이룩하는데 훌륭히 복무하여왔다.

이와 함께 우리 당 출판물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반제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고무추동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와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전투적기능을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우리의 당적출판물이 오늘 이처럼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출판물의 본보기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 출판물의 창간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오직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 출판보도물앞에는 오늘 보다 무겁고도 책임적인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많은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책들은 우리 당원들과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침투시키며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고귀한 선진경험들을 보급일반화하는것과 함께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것과 침체하고 보수적인 현상들을 폭로비판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80페지)

우리 당 출판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이것을 떠난 당적출판물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당적출판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자기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모든 당적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사람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편집물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글로 꽉 들어차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혁명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

켜들어야 한다.

당출판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장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돌격의 나팔수이며 투쟁의 기수이다.

우리 당 출판물이 들끓어야 전당, 전국이 들끓게 되며 바로 이렇게 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은 더욱 힘있게 촉진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폭풍속에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혁명적대고조의 벅찬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세계혁명위업을 촉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대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전체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은 계급투쟁의 무기를 힘있게 틀어쥐고 원쑤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날날이 폭로단죄하기 위한 집중포화를 련속 들이대야 한다.

당적출판물은 또한 계급해방과 인류해방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출판보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이 무겁고도 책임적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출판보도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출판보도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출판보도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열쇠이다.

우리 출판보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백두밀림에서 혁명적출판일군들이 등사기를 메고 유격대원들과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혁명적출판물을 만들어낸것처럼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전투적이고 호소적이며 참신하고 통속적인 편집물들을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 당 출판물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출판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기자, 편집원들자신이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가장 가까이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들인 우리 기자, 편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열렬한 정치활동가이며 혁명의 필봉으로 계급적원쑤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투사이다.

우리 기자, 편집원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를 받는 우리 당 출판물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직 승리와 영광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의 자랑찬 승리

장　국　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점령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올해농사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당의 부름을 받들고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한 로동자, 사무원, 군인, 학생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농업전선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올해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농업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이래 최고의 수확을 거둠으로써 80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에 벌방지대는 물론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북부내륙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지역에서 벼, 강냉이, 감자 등 모든 곡종에 걸쳐 전례없는 높은 소출을 거두었다.

서해안의 곡창 열두삼천리벌, 재령나무리벌, 룡천벌과 운전벌, 분계연선의 풍덕벌, 동해안의 함주100리벌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논고장들에서 땅이 꺼지게 벼농사가 잘되였다.

벌방지대의 벼농사와 함께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밭곡식의 결실이 대단히 좋다. 황주긴등벌, 신계미루등을 비롯한 중간지대와 백무고원의 5호대지 등 산간지대의 무연한 등판밭들과 뙈기밭들, 잘 정리된 다락밭들에서는 강냉이, 감자 등 모든 밭작물이 풍만한 열매를 맺었다.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도들에서 정당평균 논벼는 700키로그람～1톤이상, 강냉이는 600키로그람～1톤 200키로그람이상 증수하였으며 량강도에서는 최고수확년도인 지난해에 비하여 정당평균 2배의 감자를 생산하는 전례없는 풍작을 이룩하였다.

알곡작물뿐아니라 남새, 담배를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다 잘되였다.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의 모든 지역들에서 류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지금 온 나라 모든 농촌이 흥성거리고 전체 인민이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　*

올해 우리 나라에서 혹심한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례년에 없는 대풍을 이룩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여전히 우리의 주공전선의 하나입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이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날로 긴장해지는 조건에서 우리는 농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신년사》, 1976년 1월 1일, 9페지)

일찌기 농사제1주의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규정해주시고 여기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정초부터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내는것은 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최근년간 북극지방의 얼음동산면적이 넓어진데로부터 생기고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은 지구상의 여러 지역들에 미쳐 농업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고 많은 나라들에서 심한 가물과 무더기비, 랭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게 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20세기의 최고의 대열파》, 《250년래의 최악의 가물》로 곡식과 목초가 마르고 자연산불이 일어나 수많은 산림과 농경지가 황폐화되였다. 극심한 가물과 더위로 수많은 집짐승과 물고기가 무리로 죽었으며 지어 사람까지 숨지는 참상이 벌어졌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심한 가물과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무더기비로 수많은 논밭이 물에 잠기고 수십수백만의 리재민이 나게 되였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서 랭해와 눈서리피해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얼어죽음으로써 농업생산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올해 남조선에서도 가물과 큰물, 랭해와 병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었다.

남조선에서 입은 올해의 피해는 미제들 등에 업고 새 전쟁 도발과 야수적인 인민탄압, 가혹한 수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하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결과에 빚어진 후과이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쓴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농사를 망치고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한것은 하늘의 조화나 우연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올해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봄철기온이 몹시 낮았고 60여일간이나 왕가물이 계속되였으며 때아닌 무더기비가 내리고 센 바람이 몰아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기상기후조건이 불리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나라 농업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주체농법을 내놓으시고 올해에 그를 더 잘 관철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결과 이룩된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세계적인 기상기후조건의 변화와 그것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현대농업과학기술의 발전추세 그리고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는 독창적인 주체농법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지난 3월에 있은 전국농업열성자회의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전선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한랭전선의 영향이 심하게 미칠것을 예견성있게 내다보시고 실생활에서 그 우월성이 뚜

렷이 발휘된 벼랭상모를 100% 받아들이며 질좋은 부식토를 많이 장만하여 강냉이영양단지를 제철에 질적으로 만들어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사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아내기 위하여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올해에 토양과 기후 조건에 맞게 품종배치를 잘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모든 지대들에서 농사가 아주 잘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는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가장 알맞는 주체적인 시비체계와 시비방법을 밝혀주시고 비료를 과학적으로 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올해에 례년에 없이 곡식이 잘되였을뿐아니라 바람이 센 조건에서 벼가 넘어지지 않고 잘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벼를 튼튼히 가꾸고 비료를 제철에 과학적으로 준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을뿐아니라 매 영농시기마다 농촌을 찾으시여 실정을 깊이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시였으며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현지에서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참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 우리 농민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이 땅우에 풍만한 열매를 맺어 올해의 대풍이 마련되게 되였다.

올해 우리 농촌에서 이룩된 전례없는 대풍작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위대한 농촌테제를 내놓으시고 농업발전을 위한 튼튼한 정치사상적 및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결과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고귀한 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농사가 잘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농촌수리화를 완성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성있게 농촌수리화방침을 내놓으시고 군중적투쟁을 벌려 온 나라에 수리화를 완성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수리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논관개를 기본으로 하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이미 오래전에 빛나게 완수되여 100만정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관개를 충분히 할수 있게 되였다.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는 고이는물빼기공사가 힘있게 벌어졌고 남새밭을 기본으로 하여 현대적인 분수식관수체계가 널리 도입됨으로써 수리화의 성과가 더욱 공고확대되였다.

농업의 공고한 물질기술적토대, 그 어떤 왕가물과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올해와 같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마련된 완성된 수리화체계를 비롯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는 우월하고 공고한 농업생산토대로서 날이 갈수록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한랭전선의 영향이 심하게 미칠것을 예견하시

고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확대하는 동시에 도처에 저수지들과 물주머니들을 더 많이 만들고 논판물잡이 등 보조수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리화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의 성과여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있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올해에도 여러가지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구색이 맞게 공급하도록 하시였으며 비료생산에 필요한 전력, 석탄, 린회석 등 연료, 동력, 원자재를 무조건 보장해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올해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뜨락또르를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농번기전으로 뜨락또르부속품을 집중적으로 생산보장해주며 모내기철에는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농촌에 나가 농기계들을 수리해주는 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영농사업에 필요한 강재와 목재, 세멘트, 비닐박막, 살초제, 농약 등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올해 농업전선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당, 전국, 전체 인민이 총동원하여 전례없는 큰 규모에서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대담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하신 결과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내기와 가을걷이철과 같이 로력이 많이 필요할 때에 로동자, 사무원, 군인, 학생들이 떨쳐나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떠서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심으로써 모내기를 제철에 하고 김을 잘 맬수 있었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낼수 있었다.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냄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대풍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튼튼히 단결되여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전세계에 시위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 매해 계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 현대적인 농기계와 화학비료, 농약을 공급하고 농촌생산시설을 국가가 건설해주며 수많은 로력을 동원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이 이처럼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돕고 수백만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할수 있는것이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당의 명령지시에 무한히 충실하겠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심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한해동안 농업생산전반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세심한 지도를 주었으며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 농업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특히 농촌경리부문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지도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조직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적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한

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하늘높이 쌓아올릴수 있었다.

온 세계가 파국적인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이때 만풍년의 구성진 노래소리 강산에 차넘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벅찬 현실과 놀라운 전변을 바라보는 우리 인민은 올해의 만풍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 있다.

올해 농업전선에서 이룩한 우리의 자랑찬 승리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빛나는 승리로서 인민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더욱 높여준다.

올해 80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칠수 있는 혁명의 군량미를 더 많이 장만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더 많은 식량예비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올해에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을 미일침략자들과 그 2중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용기를 더욱 힘있게 안겨주게 되였다.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이룩한 우리의 자랑찬 성과는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해주고있다.

올해의 우리의 농업생산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알맞는 가장 과학적인 영농방법이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

오늘 농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금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경험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자연개조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무엇보다 마당질전투를 다그쳐 풍작이룬 곡식을 한알이라도 허실함이 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여 올해농사를 빨리 결속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을을 제때에 하고 잘 실어들이며 마당질을 실속있게 하고 곡식을 잘 보관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74페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힘을 탈곡에 집중하여 땀흘려지은 곡식을 한알이라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말끔히 거두어들이며 강냉이창자와 벼뒤주창고를 잘 정비하고 더 많이 지어 다음해 쓸 씨앗과 수매곡을 비롯한 낟알을 잘 보관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여 년간결산분배사업을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논이 많고 관개수리화가 완성된 우리 나라에서 벼농사는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농사이므로 벼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벼농사를 잘 짓자면 모를 튼튼히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밭랭상모를 많이 도입하는 동시에 밭이 없는데서는 가을에 미리 논에 랭습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랭상모판을 만들며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여 모판에 내고 비닐박막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내는기계,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를 잘 정비하여 농사철에 그

를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해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하여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올해농사에 대한 총화를 잘 짓고 경험과 교훈을 살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올해농사에 대한 총화를 잘 지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새로운 시비체계의 도입과 품종배치, 살초제의 리용과 부식토생산, 모기르기 등 올해의 농업생산활동의 전반을 옳게 총화하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살려 다음해 농사에서 다시한번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서는 또한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벼품종배치안을 옳게 세우고 좋은 종자를 골라 따로 보관하며 논과 강하천에 물주머니를 만들고 물을 모조리 잡아둘뿐아니라 그것을 절약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논삼경체계의 요구에 맞게 가을갈이를 질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올해 영농사업의 결과는 강냉이를 《밭곡식의 왕》으로 규정하시고 강냉이농사에 힘을 넣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품종배치를 잘하고 시비체계와 관수체계를 바로세우는데 강냉이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예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해에 강냉이농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안을 옳게 세우고 강냉이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비료를 과학적으로 주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강냉이영양단지를 잘하는것은 강냉이의 생육기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질좋은 부식토를 많이 장만하여 다음해 강냉이영양단지를 많이 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강냉이이식재배도 적당히 하여 강냉이농사에서 계속 혁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생산된 감자를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다음해 감자농사에서 평상모를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비료를 많이 줄수 있도록 자급비료생산을 다그쳐야 한다.

오늘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연개조의 웅대한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첫째로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며, 둘째로 다락밭을 건설하며, 셋째로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을 하며, 넷째로 치산치수사업을 하며, 다섯째로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입니다.》(《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농업생산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알곡증산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적이고 과학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면 우리의 농업생산은 더욱 급속히 늘어날뿐아니라 우리 농민들은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여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의 면모도 아름답게 단장될것이다.

자연개조의 5대방침은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들씌우는 무서운 폭탄으로 되며 남조선인민들을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의 실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농업생산을 책임진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자연개조 5대방침관철에 힘있게 떨쳐나섬으로써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점령하여야 하며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륭성번영하

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현시기 농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최근년간 매해 높은 알곡수확을 거두었을뿐아니라 특히 올해에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이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조직의 지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설 때 농업생산과 자연개조 5대방침관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확고한 신념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 주체농법과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에 힘있게 떨치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일군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사업을 깊은연구없이 거칠게 하는 현상을 없애고 농업생산을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영농물자와 영농기자재 공급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치차와 같이 맞물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도하며 세부계획화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통계에 기초하여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안받침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또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농기계와 농약,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낡은 경험이나 뒤떨어진 수공업적방법으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 우리의 모든 농촌지도일군들과 농업기술자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농업 과학과 기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긴장하게 생활하며 한알의 쌀, 한방울의 연유, 한와트의 전력이라도 더 많이 절약하고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식량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올해 알곡을 많이 생산하였다하여 량곡을 허실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더 많이 절약하여 예비량곡을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주체농법과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을 위하여 농업전선을 더욱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농업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며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자.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

리 형 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간부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자체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은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정치실무수준을 더한층 높임으로써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 하여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입니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 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 되여나갈수 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골간부대이다.

당대렬의 질적수준은 주로 간부대렬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의 핵심진지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전당을 강화할수 없다.

간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잘 준비되여야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울수 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간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되여있어야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빛나게 수행해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들은 당의 기본핵심력량일뿐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간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 얼마나 심도있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맡아하는 간부들의 준비정도에 결정적으

로 달려있다.

간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매 시기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인민대중속에 잘 해설해줄수 없으며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이처럼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할수 있는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고있어야 당을 더욱 강화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비추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2폐지)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우리의 현실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갈수 있다.

지금 온 나라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호소에 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세차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혁신과 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문제는 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어떻게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은 지금 모든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두어깨우에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과감히 떨쳐나 돌격선에 들어선 지휘원답게 전투지휘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을 기대하고있다. 오늘 우리 지도일군들의 준비정도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면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당이 요구하는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튼튼한 준비를 갖출수 있다.

지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의 지도일군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투지휘를 더욱 능숙하게 기동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일군들이 모든 전투를 능란하고 기동성있게 지휘해나가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황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모든 군중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이처럼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보장하자면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은 그들의 정치실무수준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일군들의 사업방법이 서툴고 작풍이 거친것은 수준이 어린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지도일군들은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심화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지도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태도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않는다.

당과 혁명은 오직 불타는 충성의 일념을 안고 왕성한 패기와 혁명적정열에 넘쳐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해제끼며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하는 그러한 일군들만을 요구한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하는 시대의 혁명가다운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현실은 새로운 높은 단계의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지도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이 현시기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열쇠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 *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당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11페지)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이 사업에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것이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 문제는 결코 개별적일군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간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연한 학습망체계와 간부양성체계를 세워주시고 간부들의 학습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마음껏 학습하고 자기의 수준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도록 보장해주시였다.

문제는 모든 간부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와 깊은 심려를 가슴깊이 새기고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믿음직하게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마음먹고 달라붙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간부들의 준비정도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할것이 아니라 실지사업을 통하여 권위를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간부들이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13페지)

간부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간부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기술경제지식과 실무능력을 다 갖춘 유능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다.

간부들이 꾸준히 학습하지 않고서는 매 시기 혁명의 과녁이 무엇이고 어디에 투쟁의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무장하여야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주체의 혁명적인 방법론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

간부들은 또한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능숙하게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사업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등 그릇된 사업방법과 작풍을 극복할수 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기술지식을 비롯한 해당부문의 전문지식을 배우는것이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부문간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간부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현대적기술과 깊은 경제관리운영지식을 소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되여야만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춘 유능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조성된 정세는 간부들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 정통할뿐아니라 군사를 성실히 배울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간부들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간부들이 현실에 깊이 침투하는것은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은 인민대중이며 현실입니다. 모든 간부들은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실지사업을 통하여 자기의 수준을 높이며 자기 사업을 총화하고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늘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은 인민대중이며 현실이다.

간부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귀중한 경험을 배울수 있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실지사업을 통하여 지도수준을 높이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세련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현실에 들어가야 간부들은 당정

책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대중에게서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지를 배워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칠수 있으며 근로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빛나게 구현되고 꽃피여나는 현실속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된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당에서 가르친대로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침식을 같이하며 작업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주목을 돌리며 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래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자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일군들속에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결코 자각성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당적 지도와 통제가 안받침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속에서 학습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학습과제도 제시해주고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며 학습을 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수 없으며 일할수도 없다는 그런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가지게 해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론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학습에서 론쟁의 방법은 일군들이 학습과정에 잘 리해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만들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또한 대론쟁의 방법으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론쟁은 대중적인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옳고그른것을 명백히 가려내며 사상적병집을 고쳐주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법론을 찾는 사상전의 하나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대론쟁의 방법으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글을 많이 쓰우도록 하는것도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일군들은 글쓰는 과정에 여러가지 참고문헌들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되며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워 더 많은 글을 쓰게 하며 그것을 당적출판물에도 내고 군중교양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강연제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학습제강과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도 지도하고 군중앞에 출연하여 강연도 하며 일터와 가정에서 당정책을 널리 해석선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도 높아지고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방법도 체득할수 있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한계단 더 높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하는 사람의 고유한 풍모

현 명 준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의 전도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비관함이 없이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혁명정신이다. 그것은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고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굴함없이 투쟁하는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이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사람들을 불굴의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자기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높은 계급적 자각과 립장 등으로 교양하는것과 함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에게 혁명의 전도에 대한 신심과 락관주의를 길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위업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의 전도를 락관하는 정신이 없다면 혁명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닥치게 될 곤난을 이겨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581페지)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하는것은 간고한 혁명투쟁자체의 필수적요구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본래 혁명이란 낡고 부패한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다시말하여 자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낡고 썩은 저주로운 사회의 상층부를 폭파하고 전사회적구조를 혁명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투쟁은 더말할것도 없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대중이 낡은 사상과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다.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새 제도를 세우며 자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거창한 사업은 결코 백주에 탄탄한 길을 걸어가듯이 아무런 곤난도 없이 헐하게 될수 없다. 혁명도상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이 있을수 있으며 때로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온갖 난관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에 넘쳐 싸워나갈 때만이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간고성앞에서 신심을 잃고 혁명을 외면하는것은 사실상 인민들을 자본의 종신노예로 내맡기는것이며 그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적락관주의와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두려움없이 싸워나가는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압력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혁명의 간고성을 이겨내지 못하여 결국은 혁명내오에서 물러서며 혁명을 크게 후퇴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전투적으로 싸워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미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달성한 성과에 자만할수 없으며 더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완수하여야 할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이 무거운 혁명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가야 한다.

더우기 오늘 우리 인민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핵무기를 비롯한 수많은 대량살륙수단들과 작전장비들을 군사분계선일대에 배치하여놓고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혁명의 류례없는 간고성과 복잡성을 그대로 말해준다.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난관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는 높은 혁명적 기백과 투지,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전진도상에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난관과 시련, 있을수 있는 우여곡절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혁명가들의 혁명적락관주의 정신,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 그리고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이러한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높은 자각으로 하여 혁명가들은 준엄한 난관과 시련이 겹쌓인 혁명의 길에서 한생을 마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고있으며 언제나 혁명적 락관과 정열에 넘쳐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가들은 아무리 간고한 조건에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굽히거나 더럽히지 않으며 혁명승리를 굳게 믿고 굴함없이 싸워나간다.

높은 혁명적락관주의,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용기백배하여 전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91페지)

우리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락관주의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굳게 지키며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품성이다.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는 높은 혁명적

기백과 대담성으로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락관주의는 이와 함께 이미 얻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정신에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고 일하며 생활을 명랑하게, 생기발랄하게 꾸려나가고있다.

이 높은 혁명정신, 고상한 전투적기백과 혁명적기풍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안일과 침체를 모르는 혁명적인민으로 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처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 숭고한 혁명적락관주의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나갈 때만이 혁명의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한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혁명적신조는 수령님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뚫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오는 행정에서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자리잡은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이며 철의 의지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재생과 새생활창조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놓으시였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고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완수하여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걸어온 승리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현명하게 이끄시는 한 승리하지 못할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였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언제나 필승의 신념에 넘쳐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락관주의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끝없는 신봉과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원리와 원칙, 과학적인 전략전술적 방침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음으로써 사람들은 복잡하고 간고한 정세하에서도 주동적으로 난관을 뚫고 투쟁 방향과 방도를 찾으며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굴의 혁명적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고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혁명적락관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렇듯 우리 인민의 혁명적락관주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드놀지 않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힘있고 가장 숭고한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빛나는 승리의 로정은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어떤 준엄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고 기세충천하여 달려온 보람찬 투쟁로정이다.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락관주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과정에서 높이 발휘되였으며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락관주의의 빛나는 귀감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들은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 싸웠지마는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명랑하고 혁명적락관주의로 가득차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5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양을 받고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항일혁명선렬들은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을 지니였기에 깊은 산속에 홀로 남거나 사형장으로 나가는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결코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았으며 혁명가의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끝까지 싸웠다. 그들은 심지어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 쓰러지면서도 광복될 조국의 앞날과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에 넘쳐 그리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이 고귀한 혁명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은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적들의 총포탄이 우박치는 불비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전쟁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었으며 언제나 원쑤격멸의 전투적사기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였고 조국과 미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심장을 간직하였기에 아무런 두려움도, 주저도 없이 적탄을 맞받아 앞으로 돌진하였으며 원쑤들을 무찌르고 또 무찔렀다.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만이 남았던 전후의 그 어려웠던 시기 결코 난관앞에 실망하지 않고 혁명적락관주의에 넘쳐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가시고 온 나라의 도시와 마을들을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일떠세울수 있었다.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이 심하였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확고한 신념과 높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돌진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은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거세찬 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는 혁명하는 인민, 투쟁하는 인민답게 그 어느때보다도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락관주의에 넘쳐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필승의 신념과 드높은 혁명적락관에 넘쳐 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혁명적신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그 어떤 광풍에도 뒤흔들리지 않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으로 삼을 때 우리는 마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 앞을 굽어보듯 모든것을 환하게 내다볼수 있으며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필승의 신념을 가져야 또한 혁명투쟁에서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발휘할수 있으며 비록 더는 뚫고나갈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서 투쟁을 끝까지 계속할수 있으며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이와 함께 미래를 사랑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미래를 사랑하는 높은 혁명정신을 가져야 아무리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용감하게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있기에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며 비록 혁명의 최후승리를 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에도 결코 비관하거나 락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철벽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 조국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 할수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는 비할바없이 높아질것이며 그들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주의에 넘쳐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게 될것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주며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의 필연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혁명승리의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특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 미쳐날뛰지만 놈들은 반드시 멸망하지 않을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깊이 파악하게 하여야 한다.

실로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칠수 있는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혁명적락관주의와 필승의 신념을 튼튼히 가짐으로써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추호의 동요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갈것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수할것이다.

자위사상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인 군사사상

한 금 룡

오늘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도 불구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날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숱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다놓고 우리를 위협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세를 첨예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그 어떤 광란적인 전쟁소동과 위협공갈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속도를 한걸음도 늦추지 않았으며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나가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키면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온 나라에는 생신하고 약동하는 혁명적 기상이 차넘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행군길은 보다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그처럼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위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자위사상의 정당성은 우리 인민의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이미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이번 판문점사건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 높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위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군사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사상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자위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자위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에서 근본을 이루는 사상이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군사로선과 군사전략전술적방침들에 일관되여있는 지도원칙

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방에서 자위는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것을 의미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립장이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적과의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자체의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하여야만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력량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39페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혁명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혁명전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내부력량이다. 주체적력량, 자위적국방력이 마련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전쟁승리의 모든 요인들과 전쟁이 진행되는 구체적조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하는 자기나라의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으며 전쟁의 운명에 대하여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자기 인민의 힘과 자체의 공고한 후방에 의거할 때만이 외래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진행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수많은 세계혁명전쟁력사가 말해주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주체적힘, 내부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지 않고 외부의 지원과 원조만 바란다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으며 혁명전쟁에서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할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어떤 주권국가를 막론하고 안팎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자주성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을 면치 못하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국가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적들에게 롱락당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직 자위사상을 관철하여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하여야만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당당한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적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고수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전쟁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습니다.》
(우와 같은 책, 571페지)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과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달라질수 없다.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그 침략성과 략탈성이 더욱 강화되며 놈들은 멸망과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기 위하여 더욱 미쳐날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자본주의를 휩쓴 파국적인 경제공황의 산물이였으며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과 웰남침략전쟁도 당시 놈들이 처한 정치, 경제적 위기의 산물이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도 역시 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제국주의가 걸어온 피비린내나는 전로정은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한 결코 평화의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금번 판문점사건은 그것을 더욱 뚜렷이 증명하여주었다. 이 사건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본업으로 삼고있는 미제의 흉악하고 교활한 강도적본성을 세상에 더욱더 드러내놓았을뿐아니라 미제가 제놈들이 처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무때나 모략적인 도발사건을 꾸며내고 전쟁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오직 자위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체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언제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만 원쑤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며 설사 놈들이 분별없이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

이것은 온 세계가 우러러 표시하였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때에 우리가 취한 단호한 립장에 미제국주의자들이 굴복한 사실이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당시 미제날강도들은 우리 나라의 문턱까지 숱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립장을 취할수 있었으며 결국 침략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모든 사실은 자위적인 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해놓아야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모험으로 하여 일어날수 있는 불의의 사태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은 또한 현대전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군사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의 전쟁은 많은 인원과 복잡한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는 립체전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입니다.》

(《김일성군사선집》, 제1권, 466페지)

현대전은 정규군과 함께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전면전쟁이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고 전투행동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립체전이다. 현대전은 또한 최신군사기술기재들이 동원되는 기계화전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과학전이며 일단 시작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전이다.

현대전은 종래의 전쟁들과 다르게 전쟁에 인입되는 인적, 물적 력량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전투행동이 보다 넓은 공간속에서 진행되며 시간적인 지속성 등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현대전의 이러한 특성은 정규무력을 강화할뿐아니라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전선과 후방에서 요구되는 방대한 군사적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군사정치정세에 맞게 군사전략과 전술상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령활하게 풀어나갈것을 요

구한다.

남의 힘에 의거하여가지고서는 현대전의 이 요구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으며 불의성과 장기성, 높은 기동성과 군사정치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현대전의 요구들을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들을 자체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자위사상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은 현대전의 요구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군사사상이다.

세계혁명이 승리하는 과정은 곧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그것을 공고확대하여나가는 과정이다. 승리한 혁명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지 않고서는 세계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그의 종국적승리도 이룩할수 없다.

승리한 혁명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을 보위할수 있는 군사적담보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혁명에서 승리한 매개 나라들에 자위적인 국방력이 마련되여야 승리한 혁명을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기지를 강화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위사상은 이와 같이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과 혁명전쟁, 반제혁명투쟁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군사사상이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하는 필승불패의 군사강령이다.

참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위사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군사활동과 국방건설 분야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며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져야 할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건드리려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예와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존엄과 영예에 대한 그 어떠한 침해도 용허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일산, 일수, 일목, 일초를 감히 그 누가 함부로 다치는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

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지금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다. 놈들의 발광적인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위사상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단매에 처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더욱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침략과 도발 책동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61페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자위사상을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요구이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 자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온몸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는 당의 믿음직한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원쑤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지켜낼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반대하고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며 우리 당의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본때있게 싸워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는 만만한 투지와 각오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혁명적규률은 당과 혁명군대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우리는 혁명의 원칙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자각적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전당, 전국, 전군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따라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다같이 한전호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할 혁명전우들이며 동지들이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며 혁명적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필승의 신념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승리의 신심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추호의 동요없이 적과 끝까지 싸워 이길수 있다.

우리에게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가 있으며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과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이 마련되여있는이상 타승하지 못할 원쑤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능히 자체의 힘으로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침공도 물리치고 조국과 혁명을 철옹성같이 보위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자위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군사기술적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될 때에는 참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63페지)

고도로 발전된 군사 과학과 기술의 성과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전은 군인들과 인민들의 튼튼한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높은 군사기술적준비를 요구한다.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되고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혁명군대와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다. 인민군장병들은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며 특히 백전백승하는 주체전법을 더 깊이 체득하고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보다 정통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 다른 한손에는 총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군사를 더욱 성실히 배우며 군사훈련을 보다 정력적으로 벌려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군사기술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잘 갖추는것은 현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65페지)

우리는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여야 불의의 사태에서도 전선과 후방에서 요구되는 물질적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를 더욱 세차게 울리며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려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정황속에서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더 공고하고 생활력이 있는 강한 자립경제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감으로써 자기의 전투초소를 굳건히 지키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을 더 잘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져나가기 위해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

장　형　준

새로운 시대와 현실은 언제나 문학예술앞에 새로운 문제와 과업을 제기한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작가, 예술인들에게는 사회주의 새 현실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할 새로운 력사적과업이 나섰다.

이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문학예술에 대한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이 일정에 나서고있는 우리 시대앞에는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의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 문제를 정확히 해명할데 대한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에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시대의 요구를 천재적으로 풀어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우리 천리마현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을 어떻게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인가 하는것을 완벽하게 밝혀주고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여준 위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강령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문학예술사업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이 새 현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원칙에서 새 현실과 새 인간을 그릴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적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로작은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 주목을 돌릴데 대한 방향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에 기초하여 새 현실을 묘사할데 대한 원칙을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현실반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근본적인 해답을 주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당의 총로선에 기초하여 새 현실을 반영할데 대한 원칙은 천리마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당시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철저히 반영하고있는 탁월한 사회주의현실묘사원칙이다.

이 원칙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에 천리마의 시대정신을 힘있게 구현하고 사회주의사

회를 비약과 혁신, 투쟁과 전진으로 충만된 영웅적현실로 그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또한 천리마기수의 성격적본질과 그 전형화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새 인간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숨쉬고 활동하는 혁명전사, 인간개조의 선구자-공산주의교양자로,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온갖 뒤떨어진것을 짓부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생활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빛나게 형상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문제와 함께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의 원천을 밝힐데 대한 문제가 새롭게 천명되여있다.

이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단결되여있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위력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승리의 근본요인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빛나게 확증할수 있게 되였다.

로작은 작가, 예술인들의 당정책연구와 현실체험을 강화하며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을 구현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밝혀주었다.

로작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현실묘사의 원리,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준비, 문예활동에서의 군중로선의 구현,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 등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적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정확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고 우리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강령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영화예술을 비롯한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 천리마의 시대정신이 힘있게 구현되고 새 사회의 주인공,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이 훌륭히 창조되였다. 그리하여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화원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전형과 함께 천리마기수들의 아름다운 전형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문학예술을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학예술건설강령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는 특히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이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훌륭히 수행된것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고수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 혁명적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영화예술이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기치로 더욱 빛나게 되였으며 가극혁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고 《피바다》식가극의 새기원이 열리였으며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되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세심한 지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 및 창조 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 돌격대로 튼튼히 준비하였으며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 모든 성과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아무런 편향없이 건설할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전 과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현실은 문학예술앞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3대혁명로선을 구현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이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전행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강령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본질적측면에서 가장 정확히 문예작품에 반영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그 기본내용을 옳게 반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은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문학예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정확히 반영하자면 3대혁명을 잘 묘사하고 노래하여야 한다.

3대혁명로선을 구현할데 대한 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은 또한 거기에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그 실현에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힘있는 사상적무기이다.

탁월한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반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혁명적본성이며 그 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을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가자면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견지하여야 할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인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오직 이렇게 할 때에야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3대혁명로선을 구현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그 주인공들을 형상하는데로 작가, 예술인들을 부르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투쟁목표로 내세우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의 앞장에는 당중앙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추켜든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서있다.

그러므로 3대혁명로선을 구현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일떠선 주인공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빛나게 전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특히 3대혁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혁명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 그중에서도 청년인테리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맡겨준 영광스러운 시대적과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3대혁명로선을

구현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은 지난날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작적대고조를 일으켰던것처럼 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앞에는 당의 문예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의 문학과 예술을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12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내놓은 독창적인 문예 방침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를 창작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문학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는 당중앙의 방침과 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과 리론이다.

주체의 인간학은 기존리론들에서 규정한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잴수 없는 전혀 새로운 인간학이며 철저하게 불멸의 주체사상을 그 철학적기초로 하고있는 완전히 새로운 공산주의인간학이다.

이 새로운 인간학은 작품의 중심에 사람일반이 아니라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주적인 인간을 내세우고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확인하고 그들에게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것을 자각시키는 새형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이다.

새 인간학에 관한 리론은 작품에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며 위대한 생활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관점을 명백히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창조적인 리론이다.

사람, 근로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형상하고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적특징과 그 혁신성이 있다.

우리 당은 인간학의 기본은 성격을 창조하여 참다운 인간의 본보기를 내세우는데 있다고 하면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가 주체의 인간학창작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새 인간학의 혁명적본성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발전자체의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력사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로부터 시작되고 발전하여온 력사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은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할 력사적과제를 맡고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낳은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은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

민성의 최고표현인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그러므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새 인간학창작의 믿음직한 담보이며 그 중심고리로 된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며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숭고한 정신세계와 고결한 품성을 잘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과 그 전형화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정신적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할수 있는 길이 열리였다.

문학예술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아름다운 성격을 보여주는 충성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어버이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인간들의 위대한 힘을 확증해주는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을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리론의 위력이 있다.

우리 시대와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또한 창작에서 개성적특성과 독창성을 살릴데 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한틀에 맞추어 만드는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다.

작품이 작품으로 되는것은 거기에 바로 창작가의 개성적특성과 독창성이 구현되여있기때문이다.

창작적개성은 문학예술작품에 생기를 주고 류사성과 도식은 그에 죽음을 가져온다.

날에 날마다 새것이 창조되고 주체형의 새 인간이 탄생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통하여 인간개성이 활짝 꽃피여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개성적인 안목과 독창적인 창작적자세를 가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작가, 예술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창작적개성을 가질수 있다.

창작적개성은 창작가의 창발성과 독창성을 통하여 구현된다.

창작가들의 창발성과 독창성은 기발하게 착상하고 문제성있는 새 종자를 잡으며 새로운 성격을 탐구하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짜며 독특한 형상수법을 찾고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며 생신한 표현과 어휘를 골라쓰는데서 나타난다.

창작가의 창발성, 독창성이 당의 사상과 우리의 현실, 집체적지혜에 의거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적창작적개성의 혁명적본질과 그 위력의 원천이 있다.

창작가의 개성적특성과 독창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가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긍지,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창작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며 자기의 창조적재능을 마음껏 발휘

하도록 고무하여준다.

이 방침에 의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에서 도식주의와 류사성을 경계하고 창발성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높이에 끌어올리고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다양한 꽃으로 우리 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여날수 있게 하였다.

우리 시대와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웅적인민이 요구하는 예술은 응당 영웅적이여야 하며 세계무대에 오른 인민이 요구하는 예술은 응당 세계적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 인민들은 당신들이 그러한 문학예술의 창작을 위하여 자기의 심혈을 기울일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당신들은 문학예술전선의 영광스러운 전사들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61페지)

당중앙은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 이 자랑스러운 칭호에는 우리 창작가들에 대한 은혜로운 당중앙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 끝없는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앞장에 서서 전진하는 시대의 선구자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시대를 심장에 뜨겁게 받아안고 현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창작적자세를 가질수 있으며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의 임무와 사명을 새롭게 밝혀주면서 시대의 기수, 생활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창작가들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깊은 창작적사색은 작품창작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옳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져야 현실을 당의 정책적립장과 조선혁명승리의 견지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민감하게 받아안을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기호에 맞는 훌륭한 혁명적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체험은 인간학 창작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하여야 인간학을 만들수 있으며 허공에 떠서는 인간학을 만들수 없다.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생활체험을 축적해나가며 현실속에서 사색하고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당이 새롭게 밝혀준 가장 적극적인 현실연구방법, 가장 혁명적인 창작기풍이다.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체험하며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이 방침은 현실체험을 창작과정과 밀착시키고 창작과정을 현실체험과정으로 전환시켜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오늘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예술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커다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져야 하며 그에 예술적기량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이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높이며 주체예술의 영예를 계속 고수하고 더욱 빛내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만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걸출한 작품들이 영화, 소설, 음악, 무용, 미술 등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이 창작되고 주체조국의 영예를 떨칠 뛰여난 독창가수, 독무가, 독주가들이 더 많이 배출되며 어느 부문에서나 특출한 재능을 가진 예술의 수재가 많이 나올것이 요구되고있다.

예술적기량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그것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적기량이 없으면 예술인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술적기량에 관한 문제는 예술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기술실무적준비에 관한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예술인으로서 보람있게 활동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 즉 예술적생명에 관한 문제로 된다. 이 예술적생명은 꾸준한 학습과 완강한 기량훈련에 의해서만 고수되고 빛내여질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이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개별기량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술적기량을 높이는데서 안삼불수준을 높이는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안삼불수준도 개별기량이 높아지는 조건에서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개별기량을 높이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토대하여 안삼불수준도 함께 높여야 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 기초우에 예술적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자기의 전공부문에 정통하며 개별기량을 높이고 예술적기교를 더욱 련마하는것은 오늘 작가, 예술인들에게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제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예술적기량을 월등하게 높일 대담한 목표밑에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시대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는 예술적자질을 원만히 갖출수 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 방침과 리론들은 우리 혁명과 우리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모든 원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임무와 미제침략자들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성된 준엄한 정세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안겨줄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강령과 그 빛나는 구현인 영광스러운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예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수행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은 군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방법

김 봉 춘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올해 전투과업을 넘쳐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대자연개조를 위한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충천한 기세로 떨쳐나서고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선동을 더욱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더한층 높이 발양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정당성이 확증되고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경제선동의 위력한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　　　*

경제선동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는 중요한 대중정치사업방법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힘있는 대중동원수단이다.

경제선동이 군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대중정치사업방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사상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본질적특성, 사회주의건설시기 당활동의 근본요구와 관련된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선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선전과 함께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동사업은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발동시키는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5페지)

선전과 선동은 당사상사업의 기본분야로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두 측면을 이룬다.

당사상사업에서 선전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원리적으로 해설선전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 진수를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깊이 인식시키는 사상사업형식이라면 선동은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형식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원리적으로 계발시키고 교양개조하는 선전과는 달리 선동은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상의식에 커다란 충동을 주어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게 하는 힘있는 대중동원수단이다.

선동사업의 기본분야를 이루는 경제선동은 바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정치적열성과 혁명적기세를 높여주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직접 발동시킴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즉시에 은을 나타내게 하는 위력한 대중정치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방침이 인민대중에

게 파악될 때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되며 당의 구호도 대중자신의것으로 접수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경제선동은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생산현장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내용으로 하여 대중을 불러일으킬수 있게 한다. 경제선동은 또한 간단명료하고 생동하며 대중의 생산활동과 직접 결부되여 진행되는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경제정책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여 곧 실천행동에서 구현할수 있게 하며 그들속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불러일으킬수 있게 한다.

경제선동이 사상사업의 기본형식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시기 당활동의 근본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과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고 인민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활동 특히 선전선동사업에서는 응당 모든 근로자들이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열성을 발휘하여 경제건설을 잘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이 돌려져야 한다.

진공적인 선전선동 특히 경제선동사업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을 어떻게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당사상사업, 경제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할 때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다. 그리하여 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의창발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게 되며 사회주의제도자체도 더욱 공고발전시키게 된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이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근로대중의 창조적힘을 적극 동원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사람들의 사상에 발동을 거는 경제선동과 같은 위력한 대중동원수단을 가질 때만이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발판개와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 토지개량, 치산치수와 간석지개간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연개조 5대방침은 농업생산과 농촌건설,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웅대한 설계도이다.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이 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선동을 더욱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야만 당면한 대자연개조사업과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

며 우리의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바탕으로 하고있는 가장 창조적인 방침이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이야말로 당사상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선동사업을 그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부단히 따라세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과 전투장들에서 속도전의 혁명적폭풍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끝없이 흥분시키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실천적경험은 당중앙이 제시한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이 군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혁신적성과들은 그 어느 하나도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전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경제선동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최근년간 우리 당사상사업, 선전선동사업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심장을 뜨거운 충성의 열도로 끓어번지게 하고 그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대경제선동이 온 나라 모든 전투장들에서 힘있게 전개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선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고귀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격적인 대경제선동의 위력한 본보기가 창조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당선동사업발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중앙은 지난해 검덕을 대유색광물생산기지로 꾸리며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 문학예술부문, 보건 및 상업류통 부문일군들로 무어진 충성의 경제선동대를 파견하여 온 검덕땅을 충성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였으며 광물생산에서 전례없는 대혁신을 이룩하게 하였다.

실천적경험은 경제선동이 전격적으로 벌어지는 단위들에서는 례외없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 당의 경제정책이 훌륭히 관철되며 경제선동을 강한 사상전의 방법으로 전공적으로 벌릴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도 높일수 있고 생산의 앙양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전선을 비롯한 동서해지구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예술인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선동대원들은 선동연설을 비롯한 구두선동과 직관선동, 혁신자축하모임, 출근길환영모임, 예술선동을 포함한 현장기동선동, 고동대, 현장방송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근로자들을 전투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집중적이며 전격적인 경제선동의 우수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당선전선동일군, 현장선동원, 출판보도일군, 예술인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 수단으로 경제선동을 전공적으로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3,4월 현지교시관철에로 로동계급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경험은 생산장성의 예비가 그 어떤 설비나 자재, 생산 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의 사상에 있으며 경제선동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그들이 모두다 자기의 전투과업수행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광범한 정치사업, 사회적지원사업과 옳게 결부되여 종합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여야 더욱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경제선동사업은 그 조직 형식과 방법, 내용에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가고있으며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지금 북창화력발전소, 웅기와 청천강 발전소건설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장과 발전소, 탄광, 광산들 그리고 만리 원해어로장에 이르기까지 경제선동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제선동은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에서도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전국 선전일군들과 선동원들, 지원로력과 각도 기동선동대들은 올해 첫 영농기부터 강력한 경제선동을 벌림으로써 그처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80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여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 경제선동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참으로 당중앙이 제시한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이야말로 광범한 군중의 사기와 혁명적기세를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위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할 성스러운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키우고 혁명적선풍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위력한 정치사상사업,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경제선동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부문, 모든 초소가 앙양된 전투적분위기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게 하는데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경제선동사업의 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선동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패기있게 벌리며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제선동사업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 현실적으로 걸린 문제를 푸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선전선동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과 밀접히 련결되여야 하며 사상사업의 결과는 경제건설에서의 구체적실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7페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이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오늘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전력공업과 채취공업, 수송을 앞세우는데 계속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이 부문의 모든 전투원들이 비상한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더 많은 전력과 석탄, 쇠돌을 생산하고 많은 짐을 더 빨리 실어나름으로써 이미 마련된 거대한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

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발전소들과 발전소건설장들에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다 들이밀어 경제선동의 화력을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동력전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켜 전력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더 많은 전력이 사회주의대건설장에 흘러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예견된 새로운 공장건설을 비롯한 생산건설은 하루빨리 끝내고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에 크게 달려있다.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올해 10월전원회의결정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해설침투시키는 동시에 경제선동을 더욱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모두가 대자연개조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 드높은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의 경제가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생산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칠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오늘 물자와 자금, 로력을 1%씩만 절약하여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은 방대한 량의것을 거저 얻는것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당의 구호대로 한키로와트시의 전력, 한방울의 기름, 한그람의 세멘트,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극력 아껴쓰며 유휴자재와 폐설물들을 생산과 건설에 효과있게 회수리용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선전선동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심려하시는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귀착되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심장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성의 열도로 끓어번지게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 때 이여의 모든 련쇄된 고리들이 풀리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경제선동사업이 현실적으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야만 그것이 당사상사업을 혁명과업과 결합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군중을 흥분시키고 그들을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대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라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불같은 충성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복구건설에 달라붙던 그 기세와 투지로, 원쑤들의 준동을 물리치고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던 그러한 용맹과 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사업의 과녁을 옳게 선정함과 함께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생동한 내용과 형식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동사업도 천편일률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시간과 조건, 혁명임무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05페지)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통이 크게 벌리며 그 내용과 형식을 생동하게 하는것은 경제선동사업의 생명이며 경제선동에서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경제선동을 소극적으로 그리고 때와 장소,

대상과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천편일률식으로 하여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집중적이며 생동한 경제선동만이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대중을 감화시킬수 있고 그들을 경제건설에로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구두선동, 직관선동, 모임선동, 예술선동, 방송선동 등 모든 선동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그리고 내용이 참신하고 생동하게 벌려 전투장마다가 언제나 혁명적기백으로 차고넘치게 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당은 선전선동사업도 응당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커다란 감화력과 생활력을 가진 선전선동의 형식과 방법들이 수많이 들어있다.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의 집행자인 지도일군들은 경제선동사업에서 핵심이 되고 선봉이 되여야 한다. 당중앙은 오늘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는 구호를 제기하고있다. 당일군이건 행정일군이건 또 웃사람이건 아래의 초급일군이건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식으로 선전선동사업을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벌려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가 하부말단까지 더욱 철저히 침투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이 일어날수 있다. 일군들은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전투가 벌어지는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자신이 직접 선동원이 되여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알려줌으로써 모두가 당의 숨결따라 숨쉬고 움직이며 충천한 기세로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에서는 회수나 수자가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실지로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일군들은 경제선동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그것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당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대로 일해나가야 한다.

경제선동사업은 당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진행하여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며 광범한 군중을 대상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고 이 사업에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을 적극 망라하며 해당단위의 선전선동력량을 최대한으로 조직발동시키는것은 경제선동의 성과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현실적요구와 긴장된 새로운 정세에 맞게 경제선동을 더욱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벌리며 모든 당 및 행정경제 일군, 선동원들이 다 경제선동사업에서 한몫씩 단단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동원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도록 사업경험도 소개해주고 고무해주며 경제선동의 새로운 모범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선동을 홀시하거나 차요시하는 사소한 현상과도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이 사업을 당위원회의 정상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의 벅찬 시기에 모든 단위와 전투장들에서 생기발랄하고 전격적인 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온 나라가 언제나 혁명적대고조의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자.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리 근 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에 하신 여러 교시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올리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키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이 장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경제관리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는데 마땅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43페지)

경제적공간은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하는 중요한 경제적수단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계획화, 기자재공급, 독립채산제와 같은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간다.

경제적공간의 리용문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원칙적인 문제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공간의 합리적리용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과 범주들을 옳게 인식하고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낡은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될 때 비로소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과 범주들을 정확히 인식하

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리용할 때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된다.

경제적공간의 리용은 경제 법칙들과 범주들을 인식하고 리용하는 기본형태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경제적공간을 리용하는 과정에 경제 법칙들과 범주들을 더욱 정확히 인식하며 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킨다.

경제적공간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리용될 때 생산자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의창발성, 책임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자극과 통제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면 할수록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할수 있으며 생산잠재력과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경제적공간의 리용문제가 사회주의건설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원칙적인 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는데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 같은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이 작용하는 동시에 낡은 사회의 유물과 관련하여 가치법칙도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획화, 기자재공급과 같은 사회주의경제법칙들과 관련된 경제적공간을 선차적으로 리용해야 할뿐아니라 독립채산제, 국가예산, 원가, 가격과 같은 상품생산 및 가치법칙과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는데도 마땅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제적공간리용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공간들이며 이것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경제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좌우경적오유를 범한다면 엄중한 손실을 가져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09페지)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공간리용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과거사회로부터 넘어온 경제 법칙과 범주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리익에 맞게 리용하는 문제이다.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경제적공간의 리용 특히 로임, 상금, 리윤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람들의 물질적관심을 높이는데만 치중한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칠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공간을 리용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을 랑비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도 적극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공간 특히 가치공간의 리용문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되며 나라의 모든 자원과 조성된 물질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하여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분

별한 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어느때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단계에 놓여있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앞에는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혁명기지를 불패의 보루로 튼튼히 꾸려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 것으로 다져나갈 때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감히 덤벼들수 없게 되며 적들의 온갖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놓은 전투적구호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이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 자재, 설비, 로력, 자금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을 더욱 빨리 전진시켜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만 경영활동전반을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으며 비생산적지출을 엄격히 통제할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그래야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게 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할수 있다.

이렇듯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 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적공간리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가치법칙과 관련한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낡은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과도기에는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야 경제관리를 합리화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5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사회주의기업을 관리운영하는것도 그들자신이 책임지고 하여야 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생산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여야 경제관리를 개선하여나갈수 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동시에 상품생산 및 가치법칙과 관련된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상품생산 및 가치법칙과 관련된 경제적공간을 리용한다는것은 원가, 가격, 로임, 리윤, 국가예산과 같은 공간을 리용하여 사회적생산을 위한 지출과 그 결과를 가치적으로 타산하고 국민

소득을 분배, 재분배하며 경영활동의 개별적기능을 조장발전시키거나 통제하고 제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원가, 가격, 로임, 상금과 같은 경제적공간을 잘 리용하면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이도록 생산자들을 자극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적형태를 띠는것만큼 원료, 자재의 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적용하고 류동자금공간을 잘 리용하면 기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있고 불필요한 물자를 사장하는 현상을 제때에 통제할수 있다. 따라서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공간의 합리적리용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할수 있게 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가치공간의 리용에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가 계획경제라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생산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성된 계획에 따라 조직진행된다. 사회주의기업소들은 국가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정된 지표별, 품종별, 규격별 세부계획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며 생산물은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자재상사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실현한다. 그러므로 상품생산 및 가치법칙과 관련된 경제적공간은 계획화나 기자재공급을 대신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과 류통을 조절할수는 없으나 그와 밀접히 결부시켜 옳게 리용할 때 생산을 자극하고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이 분야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미리 막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적공간리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독립채산제를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현물지표에 의한 생산계획실행평가방법과 국가계획실행에 따르는 로임지불제도, 고정재산상환비와 지불보증제, 우대상금제를 새로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국가에 의한 류동자금공급을 더욱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기업소경영활동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국가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철저히 수행하도록 자극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지방예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지방예산제가 철저히 실시됨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경제문화발전에서의 지역적차이를 빨리 없애고 모든 지방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키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국가예산수입을 늘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 문제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절약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리하여 원가가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국가예산수입은 빨리 늘어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혁명적앙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할데 대한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며 경제적공간을 잘 리용할 때 그 어떤 편향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며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리론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 원리와 체계, 방법을 뚜렷하게 밝혀주는 과학적인 학설이며 경제법칙들을 옳게 인식하고 리용하는데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 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 문제는 그 어떤 경제실무적인 문제로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와 지방예산제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모두가 규정대로 사업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말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4페지)

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경제적공간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조직사업을 치밀히 하여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또한 증산절약의 예비와 가능성은 해당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리용되는 경제적공간도 꼭 같을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과 관리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높여야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온갖 예비

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실무수준을 높여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경제실무학습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계획화와 기자재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는 물론 독립채산제, 지방예산제, 원가, 가격, 로임, 재정과 같은 경제적공간리용에서 나서는 경제실무적문제들까지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제계산을 정확히 조직진행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이며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경영활동과정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진행하여야 물자와 자금의 사장, 류용, 랑비 현상을 제때에 반긴하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할수 있으며 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엄격히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업무계산, 부기계산, 통계계산과 같은 경제계산을 정확히 진행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적극 동원하여 경영활동전반을 일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하며 사소한 랑비현상이라도 철저히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재정은행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정은행기관들은 마땅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이 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국가자금을 바로 쓰도록 끊임없이 통제하고 검열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90페지)

재정은행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한푼의 자금이라도 더 아껴쓰게 할수 있으며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자금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재정은행기관들은 로임자금과 류동자금의 공급, 국가예산자금의 납부, 기업소들사이의 결제공간을 통하여 품종별, 지표별 국가계획의 수행정형과 원가저하, 로력, 물자, 기계설비의 리용정형을 늘 통제하여야 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재정관리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영광스러운 당이 창조한 새로운 재정관리의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 일재정총화를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재정총화체계와 재정처리에서의 즉결제도, 재정관리에서의 련대적책임제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정검열제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재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과학적인 관리조직사업과 엄격한 통제를 결합시켜 경제관리와 재정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나갈 때 나라의 살림살이는 더욱 알뜰하게 꾸려질것이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다 큰 비약이 끊임없이 일어날것이다.

모두다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자.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

전 인 철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 때로부터 한해가 지났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며 조선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이 결의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과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이 공정한 결의가 채택된 이상 미제는 그것을 리행할 의무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지난 한해동안 그것을 리행하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놈들은 유엔의 결의를 리행하기는커녕 도리여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어느때보다도 격화시키는데로 나갔다. 미제는 드디여 지난 8일에는 모략적인 판문점사건을 계획적으로 도발하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무모한 책동까지 감행하였다.

현실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저앉아있는 한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하며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것이 오늘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더욱 명백한 사실로 되였다.

이것은 현정세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리행하는것이 가장 절박한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1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커다란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엔총회에서 우리측 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유엔력사에서 류례없는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

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신년사》, 1976년 1월 1일, 5~6페지)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것은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서 하나의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유엔의 30년력사에서 일대 전환점으로 된다.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는 이때까지 미제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여왔다. 미제는 유엔헌장을 짓밟고 유엔총회 제2차회의이래 해마다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시켰으며 거수기를 발동하여 저들의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미제는 유엔을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우고 합리화하는 방패로, 도구로 리용하여왔으며 유엔의 권위와 위신을 심히 손상시켰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이때까지 유엔을 지배해오던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 끝장을 냈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은 미제가 유엔에서 제멋대로 전횡을 부릴수 있었던 시기가 드디여 종말을 고하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제에 의하여 유엔에 강요되였던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결의들을 뒤집어엎고 사실상 무효화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을 유엔에서 피고석에 몰아넣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날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제놈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분렬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온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에 와서는 유엔을 함부로 롱락할수 없게 되였으며 유엔무대에서 미제를 비롯한 반동세력들의 의사가 더는 통할수 없게 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정당한 주장과 일치하는것으로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원래 남조선에 《유엔군》을 보낸다고 한 유엔의 《결정》은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가리우기 위하여 협잡으로 날조해낸것이다. 《유엔군》이란 곧 미제침략군이며 그것이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아무런 근거도 없다.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자신도 이 사실을 더는 부정할수 없기때문에 제30차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이른바 《결의안》이란것을 내놓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유엔총회가 끝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침략군을 철거시키지도 않았다.

미제는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후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더는 유엔의 이름으로 합리화할수 없게 되자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새 전쟁 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쳐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적대량살륙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사분계선가까이에 배치하였다. 미제호전광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지않겠다고 위협공갈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5일작전계획》이니 《9일작전계획》이니 하는것을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전시태세》를 선포하였으며 남조선, 일본, 미국을 련결하는 《공동군사작전체계》를 확립하고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매일같이 감행해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준비끝에 사전에 면밀히 꾸며놓은 계획에 따라 40만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병력을 전연지대에 집결해놓은 다음 지난 8월 판문점사건을 도발하였던것이다. 미제는 도발사건에 우리측을 끌어넣음으로써 전쟁개시의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다.

조선에서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던 미제의 흉악한 기도는 오직 놈들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단호한 경고와

자제력있는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좌절되고말았다.

사태발전은 조선에서 과연 누가 전쟁을 도발하려 하며 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선에는 그 무슨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으며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만이 존재한다는것이 더욱 명백히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며 나아가서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를 지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제야말로 조선에서 평화를 유린말살하고 전쟁정책을 추구하고있는 침략자이며 호전광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흉악한 침략야망을 품고 남조선에 계속 눌러앉아 오늘과 같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실현될수 없는것은 물론 어느 때라도 큰 전쟁이 유발되는것을 막을수 없다.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는 길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나가면 마치 조선에서 란리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듯이 떠벌이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다. 전쟁위협을 산생시키는 침략자가 물러가는데 무엇때문에 란리가 난단 말인가.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선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낳고있는 화근이다.

미제침략군이 유엔총회의 결정대로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되면 그것은 조선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유지의 확고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은 오직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여야만 이룩될수 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유엔의 결정대로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하루빨리 철거할것을 더욱더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막을수 없는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

2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에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의 담보를 마련할것을 주장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32페지)

우리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맺을것을 미국에 제기하였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사실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정화협정에 지나지 않는다. 정전협정은 체결된지도 이미 오래되였으며 그것으로써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거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는 없는것이다. 조선에서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시킬수 없으며 평화를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조인일방이다. 오늘 우리 나라와 직접 대치하고있는것도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사적통수권을 비롯하여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으며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조선에서 평화를 실제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수 없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여러가지 당치 않은 구실을 내걸고 평화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있다.

최근시기 미제는 또다시 그 무슨 《당사자회담》을 운운하면서 조선에서의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남조선괴뢰도당을 참가시킬것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으로 말하면 그들은 미제의 철저한 앞잡이로서 《당사자회담》에 참가하여야 할 그 어떤 론리적타당성도 없으며 법적자격도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정전협정의 조인일방도 아니며 조선에서 평화유지문제를 담보할 어떠한 실권도 가진것이 없으며 설사 그 어디에 참가한다 하여도 아무런 역할도 놀수 없다. 미제가 들고나온 그 무슨 《당사자회담》이란것은 처음부터 성립될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단호히 배격을 받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당사자회담》이 성립될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는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이 아니라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결국 그것은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정당한 결의를 리행하지 않기 위한 지연전술이며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사실은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과의 평화협정체결에 응하지 않는것은 그들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라지 않으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분렬된채로 남겨두자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평화협정체결에 따르는 구체적방안이 없는듯이 떠벌이면서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고있으나 그것도 터무니없는 수작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나가는 조건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실제적조치로서 여러가지 구체적방안들을 제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는 충분히 성숙된 문제이다. 이것을 뒤로 미룰 아무런 리유도 있을수 없다.

평화협정이 없이는 조선에서 항구한 평화가 있을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부질없는 변명과 기만극을 걷어치워야 하며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우리 공화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의 길로 지체없이 나와야 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한 다음에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취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나가는 조건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조치로서 먼저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아래로 줄일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이 서로 무장충돌을 방지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 조국통일을 위한 회담을 계속하자는것도 제의하였습니다.》(《일본 정치리론

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13폐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한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조선사람자체의 내부문제로서 북과 남사이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사이에 직접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조선사람끼리 북과 남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또 따로 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 제2항은 조선과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를 확정하고있으며 제3항은 조선사람끼리 북과 남사이에 해결할 문제를 지적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마치도 우리 공화국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남조선당국을 배제하려 하고있는듯이 떠드는것은 전혀 허황한 소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민족공동의 원칙이 확정되였으며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였었다.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오늘 파탄지경에 이른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사촉을 받는 남조선괴뢰들의 배신행위때문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을 짓밟고 미일상전들에게 매여달려 대화와 협상의 길을 고의적으로 막아버렸으며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을 꾀하는 길로 나갔다.

현단계에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앞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자들이 분렬주의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립장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지금 마치도 저들이 대화의 재개를 바라는듯이 떠벌이고 있는것은 하나의 어리석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대화의 길로 나오려 한다면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체포구금된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사들을 석방하며 《반공》소동과 파쑈테로통치를 그만두고 민주주의 길로 나가야 하며 민족분렬책동을 걷어치우고 통일을 지향하여 나와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이미 저지른 씻을수 없는 죄과로 하여 통일의 길로 되돌아설수 없다면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남조선에서 새로운 애국적인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앉는다면 그때에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훌륭히 실현될것이며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전민족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수 있는 대민족회의와 같은 형식의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용의를 거듭 표명하였다.

남북쌍방이 모여앉게 되면 북과 남의 군대축소,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의 중지,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와 군사장비의 반입중지와 같은 군사적대치상태를 가시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방안들을 협의하게 될것이며 또한 협의과정에 더 좋은 방안이 나올수도 있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력사적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과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위해 꾸며내고있는 온갖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되며 그것이 참으로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 한해가 지나도록 미제침략군이 의연히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계속 버티고 앉아있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침략자이며 략탈자인가 하는것을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세계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 한해동안 유엔의 결의를 외면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면서 발악하는것을 보고 조선문제해결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이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횡포하고 야만적인 침략행위로 하여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 패배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과연 미제는 이러한 사태발전의 흐름앞에서 언제까지 견디여낼수 있겠는가.

이번 유엔총회 제31차회의를 앞두고 조선문제의 토의를 다시 제기하였던 우리측 결의안 공동발기국들은 올해에 조선문제토의를 그만두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결의가 조속히 리행되도록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유엔성원국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자기들의 의정과 결의안을 주동적으로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우리측의 정당한 결의를 리행하는데 실제적으로 응해나서도록 촉구하는 건설적인 발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마땅히 우리측 공동발기국들의 성의있는 조치에 호응하여 지난해 유엔총회의 결의를 리행하는 길로 하루빨리 나와야 할것이다.

모든 사실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의 정당성과 그 리행의 필요성을 힘있게 강조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과 아세아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현실을 바로보고 조선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제는 침략야망을 버리고 모든 침략무력과 살인흉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허우적거리는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을 비호하고 되살려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세계의 대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날로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운동은 세계적규모로 확대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철저히 짓부시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6년 제11호(루계 41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11월 1일　　발 행 • 1976년 11월 5일

ㄱ—65455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제12호 (41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알곡 1,0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중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는 우리 나라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굽임없이 다그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커다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접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안고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언제나 당의 부름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근위대, 결사대, 돌격대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 불타는 결의를 안고 억세게 싸워나가고있으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으로서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첫째로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며, 둘째로 다락밭을 건설하며, 셋째로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을 하며, 넷째로 치산치수사업을 하며, 다섯째로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입니다.》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1～2페지)

밭관개와 다락밭 건설, 새땅찾기, 치산치수와 간석지개간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 나라 농업생산과 농촌건설,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게 하는 웅대한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현실적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또한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다그쳐 농민들을 자연의 구속과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온 나라의 국토를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농촌경리발전에서 또하나의 리정표로 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것은 무엇보다 농업생산을 빨리 높여야 할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이미 튼튼히 마련되였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왕가물과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는 공고한 농업생산토대, 완성된 주체적인 수리화체계가 세워졌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전기화의 과업이 오래전에 빛나게 완수되였으며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다.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전히 실현되고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매해 알곡생산이 계속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조선이 생겨나서 처음 보는 대풍을 이룩하여 80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였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혁명임무는 이미 마련된 농업생산토대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가 빨리 발전함에 따라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서도 더 많은 량곡예비가 있어야 한다.

농경지가 제한되여있고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가 매우 높은 우리 나라에서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는 자연개조에 있다. 영농방법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자연개조사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으며 알곡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것은 또한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막고 농업생산을 보다 안전한 토대우에서 확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최근년간 세계 여러 대륙들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보기 드문 왕가물과 무더기비, 태풍과 때아닌 추위로 하여 농사를 크게 망치고있다.

세계적인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여러 대륙과 지역들에서 극심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으며 수백수천만사람들이 굶어죽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앞으로 오래동안 미칠것이 예견되는것만큼 그를 성과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발관개와 다락밭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토지를 정리하며 농경지를 적극 개량하고 잘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그 어떤 세계적인 한랭전선의 영향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안전한 토대우에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옳게 실현하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막아낼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는 자연기후조건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그 구체적내용과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관개를 하면 논농사뿐아니라 밭농사에서까지 영원히 흉년을 모르게 될것이며 밭곡식의 정당수확을 훨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51페지)

발관개를 마저 완성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이다.

논관개를 기본으로 하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이미 오래전에 빛나게 실현된 우리 나라에서 중간 및 산간 지대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는것은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확대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밭관개를 하게 되면 논농사뿐아니라 밭농사에서도 영원히 흉년을 모르게 된것이며 밭곡식의 정당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다.

총경지면적가운데서 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가장 큰 예비는 중간 및 산간 지대에서 물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밭작물재배를 잘하는데 있다. 특히 한랭전선의 영향이 우리 나라에도 심하게 미치고있는 조건에서 벼농사뿐아니라 밭작물재배에서도 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우리 나라 각지 농촌들에서의 실천적경험은 관수를 한 밭은 관수를 하지 않은 밭보다 소출이 거의 배나 되며 못해도 30%는 더 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물원천을 옳게 조성하고 실정에 따라 고랑관수와 장우기에 의한 관수를 널리 받아들여 몇해사이에 40만정보의 밭관개를 실현한다면 우리는 농업생산을 부쩍 높일수 있게 된다.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자연개조사업의 하나는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락밭건설을 널리 벌려 비탈밭을 다 다락밭으로 만들고 거기에 관수체계를 세워놓으면 알곡 정당수확고를 지금보다 몇배 더 높일수 있으며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도 농사일을 다 기계화할수 있습니다.

산지대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드는것은 알곡증산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4페지)

다락밭건설은 토지류실을 방지하고 땅을 걸게 하며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해빛을 많이 받아들여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연개조사업이다.

다락밭건설을 널리 벌려 비탈밭을 다 다락밭으로 만들고 거기에 관수체계를 받아들이면 알곡 정당수확고를 지금보다 몇배 더 높일수 있으며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도 농사일을 다 기계화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다락밭을 만드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몸소 다락밭건설의 훌륭한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전환한 결과에 올해에는 종전에 비하여 몇배의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경사도가 16도이상 되는 비탈밭들을 다락밭으로 만들어 가까운 몇해사이에 15만~20만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한다면 우리는 농사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알곡수확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토지를 규모있게 정리하고 적극 개량하며 새땅을 더 많이 얻어내는것은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토지정리, 토지개량 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한 방침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빨리 실현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더 많은 새땅을 얻어낼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직도 공업적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알곡소출을 높이자면 땅이 많아야 하며 땅을 개량하여 나쁜 땅을 소출이 많이 나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메마르고 나쁜

땅도 돌을 주어내고 흙갈이를 하고 소석회를 치면 다 좋은 땅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논밭을 문화적인 규격포전으로 정리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논두렁과 밭뙈기, 돌각담을 없애고 철길과 도로 량옆, 수로옆을 잘 정리하며 필요없는 굴포와 웅뎅이를 메우고 묵은 땅을 일군다면 여기서만도 많은 새땅을 얻어낼수 있다. 뿐만아니라 산성화된 땅과 랭습지를 비롯한 나쁜 땅을 개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농업생산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인민의 피땀이 스며있는 귀중한 땅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며 땅을 랑비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그것을 알뜰히 관리하고 한평이라도 더 늘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10만정보이상의 새땅을 찾아내야 한다.

자연개조 5대방침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무더기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치산치수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치산치수사업은 나라의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치산치수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관개수리체계도 다락밭도 큰 은을 낼수 없다.

특히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뜻하지 않는 무더기비가 자주 내리고있는 실정에서 그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을수 있도록 치산치수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고작은 강하천들을 끼고있는 모든 지역들에서 세계적인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하루에 400미리메터이상의 무더기비가 내려도 자그마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강하천시설과 고이는물빼기양수장들을 정리보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대동강, 청천강, 성천강을 비롯한 강하천건설에서 집중화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며 동뚝쌓기와 강바닥파기등 중요대상들을 빨리 끝내며 모든 지방들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강하천정리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 한편 고이는물빼기시설과 해안방조제, 배수갑문을 정비보강하고 식수조림사업과 사방야계공사를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는 당면하여 밭관개와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사업,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간석지개간사업을 전망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경지가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간석지개간은 경지면적을 늘이고 나라의 면모를 크게 변경시키는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일대에는 수십만정보에 이르는 간석지가 펼쳐져있으며 그 개간전망은 매우 크다. 이것은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새땅을 얻어낼수 있는 커다란 밑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밝혀주시면서 가까운 앞날에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위한 년차별 계획을 세우고 건재기지, 설비생산기지를 비롯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로부터 힘을 집중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적극 벌려나간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새땅을 얻어낼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의 농업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성숙된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 통찰하시고 적극적인 투쟁방침과 올바른 방도를 내놓으시어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그리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연개조 5대방침에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시고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대자연개조의 첫봉화를 지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자연개조의 구상과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무엇보다먼저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제시된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서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중요한 전투적과업이다.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우리는 알곡증산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연재해나 그 어떤 불의의 사태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더 많은 식량예비를 저축할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자연개조 5대방침이 실현되면 벌방지대의 논농사뿐아니라 중간 및 산간 지대의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그때에는 산간지대의 농민들도 힘든 일에서 벗어나 농사를 헐하고 안전하게 지을수 있으며 학습과 문화생활도 더 잘할수 있게 된다.

대대로 물려오는 조국산천을 더 잘 꾸려나가는 우리의 대자연개조사업은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사업이다.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고 다락밭을 건설하며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치산치수, 간석지개간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그 어떤 큰물과 가물, 랭해를 막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더 잘 꾸며 후대들에게도 기름진 농토와 아름다운 국토를 넘겨줄수 있게 된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다. 이 방침은 또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주고 놈들의 죽음을 더욱 촉진시킬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승리의 신심과 래일의 자랑찬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변혁을 이룩하게 하며 주체조선의 위력과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숭고하고 보람찬 과업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떠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점령할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것이 아무리 아름차고 어려운 과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을 혁명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떠한 난관과 두려움도 모르고 간고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온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자연개조 5대방침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튼튼히 다져온 강력한 주체공업, 자립적민족경제가 있으며 우리 나라를 관개의 나라로 전변시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이 있다.

문제는 이 사업에 전당, 전민이 어떻게 동원되는가에 달려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사상적으로 동원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간다면 자연개조 5대방침은 빛나게 관철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의 구체적내용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연개조사업은 한꺼번에 간단히 해치울수 없는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야 하며 공사기간을 바로 정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연개조 5대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 5대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페지)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매우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가 요구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더 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내며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연개조사업을 로력적으로 지원할뿐아니라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해당부문에서는 전망성있게 건설설비생산기지와 건재생산기지들을 빨리 꾸리고 현대적인 건설설비들과 여러가지 건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불도젤을 비롯한 기계설비들과 그 부속품들, 강재와 관류, 쇠바줄, 세멘트를 비롯한 자연개조에 필요한 자재와 여러가지 비료,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휴자재, 유휴설비들을 적

극 탐구동원하며 파고철, 파동 수집운동을 널리 벌려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더 많은 농업기술자들을 농촌에 보내여 협동농장기술일군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자연개조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복무하려는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오와 자각적열성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77페지)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찬 혁명투쟁로정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1958년 9월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짧은 기간에 100만정보의 관개공사를 성과적으로 한것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억세게 싸운 결과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특히 금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해설침투시킴으로써 모두가 다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농업지도기관과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이 1958년 9월전원회의이후 전군중적운동으로 짧은 기간에 100만정보의 관개공사를 진행한것처럼 1976년 10월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40만정보의 발관개를 실현하고 15만~20만정보의 다락밭을 만들며 논두렁과 밭최뚝을 다 정리하여 10만정보의 새땅을 얻어내며 치산치수를 널리 하여 큰물피해로부터 논밭을 잘 보호하며 간석지개간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1,000만톤 알곡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완전승리의 기반을 온 세계에 높이 휘날리게 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알곡 1,000만톤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자.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자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1956년 12월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장엄한 환경속에서 이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시위하고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전원회의이다.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났으며 전인민적천리마운동이 벌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차게 벌리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웅장한 민주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크고작은 수많은 도시들을 건설할수 없었을것이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수백, 수천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건설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을수 없었을것이며 따라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건설해놓지 못하였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페지)

1956년 12월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거창한 건설과 창조로 엮어진 비약의 력사이며 위대한 기적과 위훈으로 가득찬 승리의 로정이다.

12월전원회의이후 거세차게 발전하여온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지난날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천리마조선》,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인민적천리마대진군운동을 벌리는 행정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귀중한 경험은 날이 갈수록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더 커다란 의의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고 온 나라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고조를 일으키던 그때의 그 본새, 그 기세로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1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와 그 결정 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

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혁명을 끊임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2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갈데 대한 진공적이며 적극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을 동원하여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자기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공세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의도는 조성된 정세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분발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내외원쑤들의 모든 공세를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사업에 더욱 넓은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00~201페지)

인민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해나가는 것은 전후시기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전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당 제3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영예롭고 보람찼으나 우리 혁명의 내외적환경은 몹시 복잡했으며 혁명의 길에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기회주의의 책동은 날을 따라 우심해갔으며 이를 계기로 제국주의자들은 대대적인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었다. 한편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북진》소동과 침략적도발책동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이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당안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당과 정부를 반대하는 음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나라의 경제형편도 매우 어려웠다. 우리에게는 자재와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인민생활도 아직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참으로 이 복잡한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그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제때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여 혁명의 앞길을 명시하심으로써 온갖 난국은 주동적으로 타개되고 우리 혁명은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월전원회의에서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난관앞에 동요하는 소극분자, 보수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는 동시에 생산내부예비를 백방으로 동원리용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이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방침은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원들과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모든 문제를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불리한 사태도 유리하게 전변시켜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는 탁월한 전략을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어떠한 어려운 고비도 주동적으로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앙양에로 이끄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가 끝난후 몸소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조성된 난국을 뚫고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탐구하시였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근로자들에게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과 혁명의 요구와 당의 결심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시였으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비약과 혁신의 불씨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전원회의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하신 현지지도는 이 땅에 기적과 혁신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끝없이 고무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 방침을 열렬히 지지옹호하여나섰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면서 방대한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기록,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나갔다.

바로 이 투쟁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을 경탄게 하는 《평양속도》와 《비날론속도》, 《강선속도》가 창조되였으며 그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충성의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다.

천리마운동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5개년계획수행의 간고한 고비를 넘어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1956년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과 그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열어놓으신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진군길을 따라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의,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밑바닥에 놓여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 전진운동이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가장 짧은 기간내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아올릴수 있은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대중적대진군운동이라는것

올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탁월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은 불패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증시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였으며 일단 정책을 세우신 다음에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굴의 강의성과 혁명적전개력으로 당과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에 철저히 의거하시여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그들과 허물없이 의논하시며 인민대중을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면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조직동원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인민들은 언제나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우러러따르며 자기 위업에 대한 높은 자각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힘있게 달리나아갈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혁명과 건설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사소한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그를 용감히 맞받아나아갈 때 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고계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기초하여 온갖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탁월한 전략과 현명한 령도의 승리이며 그 위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전후시기의 그 어렵고 복잡한 사태하에서도 혁명의 중심방향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의 반동공세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었으며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려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천리마운동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이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게 되였으며 대중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계속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예지와 완강한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전후시기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주동적으로 이겨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올수 있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자랑찬 승리의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만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2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참으로 멀리 전진하여왔다.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새로운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이 이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야 조국의 통일과 전국적독립을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나라의 정세가 매우 긴장한 속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침략과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계속 떠돌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킨것을 요구하고있다.

정세가 긴장할수록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고 그 성과로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맞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며 영웅적기개이다.

내외의 정세가 매우 어려웠고 혁명의 앞길에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던 1956~1957년의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분발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것으로써 적들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갔다.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어느때보다도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은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혁명적앙양과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원쑤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꺾어버리며 혁명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에 두고있는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것은 오늘의 긴장한 정세의 요구일뿐아니라 우리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공업화가 완성되고 6개년계획이 승리적으로 수행된 우리 인민경제는 지금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인민은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나라의 전반적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천재적예지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주체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그 규모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창한 경제건설투쟁이며 이때까지 있어보지 못한 그러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대속도전이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최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또다시 력사적인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웅대한 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알곡 1,000만톤고지를 앞당겨점령하며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명확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와 자연개조 5대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질풍같이 전진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온 나라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때까지 단련하고 축적하여온 사상정신적힘과 우리 인민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속도에서 속도를 낳고 한달음으로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다시금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우리는 보다 높은 발전속도를 창조하여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위력한 당의 세련된 지도가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있고 속도전의 기세 높이 천리마의 진군을 이룩하는 행정에서 쌓아올린 귀중한 경험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있다.

사실상 오늘 우리 인민은 전후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어려운 형편에서 천리마의 진군을 개시하던 그때에 비할바없이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 경제건설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때 우리에게는 강재 1만톤을 더 생산하는것이 문제로 되였다면 지금 우리 경제의 위력은 1,200만톤의 강철고지점령을 가까운 앞날의 일로 확고히 내다보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가 있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만만한 투지가 있으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힘있고 생활력있는 경제적밑천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울것이 없으며 점령하지 못할 고지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오늘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는것이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전인민적 총진군운동이다. 이 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힘차게 벌림으로써 1956년 12월전원회의이후 천리마운동을 일으키던 바로 그때의 그러한 기세, 그러한 일본새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진군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바치는 충성의 일정을 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혁명의 계속적인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로력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9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앞당

겨점령하고야말겠다는 불타는 열정,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은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는 추동력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열쇠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이 체득한 귀중한 진리이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의 심장이 오직 한마음,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혁명실천에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우리의 최상의 영예, 최고의 의무이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간고한 나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대건설의 보람찬 전투를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해서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조건이 좋은것과 나쁜것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담벽을 밀고나가라면 밀고나가며 돌파구를 뚫고나가라면 뚫고나가는 혁명적기풍과 투쟁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높은 정치사상적준비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만이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비상히 빠른 발전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기술혁명에서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기본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천리마운동을 갓 벌리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기술혁명의 높은 요구를 제기할수 없었으며 수공업적기술도 많이 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공업화가 이미 완성되고 경제와 기술이 발전된 오늘에 와서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공업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받아들이고 기술공정을 적극 개선하여 생산을 고도로 현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경리부문에서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확대하며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을 더욱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가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마스며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며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인민이 전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일떠세운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에서 더 큰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는 예비와 힘이 있다.

모든 부문에서 로력조직을 합리적으

로 하고 로력의 예비를 잘 동원하는것만으로도 인민경제적으로 많은 로력을 더 얻어낼수 있으며 한사람당생산액을 부쩍 높일수 있다. 또한 공장,기업소들에서 사장되여있는 원료와 자재의 예비를 적극 찾아내며 한대의 기계설비도 놀리지 말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만으로도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우리는 1956년 12월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투쟁을 벌리던 그 기백으로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한키로와트시의 전력,한그람의 석탄, 한방울의 기름,한알의 쌀이라도 더 절약하며 있는 로력, 있는 자재, 있는 설비로 생산을 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보다 큰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이며 전당, 전국,전민이 떨쳐나서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번지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선을 맡고있는 채취공업과 전력공업,농업,수산업, 수송 부문에서 더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금속공업,기계공업,기본건설 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련대적혁신운동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모든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는 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본위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협동생산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복구건설의 간고한 나날들과 사회주의공업화를 수행하며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들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사회주의대건설이 벌어지는 전투장들에 뛰여들어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 적극 도와나서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10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실현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며 농업생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활발히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인 앙양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는 천리마운동과 그 줄기찬 발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일군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와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당정책을 적극 해설해주며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유능한 선동가,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며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긴장한 정세하에서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무장투쟁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력사적인 명월구회의

강 춘 금

오늘 우리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한 력사적인 명월구회의 4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명월구회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

명월구회의의 방침에 의하여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고 항일무장투쟁이 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손에 무장을 잡고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일떠서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을 벌리는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게 되였다.

명월구회의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던 력사적시기에 소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시급히 조직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1페지)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일제는 조선에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완성하고 파쑈적인 군사독재에 매달려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제는 만주에 대한 무력침공을 벌려놓고 《후방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국내는 물론 조선사람이 사는 그 어디나를 막론하고 일제의 무참한 학살과 《토벌》만행으로 온통 피바다에 잠겼으며 인민들의 원한은 하늘에 사무쳤다. 조선인민은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고 앉아서 한탄만 하거나 아우성치는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조성된 정세는 옳바른 투쟁형식과 투쟁방법을 규정하고 지체없이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결정적인 투쟁에로 혁명투쟁을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국내외의 혁명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이미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1931년 12월 16일 력사적인 명월구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무장투쟁을 벌릴 때가 왔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시고 빈부와 귀천, 당과와 종교를 가리지 말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서 총있는 사람은

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전민족이 반일무장투쟁에 총궐기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일제의 식민지폭압정책이 전례없이 강화된 환경에서 강대한 침략무력을 대상으로 무장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는 제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선의 국경지대와 광활한 만주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한다면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적의 무력을 부단히 소멸약화시켜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 적에게 커다란 군사정치적타격을 줄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투쟁방법이였다. 또한 그것은 국가적후방이 없는 조건에서도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장기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고 자체의 무장력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 일제의 침략무력을 격파하고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무장투쟁형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그가 의거해야 할 혁명근거지와 대중적지반을 축성할데 대한 구체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상비적무력으로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는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절박하게 제기된 근본문제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통치계급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에 의해서만 놈들의 대중적학살만행으로부터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고 민족해방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앞으로 창건될 항일유격대는 지난날 조선독립을 표방해나섰던 민족주의무장부대인 의병대나 독립군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구성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하며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진정한 혁명군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상비적인 무력에 의한 항일유격대를 창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근본문제를 밝힌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해서는 유격대를 창건해야 할뿐만아니라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어떠한 혁명운동이든지 자기의 믿음직한 근거지가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거지를 가져야만 강대한 적의 포위속에서도 무장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장기간의 유격전을 전개할수 있으며 또한 적들의 무차별적인 학살만행으로부터 혁명대중을 보호할수 있는것이다.

특히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원조도 없이 무장투쟁을 진행하게 되는 조건에서 자체의 공고한 후방기지가 절실히 요구되는것이다. 또한 혁명근거지

가 있어야만 무장투쟁을 진행하면서 공산당창건준비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혁명운동을 발전시켜나가며 앙양된 인민대중의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투쟁을 유일적이고 통일적인 반일투쟁에로 정확히 이끌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실로 혁명근거지창설문제는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과 전반적조선혁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무장투쟁의 합법칙적요구에 기초하여 창설될 유격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으로, 후방기지로 되여야 하며 전반적조선혁명의 확대발전을 위한 책원지, 혁명의 보루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은 국가적후방도, 아무런 군사경제적지원도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무장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오직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의 강력한 보루를 축성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해서는 또한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유격전은 본질상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인민전쟁이다.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성원은 유격대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유격전의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혁명적군중토대가 없는 무장투쟁은 승리할수 없으며 무장대오 그자체도 부단히 확대강화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에서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강력히 타격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며 민족주의적무장부대인 반일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반일력량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과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조직들과 공청조직들을 확대하고 그 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명월구회의방침들은 당시 조성된 절박한 혁명정세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으며 혁명적폭력으로 반혁명을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수 있게 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또한 이 방침들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자기의 힘에 의하여 혁명하려는 철저히 자주적인 방침이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길을 새롭게 밝혀준 가장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명월구회의 방침, 반제무장투쟁에 관한 방침은 식민지피압박인민대중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서서 싸우는것은 그들자신의 신성한 권리이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은 인민대중자신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수 있다는 투쟁원칙,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철두철미 자주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억눌리고 짓밟힌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감격과 조국광복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명월구회의 방침들은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

으로 되였다.

*　　　*

력사적인 명월구회의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 항일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조국광복의 위업을 완성할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한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것은 일제의 식민지적예속으로부터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입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명월구회의방침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비로소 무장투쟁을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수행하며 어떤 대중적지반우에서 누구와 손잡고 어떻게 공동전선을 형성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알게 되였다.

이것은 선행한 민족해방투쟁에서 정확한 투쟁전략과 전술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쓰라린 실패를 거듭해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해 싸워왔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반일운동에 떨쳐나섰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정확한 투쟁방도와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고 혁명력량의 단합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피흘리면서도 결국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이처럼 쓰라린 피의 교훈을 거듭해온 우리 인민은 무장투쟁의 홰불을 높이 들고 그 투쟁 형식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밝혀준 명월구회의의 방침에 의하여 가장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명월구회의 방침에 따라 1932년 4월 25일에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인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고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의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 기초하여 힘차게 발전하게 되였다.

실로 조선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암흑의 시기에, 종래의 각종 형태의 투쟁들이 그자체의 제한성으로 하여 거듭 실패를 면치 못하던 일대 시련의 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반일항전에 일떠서서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일제를 타도하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밝히신 전략전술적방침은 조선혁명뿐만아니라 싸우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투쟁의 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천재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의거하여야 할 투쟁수단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당시 세계적규모에서 혁명투쟁 특히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더욱 장성됨에 따라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문제는 절박한 문제로 남아있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자면 종주국로동계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을뿐 자체

의 투쟁으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완성해나갈 그 어떤 구체적인 방도가 서있지 못했다.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이 어떠한 수단과 방도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침략자를 성과적으로 때려부시고 자신의 해방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대적요구와 식민지나라들의 사회력사적조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투쟁형식, 전략전술이 밝혀지야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주되는 형태는 상비적인 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며 그 기본형식은 유격전이라고 규정하심으로써 식민지피압박인민들에게 민족해방의 구체적인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경험은 그 어떤 침략자도 식민지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없이 공손히 자기의 지배권을 양보하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혁명적폭력, 조직적인 무장투쟁에 의해서만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명월구회의의 방침은 또한 무장투쟁의 한 형식으로서의 유격전이 혁명전쟁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유격전쟁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풍부화하였다.

물론 지난날에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유격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적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무장활동의 한 형식으로 그자체로서는 혁명투쟁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여왔다.

이렇게 유격전을 부차적인것으로 본데로부터 유격전이 정규전이 없는 조건에서도 진행할수 있는 독자적인 투쟁형식이며 더우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주되는 형태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는 전혀 밝혀질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유격전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유격전이 정규전의 보조수단, 큰 전투들사이에 진행되는 군사행동, 정규전과 배합해서만 벌어지는 배후작전, 국가적지원이나 후방이 있는 조건에서 림시적으로 진행되는 전투형식으로만 간주되여오던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식민지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반제혁명투쟁의 주되는 형태인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새롭게 규정하게 되였다. 이것은 무장투쟁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듯 명월구회의의 방침에 의하여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주되는 형태가 밝혀지고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이 규정됨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위력한 수단과 근본방도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반혁명무력을 성과적으로 격파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혁명의 길을 휘황히 밝혀준 투쟁의 기치였으며 반제무장투쟁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및 전략전술을 새롭게 발전시킨 대백과전서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의 방침은 피치취, 피압박 인민대중이 외래침략세력과 압제자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시대적요구와 사회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는 천재적인 방침으로 된다.

력사적인 명월구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무장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의의

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선포하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월구회의에서 밝혀주신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감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서광을 맞이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조직적인 무장투쟁만이 반혁명세력을 처부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뚜렷하게 확증하였다.

명월구회의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는 오늘도 우리 인민과 세계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에게 귀중한 투쟁경험과 고귀한 업적을 안겨주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력사적인 명월구회의 45돐을 맞이하면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며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

리 명 진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 전략적원칙을 견지하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 혁명적인 전략으로 적을 수세에 몰아넣으시고 승리를 이룩하신 자랑찬 투쟁력사이며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령도예술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력사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전력사적과정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이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탁월한 전략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 혁명적전략을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것이다.

*　*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여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탁월한 전략적원칙이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댄다는것은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언제나 승리를 이룩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를 맞받아나가 새로운 승리의 국면을 열어놓는 바로 여기에 이 전략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혁명의 돌파구를 주동적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미밀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온갖 곤난과 애로와의 투쟁에서 쟁취하여야 합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난관과 싸우며 난관을 뚫고나갈 대신에 난관앞에서 떨며 주저하며 락망하는 실패주의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은 혁명투쟁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전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원래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는 간고한 사업이다.

사회혁명은 백주에 탄탄한 대로를 따라가듯이 헐하게 될수 없으며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 전진하는것이 아니다. 혁명도상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희생을 두려워하면서 난관앞에 주저앉는다면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역시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착취사회의 온갖 낡은 유물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거창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이러한 간고성과 복잡성으로 하여 절실하게 제기되는 령도예술에서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혁명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야만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혁명이 간고하고 복잡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와 조건이 조성되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방침을 세우고 난관을 맞받아나가 견결히 싸우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축적할수 없으며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대적투쟁에 있어서나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 혁명적인 전략으로 난관을 맞받아나가는것은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요구였으며 그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였다.

조선혁명은 가장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온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또 걷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4페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관계와 력사적조건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며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조선혁명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이였으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우리 인민이 대상한 적은 가장 포악한 군사봉건적제국주의이며 국제반동의 아세아돌격대인 일본제국주의침략세력이였다. 우리 인민은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여 멘주먹밖에 없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혁명은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봉건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거기에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그 상층부를 차지한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파벌싸움에 몰두함으로써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고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조성되여있었다.

이러한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이 승리하여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정

확한 지도사상과 함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탁월한 령도예술에 의하여 지도되여야만 하였다.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전략,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전략으로 혁명의 위기를 막아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였으며 민족의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사활적문제였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은 해방후 우리 혁명의 성과적발전을 위하여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해방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반동의 우두머리로 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의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발광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선인민은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새 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을 말살하려고 미친듯이 덤벼들었고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였다. 거기에다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력사적락후와 빈궁, 일제와 미제의 야수적인 파괴로 하여 우리 혁명은 더욱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이러한 간고성과 복잡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 탁월한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끊임없이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조선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의 휘황한 앞길을 밝히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예지와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불요불굴의 의지, 어떤 난관과 시련도 헤치고 끊임없이 혁명을 추진시켜나가시는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세심하게 분석하시는 치밀성과 어떤 복잡한 정황과 사태도 그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거침없이 가려나가시는 예리한 통찰력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예술을 한몸에 지니고계심으로써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공격전을 벌리시는 혁명적인 전략을 견지하시여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오시였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전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견지하고계시는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시는 탁월한 전략은 조선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그이의 높은 책임성과 우리 혁명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

하시려는 자력갱생의 숭고한 혁명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 위력한 혁명전략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사색과 정력을 다 바치고계시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한몸으로 막아나서시며 복잡한 속에서도 요점을 찾으시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시여 언제나 주동을 틀어쥐심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은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할수 있었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전략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수 없으며 실천에 구현될수 없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략은 또한 인민대중의 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있는 탁월한 전략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예술, 탁월한 전략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할 때만이 위력하고 현실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실천에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힘있게 움직여나가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전략은 이렇듯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차게 추진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　　　*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예술을 다같이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릴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물론 거창한 경제건설투쟁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 투쟁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하게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리는 탁월한 전략적원칙을 견지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지하고계시는 이 탁월한 령도예술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대적투쟁에서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전형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과정은 그이께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난관을 맞받아나아가시여 승리를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하신 유격전술과 그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아군은 이 시기에 강한 적들을 약자로 만들며 약한 아군을 강자로 만드는 주요한 전략전술적 방법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다. 강자를 약자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선 적들로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탈취하고 아군은 피동으로부터 주동적지위에로 넘어가는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약자로서 강자가 될수 없으며 전투승리를 보장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조성하며 언제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리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능숙하게 적용하시여 일제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와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 그리고 《고난의 행군》과 대부대선회작전 등은 난관을 맞받아나아가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고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탁월한 작전들이며 전략적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매 전략적단계와 전투들에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리는 전략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8페지)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불의의 무력침공으로 우리 인민앞에는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이목은 불타는 조선에 집중되였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결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천재적인 군사예술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닥쳐온 준엄한 시련을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였으며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리는 전략적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어 패배를 안기시였다.

적들의 불의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즉시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에로 넘어가 적들에게 숨돌릴 사이를 주지 않는 련속적인 공격작전, 주타격방향의 옳은 선정과 각 병종들의 유기적인 협동, 산악지대에서 포병화력의 집중적리용과 유동포화력의 강화, 기본전선에 배합한 제2전선의 조직과 대포위작전, 갱도를 배합한 야전진지의 축성과 그에 의거한 방어전조직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군사전략적방침과 독창적인 전법들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려 승리를 이룩하는 위대한 령도예술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생동한 모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안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공격전을 벌리시여 승리를 이룩하시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이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틈을 타서 당대렬을 분렬시키고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고 꾀한 반당반혁명종파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미리 간파하시고 단호히 폭로분쇄하시였으며 전당적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시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시였으며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밖으로는 기회주의바람이 불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미친듯이 《반공》소동과 반동공세를 강화하고있었으며 안으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하여나섰고 나라의 경제형편도 매우 어려웠던 전후의 그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시여 난관을 맞받아나가심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를 치는 전당적사상투쟁과 적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는 전인민적정치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집중시키심으로써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하시였으며 대중을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섰던 모든 난관이 일시에 타개되고 화가 복으로 전환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졌으며 세기를 주름잡아 내달리는 천리마시대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이였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되고 안팎의 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불건전한 사상독소를 당안에 퍼뜨리면서 당의 전투력을 마비시키고 혁명의 전진운동을 가로막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던 때에도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여 그것을 제때에 폭로분쇄하시고 그 사상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실현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반석같이 다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결합하여 극소수의 악질적인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민족내부의 분렬과 불화를 조성하려던 미제의 흉계를 주동적으로 짓부시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혹심하게 파괴되여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건설을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전후의 그 간고한 시기 독창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밀어제끼시고 파괴된 경제를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복구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나라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일떠세울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8년의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에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와 천리마운동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9월전원회의의 방침이 힘있게 관철되여 농촌수리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됨으로써 협동화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게 되였으며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철과 기계가 쏟아져나오게 됨에 따라 5개년계획의 돌파구가 열리고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은 조성된 복잡하고 긴장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령도예술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 잘 병진시켜나감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더 높이면서도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65~6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고 나라의 경제적토대도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주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을 힘있게 관철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문턱까지 숱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하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립장을 견지함으로써 놈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려 승리를 이룩하는 탁월한 령도예술의 위대성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10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자연개조 5대방침에서도 뚜렷이 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요구와 세계를 휩쓸고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깊이 통찰하시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어떠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도 주동적으로 이겨내고 농업생산에서 계속 비약을 일으키며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려 승리를 이룩하는 탁월한 전략적원칙은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가장 정확한 방침과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주요한 고비에 들어섰을 때 우리 당중앙은 경제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70일전투》를 대담하게 포치하고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온 나라에 속도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방대한 6개년계획의 긴장된 과제를 앞당겨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승리를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실로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댈데 대한 전략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여오신 자랑찬 력사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릴데 대한 전략은 우리 인민의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백전백승의 탁월한 전략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영광의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사상의 천재이시며 령도의 천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가슴깊이 새기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령도예술,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난관을 맞받아나가 승리하는 전략적원칙을 깊이 체득하며 혁명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벌릴데 대한 전략적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적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

리 수 현

오늘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이 대가정속에서 우리 인민은 혁명적 열정과 락관에 넘쳐 일하고있으며 세상에 부러움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되고 혁명적정열을 내여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그것이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사회를 움직이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적규률을 튼튼히 세우고 자각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혁명적인 규률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마땅히 모든 사업과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할수 있는 질서와 규정이 있어야 하며 비록 자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국가와 사회의 질서는 파괴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32페지)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원래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모두가 사회주의적근로자이며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 집단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은 인민대중의것으로 되여있으며 그것들은 인민대중의 집체적인 지혜와 공동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고 관리운영되며 발전하게 된다.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밑에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며 동지적단결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집단과 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생활에 참가하며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들어가 사회정치활동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혁명적조직성을 가지게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신을 키워나가게 된다.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굳게 결합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집단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지키고 같은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나갈수 있게 하는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혁명적인 규률에 의거할 때만이 자기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유지되고 움직일수 있으며 더욱 공고발전되여나갈수 있다.

또한 집단주의에 기초한 자각적인 규률이 지배되여야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만일 사람들의 《개성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유화의 길로 나간다면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해나갈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하고 생활할뿐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경제가 고도로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여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하나의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전사회적규모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이것은 경제활동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필수적요구로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지 않고서는 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들 호상간에 긴밀한 련계를 보장할수 없으며 인민경제발전과 그 균형을 보장할수 없다. 만일 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들간의 밀접한 련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계획규률과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인민경제의 균형이 파괴되고 련쇄된 다른 부문, 다른 단위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전반적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조직화된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요구로 되며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더우기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부문들간의 련계가 째일수록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이와 같이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의 첫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구별된다.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는 오랜 력사적기간을 내려오면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유물이 있으며 그것들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로 된다.

우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부식작용을 일으키며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방해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의 로동생활과 경제생활 면에서도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다.

근로자들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였으나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생산력은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문화생활분야에도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뒤떨어진 문화와 낡은 생활유습이 남아있다.

이 모든것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유물을 없애기 위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규률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오직 혁명적인 규률을 세울 때라야만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을 없앨수 있으며 온갖 낡은 사상적잡귀신들이 발붙일수 없게 할수 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고 소극성, 보수주의, 권태증, 안일해이한 현상등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갈수 있다.

또한 혁명적규률을 세울 때 경제생활분야에서도 온갖 낡고 뒤떨어진 착취사회의 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이렇듯 혁명적인 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임무와 조성된 정세로 하여 더욱더 중요하게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8페지)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전환기에 처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나라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6개년계획이 앞당겨수행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 우리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려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움직여나가야 한다.

이 성스러운 력사적과업은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 발양시킬때 훌륭히 관철될수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정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혁명적인 규률을 요구하게 된다.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 사업을 떠나서는 온갖 적대적인 사상조류의 항거를 제때에 분쇄하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할수 없고 온 사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될수 없다.

참으로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매우 긴장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박

정회피뢰도당은 침략과 분렬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놈들의 무모하고도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놈들의 일거일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 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적들은 우리가 정치사상적으로 해이되고 질서와 제도가 없는 틈을 노리고있다. 만일 우리가 혁명적경각성이 무디고 국가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 규률을 세우지 않는다면 임의의 시각에 적들이 덤벼들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없다.

이처럼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　　　*

온 사회에 강철같은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이미 이룩하여놓은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력사적위업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더욱 높여 그들로 하여금 당내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316페지)

우리 사회에서 강철같은 규률은 착취사회에서의 규률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고 숭고한 자각성에 기초한 규률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규률은 소수특권계급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목적밑에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는 규률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규률은 자각성이 아니라 몽둥이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이 전체 근로인민대중의것으로 되여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규률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가장 혁명적인 규률이다. 우리의 규정과 규범, 규률은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부여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담보하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규률을 잘 지키는것을 자신의 영예로,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스스로 지킨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규률은 이처럼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 규률인것만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일 때 그들속에서 규률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가 더욱 발양될수 있다.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법규범과 규정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구현하고있는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똑똑히 알수 없으며 그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여나갈수 있다.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는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목적을 옳게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정권을 지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또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과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목적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만 이 사업을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온 사회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이 서나갈수 있다.

국가 및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을 만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에 따라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하는것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정된 규범과 준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6폐지)

사람이 혼자서 생활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별일이 없겠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생활과 조직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여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행동 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행동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고 집단의 규률과 질서를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조직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는 그에 소속된 당원들과 동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조직생활규범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매개 조직안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이러한 조직생활규범에 따라 한사람과 같이 움직이기때문에 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보장된다.

규범과 규정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도 다 있어야 할뿐아니라 그 요구대로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사업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경제기관들에서는 인민경제계획규률과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법규범과 규정들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혁명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것만큼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만일 발전하는 현실보다 뒤떨어진 규범과 규정, 준칙을 가지고 사업한다면

그것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없는것은 물론 도리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을 다시 검토하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수정보충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아직 규정, 준칙이 없는데서는 새로 만들어 사업함으로써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하는것을 사상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29페지)

사상교양과 함께 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이 혁명적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통제사업은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측면들을 억제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각성을 더욱 배양하는 힘있는 수단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통제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게서 나타난 온갖 그릇된 현상들에 대하여 깊이 자책하게 되며 다시는 그러한 현상이 발로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게 된다.

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성과적으로 뿌리뽑을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집단과 조직 생활에 참가하여 그속에서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있다. 특히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심장에 받아안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되고있다.

그러나 아직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낡은 사상잔재와 뒤떨어진 생활관습이 남아있어 혁명적규률을 세우는데 지장을 주고있다.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통제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적규률을 옳게 세워나갈수 없다.

통제사업을 강화할 때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을 제때에 막을수 있으며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이 발붙일수 없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 및 국가 기관들은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을 잘 지키도록 통제하는 사업을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법규범과 규정, 규률을 잘 지키도록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권기관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들의 기능을 높이는것이다.

정권기관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은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적 규범과 규정, 규률을 잘 지키도록 통제하는것을 자기의 기본기능의 하나로 삼고있다. 따라서 규범과 규정들이 근로자들속에서 옳게 준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정권기관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 일군들은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정치보위자로서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온 사회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더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

강 광 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새로운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철저히 세워졌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적경제관리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경제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야말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오늘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것은 우리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세우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며 착취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39~440페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은 사회적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하나의 대규모적인 생산유기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운영해나갈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나라의 모든 자원과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력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빨리 없애고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

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의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선진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열어주는 넓은 길을 따라 생산은 높은 속도로 발전되였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앙양도 비상히 높아졌다.

그러나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이에 맞게 미처 개편되지 못하였으며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새로운 환경과 빨리 발전하는 현실이 제기하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는 빨리 밀고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제때에 새로운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60년 2월 력사적인 청산리지도를 통하여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하시여 대중지도에 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과 방법인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심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였으며 여기에서 주체적인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우시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 기관, 기업소들이 모든 경영활동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서로 밀접히 협력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당의 지도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에 의거하여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가 농촌경리를 책임지고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전문적인 농업지도체계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세워진 결과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고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는 경제관리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킨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경제

관리체계라는것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15페지)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생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 그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여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사상의식과 로력적열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그들의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으로 규정하시고 군중로선에 기초한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를 세우심으로써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으로, 공동로동에 대한 지휘로만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기성관념이 완전히 극복되고 경제관리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창조됨으로써 기업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배격하고 자본주의적기업관리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킨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로,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킨다는것과 관련된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다.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게 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은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게 한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에 의하여 경제지도에서 명령과 호령의 방법, 관료주의적방법은 종국적으로 극복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에 의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새로운 방법이 창조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차넘치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단결과 협조의 힘에 의거하여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고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또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온갖 편향을 미리 막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개별적자본가들의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모든 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적련계를 옳게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하에서는 지방과 기업소 및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켜야 온갖 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중앙집권적지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부문들사이, 기업소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지도, 계획의 일원화원칙에 립각한 세부계획화를 통하여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관철할수 있게 하며 생산자대중과 지방의 창의창발성,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킨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더욱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확립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킨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체계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맞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44페지)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혁명과 건설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자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상,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였다. 또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설되여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두 소유 사이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강화됨으로써 협동적소유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리하여 도시와 농촌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경제제도는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완성시켜나가는 력사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나라의 생산력발전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창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15년간은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여온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였으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혁명적군중로선이 훌륭히 구현되여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의와 집체적지혜가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조직사업과 기술지도, 보장 사업이 또한 째이게 됨으로써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내부예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떠밀어주는 이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세계적인 경제적 파동과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을 이겨내고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올해에 또다시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대풍을 마련하여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불패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는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가 실현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일신되고 모두가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은 힘있게 다그쳐지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빨리 실현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야만 6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되여 전례없는 규모로 커진 우리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요구대로 사업을 전개하여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투쟁정신입니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여러가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체계도 이와 같은 투쟁정신이 없이는 그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2페지)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이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된 오늘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결정적담보는 그 어떤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맡겨진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더 큰 은을 내게 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를 더 잘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에서 규정된 규범과 준칙에 따라 모든 사업을 힘차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지장을 주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해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본질적요구이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경험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가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행대책을 제때에 옳게 세울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사업을 전개하여나가는 원칙을 계속 철저히 지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나 그것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영광스러운 당이 제시한 경제선동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격식과 틀이 없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집중적으로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 혁명적기백과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경제관리와 생산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와 생산지휘에서 과학성, 계획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설비, 자재,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참모부의 역할을 높여 생산행정전반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에서 걸린 고리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줌으로써 국가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업적관리운영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계획작성과 생산조직, 기술지도와 로력관리, 보장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주체농법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가야 한다.

최근시기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을 높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경영활동을 더욱 합리화하는데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제적타산을 바로하며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기와 석탄, 연

유, 강재와 유색금속, 세멘트와 통나무의 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면서 당면한 혁명과업을 불이 나게 해제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는 일군들의 자질을 높이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2페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옳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우리의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다.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혁명적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모두가 열렬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더 큰 은을 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그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그대로 일하는것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같이 일하면서 걸린 고리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또한 영광스러운 당이 제시한 방침따라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진공적으로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하여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창조적열정이 차넘치게 해야 하며 모두가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여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리 지 찬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현대적인 금속, 화학, 기계 공장들을 비롯한 만년대계의 대규모건설물들이 힘차게 일떠서고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 전체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늘 대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이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다.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인민경제의 동력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연료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진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나라의 전기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12페지)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며 현대적생산발전의 기술적기초이다. 전기를 떠나서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진보를 이룩할수 없다.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자체의 공고한 동력기지를 축성하여야만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동력문제를 원만히 풀어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일떠세울수 있으며 공업, 농촌경리, 철도운수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하고 기계화와 자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전반의 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동력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되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력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에 자립적인 전력공업기지를 튼튼히 축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년간 사회주의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전력의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전례없는 규모로 늘어난 우리 나라 경제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세차게 울리며 거창하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웅대한 6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되고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도도 더욱 높아졌다. 현대적인 대야금기지와 세멘트생산기지, 화학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도처에 일떠섰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들이 새로 조업을 개시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과업인 3대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현되고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수송부문에서도 혁명적전변이 일어나 방대한 철도가 전기화되였으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와 대규모정광수송관을 비롯한 현대적인 3화수송체계가 널리 도입되였다.

경제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전력에 대한 수요는 비상히 높아졌다. 그러므로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야만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새로 일떠선 공업지구들과 공업부문들이 더 큰 은을 내게 할수 있으며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전력에 대한 수요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커지고있다.

오늘 비약과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 속도전의 불길 드높은 채취공업부문과 수송전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높은 수확을 이룩하고 1,000만톤알곡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사회주의농촌 그 어디를 가나 더 많이 요구하는것은 전력이다. 전력의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면 줄수록 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는 혁명의 북소리 우람차게 울리게 되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실로 전력을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는것은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오늘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을 계속 힘있게 벌리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온 세계를 휩쓸고있는 혹심한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심한 가물이 들고 무더기비가 내려 커다란 피해를 입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심하게 미치여 지난해에만 하여도 60여일간이나 왕가물이 계속되였으며 때아닌 무더기비도 많이 내렸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되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미칠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그 어떤 가물이 들어도 전력생산에서 파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사에서 계속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농번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보장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서며 그러자면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된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증대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며 갈수기에도 전력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전력을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동원되여 한키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고 극력 아껴쓸 때 그 어떤 왕가물도 이겨내고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으며 경제적파동을 모르는 우리 인민경제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시위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전력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이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례없는 규모로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과거 보잘것 없던 우리 나라의 전력공업은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현대적인 대규모 수력발전소들과 화력발전소들이 새로 수많이 일떠서고 중소규모의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이 도처에 건설되여 강유력한 자립적인 동력기지가 꾸려졌다. 이리하여 우리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방대한 량의 전력을 정상적으로 생산해내고있으며 인구 한사람당 전력생산량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우리의 동력전사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발전설비들에 대한 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전반적인 발전소들에서 발전능력을 훨씬 높였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기를 극력 아껴쓰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 전력을 많이 쓰는 공업부문들에서 전력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생산공정을 전환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전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에게는 또한 발전설비를 비롯한 필요한 전기기계설비들을 다 자체로 만들수 있는 튼튼한 기지가 있으며 전력생산량을 계속 높일수 있는 자원도 풍부하다.

문제는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의 광범한 대중이 전력의 증산과 절약 투쟁에 어떻게 동원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동력전사들과 온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이미 마련된 동력기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그것을 보다 확대강화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며 전력을 극력 아껴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때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력의 증산

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력의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된 립장에 더욱 튼튼히 서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근로자들이 우리의 모든 재부가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고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조금이라도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애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0페지)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며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이며 나라살림살이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답게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며 맡겨진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는것은 전력관리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전력관리는 기술적으로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나라의 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된 조건에서 누구나 임의의 시각에 전기를 손쉽게 리용할수 있으며 그것을 랑비한다 하여도 쓰는 사람은 당장 크게 느끼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력리용에서는 그 어느 공동재산리용에서보다 주인된 높은 자각이 요구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전력의 증산과 절약 투쟁을 실속있게 벌릴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전력을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극력 아껴씀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력을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동력전선을 지켜선 영예드높이 자기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동력전사들은 높은 정치적자각과 충성의 열정을 지니고 전력의 증산과 절약 투쟁의 앞장에 섬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전력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속도전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이다.

빨리 늘어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와 시설들을 철저히 정비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대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동

력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75페지)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민경제의 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지금 있는 발전설비들을 잘 정비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다. 이미 마련된 발전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만 방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전력생산을 부쩍 높일수 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현시기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화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화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전력이 곧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귀중한 동력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동력전사들은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때에 잘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켜 발전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보다 적은 석탄과 중유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야 한다.

오늘 전력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공장, 기업소들이 가지고있는 중소형화력발전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자체의 화력발전설비를 가지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발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한키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화력발전소들과 함께 수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력발전소의 동력전사들은 언제와 수로를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을 잘 정비보강하여 한방울의 물이라도 허실하지 말고 수차의 효률을 계속 높여 높은 수위, 높은 효률점에서 발전기를 운전함으로써 같은 물을 가지고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만년대계의 대규모 화력발전소들과 수력발전소들이 도처에서 광범히 건설되고있다.

지금 진행하고있는 이러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겨야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전력수요를 더 빨리,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발전소건설장들에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요건설대상에 힘을 집중하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금 진행하고있는 발전소건설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수력자원과 석탄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 있는 발전소들에 만부하를 걸고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필요한 연료,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는것이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어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매일매일의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며 선별대책을 철저히 세워 석탄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들의 건설과 보수에 필요한 설비, 자재 생산을 담당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맡겨진 과제를 품종별, 규격별, 시기별로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전문렬차수송과 집중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발전소들에 가는 물동을 책임적으로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의 불길을 높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

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줄수 있게 하여야 하며 나라의 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전력을 최대한으로 아껴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리 늘어나는 동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일련의 새로운 동력기지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를 극력 절약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548폐지)

전기절약이란 결국 전력을 생산하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전기를 절약하면 그 생산에 필요한 연료나 물을 그만큼 절약하게 되며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 그 전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쓰게 된다. 한편 전기를 절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력을 많이 생산하여도 밑빠진 독에 물을 퍼넣는것과 같게 되며 빨리 늘어나는 동력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게 된다.

전기절약투쟁은 오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방대한 량의 전력을 생산해내고있는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쓰고있는 전력을 1%만 절약하여도 그것은 실로 방대한 량에 달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보탬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전기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금속, 화학 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부문들에서 전력소비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추는데 있다. 전력을 많이 쓰는 부문들에서는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를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원료를 철저히 정선하여 쓰며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받아들이고 생산조직을 짜고듦으로써 제품단위당 전력소비를 극력 낮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열을 쓰는 공정을 전열을 적게 쓰거나 안쓰는 공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전력을 써서 생산한 물, 공기, 가스 등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쓰거나 필요이상의 높은 촉수의 전등을 써서 전력을 랑비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송배전시설들을 제때에 철저히 보수정비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며 우리 근로자들의 고귀한 구슬땀이 스며있는 귀중한 전력을 아껴쓰지 않고 랑비하는것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강한 투쟁과 엄격한 통제가 배합되여야만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력관리사업을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고 전력을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각급 지방정권기관들과 전력사용을 감독통제하는 기관들에서는 사상교양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옳게 결합하여 전력리용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모든 기관, 기업소, 거리와 마을, 가정들에서 전력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전력을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의 동력전사들과 온 나라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악당의 《유신체제》는 살인폭압과 민족분렬의 체제이다

정 리 근

지금 남조선에서는 력사에 류례없는 암흑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장기《집권》과 파쑈독재에 환장이 된 박정희괴뢰도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민들을 그 어느때보다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민주세력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파쑈독재가 살판치는 남조선에서는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학원의 자유를 주장하는 청년학생들과 민주주의를 념원하는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까지 체포투옥되고 무참히 살해당하고있다. 박정희파쑈악당들이 얼마전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한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고 계속 박해를 가하고있는 사실은 《유신체제》의 포악성과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날이 갈수록 박정희괴뢰악당의 파쑈폭압만행과 민족분렬책동은 횡포해지고 《유신체제》의 반민족적이며 반동적인 본질은 더욱더 드러나고있다.

* *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극악한 《유신체제》의 반동성이 세상에 더욱더 드러나고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게 되자 이른바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유신리념》이라느니 《유신체제》는 남조선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제도》라느니 하면서 그것이 마치 개인과 계급을 초월한 그 어떤 《제3의 민주주의》인듯이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최근년간 박정희괴뢰도당이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질 때마다 할부로 줴치는 정치적궤변이다.

그러나 놈들은 어떠한 교활한 기만술책으로써도 《유신》독재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파쑈독재에 아무리 분칠을 하여도 그것이 민주주의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원래 모든 착취자들의 독재는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며 그들의 민주주의는 한줌도 못되는 착취자, 통치배들의 민주주의이다. 계급을 떠난 독재가 없는것처럼 계급을 초월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에 세워진 《유신체제》는 현대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지테로통치의 전형으로서 그것은 부르죠아독재에 군사깡패들의 독재가 첨가된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군사파쑈독재이다. 결국 《유신체제》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과 정치적지배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가장 악랄한 폭압체제이며 가장 반동적인 통치형태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줴치는 《민주주의》요, 《유신리념》이요 하는것은 《유신》독재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고 제놈의 1인파쑈폭압과 매국배족행위를 합리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노예화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들의 《유신체제》는 가장 포악한 살인폭압체제이다.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의 산물로서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놈은 미제의 식민지

정책의 요구에 따라 그에 장애로 되는 모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고 제놈의 파쑈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유신체제》를 꾸며냈다.

박정희피뢰도당은 《유신체제》를 세우면서 정치적으로는 파쑈독재를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실현하며 경제군사적으로는 《실력배양》을 하여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사상문화적으로는 인민들에게 노예적굴종사상과 《반공》의식을 주입시켜 《내부결속》이라는 간판밑에 이른바 《국민총화》를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승공통일》야망을 이룩하려고 꾀하였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장기《집권》을 위한 파쑈통치를 강화하는데 두고있다.

《유신체제》가 파쑈폭압체제라는것은 그 조작경위와 그 이후의 사태발전이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것을 날조한 다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들은 〈비상계엄령〉이요, 〈긴급조치〉요, 〈갑호경계령〉이요 하고 이루 셀수없이 많은 폭압조치들을 련발하면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21페지)

다 아는바와 같이 총칼로 피뢰정권을 가로챈후 폭력과 협잡의 방법으로 《권력》을 지탱해온 박정희역적놈은 1972년에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을 펴고 이른바 《헌법개정》놀음을 벌렸으며 그것을 《10월유신》으로 표방하였다.

이미 《집권》초기에 일본상전을 찾아가 《명치유신》을 일으켰던 《근왕파》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맹세를 다진 박정희역적놈은 친일매국사상이 골수에 깊이 배여있는 사대매국역적으로서 그 간판마저 《명치유신》을 본따 《10월유신》으로 내걸고 이른바 《체제개혁》을 단행하였던것이다. 박정희역도는 가장 반동적인 《유신헌법》을 조작하고 립법, 사법, 행정, 군사 등 모든 권력수단을 다 틀어쥐고 무제한한 권한을 제놈에게 집중시켰다.

박정희역적놈은 또한 종래의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선거제》를 제놈의 졸개들로 꾸려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제》로 고쳤으며 그 임기도 4년으로부터 6년으로 늘이고 류임한계를 없애버림으로써 사실상 종신《대통령제》를 만들어놓았다. 그뿐아니라 제놈이 조작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국회》우에 타고앉게 하였다. 대만의 장개석이 종신《총통》자리에 앉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이른바 《국민회의》를 모방했다고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란 철두철미 《반공》광신자들로써 꾸려진 박정희역적놈의 어용통치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최고의결권》을 틀어쥠으로써 《국회》는 사실상 피뢰정부의 무기력한 부속물로, 독재자의 《시녀》로 전락되였으며 아무때나 해산당할수 있게끔 되여버렸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놈들의 《유신》놀음은 처음부터 세계인민들로부터 《민주주의의 마지막흔적마저 가셔버리》는 파쑈행위로, 《민주주의의 죽음》으로 조소와 비난을 받고 배격당하였던것이다.

박정희역적놈이야말로 평생을 1인독재의 《총통》으로 군림하였던 에스빠냐의 프랑코나 대만의 장개석도당들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파쑈독재자이며 아무런 정치적신념도 없는 인간쓰레기이다.

《10월유신》을 통하여 모든 권력을 틀어쥔 박정희피뢰도당은 《유신》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파쑈폭압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애국적인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해나섰다.

박정희역적놈은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파쑈폭압기구를 정비보강하고 관권을 완전히 폭력화하였으며 악질적인 군사깡패와 테로분자들로써 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남조선에서 《중앙정보부》는 《보이지 않는 정부》로, 인민탄압의 본거지로 되고있으며 그 특무들은 사람들이 움직이

는 모든곳에 다 박혀있으면서 그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조금만 거슬려도 마구 체포투옥하고 고문학살하고있다.

인간도살을 업으로 삼고있는 박정희역도는 도처에 《중앙정보부》특무들을 박아넣고도 부족하여 괴뢰군병력과 괴뢰경찰 및 경찰정보원들을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는데로 내몰고있다.

사실상 군사파쑈독재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란 도대체 그 어떤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남조선에서와 같이 40여만에 달하는 《중앙정보부요원》, 5만의 경찰과 30여만의 경찰특무, 70여만의 병력으로 유지되는 가장 횡포한 군사파쑈체제하에서 정치적자유는 상상조차 할수 없으며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은 항시적인 공포분위기속에 휩싸여있으며 가족, 친척 사이에도 속에 있는 말을 주고받을수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체제》를 확립한다는 구실밑에 살인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개악하였거나 새로 만들어냈다. 놈들은 《10월유신》이후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근 300건의 파쑈악법들을 꾸며냈다. 이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립법》과정을 거치려면 몇년이 걸려야 할 엄청난 수자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파쑈악법은 무려 5천여건에 달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파쑈악법조작책동에 의하여 《개정헌법》을 비롯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국회개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력사에 없는 별의별 악법들이 나오고 《사회안전법》과 같은 전시악법들과 《긴급조치》같은 법아닌 《법》까지 나와 남조선인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얽매여놓고있다. 이 모든 파쑈악법들은 례외없이 인민들을 《유신》형틀에 결박하고 박정희역적놈의 파쑈폭압만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1인독재체제를 허용하는 보증서》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체제》를 꾸며놓고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휘둘러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하며 반대파세력을 제거하는데 더욱 미쳐날뛰였다. 남조선에서 파쑈적탄압은 전적으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애국적민주력량을 제거하는데 돌려지고있다. 모든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언론, 출판 기관들이 파쑈통치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박정희파쑈악당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운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학살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대중적시위를 벌렸다 하여 괴뢰군을 풀어 대학을 점거케하고 페쇄하며 무고한 청년학생들을 체포학살하는것과 같은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외래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되여 인민탄압과 살륙을 일삼아온 민족반역자, 파쑈교형리만이 할수 있는 만행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4년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의로운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섰을 때에만 하여도 《민청학련사건》이라는것을 꾸며내여 4천여명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무리로 처형하였으며 그후 8명의 인민혁명당 성원들을 그 《배후조종세력》으로 몰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또한 이 파쑈악당들에 의하여 《유신》독재를 반대한 《100만명서명운동》의 발기자의 한사람은 산속으로 유인되여 참살당하였고 량심적인 교수는 감옥에서 학살당하였다.

모든 사실은 박정희파쑈무리들이 남조선의 애국력량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체 요소들을 제거말살하고 《유신체제》를 부지하기 위해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특히 얼마전 놈들이 남조선의 현암흑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해나선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에게 《국가반역죄》를 들씌워 야수적으로 처형하는 파렴치한 파쑈적공세를 감행한것은 바로 《유신체제》의 반동성과 정치도덕적위기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문제로 삼고있는 민주인사들

로 말하면 그들은 《선언》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였을뿐이다. 이것이 죄로 될수 없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이 그들에게 중형을 들씌운것은 앞으로 오래동안 정치적적수들과의 대결이 없이 종신《대통령》을 무난히 해먹으려는 더러운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인권유린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행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의 광범한 여론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처형만행을 《전체 문명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인류문명을 더럽히는 만행》으로 단죄하고있는것이다.

날로 우심해가고있는 박정희파쑈무리들의 폭압만행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은 모든것이 《유신》형틀에 얽매이고 초보적인 인권과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페허지대로, 살인감옥으로 전변되고말았다.

실로 《유신체제》야말로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온 남조선땅을 피바다에 잠기게 하는 파쑈폭압체제이며 인간백정의 체제이다.

남조선의 《유신체제》는 또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꾀하는 분렬체제이며 대결체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 역시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은 미제와 한짝입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6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 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범죄적목적밑에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 역시 어느 한때도 나라의 통일을 바란적이 없으며 미제와 한짝이 되여 민족의 영구분렬과 제놈의 장기《집권》만을 꾀하여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0월유신》을 조작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 무슨 《평화통일체제》를 갖추기 위한것인듯이 떠벌였다. 그러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저들의 더러운 속심을 감출수 없었다. 사실은 언제나 명백하고 엄연한것이다.

《10월유신》은 어디까지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의 산물이며 《유신체제》는 조선의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것이다.

《유신체제》가 민족의 분렬과 대결을 위한 체제라는것은 그것을 조작하게 된 목적자체가 잘 말해주고있다.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평화통일열망이 비상히 높아졌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더욱 열렬히 흠모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끝없이 동경하게 되였으며 민심은 한결같이 북으로 쏠리게 되였다.

이것은 사실상 박정희괴뢰도당의 《승공통일》책동의 총파산을 의미하였다.

정세발전에 당황망조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의 지향을 거역하고 모처럼 이루어진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모조리 뒤집어엎는 배신행위를 감행해나섰다. 놈들은 북과 남의 합의사항을 리행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자 1주일도 못되여 《유신》소동을 벌리고 인민들의 통일연망을 총칼로 탄압하는 한편 우리와의 《힘의 대결》을 부르짖으면서 전쟁과 분렬의 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놀음이 처음부터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꾀하는 분렬체제를 세우며 우리와 《힘》으로 대결하기 위한 대결체제를 꾸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10월유신》소동을 벌린후 오늘에 이르는 4년간은 놈들이 우리와 대결하기 위한 체제를 확립하고 민족분렬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해온 과정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

위협》의 구실밑에 《긴급조치》우에 《초비상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안보체제》확립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남조선에서 통일기운은 짓눌리고 통일의 전망은 다시 흐려지게 되였다.

《유신체제》가 민족분렬을 위한 체제라는것은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에로 끌어간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에 눌리여 마지못해 대화마당에 끌려나온 첫날부터 《대결》과 《경쟁》, 《공존》을 부르짖으면서 동족간의 적대감을 고취하며 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남조선괴뢰들의 민족분렬책동은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6.23특별성명》이라는것을 내놓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정책화하여 공공연히 선포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국제화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온갖 비렬하고 추잡한 행위를 다 감행함으로써 저들의 분렬주의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사실상 박정희역적으로 말하면 미제의 총칼의 비호밑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어떠한 짓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더러운 민족반역자이며 조국통일과 같은 민족의 사활적문제를 해결하는데 끼여들 아무런 자격도 실권도 없는 철저한 제국주의식민지괴뢰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오늘에 와서 《통일의 비극이 분렬의 비극보다 크다》느니 뭐니 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해나서고있는 자체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놈들은 북과 남의 대화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고는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무슨 《회담》에 대하여 떠벌이자 그것을 되받아외우는 나팔수가 되여 《대화의 재개》를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내외여론을 기만하며 어떻게하나 저들의 분렬주의책동을 조금이라도 가리워보려는 허튼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북과 남의 대화를 반대한 일이 없으며 언제나 통일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할것을 거듭 제기하였다.

만일 남조선통치배들이 진실로 북과 남의 대화를 바란다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체포투옥한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하며 파쑈통치를 그만두고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야 하며 《반공》소동을 걷어치우고 련공을 하며 통일을 지향해나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박정희괴뢰도당에게는 나라의 평화통일이 안중에도 없고 《힘》을 길러 《승공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만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미제침략군의 무력증강과 괴뢰군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 《학도호국단》 등 각종 《민간군사조직》들을 강화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전반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반공》과 전쟁도발 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총력안보》의 간판밑에 다그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책동은 놈들이 지탱하고있는 《유신체제》가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위한 체제이며 《실력을 배양》하여 《승공통일》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전쟁체제, 대결체제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 *

남조선에서 파쑈폭압과 민족분렬의

체제인 《유신》독재는 결코 오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의 흐름을 볼 때 압박과 탄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파쑈통치가 오래 견디여낸 천례가 있습니까? 과거력사를 보아도 그렇고 현대력사를 보아도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13페지)

인민을 억압하는 압제자들은 각성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멸망하는 법이다. 지난날 구라파인민들을 노예화하려던 히틀러도당이 그러하였고 아세아인민들을 예속시키려던 도죠일당이 그러하였다. 또한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가 되여 파쑈통치를 일삼던 티우, 론놀, 리승만도당이 그렇게 되였다.

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오늘도 이자들의 전철을 밟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운명도 달리는 될수 없다.

반동들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민들의 각성은 더욱 높아지고 투쟁은 강화되기 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신》독재가 세워진 첫날부터 그것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으며 이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뿐아니라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등 광범한 계층속에서 완강히 벌어지고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밑에 남조선도처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의하여 《유신체제》는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이제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사회의 밑바닥에 쌓인 인민들의 불만과 울분을 더 이상 총칼로 내리누른다면 그것은 커다란 혁명적폭발을 가져오고야말것이다.

《유신》독재는 지배층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안으로부터도 곪아들어가고있다. 박정희역적놈의 《최고심복자》들사이의 갈등과 《보안대사령부사건》, 《해병대사건》 그리고 최근의 괴뢰군 전 《2군사령관》공판놀음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괴뢰지배층과 군부상층 내에서의 모순은 《유신》독재의 파멸을 더욱 촉진하고있다.

《유신》독재는 국제적으로도 더욱 강력한 규탄을 받고 막다른골목에 이르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유신》독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얼마전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박정희악당을 독재자로, 조선민족의 반역자로 락인하며 처형할것을 호소하는 기소장을 발표하였다. 미제의 뒤받침이 없이는 하루도 유지할수 없는 박정희역적의 《유신체제》는 미국국회와 광범한 사회계로부터도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념원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확고히 나아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청산되고 《유신체제》가 철폐되여야 한다는것은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의 강력한 요구로 되고있다.

력사의 흐름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청산되고 《유신》독재는 멀지 않아 끼꾸러지고야말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유신》독재를 칫부시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림으로써 반드시 최후승리를 쟁취하고야말것이다.

미제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의 횡포한 교살자

박 인 근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급속히 쇠퇴몰락하는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세계혁명적 인민들과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흉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하는 나라들과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쳐날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민족적독립의 흉악한 교살자로 등장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84페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유린말살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떼여놓을수 없는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모든 인민들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말살함으로써 그들에게 노예적운명을 강요하고 영원한 지배를 실현해보려하고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지난날 제국주의에 의하여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였으며 오늘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교살하기 위하여 그 어느 제국주의자들보다도 가장 횡포하게 날뛰고있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 진보적인민들의 독립과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세계도처에서 혁명하는 나라들, 진보적인민들의 자주권을 압살하기 위한 무력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해방후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총칼로 인민들의 자주권을 억누르고 그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놈들은 이 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에도 계속 남조선에 도사리고있으면서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의 혁명적나라들을 무력으로 강점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나섰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이곳에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과 각종 탄약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군사분계선일대에 배치하여놓고 우리를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한편 미제는 로골적인 《힘의 정책》으로써 우리 인민의 평화적조국통일지향을 가로막고있다. 미제는 나라의 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기한 공명정대한 모든 방침들을 덮어놓고 반대하고 그 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하여나서고있다.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통일문

제해결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자 미제는 그 무슨 《힘의 뒤받침》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해나섰으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대하여서도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더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는것으로써 대답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의 통일이 우리 인민의 의사대로 실현될수 없게 《힘》으로 억제하고있을뿐아니라 《교차승인》이요, 《4자회담》이요 하는것을 내들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범죄적인 국제적음모책동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으며 거기에 굴종해나설것을 강요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책동은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계속 빼앗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조국이 분렬되여 3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통일이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있기때문이다.

미제는 중근동과 아프리카에서도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압살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겨 무려 4차례의 반아랍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악랄한 군사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시나이반도와 요르단강서쪽의 아랍지역 및 수리아의 일부 령토를 계속 강점하고있도록 적극 뒤받침해주는 한편 이스라엘에 새로운 현대적무기를 대대적으로 넘겨주면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군사적도발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도록 추동하고있다.

다른 한편 미제는 《중근동문제의 평화적해결》이요 뭐요 하면서 아랍나라들에 기여들어가 이 나라들의 반이스라엘투쟁을 무마시키고 아랍인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이 지역에서의 반제전선을 허물어보려고 음흉한 정치군사적모략책동을 꾸미고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민족적권리가 회복되지 못하고있으며 아랍나라들의 민족적자주권, 령토완정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침략책동과 관련되여있다. 미제는 아랍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고있는 장본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아프리카에서도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말살하고 이곳을 저들의 아프리카침략을 위한 보루로 지탱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게 현대적인 살인무기를 대량적으로 넘겨주면서 그들을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나미비아, 아자니아 및 짐바브웨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는데로 적극 내몰고있다. 한편 놈들은 남부아프리카에 기여들어가 제놈들이 마치도 흑인다수파정권을 지지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독립》과 《번영》에 대하여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가장해나서면서 교활한 회유기만책동을 벌리고있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남부아프리카에서 민족해방력량의 무장투쟁과 반미반인종주의투쟁을 무마시키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하는 나라들을 반대하여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을뿐아니라 반제자주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는 신흥세력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하여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을 분렬, 리간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전복, 파괴 활동을 벌리고있습니다.》(《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

접국장과 한 담화》, 2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겁을 먹고 어떻게하나 이 나라들의 민족적자주권을 말살하고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여기에서 현시기 미제가 의거하고있는 교활한 수법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악랄한 분렬리간책동이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령토문제를 비롯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적리념과 신앙의 차이 그리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앞에 가로놓인 일련의 난관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 지역 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서로 싸우게 하며 그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책동을 감행하는데서 특히 경제적압력과 위협공갈책동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다. 미제는 식량과 무기 같은것을 가지고 롱간하면서 일부 나라들을 저들에게 끌어당기고있으며 반제자주적립장을 지키는 견결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로골적인 경제적압력을 가하고있다. 제국주의의 략탈로부터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자기 나라안에 있는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고 진보적인 사회경제적개혁을 실시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날로 로골화되는 경제적협박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또한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원조》를 끊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와 여러가지 국제문제를 토의할 때 미제가 《경제, 기술 및 군사원조》를 미끼로 저들에게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위협공갈해나선 사실, 지난해 12월 《국제경제협력회의》에서 미제가 《원조》를 미끼로 석유생산국들을 공공연히 위협해나선 사실 등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제의 경제적압력과 위협공갈책동은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이 나라들을 반제전선에서 떼내여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악랄한 침략행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교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있는 다른 하나의 악랄한 침략수법은 파괴전복활동이다.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적정부들을 반혁명적폭력으로 뒤집어엎고 저들의 추종자들과 괴뢰들을 그 자리에 들여앉혀 이 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우경에로 돌려세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미중앙정보국을 비롯한 수많은 첩보모략기구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는 파괴전복활동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있다. 3대륙의 모든 지역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는 미중앙정보국은 이 지역에서 반동적 군부상층과 종족상층부, 반인민적사회세력을 매수규합하여 친미주구로 만들기 위한 모략첩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는 한편 진보적인 정권을 반대하는 군사적반란을 끊임없이 조작하며 민주인사들에 대한 악랄한 파쑈테로행위를 일삼고있다. 칠레의 진보적인 알옌데정부를 전복한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비롯하여 3대륙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많은 반혁명적군사정변들은 그모두가 다 미중앙정보국에 의하여 계획되고 감행된것이다.

미중앙정보국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국제적테로행위는 얼마전에 바베이도즈 해안상공에서 꾸바려객기를 폭파시켜 평화적사명을 띠고 려행하던 우리 나라와 그리고 꾸바, 가이아나인들을 비롯한 70여명의 려객들이 집단희생을 당하게 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해나선데서도 날날이 드러났다.

미제가 제2차세계대전후 3대륙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감행한 백여차례의 류혈적인 군사정변과 끊임없는 살인, 폭압 만행은 놈들이 진보적인민들의 독립과 자주권을 반대하여 얼마나 악착스럽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의 악랄한 파괴전복활동에 의하여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이 직접 위협을 당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사회경제적발전은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민족허무주의와 숭미사상을 고취하며 《반공》사상과 썩어빠진 양키식생활양식을 주입시킴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식민지올가미를 다시 들씌우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처럼 혁명하는 나라들, 진보적나라들의 독립과 자주권을 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더욱더 횡포하게 날뛰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에 대하여 떠벌여대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세계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본업으로, 주되는 생존수단으로 삼아온 양키조상때부터의 고유한 강도적본성이다.

미제의 조상들은 일찌기 아메리카대륙에서 원주민들인 수많은 인디안종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피바다우에 강도의 나라를 세운 이래 끊임없는 민족멸살정책으로써 제놈들의 령토를 확장하였으며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그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놈들은 독립후 20세기초까지 200년도 못되는 기간에 타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려 114차의 살륙적인 전쟁, 8,600차의 류혈적인 전투행동을 감행하였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된 미제는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반대하여 가장 횡포하게 날뛰였다. 놈들은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밑에 민족해방투쟁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자주권을 반대하여 로골적인 무력간섭과 전복파괴활동, 《원조》를 통한 지배와 략탈, 사상문화적침투와 같은 악랄한 침략책동으로써 세계도처에서 구식민주의자들을 구축하고 식민주의의 《제왕》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력사는 미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 자주권을 짓밟고 불행과 재난, 고통을 주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참으로 지구상에는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이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의 가장 횡포한 교살자이며 전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다.

미제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유린말살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안팎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는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오늘 세계의 대세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혁명하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세계사회주의력량의 강화와 신흥세력의 출현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지배령역은 현저히 좁아지고 그 정치경제적지반은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다. 미제는 날로 앙양되는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쫓겨나고있다.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밑에 감행되여온 미제의 대외침략정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다. 미제는 미국안에서도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사회계급적모순과 정치

적불안정성, 파국적인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진통을 겪고있으며 갈팡질팡하고있다. 미제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로부터의 출로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는데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나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함으로써 이 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하며 이 지역에서 이미 잃어버린 저들의 옛지위를 다시 차지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3대륙에 대한 흉악한 침략야망을 품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이 지역 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번영,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위협을 면할수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려야 한다.

* *

미제는 저들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갖은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교살책동을 강화하고있으나 이로부터 놈들이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차례질것은 오직 더 큰 타격과 멸망뿐이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투쟁의 시대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움직여나가고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않는다.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며 착취와 략탈을 일삼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반대하는 침략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더욱 세찬 항거에 부딪칠것이며 그것은 놈들의 쇠퇴몰락과정을 급속히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미제는 저들의 처지가 어렵게 되고 멸망에 가까와갈수록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놈들의 음흉한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기대도 있을수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맺은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놈들과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경제적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는것이 필요하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은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전략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하고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13페지)

단결과 협조는 신흥세력인민들의 가장 힘있는 무기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는 현시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국제자본의 련합된 세력으로써 신흥세력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오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전략에는 반드시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놈들을 타승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에서 정치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철저히 지켜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긴밀히 협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긴밀한 경제적협조는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을 끝장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할수 있는 훌륭한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인구와 령토의 대부분을 포괄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은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많이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도와주고 배우면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모든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압력을 물리칠수 있을뿐아니라 놈들의 멍에를 졸라맬수 있으며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고 나라의 륭성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흉악한 미제는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통하여 진보적나라들의 내부를 혼란시키고 이 나라들을 반제자주의 길에서 떼여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인민들은 미제에 빌붙어 살아가는 더러운 앞잡이들을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며 놈들의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과 간섭도 짓부시고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며 제국주의가 없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을것이다.

우리 당은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것을 자기 대외정책의 일관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3대륙의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으로써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자주성을 옹호하여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유린말살책동은 총파산을 면할수 없으며 놈들은 반드시 종국적으로 멸망할것이다.

근로자 1976년 제12호(루계 41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12월 1일 발 행 • 1976년 12월 5일

ㄱ—65472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1976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 페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편집국론설

혁명전통

당 건 설

정치사상문제

경 제 건 설

남조선문제

국제문제